



건축사

1997 **08** vol. 340

칼럼 _____ 건축서론

작품리뷰 _____ 웨스틴 조선호텔 H빌라

특집 _____ 좌담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검열」 -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건축 _____ 외국의 건축가 [4] - 달러 & 스코피디오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피복두께 (mm)		지정
		건축용	공업용	
보 기둥	1시간	20	15	제 1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 분사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함빌딩
TEL (02)559-8181 FAX (02)552-6224
부산지점 : TEL (051)512-8181 FAX (051)516-9343
광주지점 : TEL (062)268-8181 FAX (062)268-8186

정보화 시대를 위한 올바른 건축 방법

건축물의 케이블 TV 수신 설비는 의무입니다.

전화나 전기처럼 케이블TV 수신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케이블TV 수신설비의 설치에 현행 건축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98조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케이블 TV 수신시설을 TV공동시청 안테나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건축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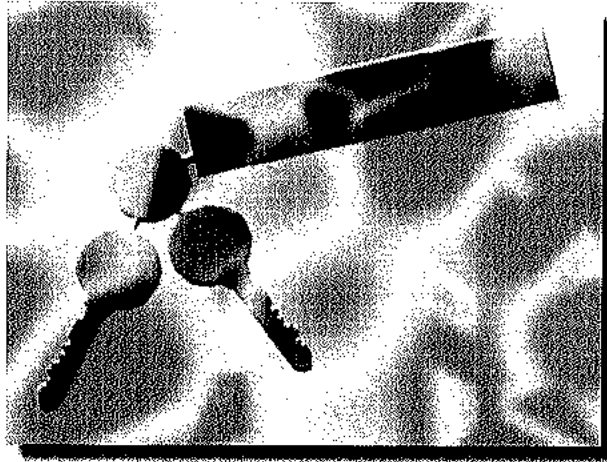
TV 공동시청 안테나 결합방법은 화질이 불량하거나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청자와 방송국간의 양방향 통신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케이블TV 수신설비를 TV공동시청안테나와 별도로 분리하여 국산 3중 차폐 케이블로 시설하면 보다 깨끗한 TV화질은 물론 앞으로 제공될 고속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원격 교육·방범·방재, 홈뱅킹, 화상전화 등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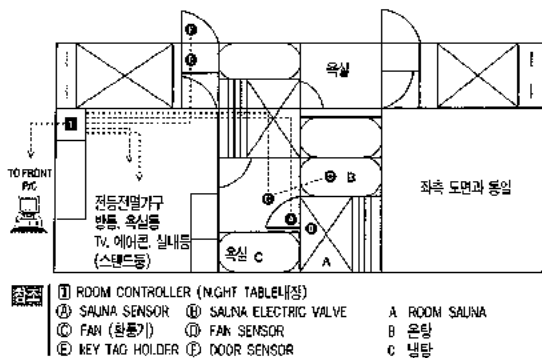
호텔, 모텔

숙박건축의 신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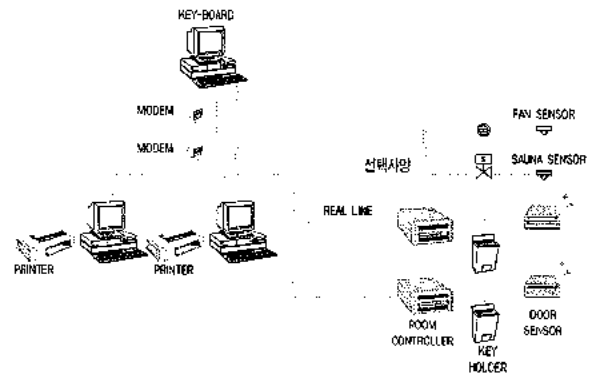
ROOM CHECKER GMS-2100 ISO 9001인증



객실 관리 시스템 구성



객실도면



시스템 특징

- 1. 간단한 설치**
기존 건물의 일부 개, 보수로 영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수일 내에 설치 가능합니다.
- 2. 용이한 조작**
화면 메뉴방식과 마우스를 이용 컴퓨터의 지식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조작 할 수 있습니다.
- 3. 저렴한 가격**
투자비를 6개월내 회수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드립니다.
- 4. 신속한 객실 현황 파악**
전 객실의 투숙, 청소상태 등이 PC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 되어 있어 종업원들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줍니다.

5. 에너지 절감

KEY - TAG HOLDER에 고객이 키를 삽입하는 순간에 객실의 전원이 공급되고 키를 빼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됨으로 전력 낭비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6. 에어컨 및 사우나 자동관리

고객이 입실하기전에 프론트 PC를 이용하여 객실의 에어컨 또는 사우나를 가동하여, 고객의 시설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우나를 사용하지 않을시는 지정된 시간내에 자동으로 작동이 중단됩니다.)

판매원



한국파워산업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6-15 성산 B/D503호
TEL : (02)424-0320 • FAX : (02)424-0350

제조원



한국파워산업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8
TEL : (0342)707-1986/1987 • FAX : (0342)707-1980



(주)중앙창호

본사·공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032)571-7771 Fax 575-6655
 목재사업부 (032)582-7771 Fax 571-7744
 건가구사업부 (032)583-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서울전시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린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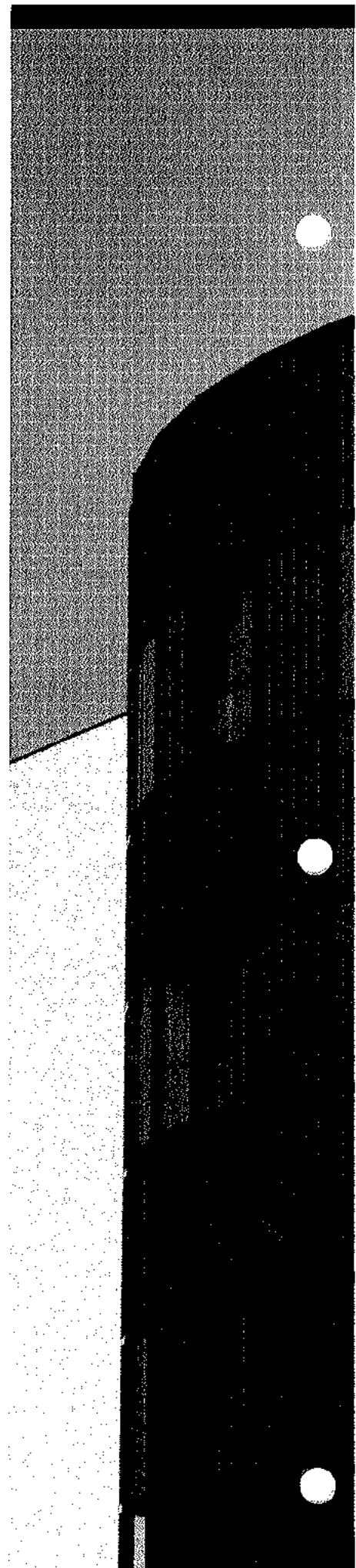
독일HARTMANN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절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신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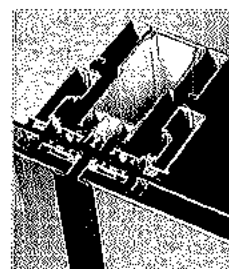
신공간

신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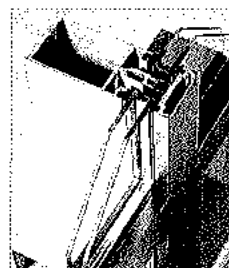
기술이 다르면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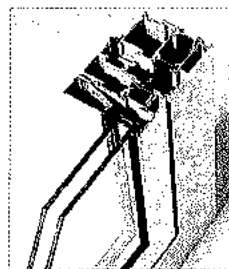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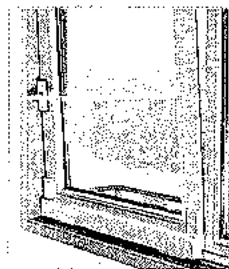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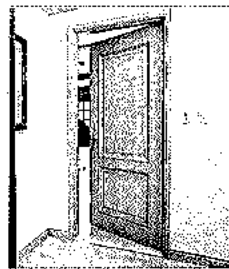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커튼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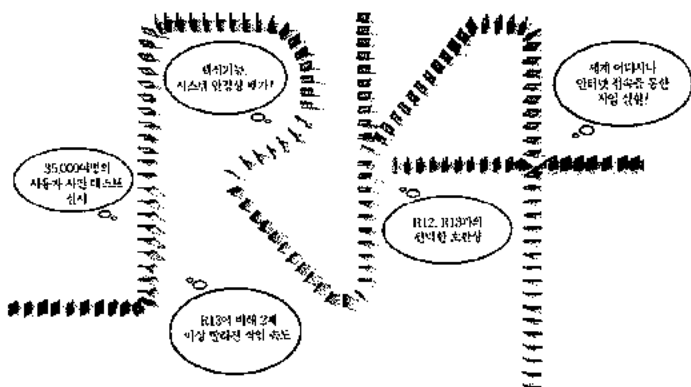


AutoCAD®

R14로 버전업!!

CIMCAD

AutoCAD® R14로 버전업되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 Object ARX 2.0을 이용해 Run Time Extension을 지원한다.
2. AutoCAD의 DCL을 사용하지 않고 Windows의 Resource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 및 기능이 개선 되었다.
3. 보다 빠른 속도로 CIMCAD를 사용 할 수 있다.
4. Windows 95와 Windows NT4.0을 지원하며 NT에서 최고의 기능과 성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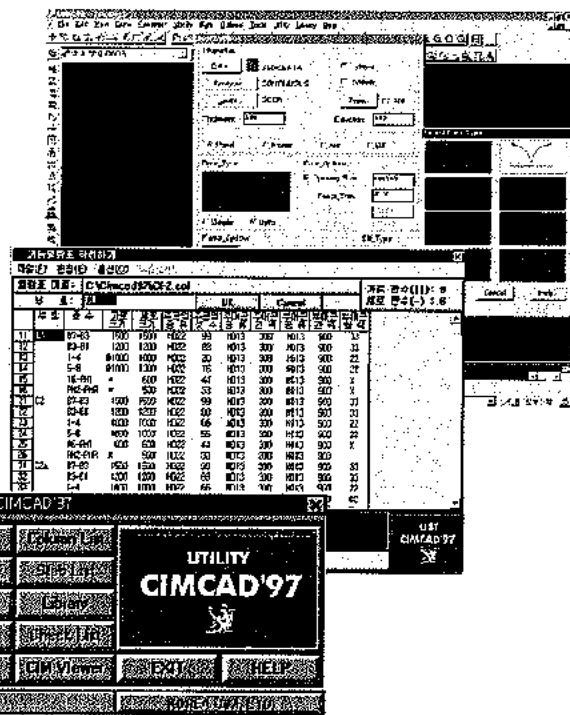
국내 최초, 윈도우용 건축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CIMCAD' 97

For AutoCAD R13, R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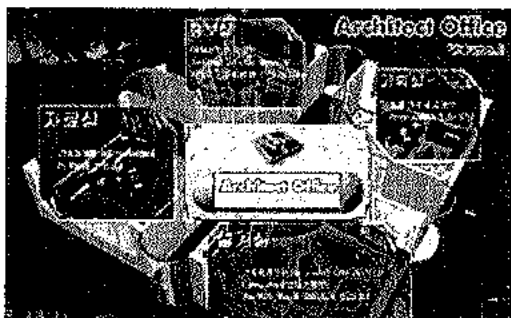
윈도우95용, 윈도우NT용 AutoCAD R14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국내최초, 최적의 윈도우용 AutoCAD 애플리케이션, CIMCAD' 97은 빠른 속도, 간편한 작업방식의 국내최초 건축설계용 그룹웨어 Architect Office와 함께 제공됩니다. Architect Office는 건축설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장의 CD-ROM으로 통합하여 모든 사용자들의 설계업무 효율성에 일대 혁신을 불고울 것입니다.

- LIST자동작성기능
- 명령의 단순화
- OBJECT COMMAND 기능
- Dialogue BOX에서의 모든 도면 제어기능
- 설치 및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 편리한 Viewer 제공



국내최초 건축설계용 그룹웨어-

Architect Office vol.1



한국씨·아이·엠의 Architect Office는 건축설계 작업에 필요한 유틸리티와 정보가 설계실, 자료실, 기획실, 홍보실 등 4개의 방에 집약되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건축설계용 그룹웨어입니다.

■ 특징

- Window95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 사용자에게 유용한 Utility 다수 포함
- 자동전화 걸기, 명함판, 전화번호부, 일정표 등 필요한 개인 Data의 보관 및 관리 기능
- 건축업무에 관련되는 설계비 산정, 인허가 양식, 도면 검색 관리기능등이 포함

알립니다

- CADJOY(CIMCAD' 97 NEW버전가칭) 발표예정(97년 9월경)
- Architect Office vol 1.1 Rebuilt Version 발표예정
- Upgrade Promotion (97년 5월15일~5월 30일까지)
-Upgrade R13 to R14 : 25만원
-Upgrade R11, R12 to R14 : 40만원 <VAT별도>

건축용 캐드시스템 전문회사
한국씨·아이·엠(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3층
TEL: 515-3167 (대표) FAX: 515-3169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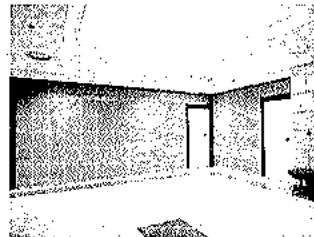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공인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시스템을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라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힐호텔
- 숙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外 100여 업체 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 · 창호 · 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 · 제작 · 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 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3동 154-7

T E L : 838-4545(代)

F A X : 838-0474

공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 B/L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한국통신. 조달청. 한일은행. 대법원. 도시개발공사. 신한은행. 한국마
사. 제주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KBS). 인천지하철공사. 농수산물도
매사중관리공사. 문화부체육부문화재관리국. 엘지건설(주). 임광토건
(주). 경향건설(주). (주)금호엔지니어링. (주)대우. (주)미도파 건설
· 현대건설(주). (주)삼성건설. (주)인품. 삼환기업(주). 대륙토건
(주). 동국산업(주). 만이종합건설(주). 대우종합건설(주). 신대진 건
설(주). 명진건설(주). 임광토건(주). 한국이동통신. 한국주택은행. 중
소기업은행. 법무부. 수전공사. 서울대학교. 중앙경리단. 한국전
력공사. 동부교육청. 제신청.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 (주)현대ENG
· 삼성엔지니어링(주). 신동아종합건설(주). (주)삼익건설. 현대산업개
발(주). LG화학연구소. (주)삼한까뮈. (주)프리스건설. 쌍용건설(주)
· 대국종합건설(주). 두산건설(주). 금호건설(주). 삼풍건설(주). 선경
건설(주). 조달청.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정부시설공사 EMS-1,2,3,4 선정
지속적인 UPGRADE
지속적인 사후관리
절저한 교육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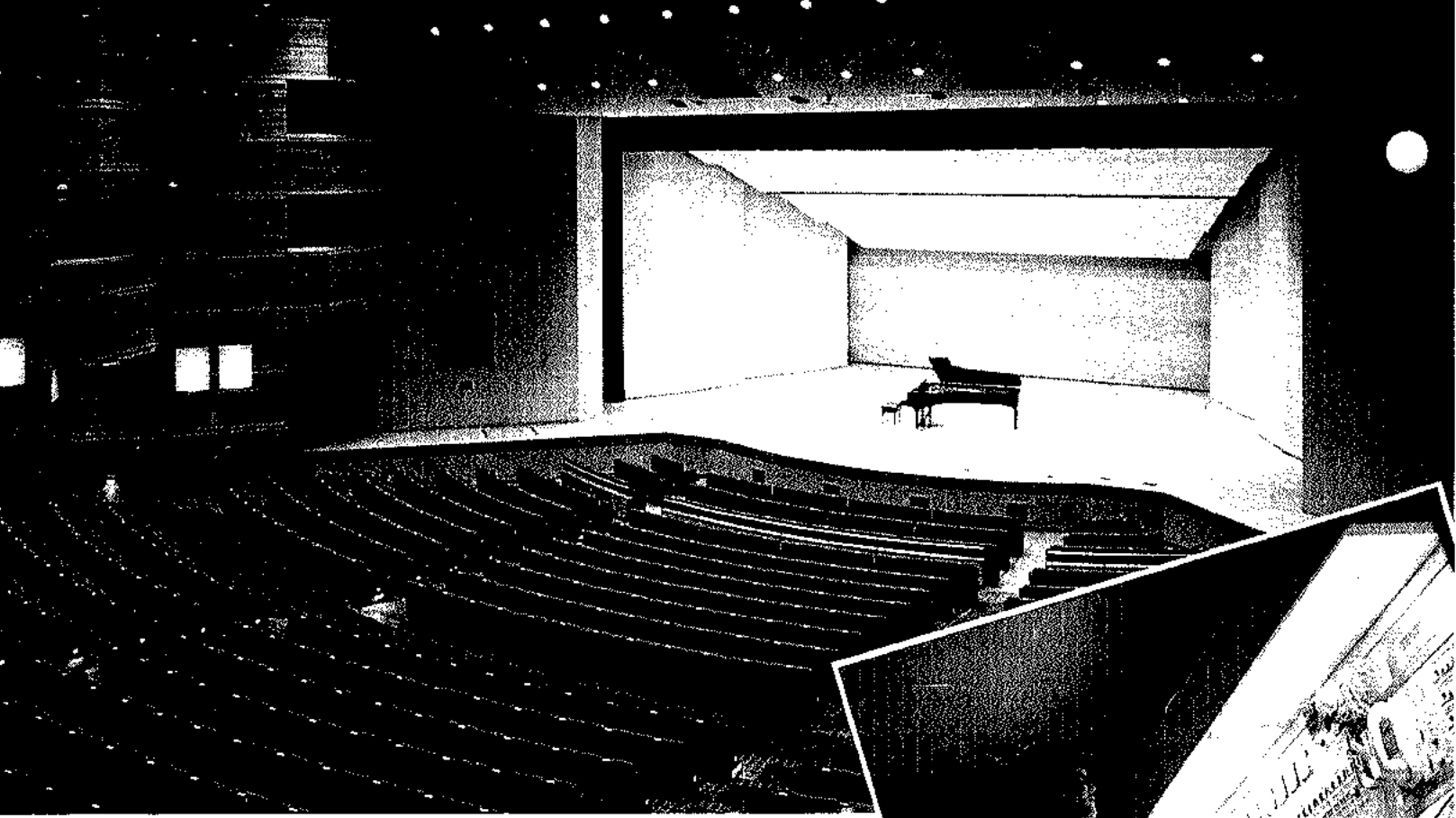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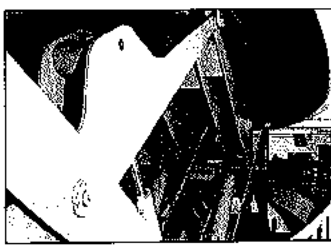
· 공무원연. 한국물가정보. 한국은행. 농림수
신부농업공. 경관리공단. 거왕개발
(주). 삼환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사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셰라톤워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과천시민회관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원주지악문화예술회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 센터 예술 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강원대학교
- 충북문화 예술회관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967-4184, (02)632-0216

해외에서도 호평받는 대림 미라톤

새로운 개념의 항균미라톤 탄생!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 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mira-ton

첨단 건축용 신소재 미라톤은
이태리Breton사의 세계 특허
공정으로 대림이 생산 합니다.

● 제품의 특징점

천연석이 표출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 수 있습니다.
충격이나 마모, 화학 물질에
강합니다.
두께: 12mm, 15mm, 20mm, 30mm
크기: 3mx1.2m범위내
건축용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싱크대, 세면대, 탁자등)
에도 쓸수 있습니다.



● 항균미라톤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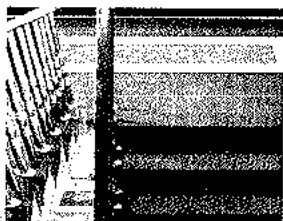
Bioceramic으로 알려져 있는 Aluminosilicate계 당체에
항균성 금속이온을 담지시킨 무기 항균제를 투입하여 진동
압축 성형한 제품으로 항균 지속성이 기존 표면처리 제품에
비해 탁월 합니다.
또한 항균 미라톤은 내구성 시험(대장균, 녹농균, 폐렴균)후
사멸률 98%이상 이 입증되었습니다.

● 항균미라톤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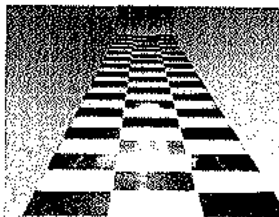
건축 마감재로서 일반 사무실, 병원, 식당등 위생이 필요한
장소에 폭넓게 쓰입니다.

● SF(Sanitary Finished: 위생가공) 마크판?

정부 공인 기관의 부설 FITI소비과학센터에서 우수 항균
제품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정성을 보증해 주는 신뢰 마크
입니다.



제주 세원 빌딩-계단



일본 르네상스 호텔
-바닥 패턴 디자인



신당동 한성 빌딩 -ELEV.
바닥 및 벽체 디자인

쾌적하고 중요한 삶의 창출



대림그룹
대림테크노주식회사

본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146-12 대림산업빌딩
Tel: (02)725-3501~9
Fax: (02)736-2903

조치원:
충남 연기군 서면
부동리148
Tel: (0415)62-8101~4
Fax: (0415)62-8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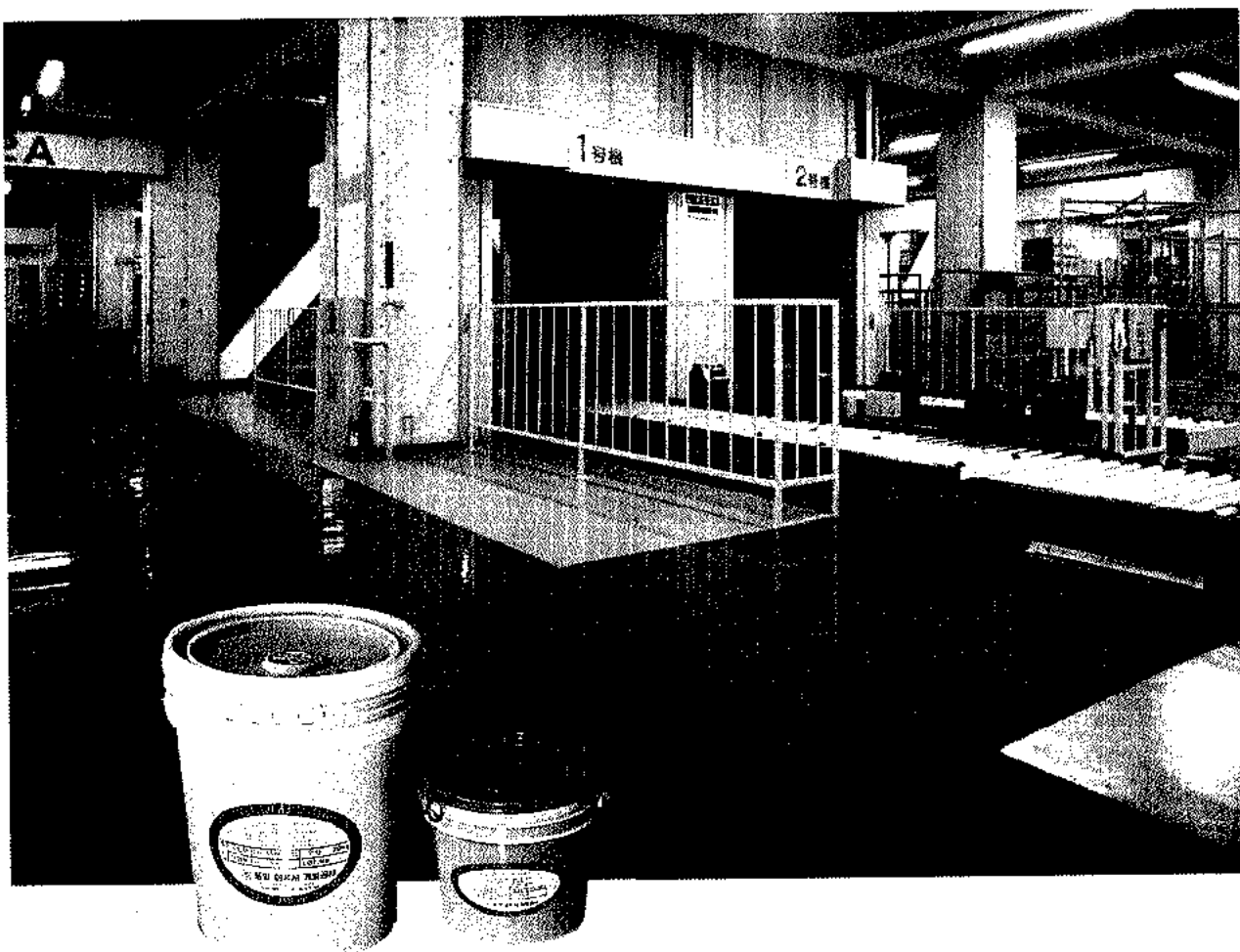
동경사무소:
Tel: 81-3-3580-4415
Fax: 81-3-3595-3225

인터넷 주소:
HTTP://www.
dcp.co.kr

기적의
신소재

항균 EPOXY TH-5100

최근 위생관념이 강해지면서, 항균물질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항균이라는 것은 항생물질과 같이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TH-5100은 기존의 에폭시 제품에 은을 함유한 항균제를 넣은 새로운 에폭시 제재입니다. 에폭시는 건축마감재로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항균에폭시는 공중위생적인 측면에서 물탱크, 식당의 바닥재, 식품제조 공장의 바닥, 벽, 천장등에 처리하면, 유해세균에 대한 우려가 대폭감소될 것이며 보건 위생및 산업체 생산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식품제조 산업체
공장 바닥재

위생시설 바닥재

적용분야

음료용수 저장고(TANK)
관로등의 내부마감재

반도체공장
특수분야의 멸균실
내부마감재

아이스크림 제품류 공장, 과자류, 식육제품류, 어육제품류, 두부류, 면류, 다류, 청량음료류, 특수영양식품류, 건강보조식품류, 조미식품류, 인삼제품류, 김치, 절임식품류, 주류, 건포류, 기타 식품류, 물탱크 및 관로, 식당 주방등, 멸균이 필요한 작업장 등

TH-5100의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중 일부 내용

사진 1

에폭시와 TH-5100으로 처리한 비이커에서 15일간 대장균을 배양시킨 모습. TH-5100으로 처리된 비이커(왼쪽)에서는 바닥의 하얀 여과지가 보일 정도로 배양액이 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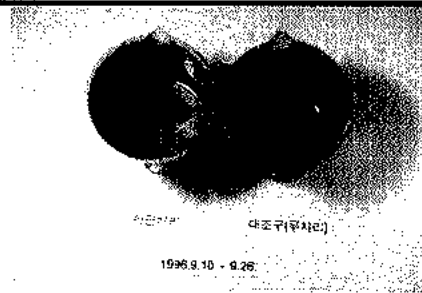


사진 2

배양을 잘보이게 하기 위하여 유리병에 넣은 모습. 항균처리한 것은 투명하다.



사진 3

일반에폭시와 TH-5100으로 처리한 비이커에서 수돗물에 배양한 살모넬라균의 수. 9시간 배양. (왼쪽) 일반 에폭시 10^2 (오른쪽) TH-5100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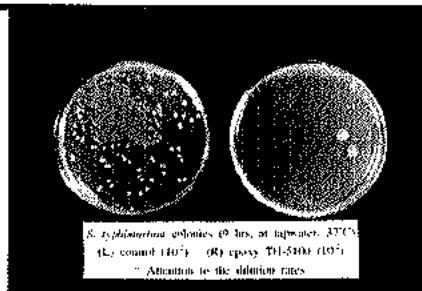


사진 4

일반에폭시와 TH-5100으로 처리한 비이커에서 수돗물에 배양한 살모넬라균의 수. 12시간 배양. (왼쪽) 일반 에폭시 10^2 (오른쪽) TH-5100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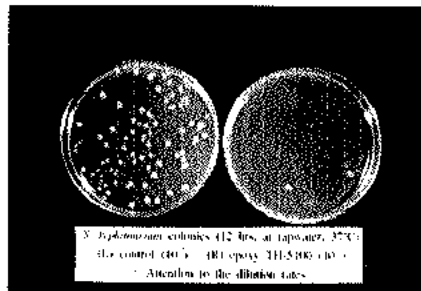


사진 5

일반 에폭시 처리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배양한 포도상구균의 모습. 3시간 배양. 많은 세균들이 보인다.(5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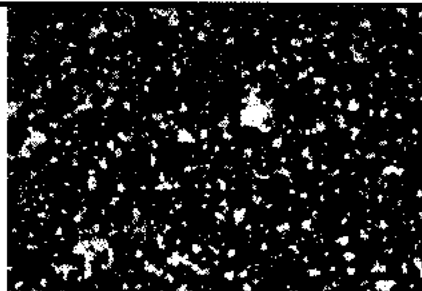


사진 6

TH-5100 에폭시 처리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배양한 포도상구균의 모습. 3시간 배양. 세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5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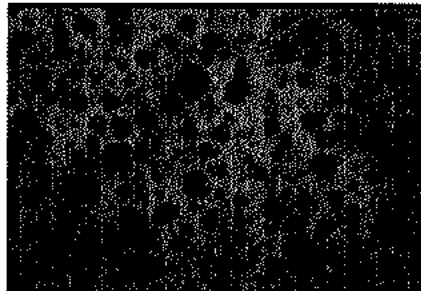


사진 7

일반 에폭시 처리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3시간 배양한 B. subtilis 균의 모습. 막대기 모양의 세균들이 많이 보인다.(5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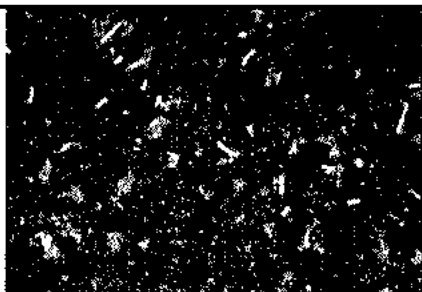


사진 8

TH-5100 에폭시 처리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3시간 배양한 B. subtilis 균의 모습. 세균들이 보이지 않는다.(500배)



살균 및 항균력

1. *Escherichia coli* 대장균
2. *Staphylococcus aureus* 포도상구균
3. *Pseudomonas aeruginosa* 녹농균
4. *Bacillus cereus* 고초균
5. *Candida albicans* 칸디다균
6. *Salmonella typhimurium* 장티푸스균
7. *Aspergillus* 흙곰팡이
8. *Staphylococcus aureus* (MRSA) 황색포도상구균
9. *Vibrio parahaemolyticus* 장염비브리오균 등

총판매원 & 시공원

G.T.C 그라우트 CO.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0-32
방배오피스텔 114호 217호
TEL (02) 521-9923-5 FAX (02) 525-5640

제조원

동양에폭시개발공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49
TEL (032) 681-6809 FAX (032) 673-7544

검증문헌

- * TH -5100 의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
연구기관: 강원대학교 무속 환경 연구소 (97.2)
연구소장: 교수 안태석
- * 시험결과 보고서
시험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96-TK-16337)
- * 발명특허 제41208호

R14 한글AutoCAD

Feel it!



R14는 유혹

당신이 AutoCAD R14와 처음 만나는 순간 빠르고, 스마트하고, 달라진 그 모습에 숨이 막힐 것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 「한글 AutoCAD R14」 새로운 모습, 그 끝없는 유혹 - 직접 느껴 보십시오. 「한글 AutoCAD R14」

Faster You save time. You try more ideas
우선 속도면에서 DOS 버전 R12는 물론 R13보다
물라보게 빨라져 작업시간이 대폭 감소됩니다. 또한 새로운 AutoSnap™과
탁월한 편집 기능이 작업단계를 단축, 드로잉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Wizards에 의한 자동 설치는 물론 새로운 Toolbar Shortcuts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까지 최적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제 단축된 시간으로 보다 많은 디자인을
전개하십시오.



Autodesk.

서울서강남구 역삼동 616 삼복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DESIGN YOU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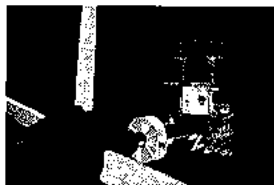
3D STUDIO VIZ

AutoCAD R14를 위한 가장 강력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

Take me!

초정밀세계의 1,000% 표현자유!

기계설계용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리젠테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 3D Studio VIZ™



세서 시스템에서도 빠르고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초정밀 기계부품 분야의 성공적인 3차원 개념 설계와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3D Studio VIZ로 해결하십시오.

Drag & Drop System

사용하기 쉬운 Drag & Drop 방식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설계 프로젝트에서의 공동작업을 촉진시켜 드립니다.

Windows NT의 성능과 속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 구조, 완벽한 멀티쓰레딩 방식의 3D Studio VIZ는 진정한 32-bit 객체지향형 응용 프로그램이라

Windows 95는 물론 단일 프로



고유의 AutoCAD 파일 지원

새로운 R14 포맷을 이용, AutoCAD와의 완벽한 호환을 통한 공동작업이 가능합니다.

STL 파일지원

프로토타입 모델링을 위한 STL 파일로의 출력 및 확인기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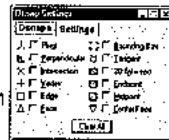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기계부품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재질과 특수한 조명 효과 기능은 물론 빠르고 정밀한 조명효과 제어를 위한 풍부한 조명기체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3D Object Snap기능

빠르고 정확한 3D 모델링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로 속도나 사용자 편의함에 있어 어떠한 설계 시각화 프로그램도 따라오지 못할 강력한 기능입니다.

기타 Map Scaler와 2차원 CAD드로잉 기능인 Fillet, chamfer, trim, offset 등과 같은 기계설계에 필수적인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KINET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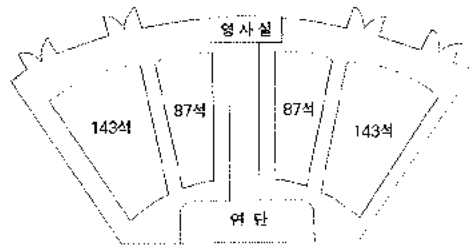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우빌딩 17층 TEL : (02)527-0790 FAX : (02)527-0799

기타 및 문의 : 02-527-0799

정확한
결과 얻기와
함께 카네이션
보내주세요
3D Studio VIZ에 대한
데모CD를 및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130308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관안내

대강당



대강당(460석)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대시설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사막/흑판/OHP/VPM/SP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 기준

1.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좌석수	임대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시간(시간당)
대강당	460석	300,000	60,000

- 사용시간 : 하절기(3월~10월)/09 : 00~18 : 00, 동절기(11월~2월)/09 : 00~17 : 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년10회 이상)의 경우 상가금액의 30% 할인.

2. 기자재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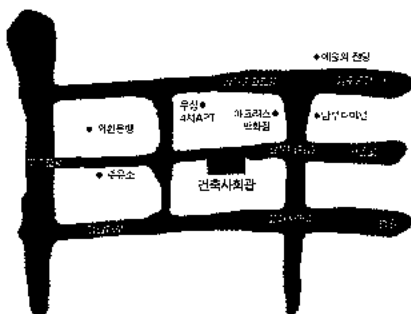
(단위 : 원, VAT별도)

장비명	사용료(1일 1회 기준)
비디오	30,000
OHP(오버헤드 프로젝트)	20,000
VPM(비디오 프로젝션모니터)	100,000(비디오 포함)
S/P(슬라이드 프로젝트)	20,000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세로) 90cm

약도



대관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부
 상담·예약실(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X : 581-5711~4 (교환 : 358 / 담당자 : 김지현)
 FAX : 586-8823 / 585-4958

19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건 축 사 예 비 시 험	건 축 사 자 격 특 별 전 형 시 험
1. 응시자격	가. 건축사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건축사법 부칙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49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사법 부칙 제2조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법률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기간	가. 시험일자 : '97. 9. 7 나. 시험장소 : '97. 8. 28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다. 시험기간 : '97. 8. 28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가. 건축사자격시험과 동시 시행
3. 시험과목, 시험방법	가. 건축법규 -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설계 - 실기 (건축설계 과제명은 당일 제시)	가. 건축구조, 건축계획 - 객관식 선택형
4.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응시료 교부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97. 7. 7 ~ 7. 12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 수 처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 ○ 서울건축사회 : (02) 581-5715~8 ○ 부산건축사회 : (051) 633-6677 ○ 대구건축사회 : (053) 753-8980~5 ○ 인천건축사회 : (032) 437-3381~4 ○ 광주건축사회 : (062) 521-0025~6 ○ 대전건축사회 : (042) 485-2813~7 ○ 경기건축사회 : (0331) 47-6129~30 ○ 강원건축사회 : (0361) 54-2442 ○ 충북건축사회 : (0431) 223-3084~8 ○ 충남건축사회 : (042) 256-4088 ○ 전북건축사회 : (0652) 87-6007~8 ○ 전남건축사회 : (062) 365-9944 ○ 경북건축사회 : (053) 744-7800~2 ○ 경남건축사회 : (0551) 46-4530~1 ○ 제주건축사회 : (064) 22-3248	
5. 제출서류	가. 출원시 제출서류 ○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 부 ○ 컬러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 (3cm×4cm)) : 2 매 (응시원서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43,000원 (응시원서대 2,000원 별도)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① 응시표사본 1 부 ② 주민등록초본 1 부 ③ 호적초본 1 부 ④ 건축분야 기술사·기사1급 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 시험합격증 사본 또는 외국건축사면허증 사본 또는 2급건축사면허증 사본 1 부 ⑤ 학력증명서 1 부 ⑥ 경력증명서 1 부 ⑦ 컬러사진 2 매 ⑧ 우편봉투 1 매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6. 응시자 지침물	가. 공 통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응수생체인편 나. 실기시험 : 600mm×900mm 규격 제도판 (경사각도 조절장치 부착된 제도판 사용 가능), T형자 또는 제도판 부착 평행자,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용전자기산기, 지우개, 기타 제도용품 (단, 기계식 제도기는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2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실기시험을 실시함.	
7. 합격예정자 발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97. 10. 17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97. 10. 27 ~ 11. 1 (단, 토요일은 13:00까지)	
8. 준수사항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97. 9. 6)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건축설계용지(갈판용지 포함)는 본 협회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갈판용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및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 일반계산용이 아닌 다기능화된 전자수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 또는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3년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내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처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로 문의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처 (02) 581-5711~4, 건설교통부 건축과 (02) 504-9139	

1997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장관 · 대한건축사협회장

건축사협회 CUG 이용안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주)데이터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매직콜 서비스에 CUG(Closed Use Group : 폐쇄 사용자 그룹)을 개설하였습니다.
- CUG권 이용이 허락된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업무연락, 문서교류 및 정보제공, 전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PC통신 서비스입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CUG를 이용하여 협회현황 알릴, 각종 현상공고 알릴, 관련법을 제공, 각종자료 제공, 설문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 CU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CUG담당자(사업부 정보자료과)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신규 가입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 천리안 매직콜 가입 신청서를 본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 하면, (주)데이터콤의 천리안 매직콜 이용 권한과 우리 협회의 CUG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
- 나. 천리안 매직콜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별도의 이용요금 없음)
천리안 ID,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우리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 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
- 다. CUG 연결방법 : 천리안 매직콜에 접속한 후 "GO KIRA" 입력(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연결이 가능함)
-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우리 협회 CUG를 모든 회원이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회원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CUG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협회의 CUG에 가입하면 (주)데이터콤에서 제공하는 천리안 매직콜의 모든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G 사용방법

1. 먼저 PC에 모뎀을 설치하고 PC통신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여기에서는 한글과 컴퓨터의 한네트를 활용 했음. 설치되어 있으면 생략)
(그림 1. 2)
2. PC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천리안에 접속을 시도한다. (01421 등) (그림 3)
3. 천리안에 ID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면 "go KIRA"라고 입력하거나 초기메뉴에서 기업포럼/CUG를 선택하여 들어간다. 여기서 C.U.G란 폐쇄이용자 그룹이라는 뜻으로 접근이 허용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즉 대한건축사협회 C.U.G는 대한건축사협회 C.U.G.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C.U.G.의 가입은 천리안 가입자이고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천리안에서 KIRAHEAD(본 협회 CUG관리자 ID)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본협회로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천리안 ID, 신청자 성명을 기록하여 FAX 583-6108로 보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4. 5)
4. 기업 포럼/C.U.G에서 CUG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3. 건축/건설/부동산"을 선택한다. (그림 6. 7)
5. CUG중 건축·건설 관련 업체를 모아둔 공간이다. 여기에서 대한건축사협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건축사협회의 로고와 함께 건축사협회의 초기화면이 펼쳐진다.
(그림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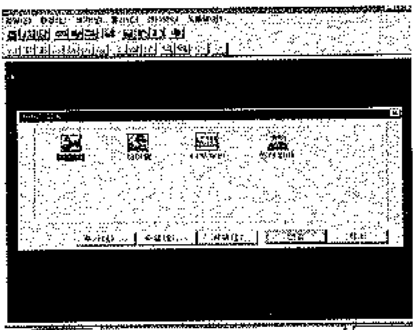


그림1. 통신프로그램에서 전화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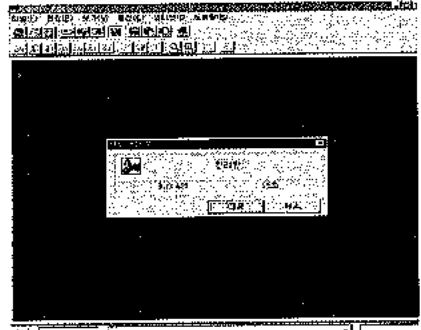


그림2. 전화걸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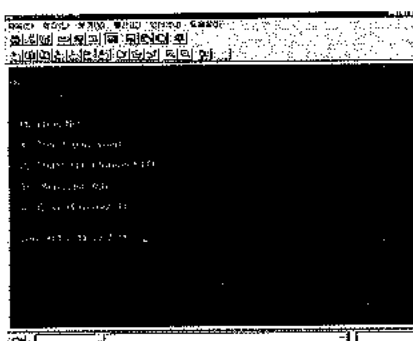


그림3. 천리안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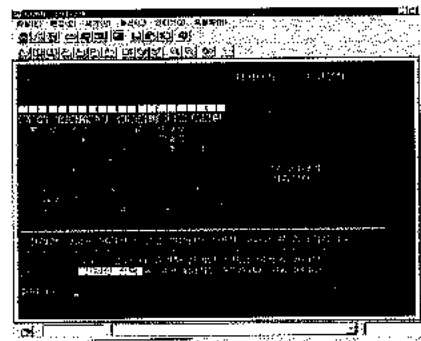


그림4. ID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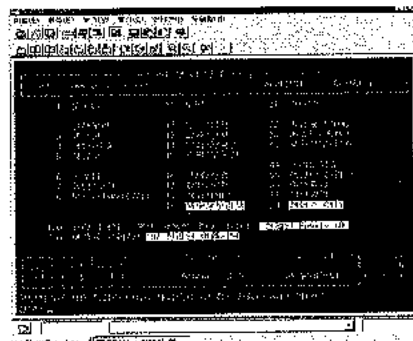


그림5. 천리안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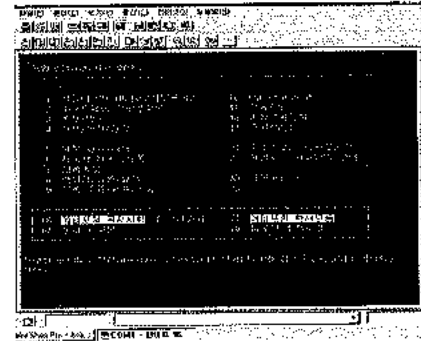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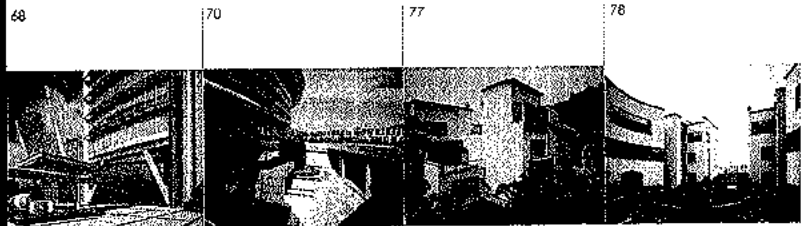


그림6. 기업포럼/CUG화면



웨스턴조선포탈 H빌라(유원재작)



발행인 : 김영수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방철린(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 양원식,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 1965년10월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Young-Soo
 Editor :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 Bang Chul-Lin, Seung Hchic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건축시론	이해성	26
시론	상세계획에 대하여	최찬환	28
작품리뷰 / 웨스턴 조선포탈 H빌라			
	작품-웨스턴 조선포탈 H빌라	유원재	34
	대담-길과 집의 만남	민현식	44
	비평-보는 건축과 보이는 건축	김현철	47
기획특집 ⑤	좌담: 건설업체의 「건축설계검열」, 무엇이 문제인가?		51
기고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하자	공제조합설립추진위	62
회원작품	코오롱 타워	원정수+(주)간·삼건축	66
	청원 실내체육관	노형래	70
	분당 집합주택	안명제	74
	분당 전람회 주택	강석원	78
작품노트	휘닉스파크 골프하우스	이필훈	82
건축기행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2)	장순용	86
해외건축	외국의 건축가 ④ - 딜러와 스킵디오	성인수	92
건축미당	협회소식		103
	건축계소식		106
	현상설계		110
	계획작품		117
	해외잡지등향		120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26
	신입회원		128
	게시판		129

Column

A Current View of Architecture	Lee Hae-Seong	26
--------------------------------	---------------	----

Focus

Planning Details	Choi Chan-Hwan	28
------------------	----------------	----

Review / Westin Chosun Hotel H. Villa

Works	Westin Chosun Hotel H. Villa	Yoo Won-Jai	34
Interview	Between Street and House	Min Hyun-Sik	44
Critique	The Seeing and the Seen	Kim Hyun-Cheol	47

Special Issue [5]

Permitting the Construction Companies to Design?		51
--	--	----

Feature

The Necessity of Architects Mutual-Aid Association		62
--	--	----

Works

Kolon Tower	Won Chung-Soo + Group 3	66
Changwon Gymnasium	Ro Heoung-Rae	70
Pundang Collective Housing	Ahn Myung-Jei	74
Pundang Residence	Kang Suk-Won	78

Design Note

Phoenix Park Public Golf House	Lee Phil-Hoon	82
--------------------------------	---------------	----

Architectural Tour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2)	Chang Soon-Yong	86
----------------------------------	-----------------	----

Architect Overseas

Overseas Architecture 4 - Diller & Scofidio	Seong In-Soo	92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3
Archi-net	106
Competition	110
Blueprint	117
Overseas Journal	120
Statistics	126
New Members	128
Bulletin Board	129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730711 · 강동구건축사회/484 6840 · 강북구건축사회/905 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2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652-2275 · 노원구건축사회/933-6018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 3026 · 미도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53-280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5 0905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송파구건축사회/437-7356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6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8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74-8836 · 66-5651, 7930
- 경기도건축사회/(031)47 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86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1-193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684-4121 · 안성지역건축사회/(0345)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8-28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오산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857-6149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3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2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 223-3088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서천지역건축사회/(0443)43 6253 · 홍성지역건축사회/(0441)847 33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6-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 8500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 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452-34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 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31 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5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8)1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 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808 · 안동지역건축사회/(06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0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6 · 울진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8-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68)43-603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8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산천지역건축사회/(0593)33-3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 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 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61)745-6403 · 통영지역건축사회/(0567)845-7421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건축시론

A Current View of Architecture

이해성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by Lee Hae-Seong

세기(世紀)와 세대(世代)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문턱에 와 있고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처지이다. 또 이에 더해서 기성세대가 새 세대로 교체되는 양상도 만만치 않다. 의미내용으로 본다면 세기(Century)라는 말은 100진법(進法)이라는 개념외에는 별다른 뜻이 없다. 다만 신세기(新世紀)나 세기말현상(世紀末現象)이니 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특징지어지는 시기를 표상하는 뜻은 있다. 우주개발의 신세기를 열었다든지 혹은 병적이고 퇴폐적현상이 만연된 시기를 세기말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로 미루어 생각하면 세기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계기(契機)로서가 아니고 새로운 진보나 진화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 인간의 의식, 사고, 행동양식, 가치관, 그 밖에 도덕률이나 윤리관마저도 전환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내용이 없다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진입만으로 말하는 세기가 바뀐다라는 말은 아무 뜻이 없는 시간의 분절(分節)일 뿐이다.

현 상황을 살필 때 우리가 2000년대를 신세기로 기대한다는 것은 가령 우주세계가 보다 확실하게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고, 핵융합력이나 초전도체를 쉽게 쓸 길을 열어서 또 한 차례의 에너지혁명을 이루어내고, 식량부족이나 질병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생명공학이 찾아내고, 천연자원의 고갈을 신소재(新素材)로 메꿀 수 있고, 뇌의 기능을 확대연장 할 수 있는 도구를 더 발전시켜서 기술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엔트로피(Entropy)를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신할 길이 보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15만년동안이나 유지해온 존재의 사슬(Chain of Being)에서의 정점(頂點)을 계속 확보할 또 한번의 전환이 전개되는 세기를 말한다. 이런 일들은 전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몫이다. 까닭에 신세기의 주도적 역할은 과학과 기술에 의존해야 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런 신세기를 수용하는 건축이 바로 신세기의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논란의 여지라는 것은 이 신세기에서 얻어지는 문명성의 과실만으로 인류의 자유, 행복, 해방이라는 염원이 충족될 수 있는나라는 차원의 논란을 뜻한다.

이와 비교할 때 세대(世代)라는 개념은 세기와는 다르다. 영어의 Genius, 또 그 복수형(複數形)인 Genera에서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되었으며 이것이 번역되어 세대라고 표기된다. 한 세대란 태어난 때가 비슷하고 시대적 경험을 공유(共有)하며 사고(思考)하는 방법이나 취미, 그리고 행동양식(行動樣式) 등이 공통인 일정한 연령층을 말한다. 까닭에 같은 세대는 정신적으로나 형상적(形相的)으로 독특한 특질성을 나타낸다. 물론 세대는 세기나 시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세기나 시대의 전환과 세대의 교체(Alteration of Generation)와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세대가 교차된다는 것은 한 연령의 층이 다른 연령층으로 바뀐다는 뜻도 있고 위에 말한 특질성이 달라진다는 뜻도 있다. 인쇄문화시대의 세대와 영상문화시대의 세대, 근검절약시대의 세대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의 세대, 논리와 관념의 시대의 세대와 직관과 감각시대의 세대, 공동체적문화 시대의 세대와 개성적 다양문화 시대의 세대 등에서 잠작이 가듯이 세대의 특질이 시대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도 하나 세대교체는 교체주기가 연령층으로 구분되는 까닭에 시대조류의 변화에 비길 수 없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교체주기는 일반적으로 30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 세기동안에 적어도 세번이상의 세대교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1970년 전후를 젊어진 세대가 앞장 서 있고 2000년에는 이들도 기성세대가 되고 새 세대로 교체될 것이다. 건축에서 1910년 전후를 젊어졌던 세대를 근대주의 건축의 제일 세대로 보았듯이 이들이 21세기의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 세대교체의 30년 주기설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 한때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매 3년마다 배가(倍加)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그 시간이 100일도 안 걸린다고 한다.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개발확대되면서 계속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 세대의 특질성을 30년이나 지탱하기는 어렵다.

개혁(改革)과 혼돈(混沌)

인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연탐구에다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이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기 위한 일련의 작업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 후 지금 이 순간까지 과학과 기술의 혁신작업이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과 기술의 진전계기가 나타날 때마다 위기설과 말세론이 퍼졌고 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혼돈과 혼란이라고 했다.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고 시대가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환과 변화를 인식하려들지 않고 외면하거나 또는 그것을 소화(消化)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소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축이 빚어낸 것이 혼돈과 혼란이다. 그들의 고루한 의식은 결국 이 혼란을 파하고 수구(守舊)와 회고(回顧), 그리고 환상(幻想)으로 빠졌다. 그러나 혁신과 전환을 이끌어내고 기대를 거는 측에서는 이 혼란과 혼돈의식이 용납될 수 없고 오히려 혼란이나 혼돈이라는 개념조차도 부인했다. 까닭에 신세기가 전개되는 상황과 세기말적 상황은 같은 시대의 표리(表裏)인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시대를 보는 석학들의 눈도 같지 않았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자 Oswald Spengler와 영국의 역사학자 Arnold J. Toynbee가 "서양의 몰락"과 "역사의 연구"라는 대단한 저술을 펴냈다. 두 사람 다 세계의 중심문명은 서양문명이고 또 문명은 생명체와 같아서 탄생하고 성장하며 성숙된 후에 사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Spengler는 서양문명은 하강기(下降期)에 들어서 있어 21세기에는 몰락한다고 예언하였으며 Toynbee는 서양문명이 성장기에 있고 다른 문명은 유산되거나 발육이 정지되었다는 견해를 폈다. Spengler는 서양문명이 그 중심력을 잃고 쇠망(衰亡)과 해체(解體)단계에 와 있다고 예언했고 Toynbee는 서양문명이 그 중심력을 잃지 않았고 그 집중력과 팽창력으로 주변문명을 지배하며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런 견해차이는 중심문명과 주변문명사이의 역학적 작용변화의 인식차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견해차이도 또 하나의 혼돈 요인이다. 세계문명 중심의 서점설(西漸說)이 나온 것도 이 차원에서의 피상적(皮相的) 가설이다. 영국에서 발상(發祥)된 모더니즘(Modernism)의 전파(傳播) 역정(歷程)을 여기에 비기면 흥미있는 해석을 찾는다.

동질문화(同質文化)와 이질문화(異質文化)

원래 과학이나 기술에서 얻어낸 문명은 민족이나 지역, 또 국가나 종교에 관계없이 이전되고 전파되는 속성(屬性)을 가졌다. 또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사회공산주의(社會共產主義)도 같은 속성이다. 그래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목표로 삼았다. 설혹 그 수준의 차는 있다고 하나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속성에다 기반을 둔 모더니즘이 세계성과 국제성을 띠고 전파 이전을 거듭한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생산분배(生産分配)에 기계적원리(機械的原理)가 절대적일 때 문명의 동질성(Homogeneous)이 지배적 현상이 된다. 문명을 이용하여 인간의 가치실현을 겨냥하는 문화도 동질화현상에 대하여 늘 회의(懷疑)를 느끼면서도 이에 휘말렸다. 이 문화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동질성의 문화를 만들었다. 과학과 기술은 지금도 그 속성을 그대로 지니면서 개혁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공산주의는 바로 이 속성 때문에 위기에 처해졌고 해체에 직면했다. 인공이 아닌 자연(自然)이란 그 자체가 다원적(多元的)이고 다양한 까닭에 획일적이고 보편적 기준만으로는 인식조차 안된다. 더우기 인간의 실존적 세계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세계는 보편적 세계가 아니다. 현대의식이 동질화 현상에 회의를 느꼈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모더니즘이 도마에 오르고 보편성과 다원성 사이에 충돌이 생겼다. 동질성 문화와 이질성(Meterogeneous) 문화의 대치(對峙) 국면이 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공세계(人工世界)에 대한 인식과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고 관념적 해석과 실증적 해석 사이의 대치이다. 그러나 현 인류문화의 상황으로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탈자본주의(Post Capitalism)나 탈근대주의(Post Modernism)가 마치 보편성과 획일성을 띤 동질문화경향에서 탈출할 길을 찾고 있는 것같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 근대주의와 단절하려는 뜻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된다. 다만 보편화나 동질화를 수정하려는 계기를 찾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연유에서 Post라는 합성어의 뜻을 "탈(脫)"보다는 후기(後期)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즉 이제부터 전개되는 시대는 후기자본주의 시대이고 후기근대주의 시대로 일단 규정하지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볼 때 과학기술이나 자본주의체제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목표를 향한 수단(手段)이고 방편(方便)이다. 보편성이나 획일성, 그리고 동질화는 근대의 수단과 방편이 빚어낸 모양새인데 인류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 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표상이 될 것이라라는 예측과 기대에서 빚나간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수정을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후기자본주의와 후기 근대주의가 맡은 과제이다. 계속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수단과 개혁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방편을 동원해서 인간의 본태적 모습인 문화인류학적 다원성과 다양성속에서 각 특성을 살려내고 그 공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얼마든지 복제될 수 있는 동질성문화가 아니라 개성이 생동하는 이질성문화를 창출하지는 것이다. 이 과제가 제기된 것은 20세기 후반기 초에 그 증후가 나타났으며 60년대 초에 P.A誌가 토론과제로 삼고 있다. 조형주의(Formalism)나 후기할리주의, 또 건축심리론, 건축환경론, 감각주의(Sensualism)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다만 조심스럽게 보아야 할 일은 이 이질성을 복고(復古)와 절충(折衷), 그리고 형태만을 위한 형태에서 얻어내려는 동향이다. 극단적인 심미주의(審美主義)가 신세기의 모습이 아닐 것 같은 생각에서이다.

상세계획에 대하여

Planning Details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by Choi Chan-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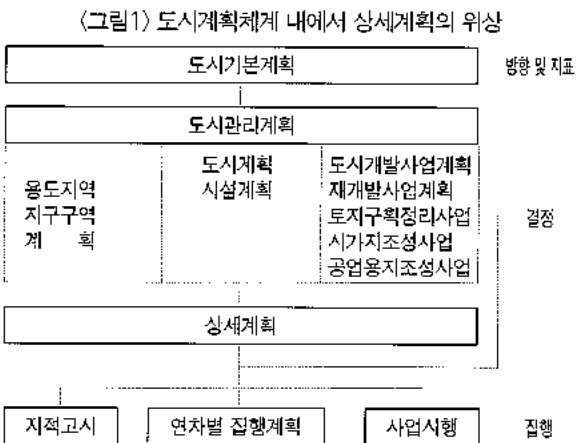
1. 서론

1980년대 초까지 도시관리의 체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와 건축법에 의한 개별건축물의 행위제한이라는 두가지 체계로 나뉘어져 있었다. 도시인구의 집중화와 무분별한 도시화는 주거환경의 악화와 도심지내 기능저하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재개발제도가 특별법성격으로 도시관리체계에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도시관리체계는 기존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관리로 일관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시환경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른 시스템으로서 도시계획과 건축의 중간적 가교의 역할을 하는 도시설계제도가 1980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도시설계제도는 집행수단의 결여, 재산권의 침해, 사업성에 대한 보상제도의 미비, 행정관청의 소극적인 대응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신도시개발 및 신시가지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듯 하였으나, 기존의 시가지에는 별 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설계와 함께 검토·논의되었던 상세계획제도는 1981년의 건설부의 「지구계획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후 도시설계 제도의 우선적 도입에 따라 유보되어 왔지만 도시설계제도의 운영시스템의 문제 등이 발생되어 1992년 건축법을 전면개정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서도 관련규정이 보완, 개정이 되었다. 이로써 법체계상 도시관리체계는 하위법적 체계로서 건축규제적 성격이 강한 도시설계와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도시토지이용의 정비 등 도시계획적 성격을 많이 함의하고 있는 상세계획제도의 이원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건축규제적 성격이 강한 도시설계의 위상이 도시계획적 도시정비차원으로 확대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세계획제도와 내용면에서 유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도시설계제도를 상세계획으로 흡수통합해야 된다는 의견과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병행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상세계획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법적인 기준의 지침이 미비한 실정으므로 상세계획에 대한 규정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세계획의 도입과정과 배경

상세계획이 도입된 것은 도시설계 논의의 시점과 일치하고 있으며 1980년 도시설계가 건축법 제8조 2항의 특례규정으로 제정된 이듬해인 1981년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구계획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수행으로 본격화 되었다.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배경 초기에 지구전체의 입장에서 가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건축경관”의 관점이 강조되었던면 지구계획제도는 좀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가까운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로 제기되었다. 이후에 도시설계가 1983년 건설부훈령 제650호로 구체적인 작성지침이 나오고, 도심부 간선가로를 필두로 도시설계구역이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시행되자 지구계획제도에 대한 논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설계가 도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의 규제틀안에서 건축규제위주

로 시행되었고, 도시설계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표출되자 도시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관리권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도시개발과 도시기반시설용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1992년 도시계획법체계안에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할 당시 이에 따른 시행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설계와의 뚜렷한 구분이 없었다. 또한 도시설계제도를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한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설계의 방향이 모호해졌다. 이에 따라 1992년에 상세계획제도가 제도화가 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체계, 지구단위의 상세계획체계 등으로 도시계획체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서 상세계획이 도시계획체계에서 갖는 위상을 보면 <그림1>과 같다.



〈표1〉 상세계획의 계획내용

계획사항	계획내용	필수선택여부
용도지역 지정·변경	·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의 용도지역, 지구분류사용	필수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공공공지,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공동구,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등 · 도시계획시설중 기타시설 ·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나 공공성이 강한 종교시설, 유치원, 통신시설 등 택지개발사업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 용도로 지정	필수 선택 필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신개발지 :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작성 · 기성시가지 : 공동건축, 대지분할 가능성에 관한 계획수립 · 가구 및 획지계획에 있어 입체적 조성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지점의 지반고를 지정	필수 선택 선택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용도 지정은 지정, 용도, 권장, 1층 전면 권장용도 등으로 정함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계획,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유형 건축물의 배치, 계획호수, 주호당 평형규모 등은 추가작성가능. 단 부지조성이 주요내용인 경우는 예외	필수 선택 필수 (정도는 다름)
도시경관과 조성계획	· 건축물의 외관 및 역사문화경관, 공원 녹지의 배치, 도시가로경관계획을 수립. · 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부지조성이 주요내용인 경우에는 건축물외관에 관한 경관계획은 생략 가능	필수 선택
교통처리계획	·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교통량배분, 도로별 서비스 수준 분석을 통한 도로망 계획, 보행자전용도로계획, 자전거도로계획, 입체시설계획 등 작성	필수
기타사항	· 대지내 공공보행도로, 차량출입허용구간, 보행주출입구, 건축물부설주차장확보기준, 차량진입차선확보 · 인접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의 입체적 연결계획을 위한 공개도로, 보행자데크, 지하도로 및 경사로 계획 · 공동주택단지 경우 단지내 도로, 놀이터, 단지대상가의 배치와 규모	선택 선택 선택

3. 상세계획의 계획내용과 대상구역

1) 상세계획의 계획내용

도시계획과 상세계획에 있어서 상세계획의 상위개념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의 기본정책 등이 상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상세계획 그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이므로 변경 또는 결정된 내용은 도시계획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상세계획에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제3항에 의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 도시경관조성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이고, 상세계획의 주요 계획내용은 다음<표1>과 같다.

2) 상세계획의 대상구역

상세계획구역의 대상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법 제20조 3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세계획

〈표2〉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비교

구 분	도 시 설 계	상 세 계 획
근거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구역지정	도시설계지구	상세계획구역
목적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을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구역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나 구역의 지정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역 지정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에 의거하여 구역지정
대상구역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곳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단지, 재개발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작성권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시장, 군수
작성(입안)시한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타법령과의 관계	도시설계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건축법 등 개별적인 건축규제관계법령을 적용받는다

〈표3〉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입안내용

도 시 설 계	상 세 계 획
종합개념 : · 가구 및 획지개념 · 주변구역 현황도 · 대상구역 현황도 · 토지이용 계획 · 교통처리계획 · 건축규제계획 · 공공시설계획 · 조경계획 · 기존 건축물 처리계획 · 제한사항 및 권장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최저현도와 최고현도 ·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공공공지 및 공공처리시설의 수용 능력과 규모

획구역의 대상구역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9조 8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지구,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의 비교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계획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규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는 지구지정이나 계획안의 설정 등이 비슷하며, 작성도서 등의 경우도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표2〉와 같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슷한 점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의 계획목적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시설계의 계획요소와 상세계획의 계획요소가 서로 유사한데, 도시설계는 구체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상세계획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계획요소의 내용이 없는 실정이므로, 보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상세계획의 계획요소가 확장이 되고, 좁아지지는 않으므로, 계획요소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3〉을 보면 도시설계의 입안내용과 상세계획의 입안내용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구역에서 있어서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지정할 수 있으나, 상세계획에서는 택지개발지구, 공업단지, 재개발구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있어 상세계획에서는 대상구역에 있어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세계획은 특정 도시개발사업의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및 조정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고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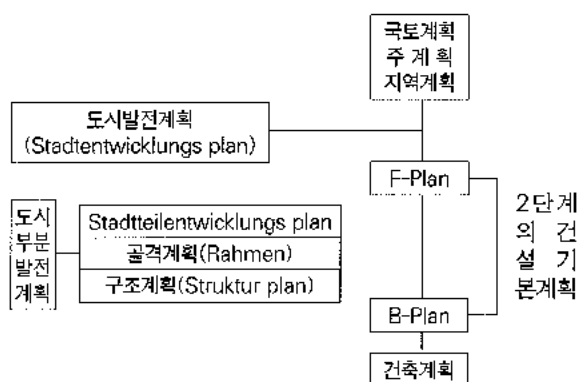
수 있다. 도시설계의 작성권자도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상세계획에서는 시장, 군수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5. 외국의 사례

1) 독일

독일은 건설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F-Plan), 지구상세계획(B-Plan) 등과 법에 기초되어 있지 않은 도시발전계획 등으로 도시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건설기본계획은 연방건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건축적 이용의 종류와 규모를 준비하는 계획이며, 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F-Plan)의 대상지역은 기초자치단체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규정하며, 토지의 평면적 규제 및 이용 등을 유도하는 등 토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구상세계획(B-Plan)은 토지이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개별 건축물의 지침을 제시하고, 토지평면에 있어서 입체적 발전을 규제, 유도하는 계획이다. 비법정계획의 도시발전계획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토지이용계획(F-Plan)보다는 상위계획이다. 독일의 공간계획체계를 정리하여 보면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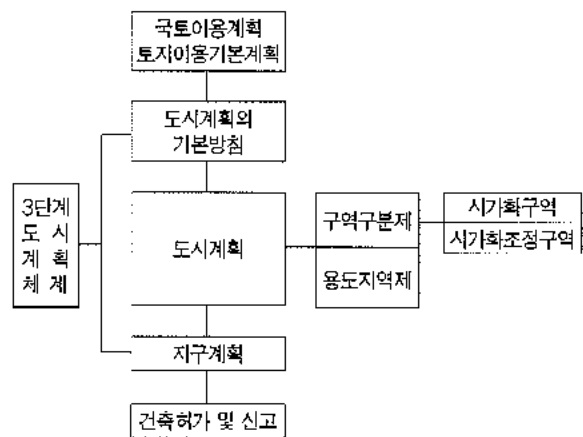
〈그림2〉 독일의 공간계획체계



2) 일본

일본의 도시계획법이 1968년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토지이용규제를 하였으며,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구속적 공간계획으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입안하였다. 구속적 토지이용계획에는 구역구분제와 용도지역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구분제는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나뉘고, 용도지역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본의 공간계획체계를 정리하여 보면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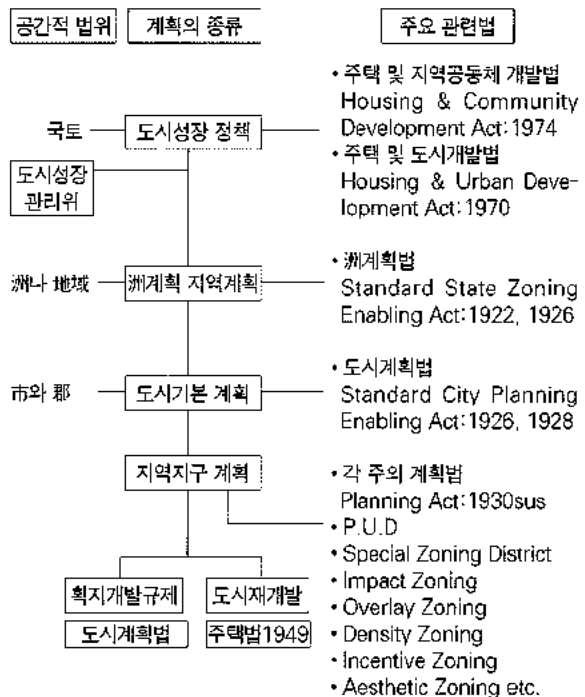
〈그림3〉 일본의 공간계획체계



3) 미국

미국에서의 공간계획체계는 지역제(Zoning)로 물리적인 규제수단을 하고 있다. 1916년 뉴욕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제정된 지역제는 각각의 주마다 조례로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마다 다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공간계획체계를 정리하면 <그림4>와 같다. 미국의 이러한 지역지구체계는 대상지의 특성에 맞추어 획지개발규제, 계획단위개발, 특별용도지역제, 보상지역제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

〈그림4〉 미국의 공간계획 체계



6. 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

1) 상세계획의 대상구역의 한계성

상세계획의 대상구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표4〉 관련사업과 상세계획요소 비교

관련사업	관련법	계획요소 및 작성기준	상세계획과의 비교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법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호평형/주거유형/용적률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교통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자원조달에 관한 계획	- 주호평형/주거유형에 관한 규제요소 없음 - 연차별 투자 및 자원조달계획 없음
공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기본계획 작성내용 1. 공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업단지의 개발기본방향 3. 공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4. 주요유치 업종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7. 공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계획 8. 공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작성지침 -공공복지, 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 상세계획이 주로 도시내의 상업이나 주거지역과 같은 주거환경위주의 계획이어서 공업단지 계획과 같은 특수한 성격의 계획과는 계획내용과 차이가 있음 - 상세계획적용시 도로, 철도, 항만, 운수와 같은 계획 추가되어야 함
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법	-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또는 높이, 용도구성 및 배율에 관한 계획 - 획지 및 가구의 정비에 관한 계획 - 재개발구역의 분할시행을 위한 지구분할에 관한 계획 - 재개발방식	상세계획과 계획요소는 유사하나 단지 재개발 방식과 같은 실천방안에 대한 항목은 상세계획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공공시설계획 - 인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주민편의시설계획 등	상세계획으로 시행할 경우, 기존의 면적식위주의 한지방식에서 평가식위주의 한지방식으로 전환

공업단지, 재개발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으로서 이 지역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노후한 불량지역이나 기성시가지 정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적용대상의 면적도 10,000㎡로 규정되어 있고, 최대 규모는 정하여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대상구역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 상세계획요소의 한계

상세계획요소는 도시설계의 계획요소인 건축물의 배치, 건물의 형태규정, 건축선 대지내 공지, 용도, 건축물의 높이, 필지분할, 공개공지의 확보 등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설계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공동개발의 유도, 공개공지의 확보 등 집행수단이 강화되었으나, 상세계획은 상세계획 수립지침에만 계획요소가 명시되어 있을 뿐 별다른 구체적인 요소가 없는 한계가 있다.

3) 상세계획과 관련사업계획요소의 미찰

도시개발사업은 상세계획 대상구역으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이 수립되면, 기존의 상세계획 관련사업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요소와의 차이점이나 중복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미찰이 예상된다. 다음 〈표4〉를 보면 상세계획요소와 관련사업 계획요소와의 비교를 나타낸 표이다.

4) 사업제도의 절차상의 미찰

개발사업의 입안권자가 같은 주체가 관련사업구역내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상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는 반면, 계획의 입안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별 계획입안권과 계획승인권권을 비교하면 〈표5〉와 같다.

〈표5〉 개발사업별 계획수립권과 계획승인권

사 업 명	계획수립권	계획승인권	지자체 관계	비 고
택지개발사업	국가, 지자체, 공사 (주로 토지개발공사)	건설부장관(주택국)	협의	특별법
공업단지개발사업	국가, 도지사	건설부장관(토지국)	협의	특별법적 성격
재개발사업	지자체	건설부장관(도시국)	수립주체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토지소유자, 지자체	건설부장관(도시국)	수립주체 또는 협조	도시계획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지자체	건설부장관(도시국)	수립주체	도시계획사업
역세권	-	-	-	사업이 아님

5) 기성시가지에서 시행수단의 미비

상세계획은 도시설계와 마찬가지로 기성시가
지에서의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시가지나 신도시에서는
적용이 되었지만, 노후 기성시가지의 경우에는 시행수단의 결
여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개발에 있어서, 필지에 대한 권리조정 문제, 자금동원 능
력의 조정, 권리금 문제, 건축주간의 이해대립 등이 해결가능
한 시행수단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시행수단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 상세계획의 개선방안

1) 상세계획의 역할 확대

신시가지나 신도시에서는 상세계획이나 도시
설계는 운용이 잘 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기성시가지에서
의 상세계획의 역할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
이다. 주택개량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지 정비
위한 사업이고 도심재개발사업은 시가지 정비를 위한 사업인
데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시가지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다. 그러
나 이러한 사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대상구역에 한정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 주변지, 혹은 도시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계획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대
지지반정비 또는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제도로 상세계획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시가지나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
존시가지에 이르기까지 상세계획의 역할을 도시관리로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역할 정립

상세계획과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과 규제
내용의 상세성 그리고 대상구역의 설정 등에서 차이가 있다.
1992년의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의 위상은 도시계획법의

하위법적 체계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1995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체계내의 한 종류로서의 그 위상이 정
립되었다. 상세계획이 지구단위의 계획제도로 도시계획체계
에서 정립되어, 현재 매크로한 도시계획관리개념인 일반계획관
리구역의 환경이 양호한 지구로 설정하고, 상세계획관리구역
을 문제시가지 및 신시가지로 설정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8. 결론

상세계획은 구역중심으로 대지기반의 정비등
대상구역에 있어서 전구역을 대상으로 정비한다는 점은 도시
설계와는 다르게 상세계획이 다루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체계
에서 한 부분으로 위상이 정립됨에 따라 상세계획은 앞으로 역
할의 확대가 기대가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던 상
세계획제도가 상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조례상으로 시행지침이나 시행중에서 민원이 야기되
었던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설계와 상세계
획의 관계에 있어서 도시설계를 상세계획으로 통합한다는 논
의와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을 그대로 두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 기성시가지 정비나 다른 관련사업에 있어서 상
세계획의 역할이 확대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도시설계와 상
세계획의 역할 정립이나 시행수단 등 지침상에 있어서도 서로
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가까이에 있는 지
금 기성시가지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적절한 시행안이 상세계획제도이 아닐까 한다. 따라
서 상세계획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보완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웨스틴 조선호텔 H. 빌라

Westin Chosun Hotel H. Villa

유원재/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Designed by Yoo Won-Jai

남대문에서 시립남산도서관으로 오르는 남산순환로인 소월길에 인접되어 있으나 소월길보다 10~12m 낮고 좁으며 긴 형태의 대지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다.

소월길에서는 지붕만을 볼 수 있는 집이다. 큰 길에서 안 보여 설계자로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반면 이용자들에게는 도로의 소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주거의 프라이버시도 좋아진 셈이다. 건축주인 조선호텔이 그간 외국 직원들이 적절한 주거가 없어 호텔 객실에 기거함으로 생기는 객실 손실을 없애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든 사택으로, 여분의 유닛트가 생긴다면 임대사업도 고려되었다. 모든 공동주택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요구하는 것 같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 땅의 경우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최고 높이가 순환도로보다 1.5m 낮아야 하는 고도 제한을 받고 있어 최대 용적을 위해 경사진 소월길 레벨에 의해 지붕선이 정해진 셈이다. 그 경사진 단면을 따라 자연적으로 스킵 후로아의 형식을 사용했고 다양한 가족 상황에 따라 가족형, 커플형, 독신형, 합숙형의 여러가지 타입의 유닛트를 섞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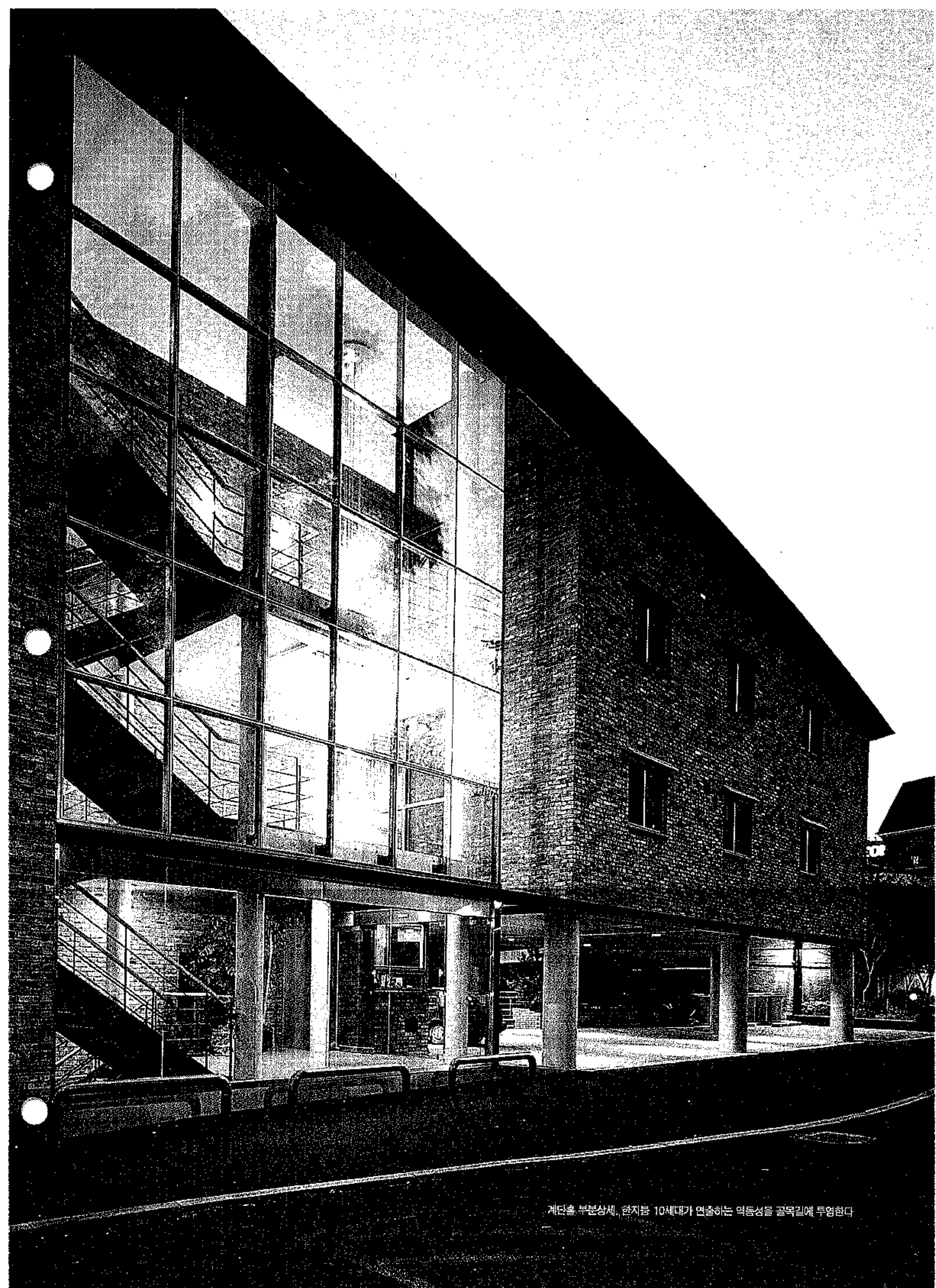
건축주측 프로그램에 의해 각기 다른 10세대를 제한된 평면, 단면에 쪼개 맞추기란 마치 어려운 퍼즐 게임을 연상시켰다. 다시 말해 한 건물에 10세대의 서로 다른 주택을 설계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건축 설계는 다른 분야 보다 많은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예술이다. 소월길에서 12m의 진입 도로를 들어서면 도로 북측의 10m가량의 축대와 남사면(南斜面)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다. 소월길과 12m진입 도로의 고저 차를 떠 받치고 있는 축대는 동네의 인상을 어둡고 폐

쇄적으로 만들고 있어 이 집과 도로와의 첫 만남은 피로티로 되어 있어 밝은 주출입구와 주차장으로 쓰이며 높은 축대로 인한 중압감을 덜어 주고자 하였다. 또 피로티의 프레임을 통해 남사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지나는 사람에게 다가 오도록 하였다. 좋은 전망의 남향으로 유닛트를 배치하고 북쪽 도로를 향해 계단실을 두었다. 각 유닛트의 빠듯한 기능을 채워 넣기 힘들었으나 도로의 연속으로 본 배게 공간인 계단실은 건축가의 유희이며 건축의 즐거움을 사회적 역할로 연계시키려는 공간이다. 어느 집이나 다 같과 만나고, 각 집들이 길에 던지는 예의나 사회성이나 연출이 그럴듯 해야겠고 그 책임은 건축가의 손길들 통해 구현 되어져야 겠다. 이 계단실을 유리커튼월의 쇼케이스로 만들어 한 자봉 10세대 식구들이 연출하는 역동성을 건너편 축대에 투영하고자 했다. 공간 연출을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며 그 질은 소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조그만 노력에 의해 생활의 양이 아닌 질이 향상되어져야 한다. 길에서 계단실 벽에 걸릴 그림들을 즐길 수 있는 거리 갤러리가 되어 남산골 뒷골목 한자락을 채우고 싶었다. 더욱이 밤에 축대로 인해 골목길의 취약해진 분위기를 계단실의 유리상자가 생기있게 밝혀 주었으면 한다. 이런 건축가의 작위를, 호텔 경영을 하며 많은 공간 연출 경험을 통해,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그런 시도들이 부가적 가치를 만들어 간다고 믿는 건축주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어떤 건물이라고, 그 집이 이 사회와 그 주변을 향해 품는 메시지는 조용히 숨어서 피는 야생화처럼 우리 모두를 상쾌하게 할 것이다.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37-2, 30-1	주차대수	9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3종미관지구, 고도제한지구(최고 18m이하, 남산순환도로-1.5m이하)	외장재료	복층유리+파벽돌치장쌓
용 도	연립주택(10세대)	건 축 주	(주)조선호텔
대지면적	659.3㎡	시 공 자	(주)디자인 신세계
건축면적	330.5㎡	인테리어	(주)디자인 신세계
연 면 적	1,103.6㎡	기계설계	예림설비연구소
건 폐 율	50.12%	전기설계	우림컨설턴트
규 모	지상4층, 지하1층	설계담당	김영기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사 진	박영채
		자료제공	다건축



계단을 부분상세, 한지동 10세대가 연출하는 역동성을 골목길에 투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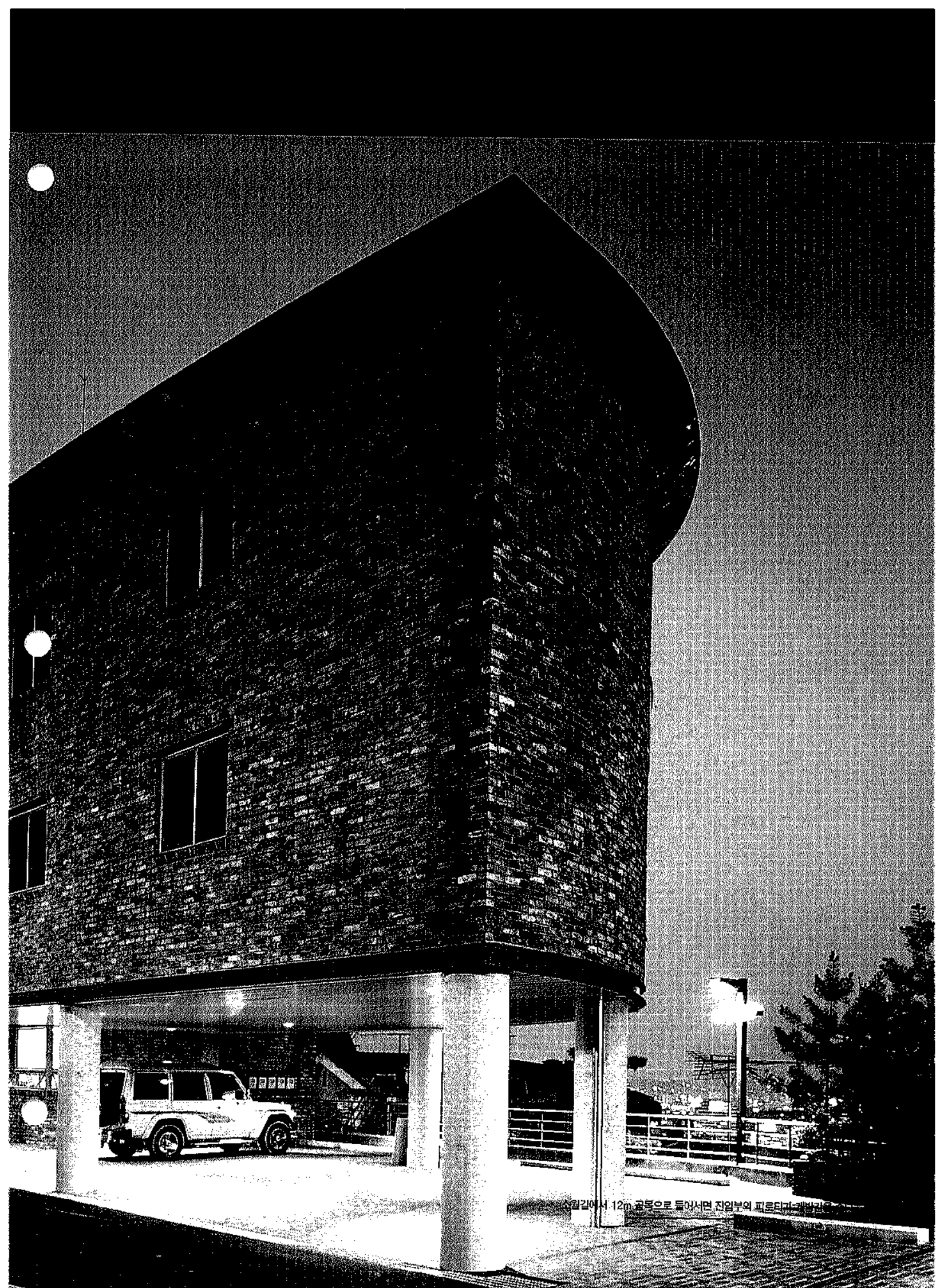
The multi-housing facility is located on a long and narrow site next to the Sowol Road that connects the Namdaemoon and the Namsan City Library. But as it is 10-12m beneath the road, the only thing visible from it is the roof. This fact was disappointing to me as an architect, but for the occupants it would prevent the street noise and enhance its privacy. The client Chosun Hotel, which hasn't had facilities for its foreign employees and had to use its own guest rooms, wished to have an individual lodging houses in good environment. Unused rooms were planned for rent. The requirements for this facility was like any other multi-housings: That is, to gain as much total floor area as possible. Since the Namsan Preservationist Restrictions limited the height of the building to below 1.5m from the Sowol Road, the upper roof line had to be set along the section of the road. The slanted roof following the sloped road enabled me to use skip floor units. Various types of units - family, couple, single and dormitory style - were developed to accommodate diverse inhabitants.

The demand of the client to house 10 totally different types of units first seemed like a very complex puzzle. In other words, it was like designing 10 individual houses. Architecture is a field of design that demands more effort than other ones. From the Sowol Road stems the 12m entrance road, which has 10m of retaining wall on the north and some private and public housings on the neighboring sloped area. This gigantic retaining wall gave a dim and closed impression to the town, so the first contact of the villa with this road was decided to be uplifted by pilotis - used as a bright main entrance and parking areas. The frame of the pilotis would present a view of Seoul along the sloped geography to the passers-by. The units were laid to the south where it commands a good view, and the staircase was put facing the north road. The stair, as an extension of road, is somewhere the architect is free of the client's demand for high density, and where connection between the pleasure of architecture and its social role is made. Every housing links to the road,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rchitect to reify the courtesy or social attitude with which they get linked. As the staircase is covered with glass curtain wall, the dynamic activity of 10 units under a single roof can be projected on its facing retaining wall. The quality of a housing can be found in its spatial arrangement, not in the used materials. Little efforts would improve this quality, as hopefully shown in the staircase of this villa. Pictures on its wall would provide an atmosphere of a gallery, and the lighted glass case, as a whole, at night times, would brighten the dimness created by the retaining wall. I deeply thank the client, who himself had experiences organizing spaces during hotel management, for allowing the architect to experiment these spatial amusements and understanding that they will, in turn, enhance its true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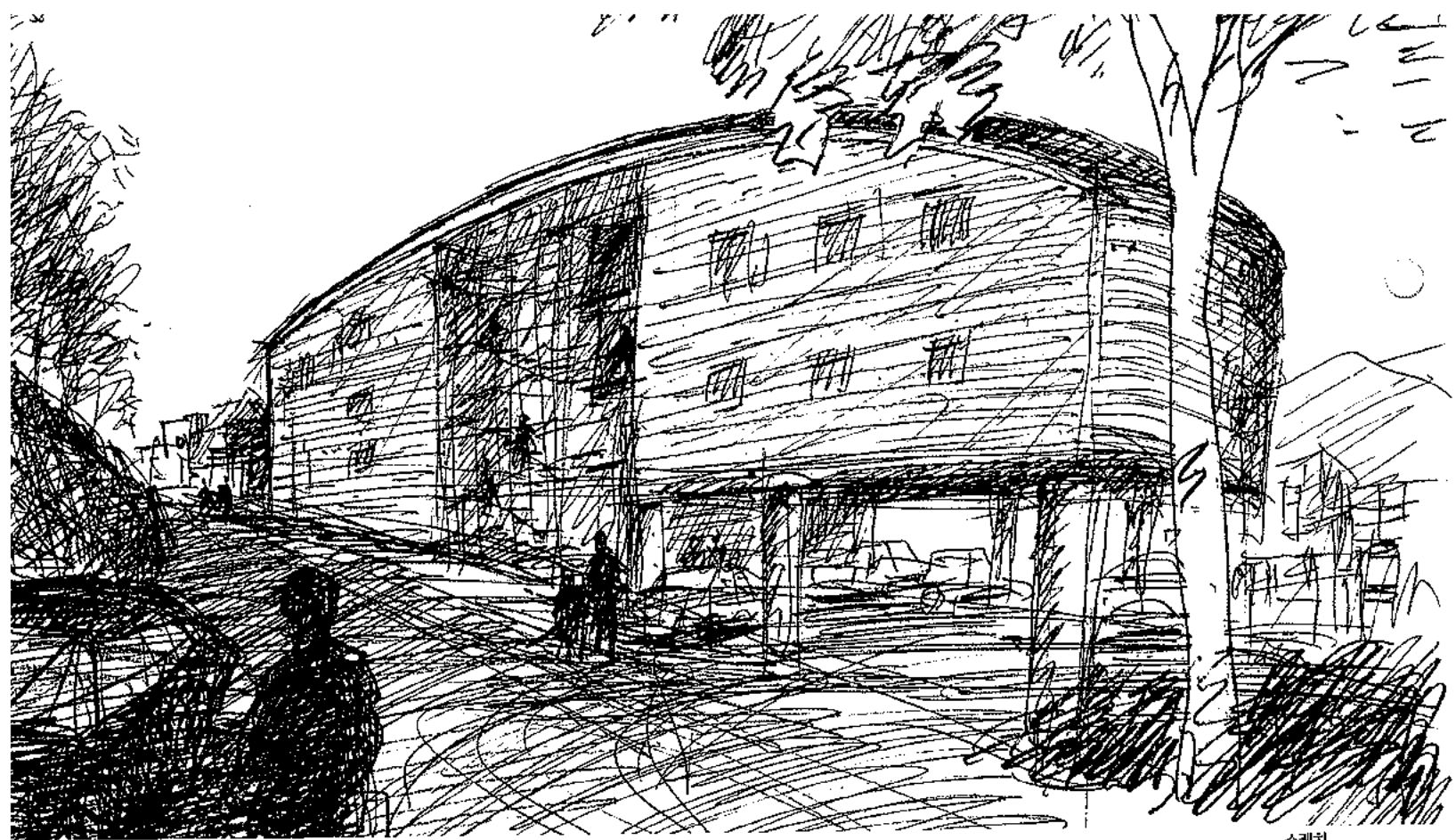
Architecture, irrespective of its size, even the smallest ones, bears a message to its surrounding and its society, which refreshes us like a wild flower that silently grows somewhere hidden.

Site Area 659.3㎡
 Building Area 330.5㎡
 Total Floor Area 1103.6㎡
 Building Coverage Ratio
 Gross Floor Ratio
 Total Floors 4 Stories, 1 Basement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Parking Spaces 9
 Exterior Finishings Glass Blocks + Rusticated Stone Masonry
 Client The Western Chosun Hotel
 Construction Design Shinsegae Co., Ltd
 Mechanical Installations Yacrim Engineer Inc.
 Electrical Installations Woorm Consultants
 Interior Design Shinsegae Co., Ltd
 Architect in Charge Kim Young-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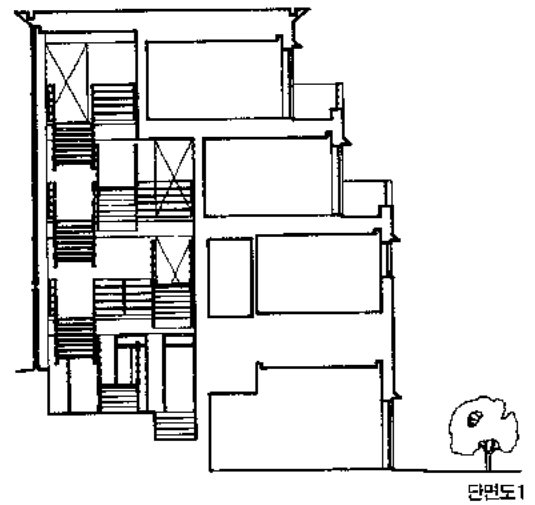


소림길에서 12m 굴뚝으로 들어선면 진입부의 피로티크-레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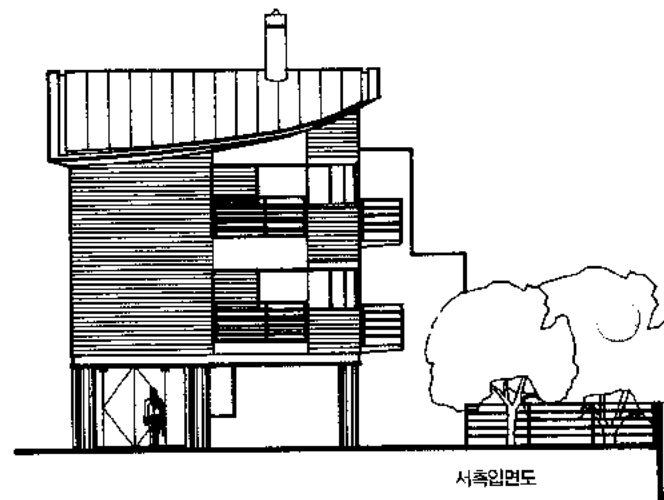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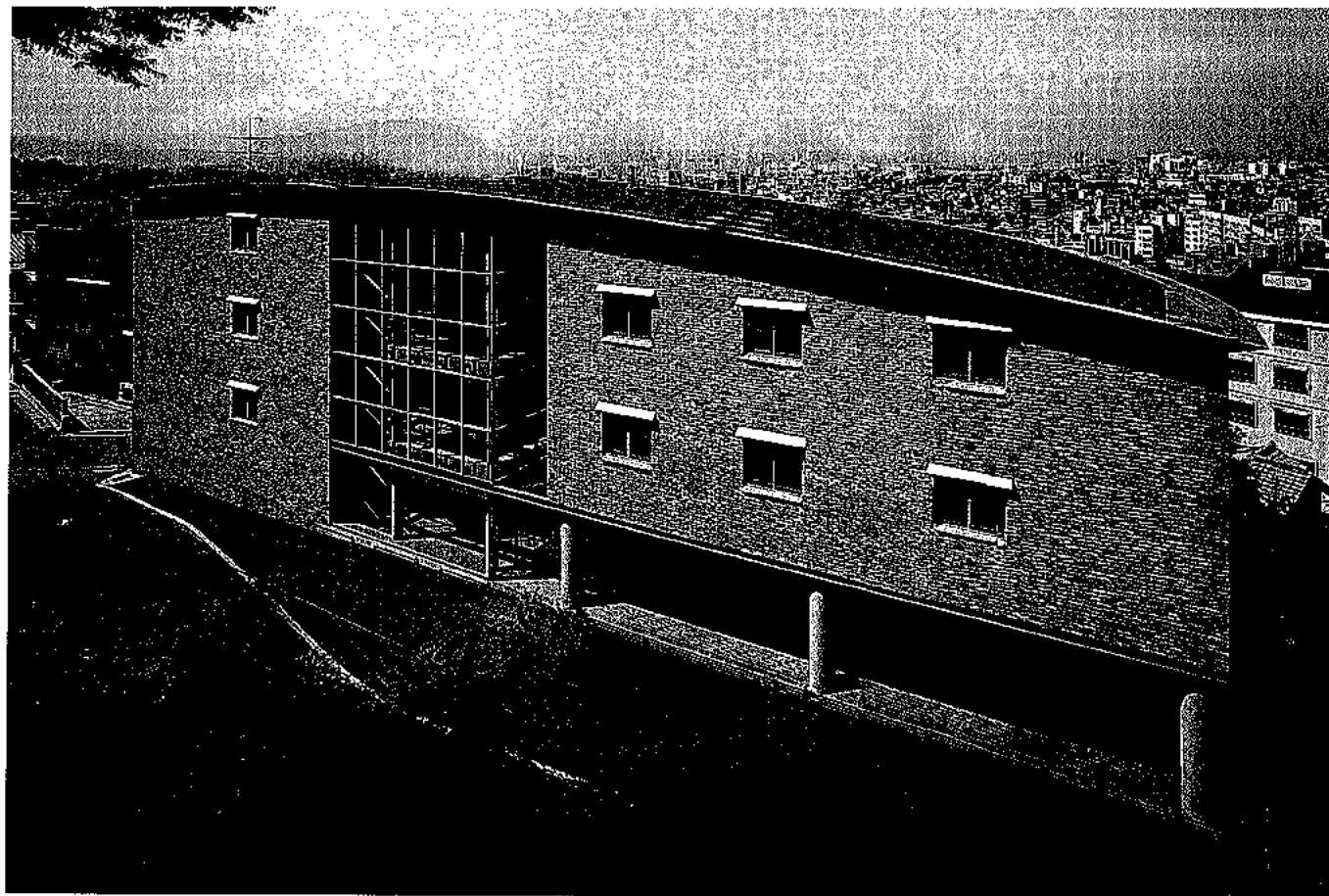
부정형의 대지모양이 귀퉁이 부분을 동글게 돌리도록 핑거거리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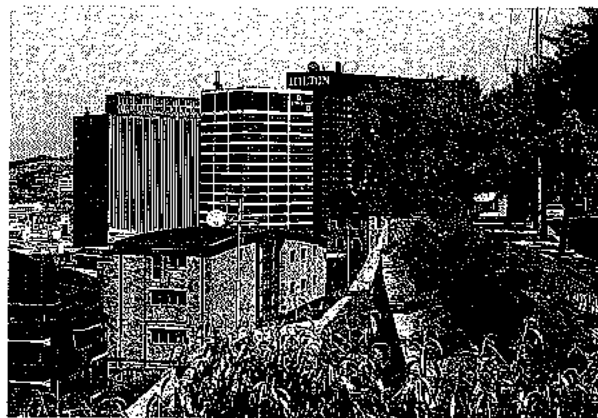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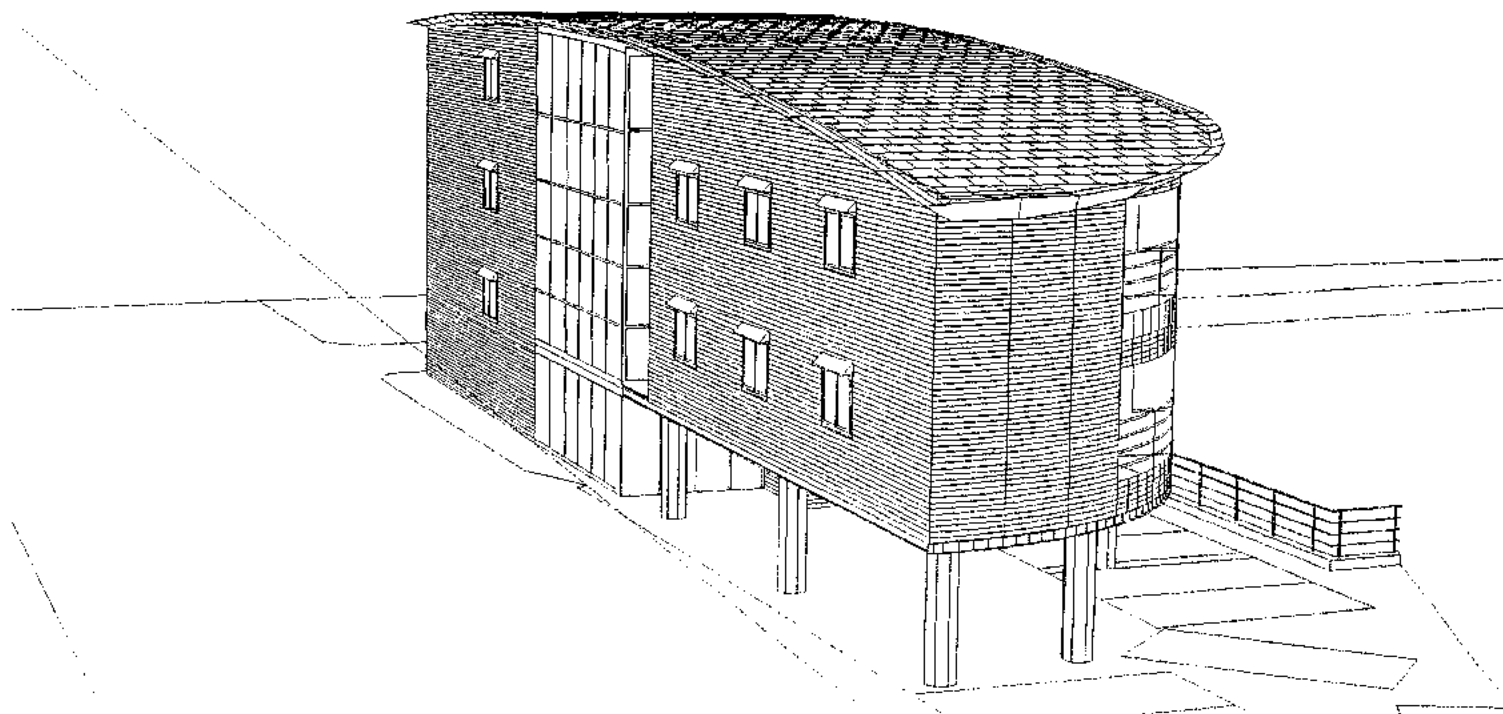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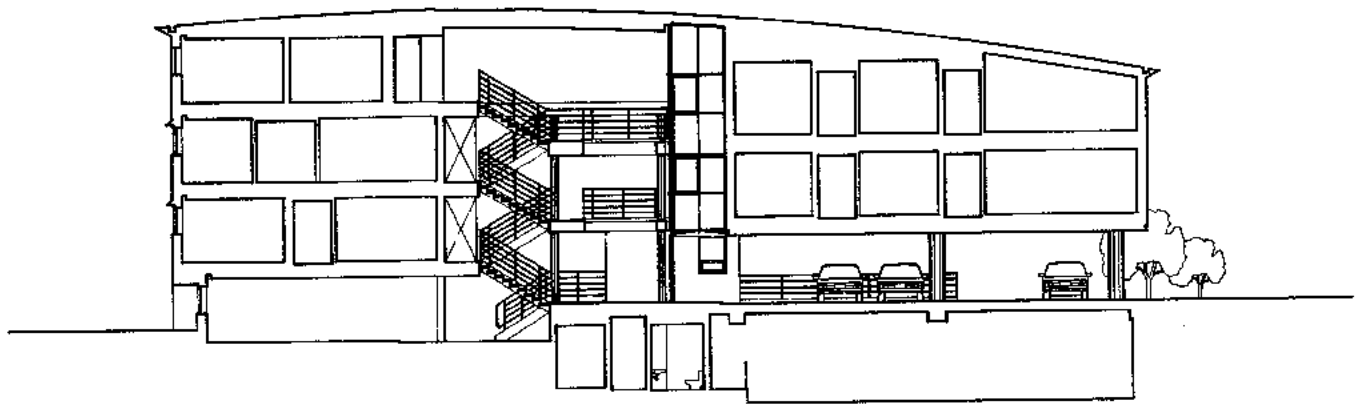


남산순환도로보다 1.5m 낮아야 하는 고도제한이 지붕선을 결정해 주었다



소월길 측대 밑에 숨어 있는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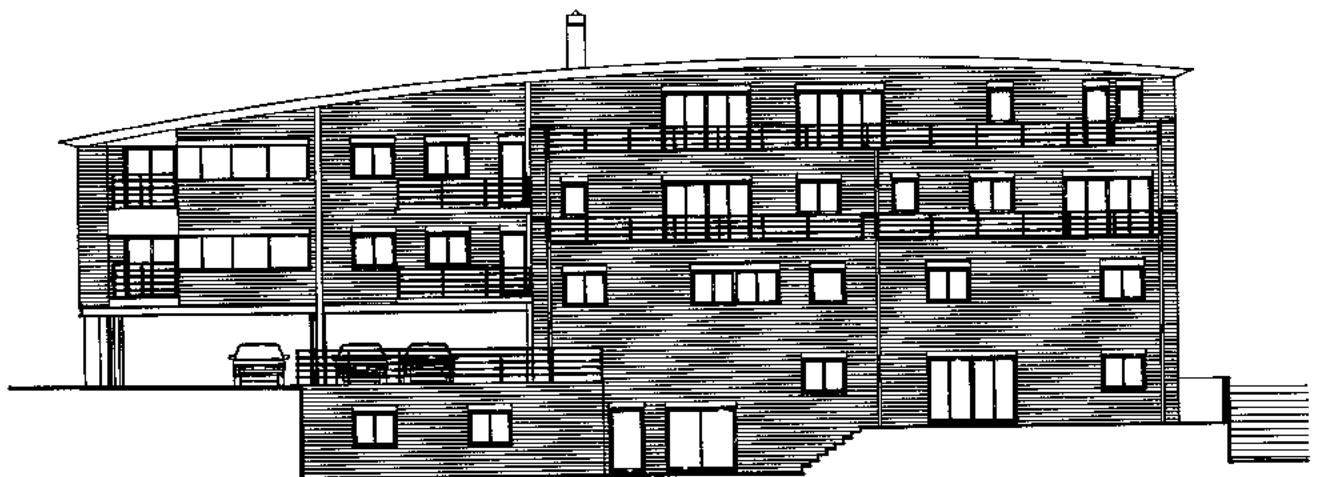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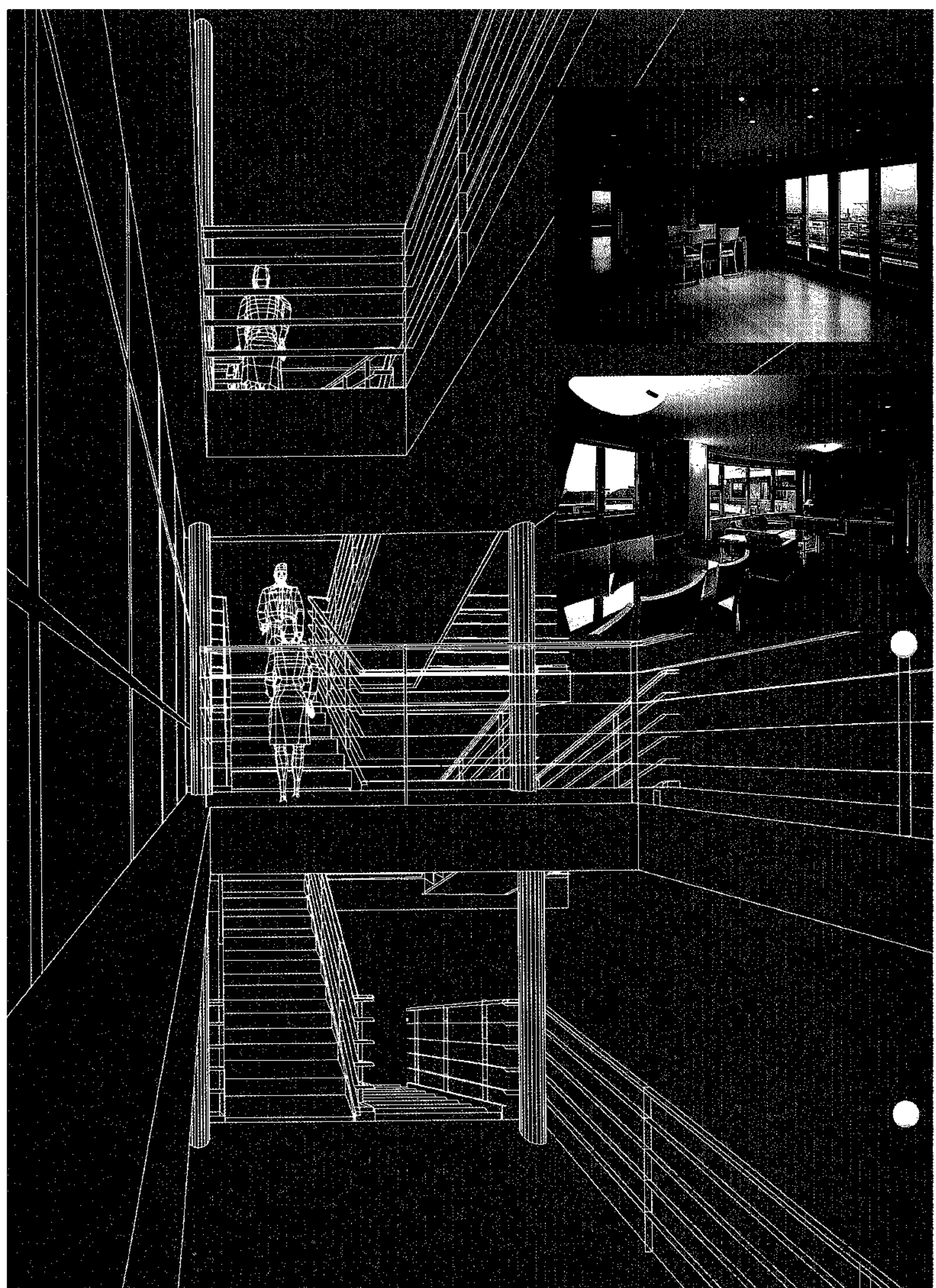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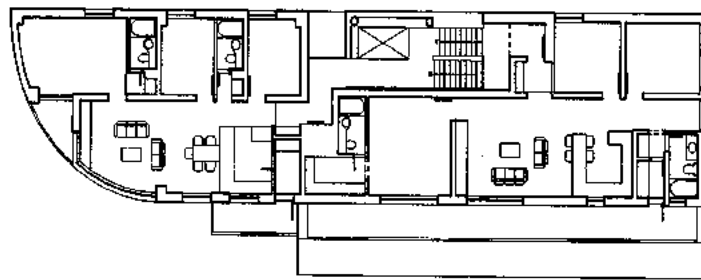
계단홀의 유리박스는 건너편 높은 축대의 중압감을 해소시키며 골목을 밝게하려는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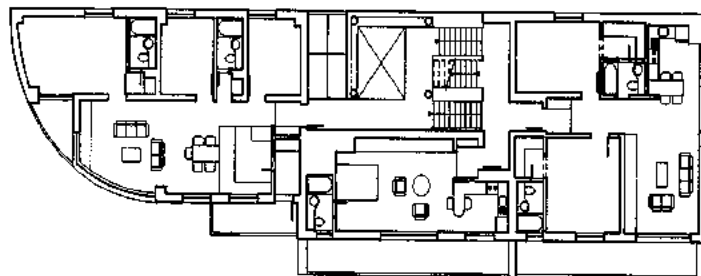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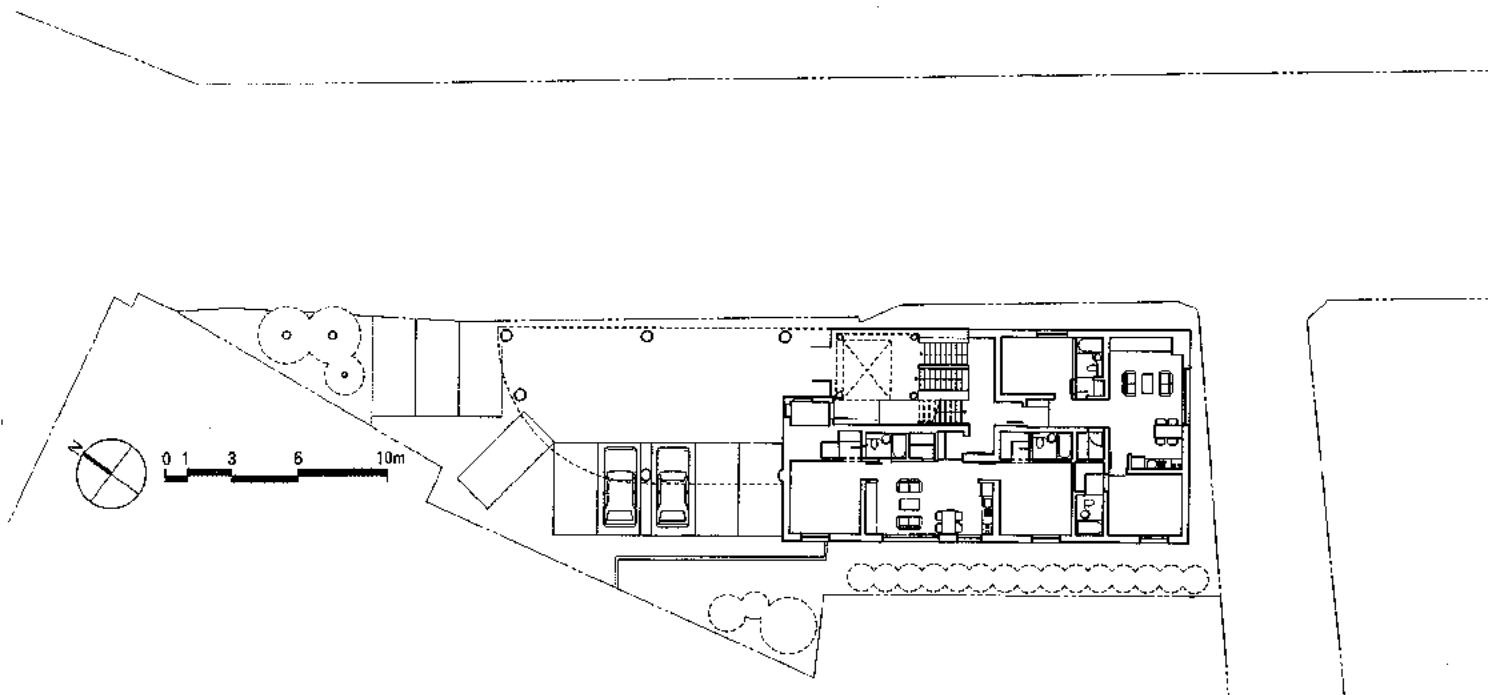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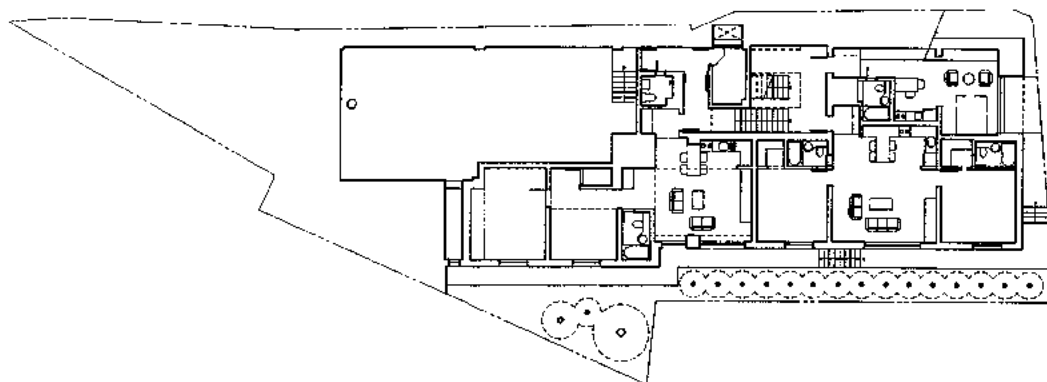
중3층 및 4층 평면도



중2층 및 3층 평면도



중1층 및 2층 평면도



지하층 및 1층 평면도

길과 집의 만남 Between Street and House

대담자/민현식(한국예술 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설계자/유원재(다건축)

Min Hyun-Sik & Yoo Won-Jai

일 시 / 1997. 7. 23(수) 17:00

장 소 / 다건축 회의실



민현식_____이 집을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항상 부러운 유원재씨의 세련된 감각이 물씬 풍깁니다. 이 집을 꼬투리 삼아 우선 '공동주택'에 대한 유원재씨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이 집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친 벽이 무엇이었는가 등을 듣고 싶습니다.

유원재_____공동주택은 비싼 땅값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고, 각 집이 개별관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나타난 수단이지만 사람들은 주거의 개별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만족하고자 한다 봅니다. 이런 양면성에서 보면 공동주택의 개별영역과 공동부분을 잘 연계시키면 모여 산다는 덜 심심함과 주거의 관리효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현실의 벽은 남산 경관을 위해 순환도로에서 -1.5m 고도제한을 지키며, 설계 요구사항(특히 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순환로에서 집이 안보인다는 것이 건축가로서 아쉬웠습니다.

민현식_____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공동체意識(또는 같이 산다는 의미)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오히려

의면성이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 집에서 그러한 선택이 어떻게 행하여 졌는지...

유원재_____이 집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외국 직원을 위주로 마련되었기에 동호인 공동주택과 비슷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00호'로 불려지는 대신 '누구네 집'이라 불려질 수 있는 10유닛 규모이어서 각 세대의 개별성을 주었고 계단홀에서 각 세대에 이르는 출입행로도 각기 다른 장소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민현식_____이러한 정신이 가장 뚜렷이 구현된 곳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도시 길의 연장이기도 하고, 또 집의 연장이기도 해서 도시와 집을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또 이 "수직의 길"에서 입주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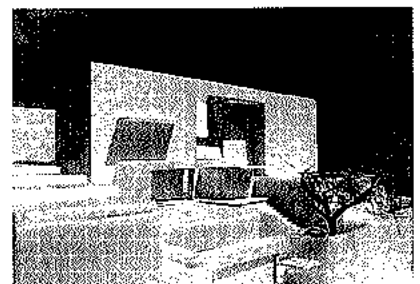
유원재_____얘기대로 설계자의 의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즐거운 일입니다. 설계 요구사항을 수수께끼 풀 듯이 해결시키고 남은 부분이 계단홀입니다. 이 부분은 건



H. 빌라 모형



구기동 M주택



성북동 H주택

축가에 일임을 한 건축주의 배려로 설계작업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곳입니다. 마치 협주곡의 카덴차(Cadenza: 독주자 맘대로 연주할 수 있는 장식적 악구)와 같습니다. 한지붕 밑에서 산다는 연대감과 자부심을 나타내려 했지요. 집과 도시를 연결해 주는 매개공간인 이 계단홀은 시선의 변화가ダイナ믹하게 변화되는, 수직 이동중에 즐길 수 있는 깊고 다양한 오픈스를 두어 연출되었습니다. 이 다양함은 실은 서로 다른 유닛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좁고 폐쇄적 공간(엘리베이터)에서 어설픈게 마주치는 이웃보다는 밝고 적극적인 계단홀에서 한지붕 식구들이 자연스레 말을 걸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낀다 봅니다. 이 계단실은 길 건너 북쪽으로 집보다 더 높은 축대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삭막해진 길거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구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야간에 거리의 풍경을 조성하는데 각 건물의 책임이 있다 봅니다. 예로 구반포의 도로 양쪽의 상가가 있는 곳은 생기로우나, 신반포 쪽으로 오면서는 어두컴컴한 아파트 담장으로 거리가 죽어 있어 야간보행시 안전에도 위험스런 죽은 도시같은 어두운 모습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집이 어두운 거리를 위해 계단실을 커튼월로 개방하고, 입주자들은 그곳을 오르내리는 연출을 하여 뒷골목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민현식 지난 3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의 아파트 평면 형식이 거의 고착화되어 간 듯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 집에서 시도한 각 유닛트 평면이 "우리공동주택"에 전일보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될지요.

유원재 유닛트 평면은 4가지 타입(가족형, 커플형, 합숙형, 독산형)으로 10세대를 켜 맞추다 초창기로 끝낸 셈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새로운 것은 합숙형 유닛트인데 욕실과 옷보관실이 각각 독립된 침실 2개에 거실, 식당, 주방

등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각 방의 독립성과 공동사용의 넓은 거실, 식당 등을 얻을 수 있지요. 이런 형태는 한 유닛트를 공동 사용하여 얻는 이점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봅니다.

민현식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좀더 다양한 유닛트프랜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듀플렉스, 스컬 후로마, 또는 최상층, 측면, 지층 등에 여러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 집에서 이러한 다양한 유닛트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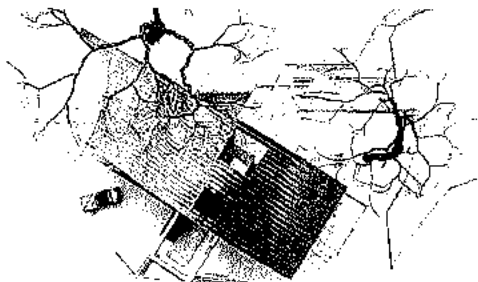
유원재 앞서 얘기한대로 남산 순환도로 레벨 -1.5m가 이집의 단면 상한선이 동근 지붕선이 됐습니다. 그 단면에서 최대 용적을 늘다보니 자연스레 스킵후로마를 적용하였고 최상층의 천정선도 꼭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초기에는 듀플렉스를 도입해 보려하였으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연속된 평면주거형식을 더 선호하더군요.

민현식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떤 뜻으로 세밀한 말초적 생활의 디자인입니다. 어떤 생활을 그에게 전해 주셨는지요.

유원재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설계의 최후의 숨결이자 연출입니다. 허나 건축가의 책임인지, 사회 통념상 마지막 연출은 건축가에 의해 대개 행해지질 못합니다. 이 집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건축의 의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건축주의 분리된 발주체제로 인하여 초점을 하나로 맞추지는 못했나 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건축설계의 횡방관으로 둔감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전 시간 흐름속에서 생활자체가 복잡해지므로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미니멀 디자인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절제된 실내 분위기를 생활의 연출로 채워나가야 하지요. 그리고 건축과 인



한남동 J주백



과천 주암주택



동교동 원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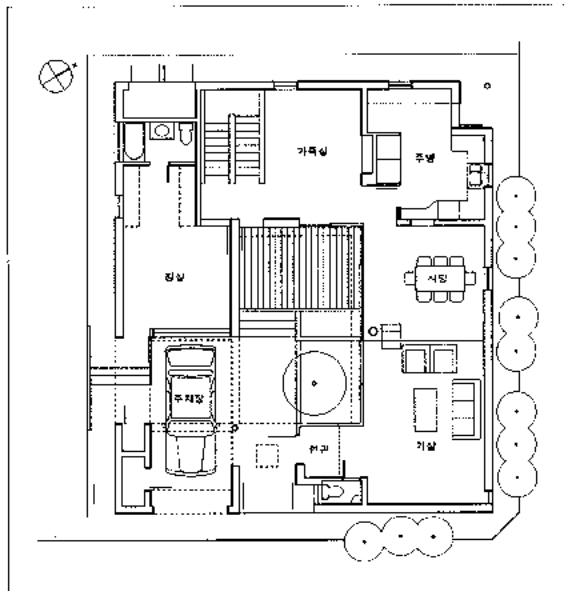
테리어 설계가 같은 개념 설정에서 연속성을 가져야 하지만 서로의 견해차로 그 의도가 불분명해지기도 합니다.

민현식 _____ 전망이 좋습니다. 상층부의 전망은 정말 극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망이 나빠지는 저층부에서 이러한을 다른 무엇으로 보충하고 있습니까?

유원재 _____ 남서쪽의 서울을 내다 볼 수 있는 전망은 이집 설계의 주요한 요소였습니다. 시간을 담을 수 있는 움직이는 그림을 액자화하려고 했습니다. 저층부는 전망이 좁아지나 남서쪽 사면을 이용해 짜투리 개발정원을 두어 접지성을 높혀 보충하려 했습니다.

민현식 _____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고유의 생활방식”이 있다면 또는 이 집에서 제안하는 “생활”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합니까?

유원재 _____ 이 집에서 우리 고유의 생활방식을 직설적으로는 찾을 수 없다 봅니다. 모든 고유 생활의 정신은 우리 내면세계에 깔려 있지만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모두 많이 변화되었지요. 아마 식생활이 그중 가장 많이 전래되었나 봅니다. 예를 들면 김치와 된장 같은 것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고리와 두루마기는 우리의 상징적 의복이지만 실생활과는 멀어지고 있듯이 주생활의 고유 패턴도 형식이 다닌 우리의 사고체계에 흡수되어 있는 의식에 의해 이어진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주거에서 전통 주거형태인 ‘ㄷ’자 집의 미당을 은유(metaphor)화 해서 계단홀을 만들었습니다. 몇 가구가 함께 세들어 살던 ‘ㄷ’자 집의 조그만 마당에서는 생활의 애환들이 펼쳐지는 무대였지요.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할까요. 이런 세상은 얘기거리들이 남산골 뒷골목 유리박스 안에서 어떻게 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과천 K주택



서울대 외대가숙사 현상용모안



합정동 L주택



한남동 J주택 계획안



곤지암 주택 계획안



합정동 L주택

‘보는 건축과 보이는 건축’

The Seeing and the S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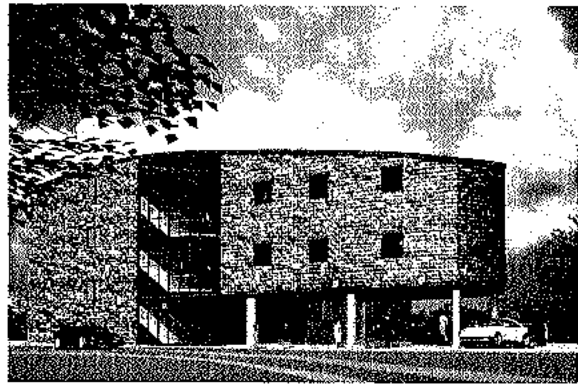
김현철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예술론 박사, 건축사

by Kim Hyun-Cheol

남산 도는 길 남쪽 아래(옆이 아니다) 두툽 바위 마을(후암동) 437번지에 놓인 맑은 아침나라 큰 나그네집 일꾼 목이터(‘Westin Chosun H Villa’)를 민현식 앞선스승과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 유원재 앞난스승(선배)과 함께 둘러보던 중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눈여겨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건축가 유원재 앞난스승이 귀찮게 주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터이므로 비밀을 발견하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그것은 이 건물이 글쓴이가 아는 범위에서는 도로선(정확히 말하자면 도로단면선)을 따라간 아마도 첫번째 건물일 것이라는 것이다. 무슨 똥똥지같은 이야기냐고 물을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일단 그 전모를 밝히자면 이러하다. 건축가 자신의 귀뜸에 의하면 유원재 앞난스승은 이 건물이 도로 옆이 아니라 도로 아래에 지어진 데다가 남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로단면선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집이 남산 도는 길에서 보이지 않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점이 못내 못마땅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대 한계선인 도로단면선까지 건물을 올리기로 하되 남산 도는 길이 경사도가 일정하지 않은 오르막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지붕 옹마루선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집 맨 위층의 지붕선은 수평면과 자연스러운 경사면이 합쳐져 마치 다락방과 같은 인상을 갖게 되었거니와 지붕면에 곡면을 설정하는 요즘 경향과도 멀지 않아 자연스러운 멋내를 부렸다고 보아서 무리가 없게끔 되었다.

같이 있던 민현식 앞선스승은 건축가의 그런 생각이 별로 탐탁지 않았던 모양이다. 집을 둘러보고 난 뒤 저녁하는 자리에서 지붕선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다. “아무튼 이 건물은 유원재답지 않다. 유원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앞선스승이 건축가가 자신의 평소 소탈한 모습과는 상이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점을 안타까워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의 다른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건물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지적은 어쨌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글쓴이가 알고 있는 한에서도 유원재 앞난스승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겸손한 인격을 가진 이이다. 이러한 점은 건물을 짓는 태도에도 이어져서 건물



하나하나가 보다 진솔하게 생활을 담고 자기를 뽐내기보다는 주위 건물과 어우러지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듯 싶다. 이런 유원재 앞난스승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민현식 앞선스승의 이번 지적은 우선 정확하고 거기에는 건축가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라.

글쓴이와의 경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0여년전 프랑스 파리 근교 에브리 제2지구(Evry II)에 자리잡은 시리아니(Ciriani) 선생의 운하 끝 집합주택을 방문하던 때의 일이다. 앞난스승은 시리아니의 대표작이라고 할 그 주택보다는 그 주위에, 우리로 치면 집장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지어 놓은 경사진 기와 지붕을 얹은 그렸고 그런 집을 훨씬 탐탁해 하였다. 글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한 인격자 개인이 소탈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건축하는 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시대의 건축사상이나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진솔한 생활’을 담는다는 것은 ‘서구화’, ‘거대화’, ‘전형화’ 내지는 ‘엘리트화’된 삶의 틀을 담았다고 보여진 근대주의 양식에 대해 ‘민중적인 것’, ‘서민적인 것’, ‘자연발생적인 것’을 지향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70년대 이후 우리 건축문화계를 휩쓸었던 한국판 포스트모더니즘 이데올로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당시 우리의 사고 양태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축물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주위환경 콘텍스트에 대해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압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외부에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이른바 자연주의적 건축전통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았던가? 유원재 앞난스승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진짜배기 ‘우리’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면 건축이 지나치는 도로에서 보이지 않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지금의 건축가 유원재는 무척이나 바뀐 셈이다. 아니 개인 자격을 가진 건축가일지언정 한 시대의 건축사상이나 흐름에서 자유로기 힘들다는 앞서 말한 명제를 다시 새긴다면 세상이 바뀐 것인 지도 모른다. 그런데 글쓴이가 이러한 변화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이 건물에 더욱 진하게 묻어나지 못한 점을 아쉬워 한다고나 하면 어떨까?

여기서 이러한 변화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두세가지 짚고 넘어가야 함을 웅서해 주시길 바란다. 우선 건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청산하는 세계적 추세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의 경우로 치면 청산분위기 그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택단지의 인간화', '향토적, 민족적 특성의 발견' 등 포스트모더니즘이 갖고 있던 많은 덕목에도 불구하고 이 사조는 건축물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다운 논리로서 해결해야 할 건축조형의 문제를 역사나 기호상징과 같은 비건축적 요인에 쉽게 이양해 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건축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림이나 문학, 철학에서 나타난 같은 이름의 사조보다 훨씬 일찍 등장한 반면 그 양상은 매우 달리고 있었다. 읽는이들은 우리에게 '근대건축은 실패하였다'는 피터 블레이크의 책이 끼친 영향이 지대했던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름 그대로 보자면 모더니즘의 후계자이고 그의 후계자다운 면모는 모더니즘의 비판정신을 잃지 않는 데서 발휘된다(그것은 매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에 대해 자세히 논할 여유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자체를 부정하는 반모더니즘과는 궤를 달리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모더니즘을 단순히 부정함으로써 그 고유의 비판정신을 소위 대중적이라고 치부된 상징체계나 역사와 바꾸어 버렸다. 그 결과는 상업 물(mall) 계획이나 도시개발업자들이 지은 사무소, 호텔 건물이 이 언어를 쉽게 도용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듯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업주의화로 귀결되는데, 이 점만 두고 보더라도 유원재 앞난스승의 탈-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은 우선 반기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유원재 앞난스승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두번째 이유는 건축이 '보이기'를 바람으로써 건축 본연의 양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흔히 겉치레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건물 모양보다는 건물이 담고 있는 기능이 솔직하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의도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게 '고차원' 상태에서 건축물이 녹아나 있는 것을 더 높이 사곤한다. 이러한 태도는 건축이 '공간 예술'이라는 가치와 결합하면서 더욱 확고한 신념이 되어 버렸다.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축의 본질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건축의 일면에 집착할 뿐 아니라 텍스트문화의 특성은 보일지언정 조형적이지는 못하다(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읽지 활자체를 감상하지 않는다. 타이포그래피를 하는 이들은 본문 글자체 디자인을 할 때 평가 척도를 '본문글씨가 최대한 읽는이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건축이 공간예술

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공간은 비공간, 즉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건축공간은 허공과 물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허공이나 물체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건축물은 '보임'으로써 보이지 않는 공간을 드러나게 하고, 혹은 그 안에서 관찰자가 보고 있는 기능을 담은 양면성의 여러 관계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건축물은 당연히 '보여야' 한다(단 이 보임이 반드시 지나가는 도로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그 점에서 글쓰이는 민현식 앞선스승과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런데 건축물이 '보여야' 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됨을 뜻함이 아니라 그 보임이 치밀하게 계산되고 엄밀하게 짜여져서 잘 디자인된 타이포그래피와도 같이 그 의도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녹아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건물은 성공과 아쉬움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성공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붕선의 의외스러운 메시지 간직효과를 들어야 할 것이다. 글쓰이는 어쨌든 이 건물은 도로단면선을 건물에 투영한 유일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가치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예술의 첫번째 가치는 현존하는(혹은 진부한) 세계에 가능성 있는 새로움을 더한다는 데 있다).

둘째로 건물 내부에서 계단홀이라는 흔히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에 조형적 태도로 접근하고자 한 점을 빼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이 부분은 계단의 조형적, 공간적 가능성이 실험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솔모 없는 곳이 공간의 질을 결정한다'는 명제를 증명시키는 지점이 되고 있다. 건축가는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실험하기 힘든 둥근 기둥을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고 그 기둥이 보와 계단 측면과 만나는 지점을 자체를, 그 구축논리 자체를 사용자에게 눈요기로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쉬움은 성공과 앞뒤면을 이루듯 엮여 있다. 즉 건축물이 보이는 것을 의식하였다면 이 '보임'이 더 큰 철저함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은 큰 약점이 된다. 도로단면선을 최대한 차지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지붕선이 조형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식으로 첫 의도와는 다른 효과를 만들었다는 점은 조형작품에서 우연성이 갖는 가치를 생각할 때 굳이 결점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물 입면 처리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 건물은 남산 도는 길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아랫길이 상당히 좁고 한쪽이 거대한 축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앞모습이 정면에서 보여지기 힘들다. 이 건물은 아랫길 입구에서부터 측면과 정면이 투시도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심분 활용하면 우리 전통 건축의 최대 장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안보이다가 어느 순간엔가 나타나게 되는 선적 시나리오를 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개구부 위치는 입면도 상에서 검토한 흔적은 있으나 비스듬히 보일 때의 리듬이 고려되지는 않은

성 부른다. 여기서는 창문의 크기나 위치가 루시도상에서 엄밀하게 고려되었어야 했을 곳이다. 이 건물의 남쪽면에 있는 발코니 부분의 처리가 눈에 거슬린다. 건물 측면에서 보면 건물의 정면인 북쪽 입면에서 이 발코니가 시작되는 곳까지 잘 정리된 형태로 가다가 느닷없이 들쭉날쭉한 테라스열이 붙어 있음을 발견한다. 자연주의적 우연효과를 노린 것일까 아니면 건축주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난스러운 건축과정에서 건축가가 그만 피곤해진 탓일까? 건물을 대칭적 본체와 자유리듬을 가진 테라스 부분으로 나누어 잘 구별된 두 볼륨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내부공간은 깔끔한 재료와 동선처리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주거기능에 압도당한 느낌이다. 북쪽으로 보이는 거대하지만 잘 쌓여 아름다운 축조조망이 의도된 것이기보다는 뒤틀린 창을 통해 우연히 시선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남쪽 테라스 외부공간과 거실 등 내부공간 사이의 연결이 별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 길게 연결된 주택평면 특성상 긴 복도가 생겼는데 여기에 선형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한쪽 벽에 약간의 들고남을 두고 다른 쪽으로는 방과 거실의 열림과 닫힘이 계산된 리듬으로 어긋나면서 전개되어 복도 끝에 놓인 외부 창이나 반대쪽 방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조망 내지는 거기에 놓인 특별한 가구들이 시선 표적이 되도록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도로단면선을 따라간 기운 천정면의 점강효과가 더해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또한 앞에서 말한 계단실의 조형성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는 흔하지 않은 공간 표현을 쉽게 이루어냈다는 안도감에서인지 여러 디테일 접합부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머물렀지 기둥의 굵기나 위치 리듬, 보 굵기나 만나는 곳과의 상관관계가 엄밀하지 않다...

이젠 머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얼핏 아쉬운 점이 성공한 점보다 길게 제시되어 이 건물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칠까 두렵다. 그러나 여기 놓인 아쉬운 점은 성공한 점을 더욱 완벽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짚어야 할 사항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오히려 결점이 많지 않은 것이라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어쩌면 이 아쉬운 점들은 건축가 유원재 앞난스승이 '보여준다'는 조형예술적 태도에 대해 아직 망설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 이 건축가가 '보여줌'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면 그때 보여지는 양상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형예술에서 그러한 태도는 정당하며 현재의 조형예술계가 걷고 있는 정통이고 글썽이는 유원재 앞난스승의 따름이어서 이 새 조형태도가 가진 가능성은 믿는다고 되풀이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어도 우리가 없으리라. 【모래벌쇠 어진술기】

Looking through the Westin Chosun H. Villa, located under(not beside) a Namsan driveway in Huam-Dong 437, with senior architects Min Hyunsik and Yu Wonjae, we came across an interesting fact. Or rather, we could 'discover' the fact, since were it not for a hint from senior Yu, the creator of this building, it would have passed unnoticed. The form of the villa was set in accordance with the road, or more accurately, the section of the road: To my knowledge, it may well be the first of this kind. According to senior Yu, the site of the building was not next to but beneath the main road, and the nature-preservationist restrictions forbid any construction above the section of the road. Much to the senior's disappointment, the villa could not be seen from the road. Therefore he chose to raise the building to the limits of the road, and since the road was sloped, the roof of the villa also became slanted. This, however, was unsatisfactory to senior Min. He mentioned that it wasn't like senior Yu's previous works, which were more humble and "did not show off itself". The way I knew the architecture of senior Yu was also similar to senior Min's: As projections of his modest attitude, they were earnest containers of life which chose to harmonize with its surrounding building rather than standing out among them. The heartfelt comment on senior Yu by Senior Min, who knew him better than anyone else, was nothing but precise.

I remembered an incident 10 years ago, when I visited Professor Ciriani's public housings in Evry II near Paris with senior Yu. He overlooked what is

acknowledged as Ciriani's best work, and showed more interest in the neighboring so-called commercial housings. Since no individual can untie himself/herself from the ideology of the surrounding society, it was more than a sign of an individual's humbleness; it was THE way of thought for a practicing architect at that time. Korean Post Modernism ideology, standing against the Modern styles that seemingly incorporated "western", "enormous", "typical" and "elitist" way of life, instead sought values such as "nationalist", "common" and "naturalistic". This was even thought to be in coherence with the naturalist architectural tradition. Architecture which 'showed itself' was considered equivalent to those which, by violating the rules of its context, presumptuously demanded attention. So, it could be said that senior Yu, now disappointed that the villa could not be seen from the road, has gone through a definite change of values. Or again since that no individual is free from the value system of its society, it could be said that the society itself has changed. At this point, I would humbly like to express my opinion, that I am pleased about this change. It's more accurate that I feel sorry this change has not been fully embodied in the H. villa. There are several reasons.

Firstly, the current phenomenon of discarding Post Modernism, that is if we put aside the problem of evaluating it on a world-wide ground, is arguably giving birth to new possibilities here in Korea. Post Modernism, with all its virtues exemplified in logos such as "the humanization of public housings" or "revision of the

traditional and the national", easily passed on issues of architectural forms to un-architectural realms of history and semantic symbols. The Post Modernism of architecture came much earlier than and showed different aspects from that of paintings, literature and philosophy. It is not hard to remind ourselves of the enormous impact that Peter Blake's 'Why Has Modern Architecture Failed?' had on us. But as its name indicates, Post Modernism is a successor to Modernism, and it can truly succeed Modernism only by maintaining its critical spirit (This then relates to the research on the medium, but that is not the issue here in this article). Post Modernism is different from Anti-Modernism. We, however, chose the easy way to negate Modernism itself and substituted its critical attitude with symbol systems and history - namely the "popular" codes. This resulted in the commercialism of Post Modernism, as well shown in the fact that offices and hotels from developers and shopping malls were the fastest in accommodating to the "new language". From this reason alone, senior Yu's breakaway from Post Modernism deserves a warm reception. Another reason to be welcoming this change is that, willing to be seen, it restores the double aspect of architecture. It is usually considered ethical to put more emphasis on the content than on the beautification of its container. This is transferred to architecture as a preference for earnest functional solutions than for its forms. We think highly of transcended forms, intentions melting into the architecture to the point where it no longer is visible. This view also stems from the fact that architecture is basically an art of spaces, which is in fact something that you cannot see. The invisible is the fundamental element of architecture. But I must insist that this is a narrow point-of-view, catching the character of architecture as a textual culture but neglecting its form-building aspect (When we read a novel, we do not concentrate on the fonts of the text. Typography designers find excellence in letters which themselves become 'invisible' to the readers). No one can object to viewing architecture as an art of space. But space is created by the relation between the solid and the void, not by either one alone. In other words, 'the seen' shows 'the unseen'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can be defined as diverse relational forms fulfilling the function of enabling inside viewers to 'see' these interplays. In this view, architecture should righteously be willing to be seen (It does not follow, as senior Min pointed out, that the villa has to be seen from the road). But to be seen, it should not be seen coincidentally: As typography is developed and arranged until it reaches the 'invisible status,' architecture also should be designed to the point where intentions melt into the forms, hence become 'unseen'. In this respect, the building has both virtues and flaws. It is successful where it astonishes the viewer with the effect of presenting unexpected message of the slanted roof. It may well be the first to reflect the sectional line of the road to its form, and this fact is nothing short of meaningful (The first value of art is to add new possibilities to this existing world of platitude). Another virtue can be found in the interior staircase: Instead of the usual functional approach, the architect deals with it

in respect of forms. Its form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are fully developed, proving that "the quality of the space can be sought in useless ones". Round, exposed concrete columns, uncommon in Korean constructions, were eagerly used, and the meeting of the column with girders and stairs, or their constructional logic itself gives pleasure to the eyes of the viewer. The failure of this work stands right next to its success. If the building was to be seen, the fact that it is not seen thoroughly enough becomes its weakness. The slanted roof that unintentionally expresses the double aspect of architecture does not necessarily become a flaw, since coincidences often prove meaningful in plastic arts. But the elevation design leaves many things unfulfilled. Since the site is beneath the main road, with the approaching lower road completely facing an enormous retaining wall on one side, the elevation cannot be viewed from its front. Approaching the villa, the main and side elevations appear from a perspective point-of-view, and this feature could have perfectly accommodated the famous traditional method of linear scenario, alternating between showing and hiding itself. The position of the entrance seems to be fixed from the elevation drawing, not from the perspective. The positions and sizes of the windows should also have been decided from the perspective point-of-view. The terraces in the south side look awkward; it would have been better had it been divided into two volumes - one with symmetrically order and the other with rhythmic terraces. The interior, though it is neatly composed and furnished with fine materials, seems overpowered by the functional aspect of dwelling. The view of the huge but nicely constructed retaining wall in the north seems to be given rather out of coincidence than inten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outdoor terraces and the interior spaces doesn't show much sign of consideration. The inevitable long and narrow hallway in each unit could have been better with a linear scenario: Some irregularity on one side with rhythmic layout of open and closed rooms on the other should give a dynamic sense of space, with the window and its view, or some peculiar furniture at the end of the hallway providing a visual target (The slanted roof could have even enhanced the gradual dynamic effect). And the staircase mentioned before, has found satisfaction in the fact that it tried such detail. It did not further its reflection to points such as the thickness of the column, rhythms of its positions, and relation between the width of the girder and the place of connection.

Those aspects I found unsatisfactory were only mentioned to point out the huge amount of success this building has achieved. Perhaps they were there because senior Yu still has doubts about the will to be seen in plastic arts. If he firmly establishes his belief on 'the seen', then his works will open another totally different realm. It is just for a plastic artist to be willing to show himself through his/her works. This is what the plastic art of this era aims for. As a follower to senior Yu, I believe in the possibilities this position bears.

좌담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겸업」 무엇이 문제인가!

Permitting the Construction
Companies to Design?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건설회사는 건설법에 의해 건축물을 시공해 왔다. 이같이 설계와 시공은 각기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업역의 구분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제화·개방화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몇 해동안 대형건설회사들은 건설업의 경쟁력을 내세워 설계겸업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므로써 '건제와 균형'이라는 기존의 상식화된 설계와 시공의 상호보완의 동반적 틀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

이같이 건설업체에서 주장하는 종합화 문제는 이미 지난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와 함께 '우리 건축설계업의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는 사안임에도 최근들어 또다시 행정규제완화라는 정부시책에 편승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진입규제완화라는 형식으로 심의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건축계는 건축문화말살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이번 좌담을 통해 왜 건설업체가 설계권을 계속 요구하는지, 또 설계와 시공이 갖는 본질적 성격과 각각의 업무적 특성, 바람직한 상호 협력방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므로써 국민편의와 공익증진에 기여하면서 설계와 시공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일 시 / 1997. 7. 15(화) 14: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석자 / 최천환(사회, 서울시립대 교수)

강기세(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김광욱(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홍일(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이범재(단국대 교수)

최동규(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찬환 _____ 바쁜신 중에도 여러 토론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좌담의 주제인 「건설업체의 설계진출」 문제는 이미 몇 년전부터 건설업체와 건축사사무소간에 끊임없이 뜨거운 논쟁이 돼 왔던 것으로 3년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입규제」라는 명분을 달고 건설업체도 설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더 심층적으로 이를 진단체 보고자 합니다. 설계업체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현안 문제이기어 어떻게 하면 가장 용이하게 풀여갈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계와 시공의 성격 규명부터 시작해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가 어떤 특성과 업역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이 실무분야에서 특색있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니만큼 실무적인 면이나 논리적인 면에서 좋은 토론이 있으실 줄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건축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되어 왔습니다만 때로는 문화예술의 논리를 들기도 하고 혹자는 경제논리를 우선하기도 하는데 물론 복합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다음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기세 _____ 이 문제는 5년여전 제가 협회에서 이사로 활동할 당시 시장개방과 관련해 수차례 걸쳐 건설부에서 회의를 가질 때부터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가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외국의 경우 특별한 규제없이 기업활동 주체자가 사회환경에 맞게 자유스럽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설계만 한다든지 시공만 한다든지, 겸업을 한다, 안한다 등의 문제는 그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기업활동 주체자가 스스로 판단해 할 뿐 우리처럼 제도화해서 묶어두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설계와 시공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규제나 제도화없이도 자연스럽게 조화있게 정착할 수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홍일 _____ 일부외국의 사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건축사가 건설회사에 고용 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의 흐름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건설회사는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기 마련이고 건축사사무소는 아무래도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을 가진 이들이 모인 조직이니까 조금은 문화적인 성향이 강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훨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약자보호'라고 말한다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적으로 오리엔트된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으로써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업체가 설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서서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기세 _____ 일본의 경우는 제도화하지 않고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홍일 _____ 제가 듣기로는 잘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설계하는 이들이 건설회사가 설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다시 개정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기세 _____ 일본에선 건설회사에 속해 있는 설계사사무소가 거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추구하는 설계를 거의 안한다고 들었는데, 그루기와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자기에 디자인에다 다께니까 고무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더군요. 다시 말해 기술에 있어서 만큼은 건설회사가 우위에 있으니 설계사무소의 문화적인 디자인에다 건설회사의 기술을 합치는 것이 좋더라는 것이 일본에서의 경향이더군요.

일본에서 설계하는 이들의 말로는 조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건설회사는 절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계를 한다면 자기들이 매니지먼트하는 것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설계사무소를 합쳐 프로젝트화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일수록 외부에서 끌어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설계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찬환 _____ 외국에서는 크레임이나 보험, 계약조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없는 분야는 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웃푸싱이라고 해서 바깥의 전문회사들과 파트너십 관계나 컨소시엄을 형성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수주산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설계의 업무와 시공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자가 와서는 건설업체가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로 분양 아파트 부분을 설계하겠다는 생각이 주로 많은 듯 하던데...

김광욱 _____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프랑스나 독일같은 경우에 건설회사에서 건축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건설회사에 소속되어서는 건축사의 이름으로 설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은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나라일수록 전문직종에 대한 권위나 책임 따위가 분명하게 되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의 오랜 경험과 높은 지식을 인정해 주고 전문인 역시 전문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전문직의 이름을 이용해 공익에 우선하여 영리활동을 취하는 것은 전문직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이름을 걸고 건설회사에 들어가 영업행위에 매달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설계와 시공의 업무적 특성을 보더라도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건축사가 설계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조형언어를 표출하는 일인만큼 어디까지나 자율성과 창의력이 보장된 창작활동이어야 합니다. 또 시공은 건축사의 설계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서 성실성과 정밀성을 기해야 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야 함에도 31개 대형 건설회사가 소속된 한건연은 시공회사도 건축사를 고용하면 자기네 기업이익을 위해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재 _____ 한마디로 이러한 건설업체의 설계검인이라는 것은 지금의 건축사자격에 대한 법적·사회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자격을 가져야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건축사법이 실질적으로 부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사자격증이 자격과 면허라는 두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절대적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도 된다는 측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라면 건축사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축사자격증은 그야말로 개인의 질을 판단하는 보증서의 역할만을 하거나, 설계사무소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평가기준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건축사를 유지하는 설계사무소는 보다 더 안심하고 설계를 수행하여 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축사들의 입장에서 천신만고 끝에 획득한 건축사자격증의 효용성의 상실과 더불어 생존의 문제까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설계사무소가 얼마나 영세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건설업체라는 공룡에 맞서는 강아지의 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기세 _____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가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문화시켜 나가야 하



는데 우리 건설회사의 경우 문제점이 많은 게 기술을 바탕으로해서 건설회사를 이끌어왔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노동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건설을 했던 습성이 있어 이제는 아예 그것이 굳혀

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스케줄 관리, 코스트 관리, 기술·품질관리 등은 등한시하면서 순전히 경영적으로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지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설계도 돈벌이의 일종이 된다고 해서 자꾸 검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자기네들이 그 분야를 깊이 있게 했다면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같이 정말 신용도 좋고 그 회사가 집을 지으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집이 탄생된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면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의 다케나마 고무멘의 경우 설계 직원이 약 1,000명, 나머지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현장이 벌어지면 모두가 설계분야로 덩벼들어 오. 그래서 샵드로잉하고 엔지니어링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설회사가 여태까지 샵드로잉이나 공사 뒷받침이 되는 드로잉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풍토속에서 생겨난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건설회사가 땅을 사고, 개발한다는 것도 다 그런 논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 튼튼한 집을 지어서 신용도를 높이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설회사는 아직 기구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찬환 _____ 설계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리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건물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창작행위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두가지를 혼동해서 이 모두를 설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 건설회사도 건축사를 고용해서 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기술개발하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작품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창작행위를 하는 것은 일단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공을 위한 설계 또는 시공위주의 설계 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설계는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 문제와는 차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다보면 시공편의를 위한 설계가 왜버려 아이디어란 부분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불란서의 경우 건축사는 기본구상이나 기본설계를 하고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샵드로잉 계통은 건설회사에 가서 도면을 작성하도록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독일은 샵드로잉을 포함한 일체의 도면을 설계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건설업체에서 설계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요즈음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에선 일본에서조차 실패로 인식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 하는지 의문입니다.

최동규 _____ 설계 · 감리 · 시공은 상호 Check & Balance, 즉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설계가 끝나고 현장에 제3자가 시공을 할 때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만일 건설회사가 설계와 시공 모두를 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은 사라져 버리고 자칫하면 국민들은 다된 상품을 그저 선택만 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 경우 건축물은 단순히 구조물로 존재할 뿐 예술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이범재 _____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설계라는 것과 건설이라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를 보는 일반 대중이나 관리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사제도도 어떻게 보면 건설의 입장에서 기술자들을 관리하고 체계를 세워야겠다는 당시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일종의 기술자로서 보는 시각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나 설계를 하는 건축사사무소

가 차별성이 없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영세한 사무소보다는 재벌기업이 하는 튼튼한 설계부서가 더 믿음직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건축의 국제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 왔던 경제발전 우선의 논리지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이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크게 가지게 했던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고 과거의 건설회사가 추구하여 온 것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왔다는 현실이 그런 것들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자신들의 노력부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점은 그동안 건축설계를 믿어왔던 건축사들이 스스로의 입장과 위상의 제고에 등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을 문화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립시키는 데에 실패한 점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점에 편승한 점도 윤신의 폭과 스스로의 논리를 확립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보장되는 대형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하면서 보장된 작업과 전문인으로서 활동해도 되는데 어째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이냐고 이상히 생각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건축의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그 건축의 창의성이 중요한 건축의 요소이며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지 못한 스스로의 책임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최찬환 _____ 건축사사무소의 목표나 가치와 건설회사의 목표나 가치가 일치되면 좋겠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건축사사무소는 이익보다는 결과물, 즉 작품성을 중요시하기 마련이고 기업활동을 통한 이윤추구가 우선인 건설회사는 설계에 따라 시공이 좌우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흥일 _____ 미술분야도 자유경쟁체제에 맡길 수 있는데도 국가에서 보호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술가 중에도 돈과는 거리가 멀게 진정된 창작활동에만 전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듯이 건축설계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기세 _____ 주위에서 보면 건설회사가 건

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넘겨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해서 직접 자기 주관하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일종의 주문주택 형태로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집을 파는 예가 되겠죠.

미켈란젤로가 집을 지을 때 설계자와 시공자가 따로 있지 않았듯이 원래부터 조직상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직접 시공에까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성공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또 설계사무소가 불황 타개책으로 아키텍트가 시공까지 관할하는 쪽으로 업무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역의 구분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건축사 사무소도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건설회사에 설계를 허용한다 손치더라도, 아프리카적인 설계사무소를 하라고 해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암암리에 대기업 계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하라고 해도 그 중 상당부분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에 설계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돈만 행기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광욱 _____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 관계된 모 경제관료의 말을 듣다보니 건축물을 상품으로 보고 있더군요. 단순히 경제논리로 설계를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든, 건설회사가 하든 소비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군요. 일견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 건축물은 한 시대의 문화적 결집체로써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건설회사가 주창하는 아파트나 분양건물이 아무리 자기시공공사라 해도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그들은 TV나 냉장고처럼 상품으로 취급하려고만 합니다. 경제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의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국가재산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강기세 _____ 일부에선 설계가 부실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전체 하자 중 설계하자가 오십 몇 퍼센트, 시공하자가 사실 몇 퍼센트라며 오히려 설계 때문에 부실한 건축물이 나오고 있다고 데이터를 밝히고 한건연에서도 이를 이유로 설계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욱 _____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터가 엉터리인 것이 조사대상이 대부분 건설회사여서 자기 잘못된 인정 안한 채 설계쪽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

다.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영세성 운운하는데 사실 그들 이 설계를 한다해서 서울 외곽의 소규모 주택까지 그들이 자청해 하겠습니까?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을 때 수도권 번두리에서 주택난 해결에 공헌한 것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소규모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들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기동안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사들도 도시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이범재 _____ 실제로 건설회사가 자체의 설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말하지 않더라도 많이 있다는 것



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을 그 계열의 설계사무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든, 하도급을 주던간에 이미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무언가에 아해득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건설

회사가 건설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요는 물질적인 객체를 통한 이익과 건축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공간의 질에 대한 확고한 비물질적인 풍부함의 추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과 그동안에 보여졌던 건설담당자들의 양태로 미루어 건축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의 추구하고 발견의 방법이 건설회사들의 '설계 검정'으로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강기세 _____ 건축사의 자질문제와도 결부되었지만 법 이전에 건축사 자신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건설회사가 집을 지었다길래 가서보면 그중 상당부분에서 여러 형태의 하자들이 발생하고 설계도면 역시 조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사 개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일 _____ 그 문제는 건축사를 배출해내는 건축교육의 질을 높인다거나 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건축사사무소의 영세성을 이유로 건설회사가 설계를 검정하겠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최찬환 _____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을 듯 싶습니다. 당장 건물을 짓는 것은 상당

부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경제성의 논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경제성에 의한 필요보다는 문화논리가 강하게 일게 되죠. 예컨대 불국사 석굴암은 그 시대엔 당장의 필요성에 의해 건축되었겠지만 후세엔 그보다 훨씬 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듯이 건축물을 단순히 경제성이나 사업성으로만 보는 시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껏 '양' 위주의 정책을 펴온 탓에 '질'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낮았습니다. '질' 위주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내지는 전문성, 윤리성 등이 대단히 중요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설계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체내에서 기술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거의가 매니지먼트 위주로 하게 되면 주주산업으로 전략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주는 시스템을 설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의 일정부분을 자신이 소화하고 하도급을 줄 때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시공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굳이 비전문화된 생소한 영역인 설계분야에 진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강기세_____이야기를 들어보면 30대 건설회사 중에는 '설계검열'을 반대하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 건설회사의 경우 조직내에 설계사무소를 두면 자체 설계사무소 때문에 오히려 더 훌륭한 설계 파트너를 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동규_____그에 대한 실례가 아마 D그룹이 S건축사사무소와 관계를 끊고 Free 한 상대로 돌아선 것이 될테죠.

김광욱_____L그룹의 경우도 실제 설계사무소를 가져서는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In House Architect'를 가지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그보다는 특정 프로젝트에 전문성을 지닌 건축사와 조인트 벤처해서 일을 할 때 더 큰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건연이 '설계검열'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아니라 자기시공공사로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를 줄이겠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찬환_____주택공사의 경우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공은 아파트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물량이 엄청난데도 지난해까지 자체내에서 설

계를 하다가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근 들어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경쟁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자사 설계조직을 현상설계에 참여시키는 거죠. 사실 아파트에 있어 주공만큼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 전문화된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현상설계란 방법을 택한 것은 보다 우수한 안이 경쟁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질 좋은 설계가 나오게 되니 자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건축설계의 질적인 향상으로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된거죠.

제가 보기에 건설회사가 설계조직을 갖게 된다고 해도 전혀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어진 물량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 하도급을 주는데 설계까지 소화해낼 리가 만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건설회사가 설계권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아니라 시공을 주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계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설계권을 갖게 되면 물량이나 내역에 대한 정보, 건축주와의 관계 설정 등이 다 되어나오기 때문에 시공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판단에서 시공의 도구로써 설계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자체내 설계조직을 둘 수 있는 대형건설회사와 그렇지 못한 중소건설회사 사이에 불공정 계임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강기세_____최교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만일 건설회사가 수주를 하면서 설계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장 설계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게 되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설계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찬환_____건축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싱가포르나 프랑스같은 나라에서는 설계자가 건설회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복수로 몇 개 회사를 추천하는 거죠.

강기세_____건축주가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도 있습니다. 건축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의 계약에 참여해서 건축사의 날인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으로 인한 법정공방이 있어도 계약 당시 변호사가 참여한 예가 거의 없고 변호사 역시 건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건축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욱_____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지금의 건설회사 설계검열 문제가 과연 공정위에서 다룰 사안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최찬환_____ 공정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공정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죠. 예컨대 설계권을 건설회사에 주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준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시공자와 마주했을 때 반드시 건축주가 전문성을 가진 어떤 사람의 보호 속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설계와 시공이 나누어져 있어 그것이 가능하지만 건설회사가 설계권을 갖게 되면 시공회사에 대한 건축주의 대응능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공정'이 될 수밖에 없죠. 공정위가 진입규제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보아야 하는데 지금은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욱_____ 미국의 경우 소속이 어디건 건축사 자격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고 일본도 일부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들 나라의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들의 의식이란 것이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게 이익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시간까지 체크해 상담료를 내는 것을 당연시 여기 듯 전문직종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비용지불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기본설계를 10군데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본설계를 다했다해도 건축주가 싫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사회성숙도가 이런 정도인 우리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설계분야의 진입규제를 풀어봤자 절대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나마 지금은 건설회사가 턴키나 자기시공공사에 한해 설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제한없는 설계검열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강기세_____ 그것은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각종 개발사업이 많다보니 건설회사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물량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동규_____ 사실 그동안 협회가 보호도 받



으면서 위상이 높아가다가 삼풍사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권익도 잃어가는 것 같고... 대기업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애긴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수입료 수입도 없어먹고 소설가·작곡가도 고용해서 일정시간 창작활동을 하도록 해 히트하면 그 수입도 챙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 업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화하게 되지 않을까요.

강기세_____ 과거에 비해 설계용역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욕심을 내는 것 아닐까요?

김광욱_____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일년에 설계용역시장 규모가 약 1조5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개 대기업 일년 수주 물량은 아마 이를 크게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일 겁니다.

최찬환_____ 어느 상위 랭킹의 대기업 한 회사의 수주액이 7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6천 5백여 건축사가 5만여 직원과 함께 중소기업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선수도 체급에 따라 경기를 벌이듯 설계용역시장을 놓고 대형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간에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란 것은 결국 공정한 게임속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세_____ 제가 보기에 수주를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인력의 이동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나 보조원들이 설계를 해 왔으니 수주를 어디에서 하든 결국 건축사와 보조원이 설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수주한 곳을 쫓아 인력이 이동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설회사로 설계인력을 빼앗기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설계사무소의 외형이 점차 커지고 점차 기업화 되다보니 건설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찬환_____ 제가 보기에 돈을 벌기 위해 설계권을 주장한다기 보다는 설계권을 갖음으로써 과생되는 효과를 노려서인 것 같습니다. 시공물량이 설계비의 5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공까지 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장악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기세_____ 외국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이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끼리의 대화보다는 제3자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건설회사의 '설계진출' 문제도 당사자간의 대화보다는 건설교통부나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려들기 보다는 제3자의 개입없이 이해 당사자간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욱 _____ 당사자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것은 94년 이전부터 건설업체들이 한건연이란 조직을 통해 집요하게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 감정으로 격앙된 탓도 있지만 그동안 몇 차례 토론회 등에 한건연 대표를 초빙했음에도 결국 단 한차례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설계와 시공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강기세 _____ 굳이 건설회사가 설계를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기본설계까지만 건축사가 하고 실시설계를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워킹드로잉단계서부터 문호를 개방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지니어링이 보완될 수도 있고 각각의 단계가 고루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재 _____ 건축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등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또는 설계의 과정을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만 설계는 하나의 일관된 작업입니다. 사실 감리를 설계자의 손에서부터 분리시킨 것도 저 개인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설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성과 창의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점상 특질로 보아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의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전문적 인력의 지원이 절대적 일 수도 있지만, 설계를 분업으로 하는 이른바 분업방식은 설계에 대한 원천적 개념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일 _____ 제 생각엔 건설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기 때 문에... 허가 내는 것까지 건설회사가 하게 되면...

강기세 _____ 허가를 두 개로 나누는 제도를 만들어야겠지요. 허가를 DD단계까지 ...

김광욱 _____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전문가에 대한 예우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인정받는 사회라면, 기본설계라도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강선생님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설계조차 올려져

먹기식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건설 회사가 부실공사의 원인을 설계부실이라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부실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도면 하나를 갖다놓고 수십개 업체가 들어와서 도면만 쳐다보고 가서는 입찰을 해서 소위 찍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따가는 것만 봐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도면을 받아다가 공사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익이 얼마 남는지 세심하게 계산해서 입찰해야 되는데도, 일단 대충 공사를 따서는 이익이 날지 손해를 볼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싸게 공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건설회사가 수주할 때 쓰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명한 수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비용 역시 부실공사를 불러오는 원인일텐데 그런 건 덮어두고 설계쪽에 책임을 미루면서 경쟁력 운운하는 건 이해 못할 일입니다.

강기세 _____ 제 생각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치부까지도 인정하면서 허심탄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덮어둔 채 일방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허심탄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저 피워개임으로만 치달아선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죠.

최찬환 _____ 건축을 하는 당사자간에 대화나 토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지 건축 밖의 제3자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건축 3단체도 있고 건설관련 단체들도 있으니 이들이 모여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게 필요합니다.

이범재 _____ 여하튼 건설회사들의 '설계경업'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설계자, 즉 건축사들중 많은 사람들이 이 건설회사들에 예속 됨으로 해서 일어날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설계라는 것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완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국 설계가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한 보다 더 물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문화적 가치의 추구가 말살될 것입니다. 셋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건축사자 격종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절하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용을 당하기 위한 하나의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넷째는 건축이라는 문화적 작업이 상실되어 건축이 문화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 망각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건축이라는 의미가 상실되어 외국의 설계자들에게 경쟁할 건축사가 없는 황금의 설계시장을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은 거꾸로 설계시장의 무방비개방이라는 절대적인 고비에 처할 것입니다.

최동규 제 나름대로 건설회사가 왜 설계검검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자기네 업역속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겠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계나 시공이니 감리니 하며 복잡한 걸 귀찮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통째로 건축물이란 제품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시공자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누가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또 주로 관공서의 입장이 되겠지만, 삼중사고 이후 설계·시공·감리 중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책임소재를 규명하다보면 그 책임 소재가 회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 감리를 한군데에 맡기는 것이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쉽지 않겠느냐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관공서 역시 건설회사의 논리에 다소간 가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획·계획·설계 등의 분야가 굉장히 약합니다. 일반 국민 역시 패키지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문화된 조직의 협동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한 조직이 수직적 일관성만 가지고 각각 다른 업무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계약제도문제와 보증문제, 이를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굳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 정비된 연후에 개방화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이범재 건설회사에서는 '설계검검'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유능하고 가능성 있는 설계사무소나 건축사의 양성하고 보조 그리고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내에서 설계를 하여 손쉽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목전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영세한 설계자들을 도태시킬 것이고, 그 다음의 그 자리는 역시 외국의 설계자들이 우리 건축시장에 도도히 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이라도 그러한 일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설계자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겠습니까? 어려운 상대인 외국건축가들과 상대하는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군요. 감리전문의 외국회사

가 이미 여러곳에 진출해 있는 것도 이제까지의 시공의 부실화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동규 저는 한 10년전부터 사무실 설계원가라든지 이것저것을 다 계산해서 따져 보곤 하는데, 애써서 일해 놓고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재벌건설회사가 자체에 설계사무소를 갖는다는 때 숫자에 근거해 설계자의 인건비 등을 놓고 따져 봤더니 재설계비를 다 쓰고도 별로 남을게 없을 것 같더라 계산이 나오더군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익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겠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 하청을 주어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겠더라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하청으로 인해 설계의 질은 떨어지고 건축사만 더욱 불쌍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욱 얼마전 이내흔씨를 회장으로 CM연합회란 조직이 새로 생겼는데, 대형 건설회사 위주로 CM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CM의 근본취지는 그와 다른 것으로 압니다. CM에는 크게 에이전시CM과 GMP CM이 있는데 에이전시CM의 경우 CM을 하는 주체가 건설회사나 대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야말로 능력있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면 자기 CM사무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겠다는,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GMP CM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CM의 인정성과 독립성, 공정성 등의 문제 때문에 에이전시CM을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CM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해 설계사무소도 CM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CM이 우리나라에서 정착되면 설계사무소도 CM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의 CM이란 것은 변질되어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봅니다.

김홍일 시공이든 설계든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유경쟁을 벌이도록 해 좋은 건축물을 탄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건축사를 배출해 내는 제도를 잘 정비해서 우수한 건축사를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건축사교육은 어떻게



게 사킬 것이며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많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외국의 경우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파트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들고가도 해결이

되니까 개발할 수도 있다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김광욱 _____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분위기가 건축사가 전문인으로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환경과 선진외국의 환경엔 분명 차이가 있는데도 무작정 규제를 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강기세 _____ 사실 규제완화정책은 WTO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국제화·개방화를 내세워 설계용역업 진입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찬환 _____ 사실 '인 하우스 아키텍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 시공조직에 전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용된 생각'만을 불러올 뿐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의한 독립된 조직이 아닌 수직화된 조직구조속에서는 설계 인력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강기세 _____ 건축사가 고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의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이 되겠죠. 종합병원의 경우 제3자, 즉 투자자가 병원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고용되어 일하지만 어떤 분위기 속에서 환자를 돌보느냐가 중요하며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를 겸하지도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죠. 종합병원에서 약까지 만들면 매일 같은 약만 쓰게 될텐데 환자들이 믿겠느냐는 것이죠.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은 될 수 있어도 투자자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진정한 창작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김광욱 _____ 재벌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안주하려 하기 때문에 훌륭한 창작물을 빚어내기 어려운 반면 소규모 아뜨리에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경쟁에 뛰지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건축사를 고용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잘못된 논리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업역을 침범 당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야 건축문화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요구하는 탄키나 아파트공사의 설계와는 전혀 무관한 대다수의 소

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건설회사의 경제논리에 의한 설계진출을 결사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만 현재 협회는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적으로는 12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건축정보센터를 설립, 각종 건축설계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회원 뿐만이 아니라 건축관련업계 전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공과정에서의 경험을 설계에 반영할 수 없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설회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회 내에 건축사 뿐만이 아닌 설계, 시공업계 관계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 등을 구성해 여기에서 나온 노하우나 자료 등이 정보센터의 여러 통신 채널을 통해 각 설계사무소와 시공회사에까지 전달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범재 _____ 건설회사의 설계검열에 대한 건축사들의 대응방안은 결국 두가지로 요약될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에 대한 명백한 대응입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이 아닌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한 대응을 함으로써 명확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중적인 알리를 통한 대응입니다. 결국 이것도 명확한 근거와 외국의 선례와 건축의 문화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문제에서와 같이 반그릇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는 적극적이지만 논리적인 알리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환 _____ 실패를 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 데 오늘 논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별도의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업역을 명확히 하고 상호 체크와 발란스의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설계를 한다 손치더라도 계약제도나 보험제도 등 사회전반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서는 큰 시행착오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진입규제 완화에 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문화된 룰이 마련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진입규제완화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링의 테두리도 정해 놓지 않고 경쟁을 하라고 하면 무슨 게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회원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질강화를 해야 할 것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고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하자

The Necessity of Architects Mutual-aid Association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건축환경의 변화

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의 삶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일련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 면허의 부여 및 직업적 행동까지도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진다. 사무실을 경영하면서 건축사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직업적인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서비스의 요구는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이며 이것들은 계약의 한 부분으로 된다. 또한 이런 계약들은 건축에 대해 일정한 법률적 의미를 갖게되며, 따라서 법의 한도를 침범치 않고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사업수행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는 사회에서 태만으로 인해 연유하는 제반실수와 부실함은 전문적인 직업인에게 항상 부담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너무나 안정된 건설 분위기에 안주하여 있는 동안에 건축관련제도 변화의 분기점인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이후 최근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예기치 못하는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어, 급기야는 건기법에서 시공분야에 한정됐던 보증제도가 설계·감리분야로까지 확대되어 부실설계·감리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주는 손해배상보증제도가 98년 8월부터 새로 도입되고 현재 사용중인 표준계약서에는 이행보증 증서의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민법에서도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선진국 형태인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우위이고 소비자가 평가하고 거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이제 건축설계를 우리만이 강조하는 창작예술품으로 소비자에게 강요하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급기야 건설업체에서 우리의 업역을 넘보고 이를 진입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려 하고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설계·감리부실도 책임자우려 하며 그 책임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위하여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공사완성 보증제도가 시행되면 보증기관이 업체의 신용상태나 설계·감리능력을 따지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타기관에서의 보증이 어려워 보편적인 사무실에서는 설계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 건축환경은 급격히 변화되었고,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전문직업인의 과실에 대한 건축사책임배상보험이 발달되어 왔다.

1) 외국 건축사의 보험과 보증금제도

미국의 경우 1957년이래 미국 건축가협회(AIA)에서 CNA의 Insurance/continental casualty co. 프로그램인 직업상의 배상 책임보험을 주관해 왔고 이 유형의 보험은 작업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태만, 또는 태만행위의 결과로부터 건축사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상의 배상보험이 채택되어야 하며, 이 보험은 1981년부터 미국 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독립적인 보험회사로부터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건축사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부실설계감리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발주자에 대하여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영국의 공인회계사협회가 고안한 표준계약서에서는 배상책임 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가입 조항을 두고 있다. 독일은 정부의 건축법에 따라 관계당국에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사는 전문직업 책임보험가입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축사의 부실설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상의 하자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강제하는 법규나 제도는 없으나, 신일본 건축가협회나 일본건축사 사무소연합회를 통하여 가입하고 있다. 계약건수는 3,800여건이며, 평균 한도액은 사고당 약4억원 정도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체가 시공후 10년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강제로 부보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 및 보증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이전에 영문배상 책임보험증권인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의 특약으로 건축사와 엔지니어링 전문직업 배상 책임보험 상품이 있었지만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1987년 배상책임 보험 약관정비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일부 손해보험 회사에서 해외보험 약관을 국내에 도입하여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실적은 3~4건 정도이나, 최근 정부발주 대형공사가 늘어나고 부실설계 및 감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 외에 경제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보증제도의 도입을 정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제도의 정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증은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있으며, 일반적인 입찰, 계약, 하자 등의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3) 공제조합 추진의 필요성

국·내외의 전문직업(건축사)배상책임 보험을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보험과 비용이 제시되어 있어 이들중 적어도 하나는 특정개인의 고유한 업무기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항이나 우리의 경우는 최근 건설관련사고와 부실공사가 계속되어 안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제까지 성역시 되어온 전문직업에 대한 배상청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보험제도의 정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개별 전문직업인의 업무자체에 내재하는 특수성과 전문분야 파거경험, 공사규모 및 계약상 가중책임정도로 보험요율 책정의 어려움과 약관 등이 초보적인 개발단계에 있고 각종 보증도 보증보험회사에서의 높은 보증 수수료와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있어 이용에 부담이 큰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관련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제조합(뒷 쪽 도표 참조)을 설립하여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적 공신력을 공여받아 자신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그 위험을 상호분담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건설기술 관리에 설계·감리 손해배상보증의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을 강조하고 건축사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행해 주도록 협조 요청 한 바 있고, 또 우리 건축사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신용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는 공제제도를 도입 활용하여 권리보호와 신용사회의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2. 건축사공제조합 추진방향

우리 협회에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회원의 관심이 높고 필요성이 강조되어 92년에 설립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84%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종언,강기세회원에 의해 '건축사' 지에 공제조합설립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 또한 1995년 1월에는 공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실시하여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공제회와 공제조합의 성

격 및 목적, 사업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 협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제사업 목적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공제회는 대부분이 법인(협회 또는 회)내에 조직된 임의단체(예외:공무원은 별도 법인으로 조직)로 동종 직업인들간 상호부조를 통한 친목도모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사업 영역은 경조비 지급, 연금성급어 지급을 위주로 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공제조합은 공제조합법령 등에 근거하여 협회와는 별도 법인인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주적 경제력확보, 책임경제 실현에 따른 조합원의 법적,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원 전담 금융기관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에서 볼 때 우리 협회가 공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협회내에 복지회,신협과 그 목적 및 사업성격이 중첩되어 있고 또한 회원 전담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는 공제회 설립보다는 건축사의 자주적인 출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건축사의 자주적인 출자금(자본금)을 조성, 이를 활용, 유효적절한 자금용자 및 각종 보증기능을 수행하여 영세한 건축사의 자주적인 경제력을 확보하고, 책임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행위로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 국민속에서 신뢰받는 전문인으로서의 기반구축이 용이한 건축사 전담금융기관인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방향으로 판단된다.

1)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목적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용자 및 공제사업을 지원하는 자주적 건축사 전담 금융기구를 운영하고 설계,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축사의 자질향상을 꾀하는 한편, 건축업무와 관련하여 책임경제원리에 입각한 건전한 경제활동 풍토가 조성되도록 각종 지원기능 및 개개인의 건축사가 직면하는 위험(경제적·법적·사회적위험)에 건축사들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지닌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 전문인인 건축사의 자주적인 경제력을 확보하고,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제조합의 기능 및 효과

가. 제 보증의 지원기능 수행

- ① 제 보증에 업계의 자주적 지원체제 확립됨
- ② 제 보증 수수료 부담이 경감됨

나. 자금 지원기능 수행

- ① 무담보 신용대출에 의한 운영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
- ② 고리사채 이용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저하의 점진적 개선
- ③ 수취여유 할인에 따른 신속한 유동자금 확보 및 금리부담 경감

다. 기자재 공동구매 알선

기자재의 공동구매 알선 기반구축

라. 업체(건축사사무소)체질개선

- ① 금리 및 수수료 부담 경감으로 업체의 수익성이 제고됨
- ② 경영합리화의 도모로 기업의 영세성 탈피

마. 조합원의 자산증식

조합의 효율적 경영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어 조합원의 출자 지분액이 상승, 조합원의 자산이 증식됨.

바. 해외진출 기반조성

조합을 통한 선진설계·감리기술의 도입 개발·교육을 통해 건축사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이와함께 조합의 자본력 및 공신력을 바탕으로 능력있는 조합원의 해외설계감리업무 수주에 공동대처하는 등 조합원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이 용이해짐.

3) 건축사 공제조합 사업

가. 제보증사업

- ① 설계감리계약 이행보증
- ② 하자보수보증
- ③ 손해배상보증
- ④ 지급보증
- ⑤ 선금금, 계약금액에 대한 보증
- ⑥ 기타 보증(입찰 등)

나. 자금융자사업

- ① 설계,감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② 사무소 운영자금 융자
- ③ 기자재 구입자금 융자
- ④ 기타 자금융자(주택자금, 기술도입자금 등)

다. 공제업무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안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

① 공제제도 목적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원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행하여 조합원의 신용증대 및 자금의 지원을 도모

② 공제계약자의 범위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자로서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

③ 공제사업의 종류

- 기금설치 : 조합내 공제복지기금
 - 기금운영 :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금의 대출
- 공제계약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대출

라. 기타사업

- ① 대금을 수령한 어음의 할인
- ② 조합원의 설계,감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선 향상 및 교육에 관한사업
- ③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 ④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사의 투자
- ⑤ 기타 위 사업 등에 필요한 부대사업

4) 공제조합 출자금(자본금) 조성

출자금 모집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될 수 있으나 다음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① 신규출자

조합가입 건축사는 필요한 각종 보증한도에 따라 본인 출자범위를 정하여 신규출자하여 조성하는 방안

② 출자금 적립

공제조합 설립준비기간에 각자 설계,감리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적립하였다가 공제조합설립시 개인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조성하는 방안

③ 기존 복지회 이용

전국 건축사복지회 및 신탁에서 공제조합 출자를 위한 특별우대 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출자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5) 공제조합 설립근거 및 추진일정

가. 설립근거 마련

① 건축사법 개정

현행 건축사법 제31조 2 제1항 7호에 규정된 공제사업의 조항을 개정하여 제31조에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 건축사법시행령에 건축사 공제조합의 주요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설립할 수 있으며, 유사단체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도 협회와 공제조합 설립을 함께 다루고 있다.

② 공제조합법 제정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법을 신설하기는 어려우나 집권당 당정협의를 거쳐 당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을 발의하거나 야당의 의원 입법도 가능하며, 혹은 정부입법으로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는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 추진일정

⇒ 1 단계 (97년도 하반기)

- 공제 조합설립근거법 마련
- 공제조합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정리

⇒ 2 단계 (98년도 ~)

-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기구 구성
- 설립자금 모집

⇒ 3 단계 (98년도 하반기 또는 99년도 상반기)

- 창립총회 개최
- 설립등기 및 업무개시

3. 결 론

21세기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작이나 시험무대가 될 것이며, 지난 반세기동안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기를 모색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고객은 더 복잡해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져 가고

고객은 선택대안이 많으며, 자신의 필요에 대한 지식이 높고 공급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예전의 지역적이고 상대적으로 신사적이었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업무에 대한 보상문제 등 건축활동에 따른 건축사들의 책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에서 공제조합추진과 관련하여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 외국의 보험사례, 국내의 보험현황, 유관단체의 공제조합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우리에게는 어느 제도가 필요하며, 운영방향과 재원의 확보와 설립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 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직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사회적요구)
- ② 경쟁력과 부실공사추방을 위한 정부의 손해배상 보증제도 도입과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법률적요구)
- ③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하자 및 배상문제를 해결할 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회원의 요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공제조합 설립추진

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제사업의 시작으로

- ① 계약행정의 선진화로 위험부담의 감소
- ② 기술개발로 질적향상을 가져와 수준의 평준화
- ③ 경제손실을 막아 수익의 증대효과
- ④ 설계·감리기술 보급 및 경제적지원
- ⑤ 공동구매 등 사업으로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자기보호 차원에서 필요성은 절실한 과제이며, 사회에 책임과 권리에 대한 공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아, 공제조합은 법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조합은 전문적인 건축사들의 상호유대관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외부와의 대항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유·무형의 이익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왜 우리가 공제조합의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와 실험과 공동발전을 위해 무엇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등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 타당성검토, 설립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 늦어짐은 있으나, 우리에게 꼭필요한 공제조합이 설립되도록 회원 여러분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다.

유관단체 공제조합 보증/융자 사업내용(한도/수수료 기본요율)

구 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한국보증보험
1. 보증업무						
· 일반보증						
· 입찰보증	지분액의 12배/건당 0.01%	지분액의 12배/건당 0.01%	지분액의 12배/건당 0.01%	지분액의 15배/건당 0.03%	지분액의 10배/건당 1000원	건당 0.17%/건당 0.8%
· 계약보증	지분액의 2배/년 0.15%	지분액의 22배/년 0.15%	지분액의 22배/년 0.15%	지분액의 25배/년 0.3~0.4%	지분액의 12배/년 0.05%	년 1.2%
· 차액보증	-	지분액의 22배/년 0.8%	지분액의 22배/년 0.8%	지분액의 25배/년 0.3~0.6%	지분액의 12배/년 0.3%	년 0.8%
· 손해배상보증	지분액의 22배/건당 0.24%	지분액의 22배/건당 0.24%	지분액의 22배/건당 0.24%	지분액의 25배/건당 0.6%	지분액의 12배/건당 0.7%	
· 하자보수보증	지분액의 22배/년 0.22%	지분액의 22배/년 0.22%	지분액의 22배/년 0.22%	지분액의 25배/년 0.5~0.3%	지분액의 6배/년 0.1%	년 1.0%
· 지급보증						년 1.2%/년 1~1.5%
- 선금지급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45%	지분액의 12배/년 0.45%	지분액의 12배/년 0.45%	지분액의 15배/년 0.4~0.6%	지분액의 7배/년 0.2%	
-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19~0.24%	지분액의 12배/년 0.19~0.24%	지분액의 12배/년 0.19~0.24%	지분액의 4배/년 0.6%	지분액의 7배/년 0.2%	
- 지급보증의 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45%	지분액의 12배/중별 해당요율	지분액의 12배/중별 해당요율	지분액의 4배/년 0.6%	지분액의 7배/년 0.2%	
- 보증보험의 보증	지분액의 12배/중별 해당요율	지분액의 12배/중별 해당요율	지분액의 12배/중별 해당요율	-	지분액의 7배/년 0.2%	
- 대출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8%	지분액의 12배/년 0.8%	지분액의 12배/년 0.8%	지분액의 1배/년 1.0%	지급보증원내	
- 선금자재지급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45%	-	-	지분액의 4배/년 0.6%	지분액의 7배/년 1.0%	
· 하도급이행보증	중별 해당 보증한도내/ 중별 해당요율 적용	중별 해당 보증한도내/ 중별 해당요율 적용	-	중별 해당 보증한도내/ 중별 해당요율 적용	중별 해당 보증한도내/ 중별 해당요율 적용	
(입찰, 계약, 손해배상, 하자보수 등등)						
· 기타보증						
- 인·허가보증	지분액의 22배/년 0.45%	지분액의 22배/년 0.8%	지분액의 22배/년 0.8%	지분액의 4배/년 0.6%	지분액의 4배/년 1.0%	
- 자재구입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45%	-	지분액의 12배/년 0.45%	지분액의 4배/년 0.6%	지분액의 4배/년 1.0%	
- 부재입찰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45%	지분액의 12배/년 0.8%	지분액의 12배/년 0.8%	-	-	
- 임시잔액수용예납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45%	지분액의 22배/년 0.45%	지분액의 22배/년 0.45%	-	지분액의 4배/년 1.0%	
- 분임보증	지분액의 12배/건당 0.2%	-	-	-	-	
- 리스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45%	지분액의 12배/년 0.6%	지분액의 12배/년 0.6%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지분액의 12배/년 0.45%	-	-	-	-	
2. 융자(대출) 업무						
· 자금(대출)융자	시공·운영·자재대금융자 (지분액 범위내년 2%)	시공·운영·자재대금융자 (지분액 범위내년 2%)	시공·운영·자재대금융자 (지분액 범위내년 2%)	시공·운영자금융자 (지분액 범위내년 6%)	시공·자재자금융자(지분액의 1.5배/년 8%), 운영자금 (지분액의 90%/년 5.5%)	원형 대출이자를 12.5~15% 수준
· 이음줄인						

코오롱 타워

Kolon Tower

원정수+김자호·이광만·김태집·조정호/(주)간·심 건축

Designed by Won Chung-Soo + Kim Ja-Ho · Lee Kwang-Man · Kim Tae-Jip & Cho Chung-Ho

전원도시 과천에 위치한 Kolon Tower는 Kolon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은 새 경영자의 최고지향 이념을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오피스 빌딩으로 건립되었다. 주위의 Box형 기존 상업적 건물과 달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보아서 즐겁고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유리의 투명성을 이용하였다. 유리로 둘러싸인 타원형 Core와 곡선을 살린 Lobby Atrium, 그리고 남서측면의 유리 커튼월을 통하여 주위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투영되고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건물배치는 주도로에 좁게 면하고 부도로에 길게 접한 대지의 성격에 따라 주도로쪽은 좁고 높게 처리하였고 대지에 길게 면한 부도로쪽은 정면성을 부각하기 위해 Main Facade를 형성하였다. 주출입구는 대지의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면 광장을 형성하고 그 광장을 향해 열려있도록 하였다. 광장에는 분수대를 일반인이 이용하기 쉽게 도로쪽에 면하도록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외부형태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구성을 위해 철골 지붕 구조물, 원통형 헬리포트 구조물, 그리고 2개층을 연결하는 Bracing Column 등 철을 사용하여 구조미를 강조하였다. 유리 사용은 단순히 밖을 보거나 환기를 위한 창 개념을 넘어 유리가 가진 재료적 특성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Fix Hinged Glass System 및 Double Skin, 창호 Unit System 등 새로운 공법들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건물의 엘리베이터, 화장실, 공조실, 계단 등 각 설비 및 이동등의 기능들이 끼워져서 유지, 보수되는 새로운 개념을 건물형태에 반영하였다. 엘리베이터 코어는 일반적 사각형 형태와 다른 럭비공 모

양의 타원형 Glass Tower로써 가장 높게 처리하여 저층부 로비부분의 Fix Hinged Glass System으로 처리한 Atrium과 함께 Main Mass와의 중량감과 대비되어 투명성과 공간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모습 및 계단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투명한 유리를 통해 역동적으로 보이도록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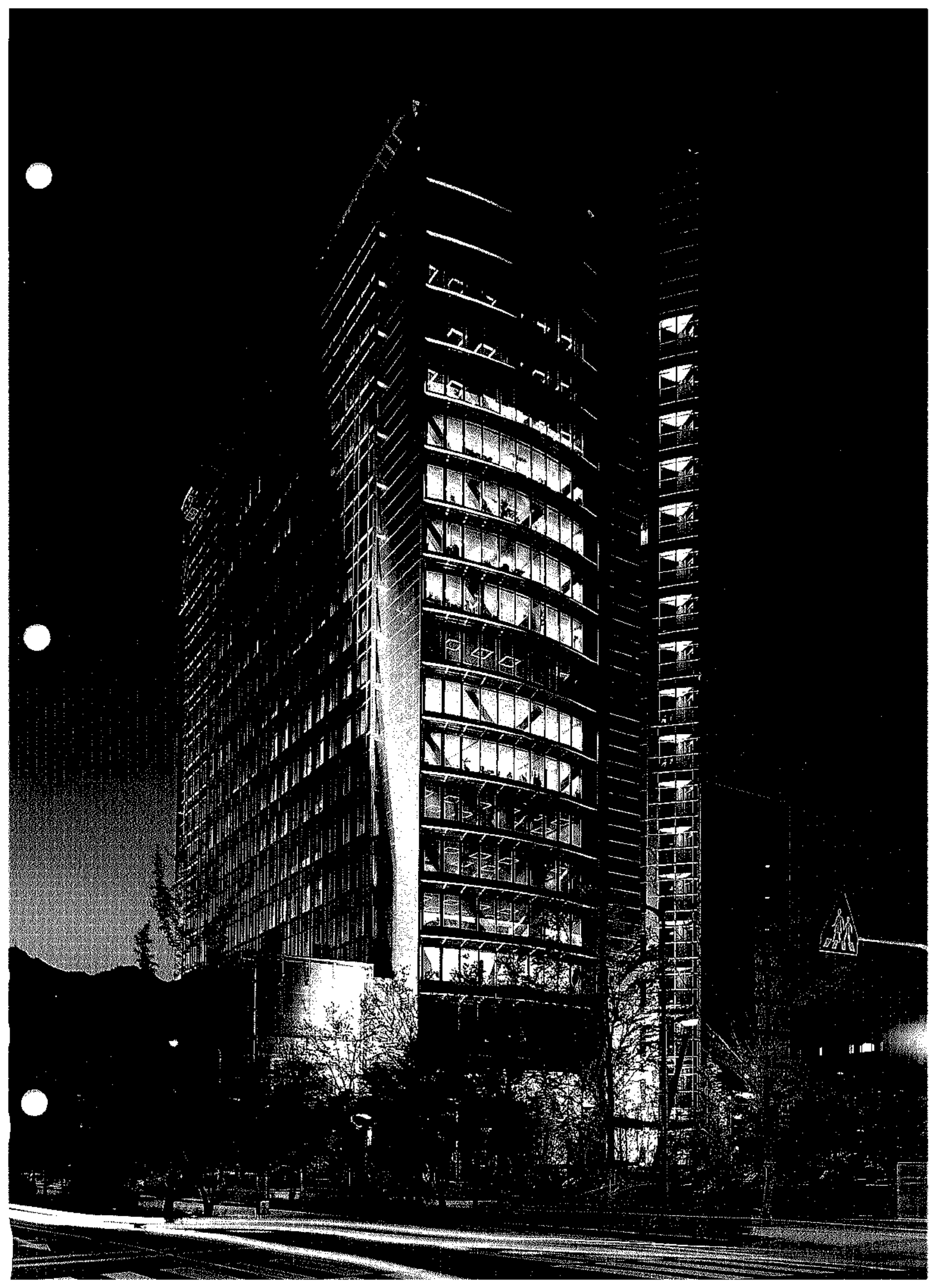
Atrium은 로비에서 정면쪽으로 열려지도록 처리하여 외부가 그대로 내부와 연결되도록 가장 개방감을 줄 수 있는 Fix Hinged Glass System 중 Lot에 의한 Wire Type의 창호를 설치하였다. 건물 정면이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서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Double Skin을 창호에 도입하여 창호 중간층에 공조가 된 실내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여 창호 가까운 곳에서의 작업 쾌적도를 높이고, 외부광량에 의해 제어되는 투명성 Roll Screen을 설치하였다. 북서향과 남서향에 면한 Curtain Wall부분은 개방감을 확보하면서도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Sun Louver와 Roll Screen을 채택하였다. 주 외부마감 재료는 알루미늄 쉬트 패널로서 차음 처리가 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건물 이미지에 부합되게 한 Unit를 크게 처리하고 Open Cut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에 알루미늄 패널이 가진 오염에 대한 방지와 Unit에 의한 구성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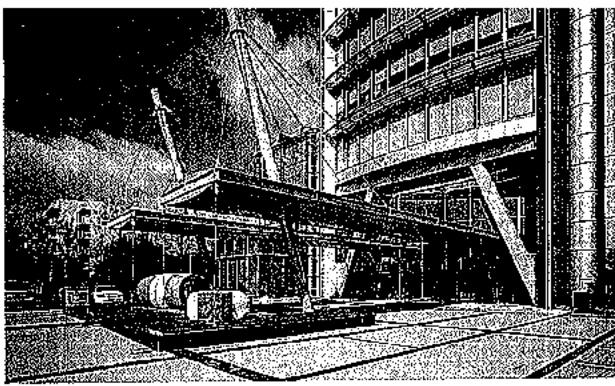
실내공간은 사무실 내부공간의 가변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6.2m의 장스팬의 무주공간을 형성하였고 구조방식으로는 Preflex Beam을 사용하여 철골의 단면을 적게 하고 약 점진 진동을 줄였다. 기본 Module은 2.7m×2.7m로서 주차 계획과 개인 업무공간에 이르기까지 전공간에 적용되었다.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대지면적	5,874.92㎡
건축면적	2,181.63㎡
연 면 적	37,251.60㎡
규 모	지하5층, 지상18층
구 조	지하-철골철근콘크리트, 지상-18층
최고높이	83.6m
주요용도	업무시설

외부마감	외벽 - 알루미늄 쉬트(2.2t) 창호 - 단열 Bar+24mm 목층유리
내부마감	바닥 - Access Floor 벽 - 석고보드+아연도 철판(0.8t) 위 P.E 분체도장
천정	Steel System Ceiling
감리담당	김병현, 김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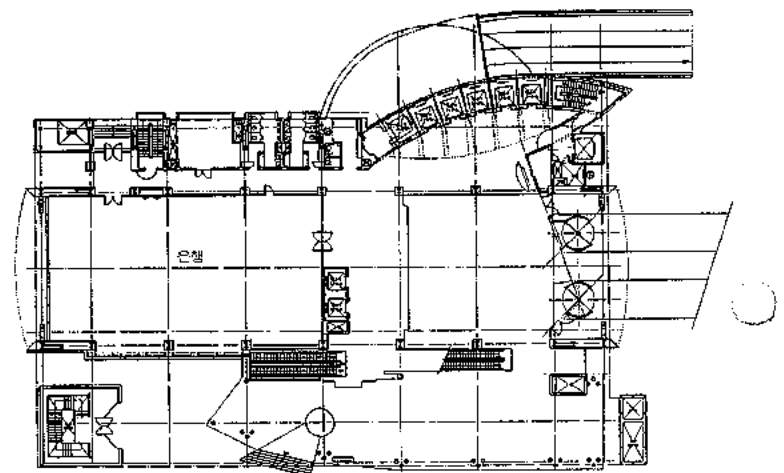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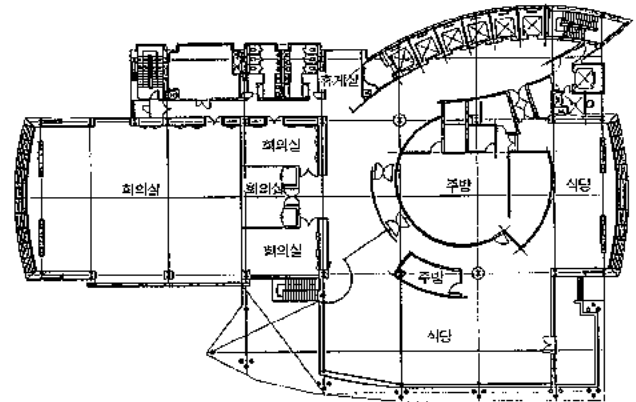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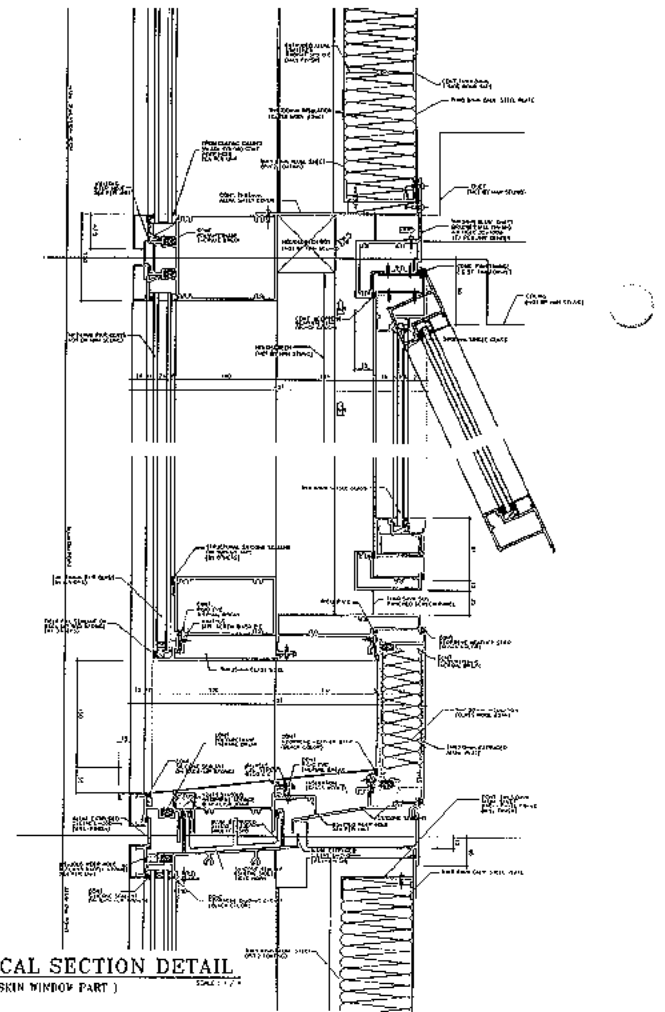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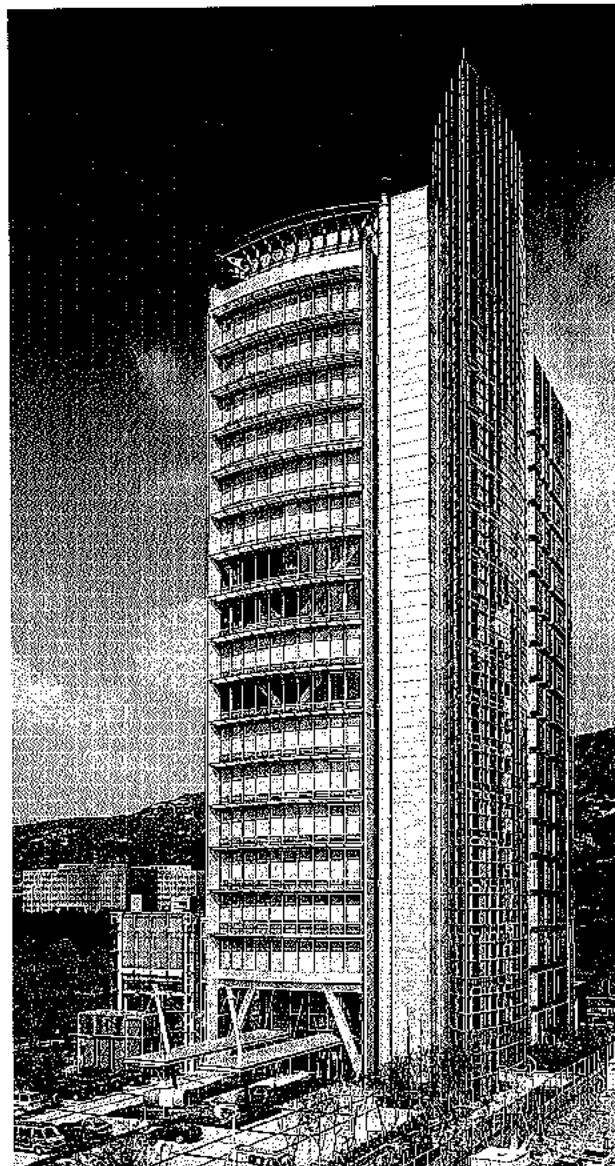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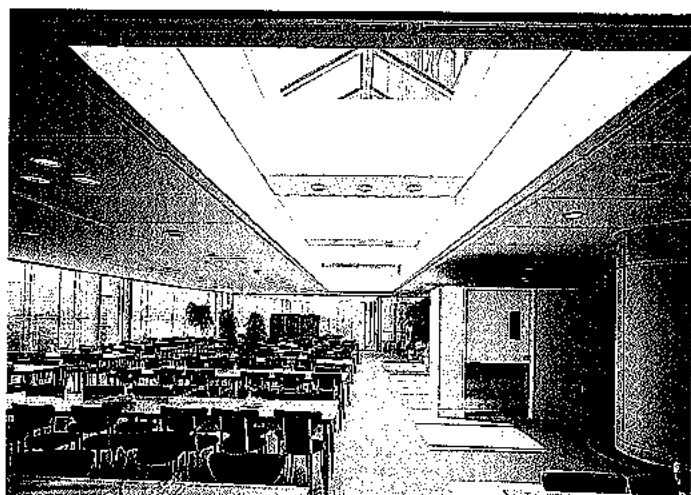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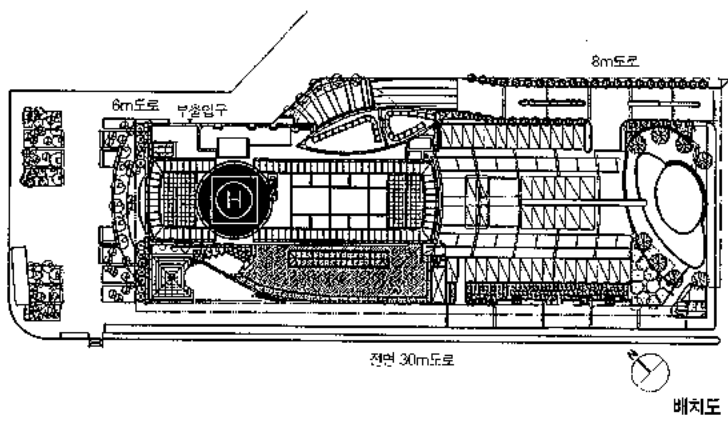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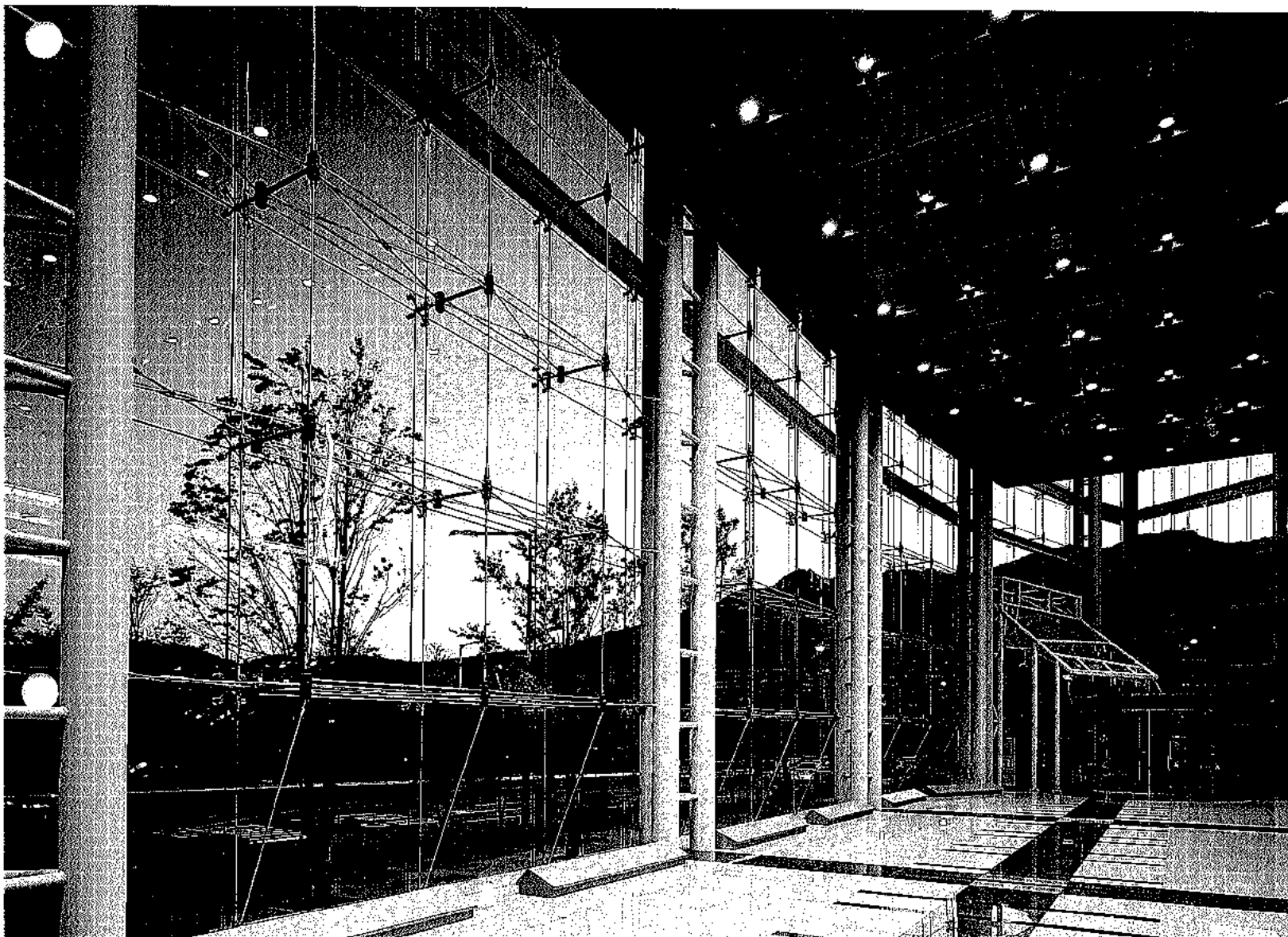




3층 식당



아트리움



창원 실내체육관
Changwon Gymnasium

노형래/건설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Ro Heung-R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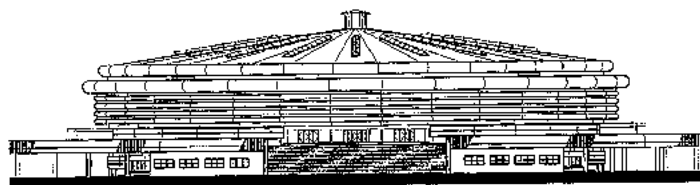
창원 실내체육관은 각종 공식경기는 물론 지역주민의 집회장 및 문화행사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대지는 60m도로를 전면에 두고 남서측으로 구릉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기존 종합운동장 Master Plan에 의거 주경기장 측면에 실내 체육관을 배치하고 60m전면도로 측으로 광장을 설치하여 동선을 적절 유인하며 도로측에서의 인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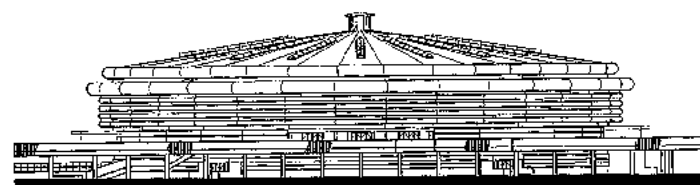
평면계획에 있어 선수, 임원, 보도관계 및 관람객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였고 Deck을 설치하여 동선의 입체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보조 경기장을 Deck 하부에 설치(농구 : 2면, 배드민턴 : 7면)하여 평상시에는 사회체육시설로 이용함으로써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창원 시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유도하였다. Mass의 형태는 측면에 주경기장이 타원형이므로 사각형이 아닌 원형을 채택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주위가 구릉지대이고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형의 수평대를 입면계획에 반영하여 수평성을 강조하고 주위와의 조화 및 녹지축에 수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외장재는 콘크리트의 조형성이 강하게 나타난 주경기장에서 탈피하여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지역사회에 상징적 건축물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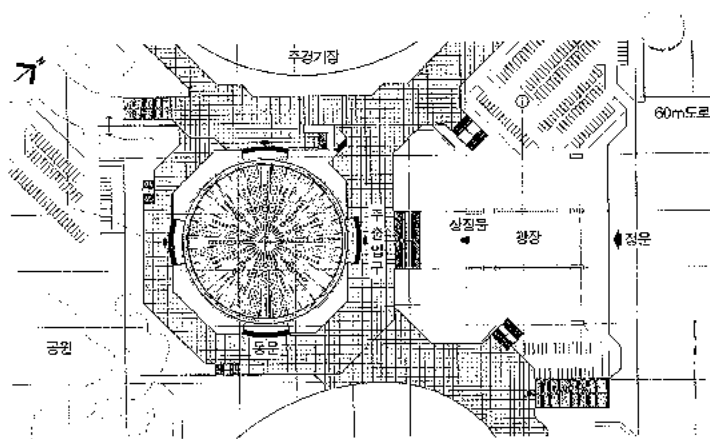
선수 및 창원시민 모두에게 친근감을 주며 새로운 생활
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점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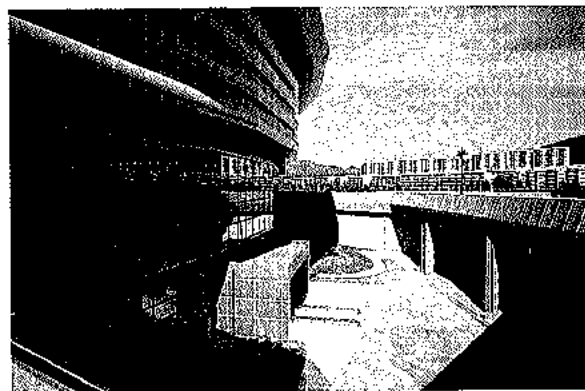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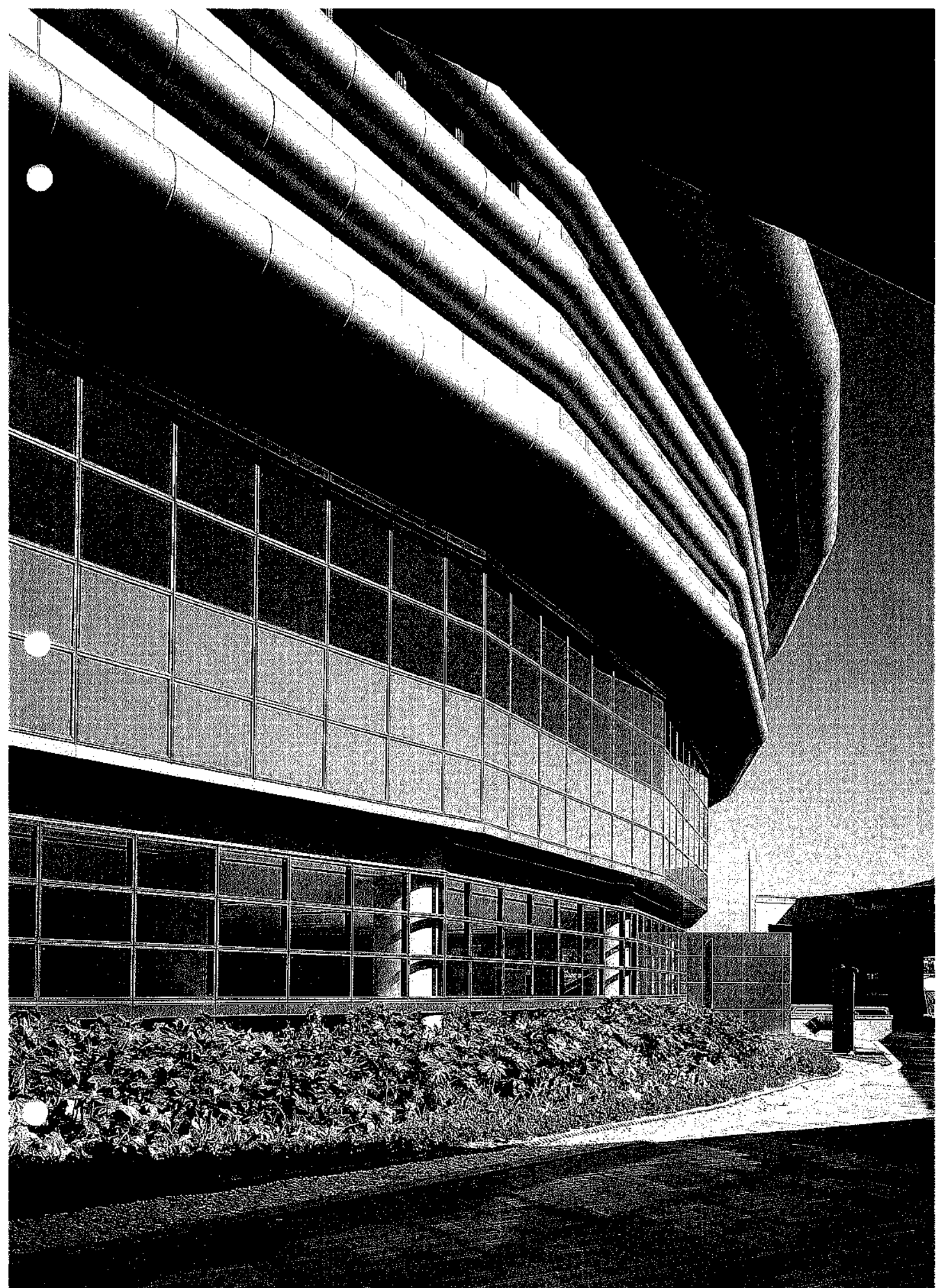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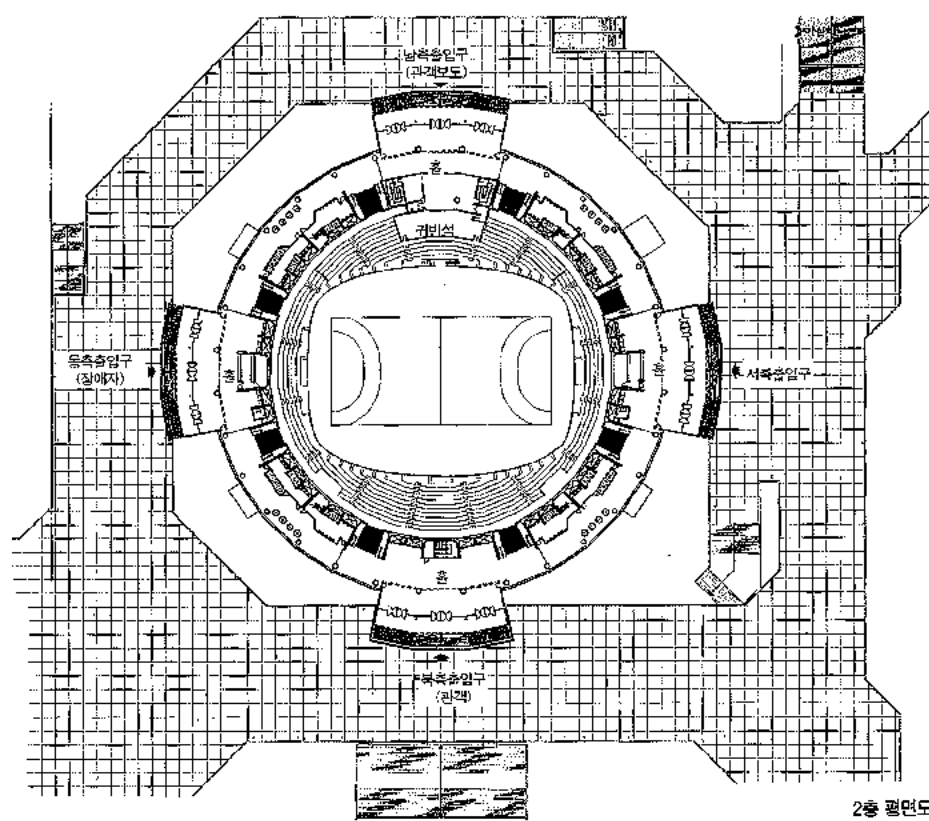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남 창원시 두대동 종합운동장 부지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36,000㎡
건축면적	13,559.98㎡
연 면 적	14,146.48㎡
건 폐 율	10.66%(기준포함)
용 적 륜	9.48%(기준포함)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방식	철근 콘크리트구조 + Space Frame
수용인원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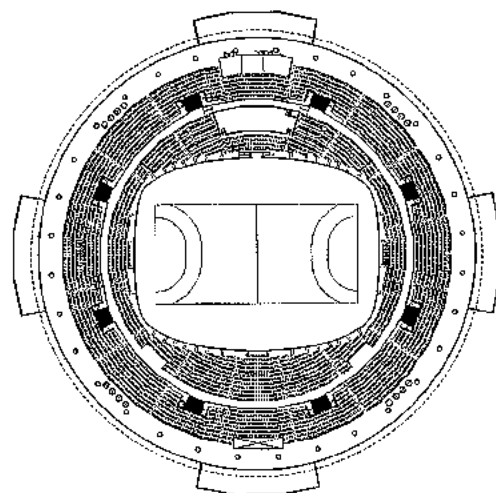


테크에서 본 1층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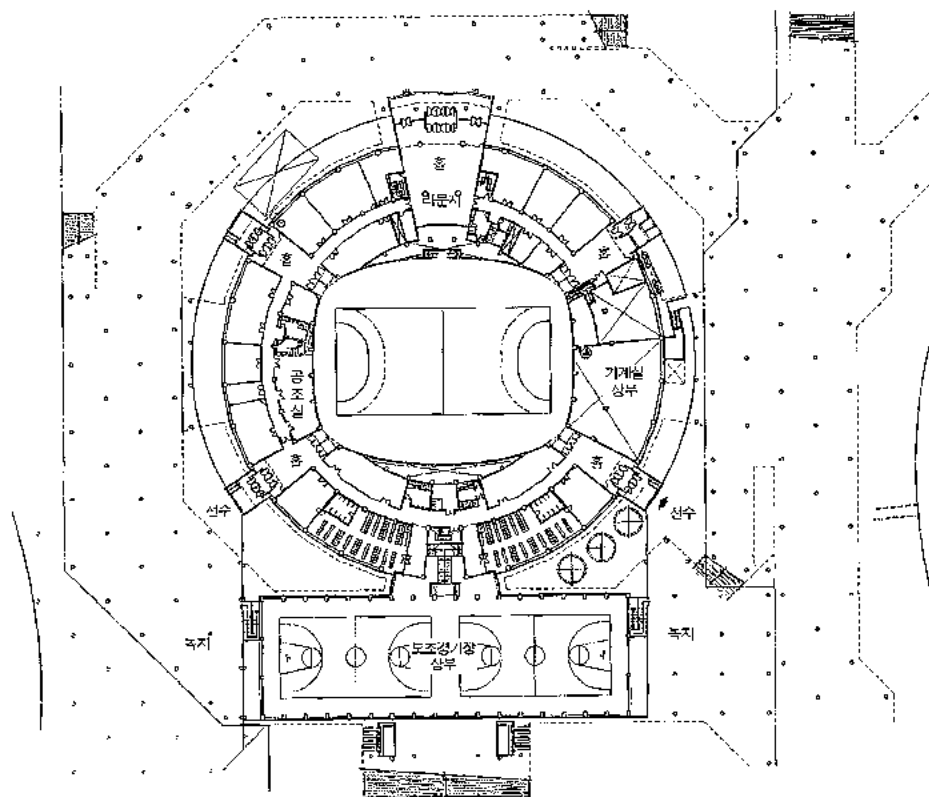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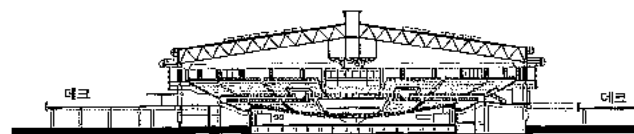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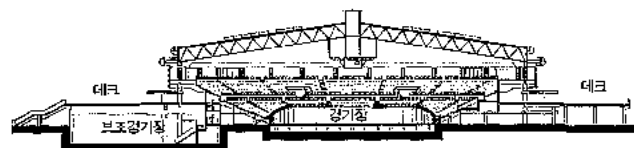
스탠드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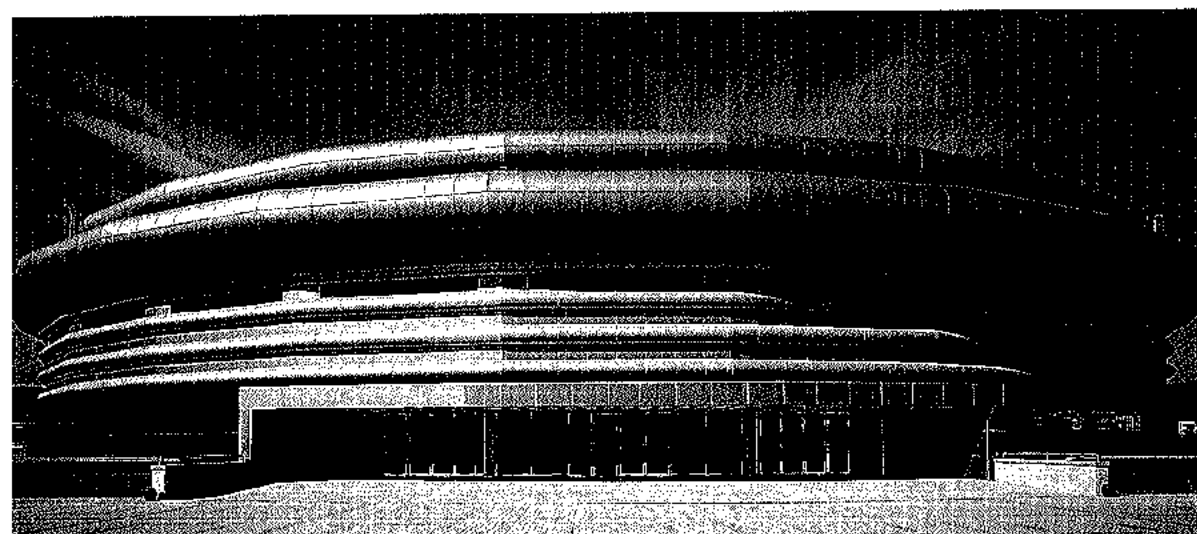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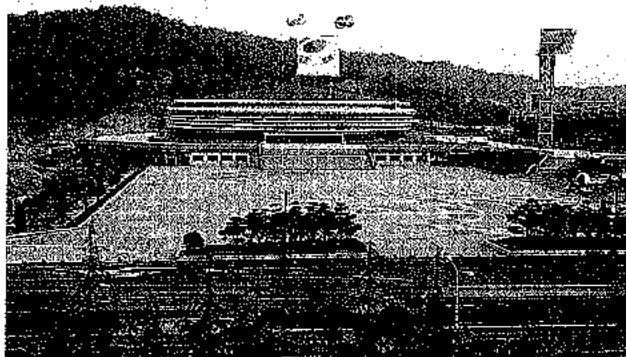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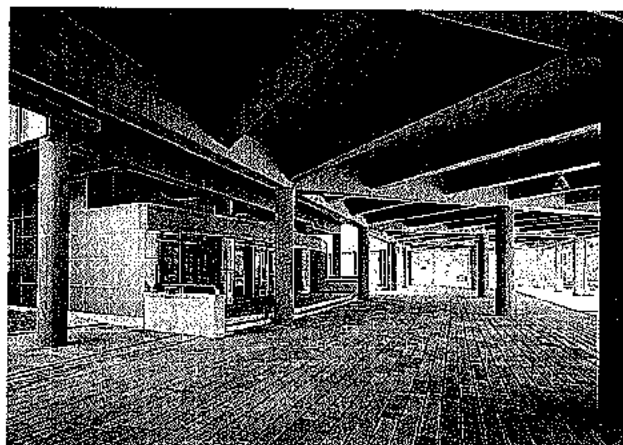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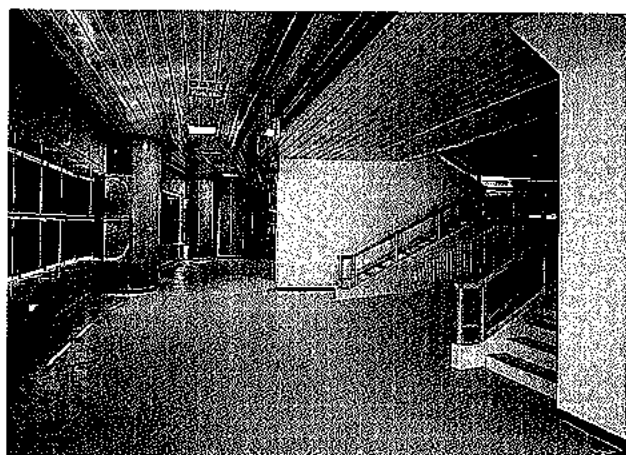
북동측 원경



데크 하부 VIP출입구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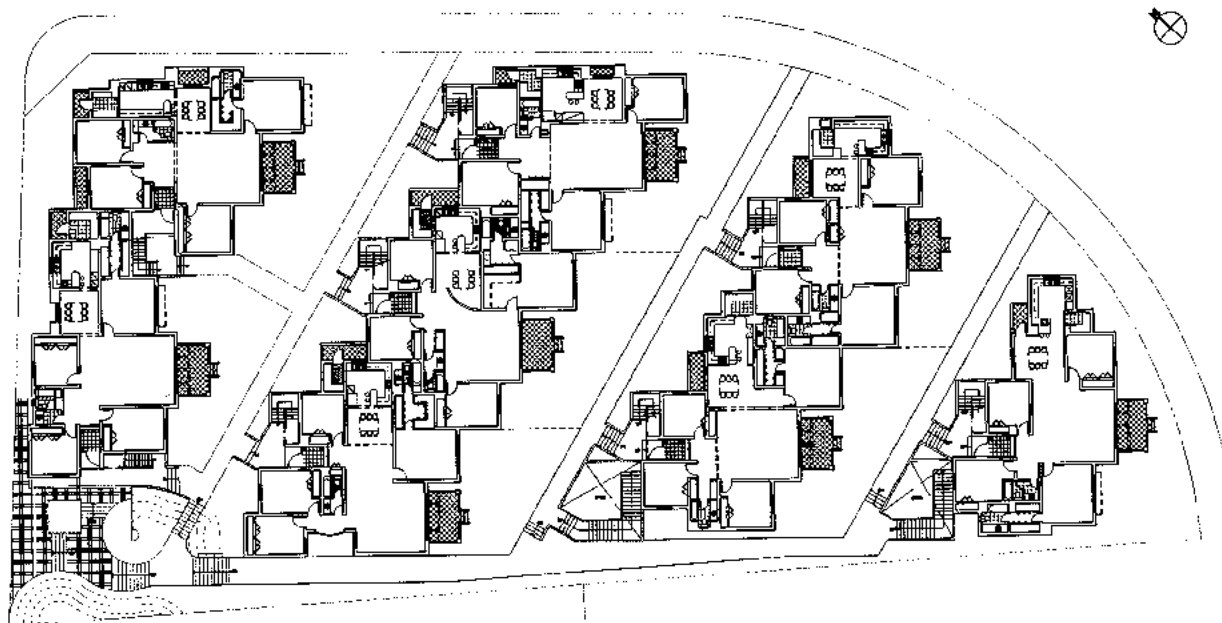
내부 통로 및 Vom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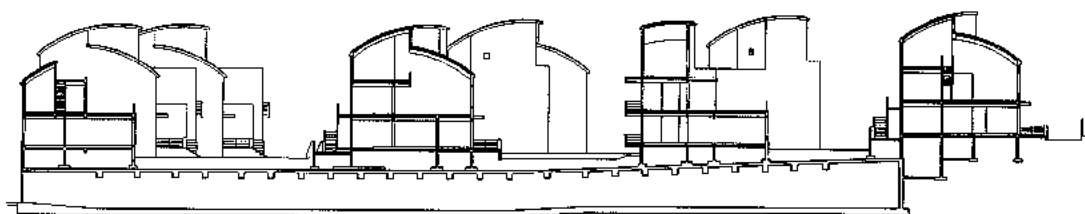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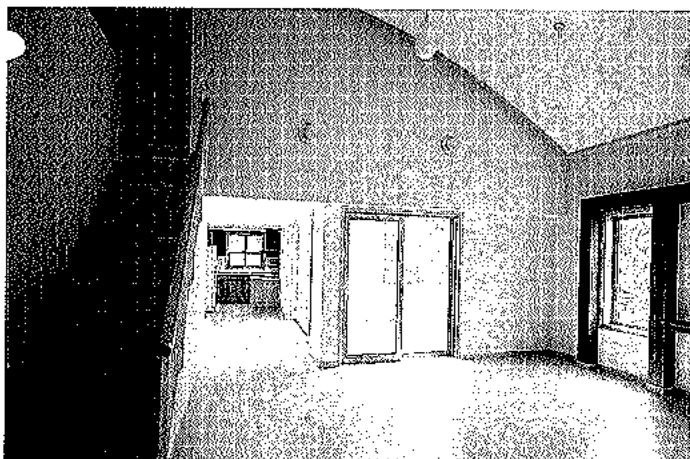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대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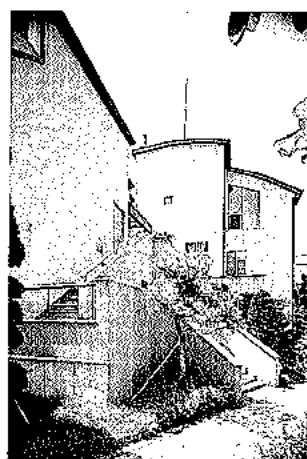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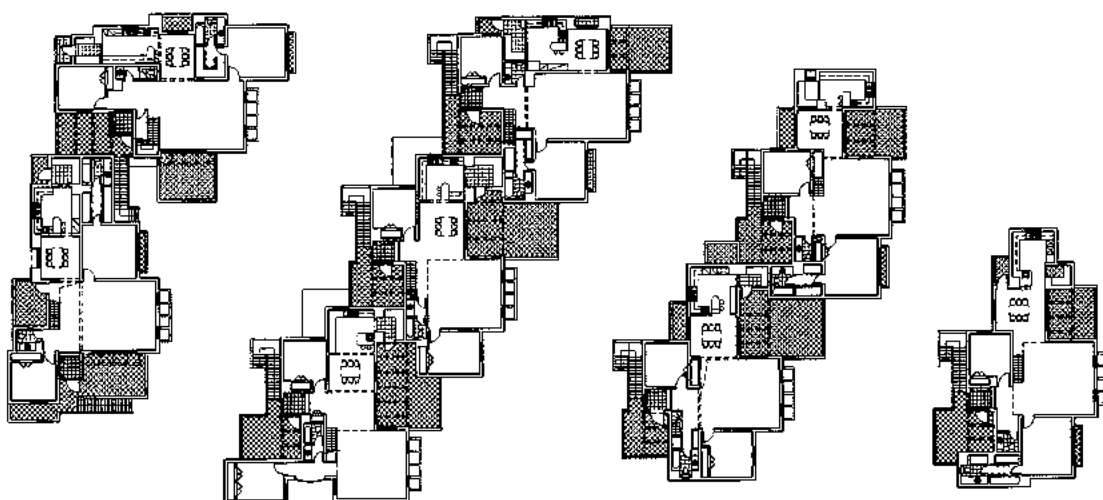
2층복도



서측입면



외부계단실



분당 전람회 주택

Bundang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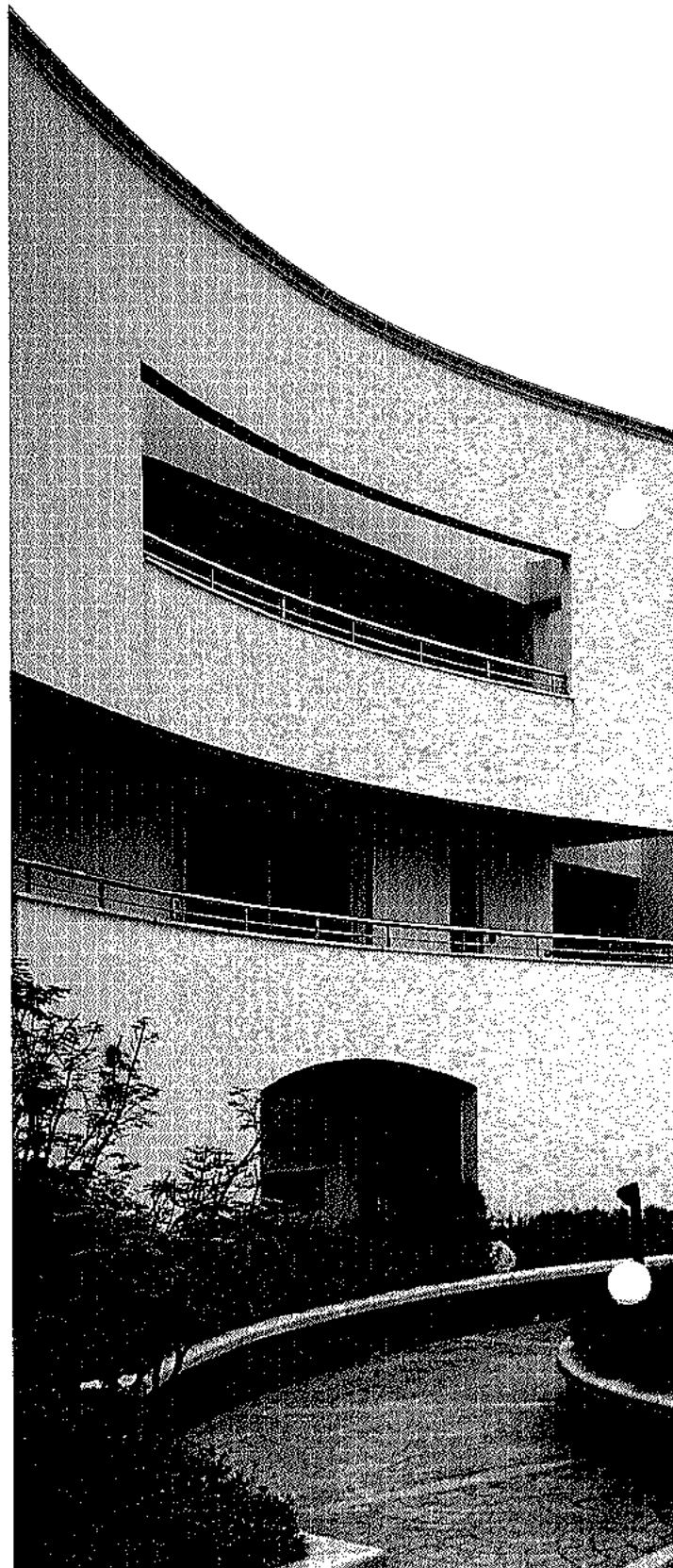
강석원/그룹가 건축도시연구소
Designed by Kang Su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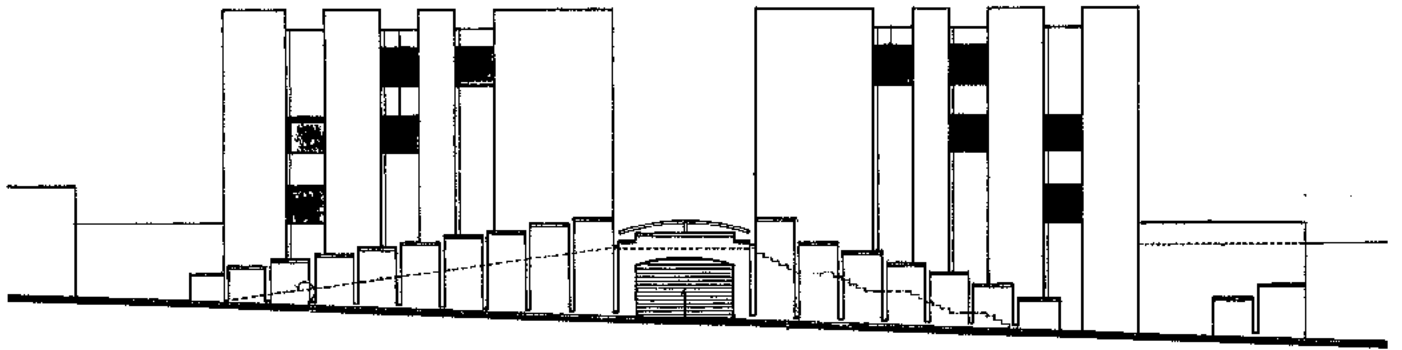
이 대지는 전면도로 건축선에서 3.5m 후퇴하여 대지 내의 진입을 유도하고 3m×3m의 기본모듈을 적용해서 'ㄱ'자 평면의 변형된 형태를 배치하였다. 대지에는 두 가지 성격의 정원이 배치되는데, 그 하나는 도로의 수직한 축과 두 동 사이의 중심에 적용되어서 대지 내 세대간의 내적 교류의 공동의 공간으로서의 중정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주생활 마당으로서의 정원이다.

평면의 구성은 5인가족을 기준으로 복층으로 구성하였다. 1층은 거실을 중심으로 한 부부공간위주로 구성하였고 2층은 가족실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였으며 그 중 침실 하나는 욕실을 내재시켜 노인의 편리함을 고려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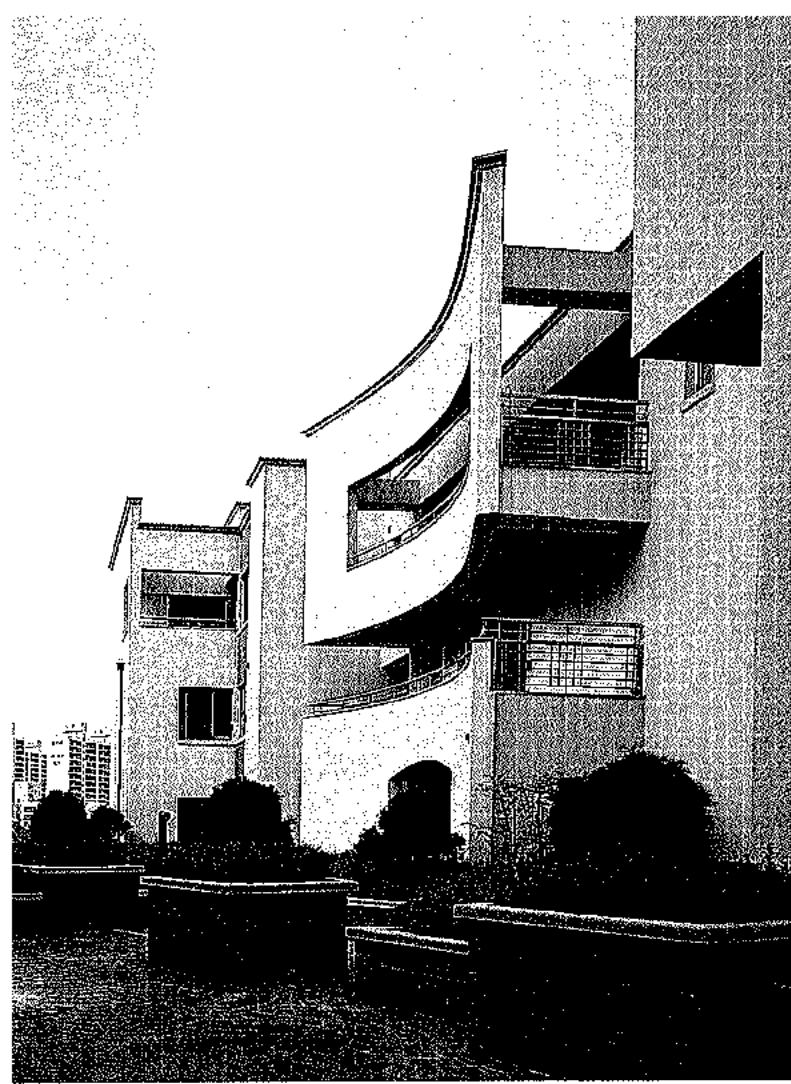
위 치	성남시 분당구 특별 설계구역
지역지구	주거지역, 특별설계구역
주 용 도	연립주택
대지면적	1,836.33㎡
건축면적	767.71㎡
연 면 적	2,389.32㎡
건 폐 율	41.81%
용 적 륜	89.45%
조경면적	300.3㎡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11.5m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설비	지역난방
외부마감	지붕 - 콘크리트 슬라브평지붕 벽 - 외벽단열시스템
내부마감	천정 - 고급벽지 벽 - 고급벽지 바닥 - 온돌용 마루판
주차대수	22대
설계담당	계획설계 - 최병철 실시설계 - 전종관, 홍용숙, 김현조, 박경훈
구조설계	신건축연구소
인테리어	그룹가
기계설비	삼지설비
건축주	(주)시대종합건설
시 공 자	(주)시대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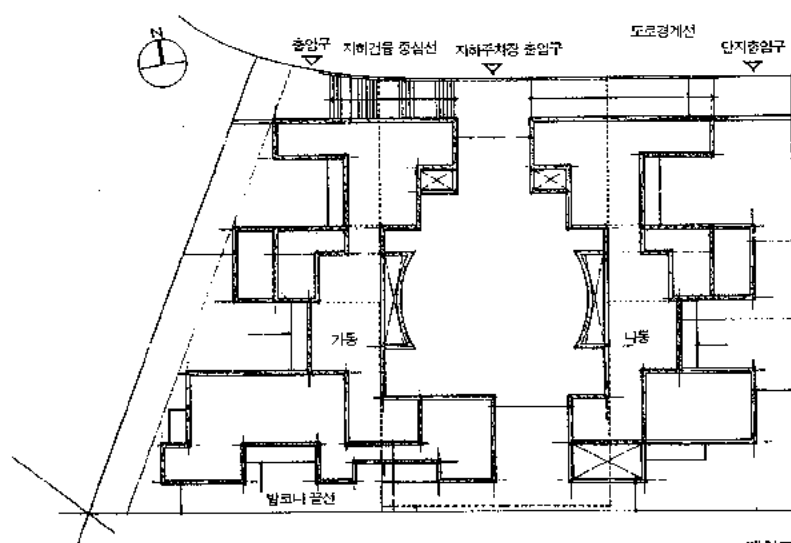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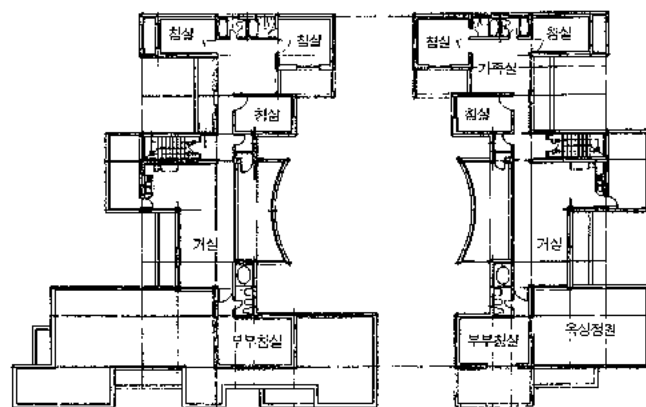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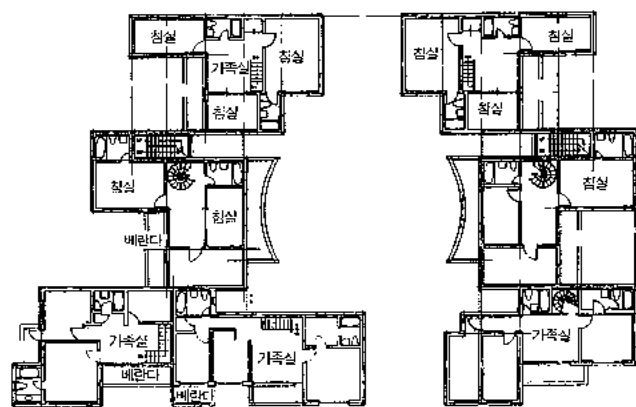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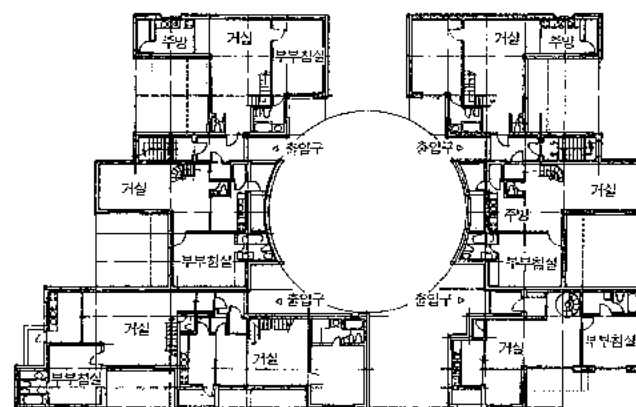
남측 전경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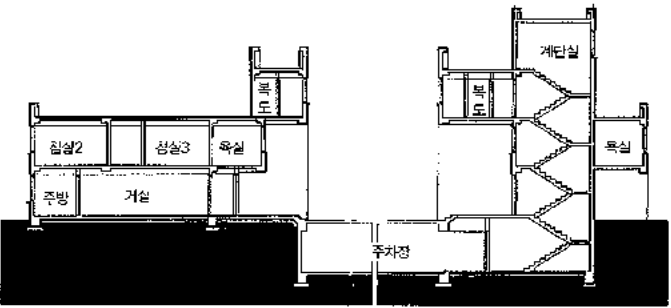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외부계단실



3층 거실



3층면도



휘닉스파크 골프하우스

Phoenix Park Public Golf House

이필훈 /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hil-Hoon

건축철학부재의 이유

누구나 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마다 머릿속을 떠도는 상념이 있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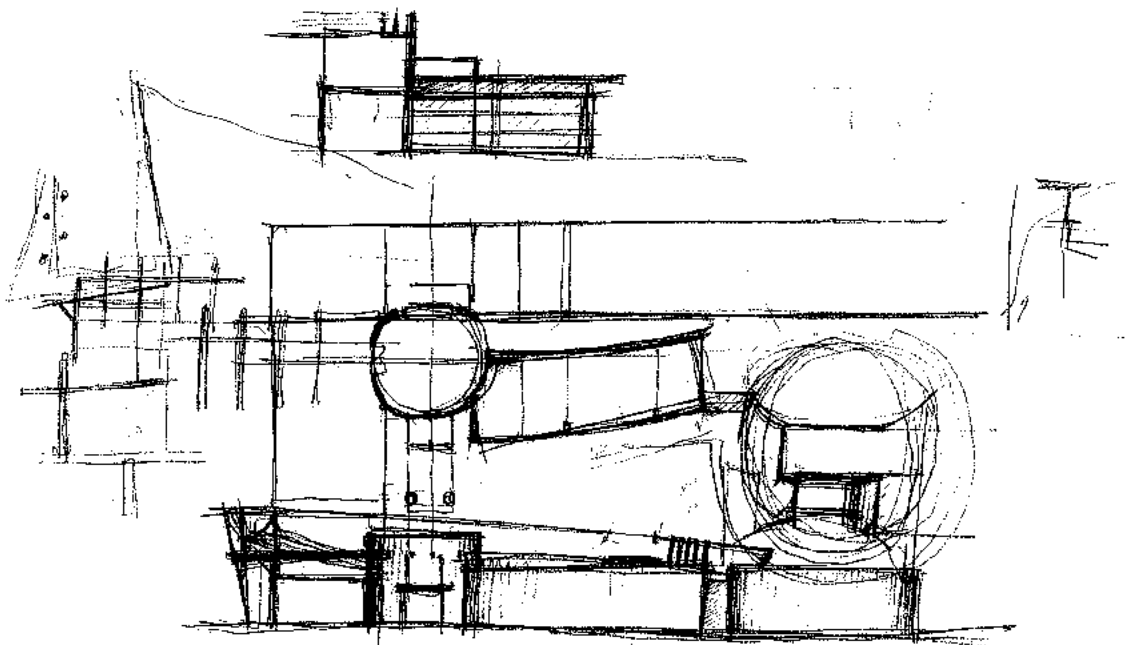
실제로 나에 있어 그 상념들은 형성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의 세계, 카오스, 신과학, 진리의 다원성,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새 정보에 대한 '기대기' 보다는 오히려 다분히 재즈적인 감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고의 형성이 없기 때문에 나에겐 작가의 건축철학에 대한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사고의 '형성 없음'은 비단 설계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된다. 지속된 건물보기와 독서를 통해 나름대로의 건축읽기가 가능한 이즈음에도 실제로 머릿속으로 좋아하는 작품과 가슴으로 좋아하는 작품이 다를 때가 많다. 손이 먼저인가, 생각이 먼저인가?

머리가 먼저인가 가슴이 먼저인가?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는가, 느끼는 만큼 알 수 있는가? 혹시 이들이 순서없이 섞여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내기 위해 다시 책을 찾는다.

상념1 : 고정적인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그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통해 역사에서 사라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희극론이 없어진 이유를 추리한다. 책장에 독을 묻혀둠으로써 희극론을 보려 한 사제들을 독살한 원로 사서 호르헤수도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 이 책에서는 웃음이 예술로 과대평가되어 있고,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으로 과장되어 있다. 웃음은 사악한 인간을 악마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 이 서 책은 악마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믿고



스케치

있다. 이 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타락한 상상력이 빚어 낸 아슬아슬한 농담을 합리화하는 날, 아슬아슬하던 농담이 진실로 믿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 중심의 개념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진리와 선은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다.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웃음은 악마다. 그리스도는 결코 웃지 않았다. 웃음은 권위를 비판하고 조롱하며 절대성을 파괴한다. 혹시 웃음이 신의 진리를 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신을 공격하는 날엔...? 조롱의 논리가 확신의 논리를 대신하고, 꾸준히 쌓아올린 구원의 이야기가 귀하고 존경스런 내용을 파괴하고 뒤집는 이야기로 대체된다면...

- 현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1권에서 다루고 있는 비극이 오랫동안 귀족적, 이성적, 아폴론적 정전(Canon)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부재하는 '시학' 제2권에서 다루고 있는 희극 곧 웃음은 민중적, 비이성적, 디오니소스적 장르로서 열등한 존재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었다. 비극으로만 대변되는 절대적이고 성스러운 진리, 귀족문화,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호자가 장님 호르헤다. 에코는 그의 정신적 눈멀음을 상징하기 위해 호르헤를 장님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요한 계시록의 일곱 번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독이 발라진 금서의 책장을 찢어 먹는 호르헤

- 일곱 천둥이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시록 10장 4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11절)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념이 신의 뜻을 이루는 절대적 진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살인의 원인을 파헤친 윌리엄 수사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상징으로 보

임)는 호르헤에게 소리지른다.

- 악마란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혹의 여지가 없는 진리... 그게 바로 악마다. 앎이란 알아야 하는 것이나 알 수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것, 알아서는 안되는 것까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진리의 서책과 허위의 서책의 편가름, 금서의 지정, 금기를 깨는 사람에 대한 정죄는 유사한 방식으로 어디든 존재한다. 시대를 꿰뚫는 진리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 진리라는 편협함이 문제이다. 진리는 상대적일 수도 있고, 항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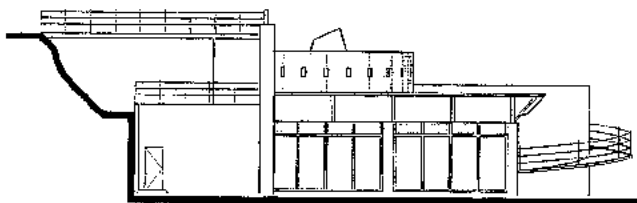
나의 삶은 호르헤의 편에 서 있는가, 윌리엄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건축은 호르헤의 절대진리 위에 있는가, 윌리엄의 상대진리 위에 있는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명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웃도록, 진리가 웃도록 만드는데 있고 유일한 진리는 진리에 대한 광적인 정열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을 배우는데 있다는 윌리엄수사의 입을 빌린 에코의 주장은 다분히 재즈적인 내 사고에 위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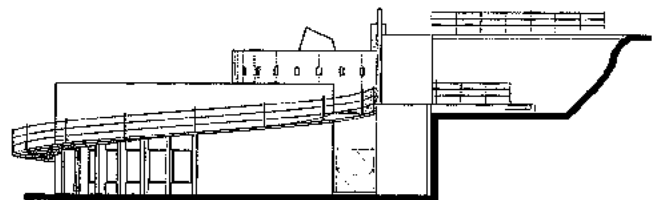
상념2. 건축은 건축이다.

사실 프로젝트를 대할 때마다 부딪치는, 항성이 있는 상념이 한가지 있기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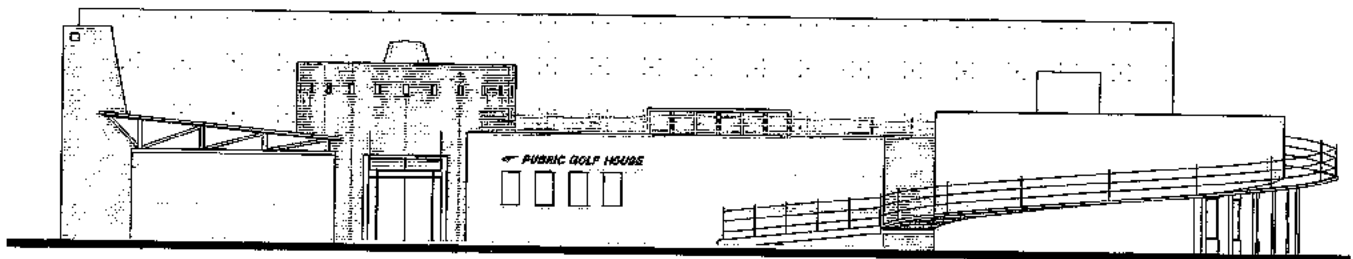
바로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의문, 이에 따른 건축가의 자세에 대한 상념이다. 물론 차원높은 생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유치한, 먹고살기 위해 나름대로의 도피구를 마련하기 위한 잠입일 경우도 있다. 가끔씩 건축 밖에서 건축을 바라보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삶을 내 위주로만 보지 않으려는 노력과 동일하다. 건축은 예술중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으로 먹고사는 건축가는 어떤 자세로 건축에 임해야 하는가? 오래 전 지적 교만을 위해 읽었던 철학 서적들을 다시 찾는 이유는 건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이다.

- 예술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헤겔에 이르러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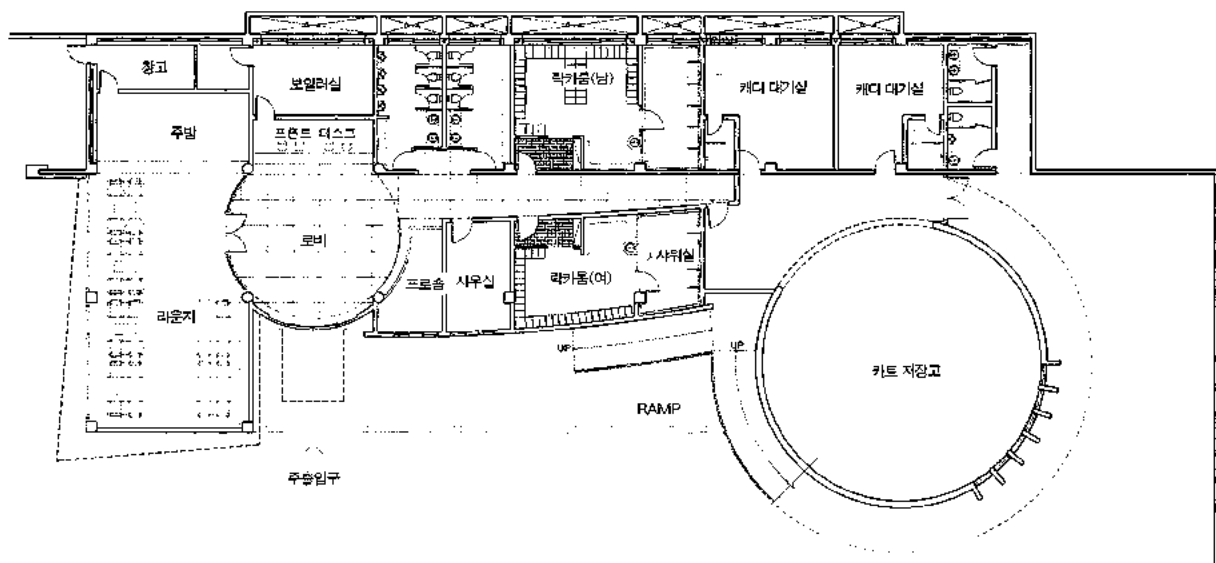
그는 예술을 절대적 진리를 드러내는 매체로 보았다. 즉 이념이 예술 속에서 감각적 형태로 드러난 게 곧 '미'라고 보았다. 진정한 미란 곧 예술이다. 물론 예술 밖에도 미는 있다. 가령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헤겔이 보기에 자연은 이념의 그림자일 뿐 아직 주관성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은 완전한 게 못된다. 예술은 자연미의 결함을 제거해 완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형상(Gestalt)속에서 이념이 빛날 때, 헤겔은 이를 '이상'이라 했다. - 지독한 인간중심주의 -

헤겔은 이념이 감각적 형상과 관련을 맺는 양상에 따라 예술의 발전을 다시 세 단계로 나눈다. 상징예술, 고전예술, 낭만예술이 그것이다. 먼저 상징예술은 이념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물질적 매체에 압도당할 때 발생한다. 고대 동방과 이집트 조각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속한다. 영혼은 아직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명을 부여 넣을 정도로 성숙치 못했다. 내용과 형식이 통일을 이루지 못해 예술은 뭔가 '송고'한 느낌을 준다.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이념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어렵듯이 암시만 할 뿐이다. 때문에 예술은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띄고 일종의 상징이 되어버린다. 이념이 성숙하면 상징에

술은 종말을 고하고 고전예술이 시작된다. 이제 이념은 충분히 구체적으로 되어, 감각적 형태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그리스 시대를 뜻한다.

헤겔은 이상적 아름다움이 그리스 조각에서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믿었다. 정신은 더욱 성장해서 물질적 매체를 압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념은 너무 자라서 형상과 조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념은 감각적 매체 속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표상'으로 표현되기 시작함으로써 낭만주의가 탄생한다. 여기서의 낭만주의는 특정한 예술사조로서의 낭만주의가 아닌, 중세부터의 모든 예술사조를 가리킨다. 건축은 어디에 포함될까?

- 건축은 대표적 상징예술로 분류된다. 조각은 고전적 예술, 시와 음악, 회화는 낭만적 예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실제로 고대 동방의 예술은 주로 건축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회람의 예술은 조각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회화와 음악과 시는 근대에 이르러 뚜렷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상징적 예술형식인 건축은 물질에 압도당해 있어, 정신적 표현의 여지가 많지 않다. 고전적 예술형식인 조각의 경우엔 물질적 형태와 정신적 표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낭만적 예술형식에 이르면, 서서히 물질을 포기하고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회화는 조각의 3차원에 1차원을 사상함으로써 바깥세계에서 인간의 내면에 접근하고, 음악은 공간성을 사상하고 인간의 내면을 전달한다. 시에선 낱말의 '의미'가 표현을 담당한다. 결국 '감각'이 아니라 '의미'라는 표상이 표현수단이 된다. 낭만 예술에 이르러 이미 예술은 저물어가고 그 미래는 '종교'로 대체된다. 그리스 신들은 조각 속에 자신을 드러냈지



1층 평면도

만, 기독교의 신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근대 종교는 감각이 아닌 표상을 통해 드러나고 이런 이유로 종교가 예술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종교는 다시 철학이라는 개념적 사유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이(철학)는 해질녘이 돼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던가.

헤겔의 예술이론의 많은 부분에 나름대로의 유치하고 소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이 물질에 압도당해 있어 정신적 표현의 여지가 많지 않아서 상징예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은 적절한 객관적 관찰로 느껴진다.

현대에 이르러 '물질'이 의미하는 바는 상징성을 띄며 원래의 의미보다 더 강렬한 다원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 기대어 나는 건축이 작가정신을 발현하는 예술의 한 장르로 구분되는 것을 싫어한다. 건축은 단순히 작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 분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 많은 인자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건축가도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한 인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건축이 건축가 위에 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건축가의 건축적 의지 역시 건축을 이뤄내는 요소 중의 하나이기에 절대적이기보다는 관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 존재가 아닌,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간단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이런 의미로 건축이 나로 인해, 내가 어깨에 힘줄로 인해 피해 받지 않고, 왜곡되어지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늘 논의의 변방에 있어야 하고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조금 있으면 바뀔 생각을 괜히 꼬집어내어 놓았다간 그것이 곧 건축철학으로 변질되고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되어 멋대로 날라 다닐지도 모르며 결국 그로 인해 건축이 조각으로, 미술로, 음악으로, 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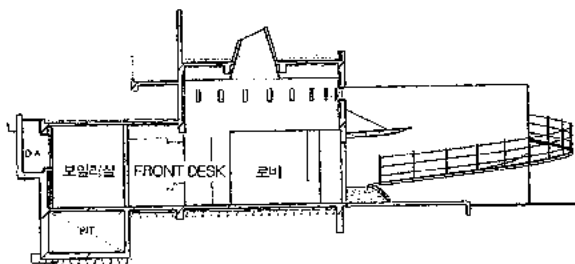
건축은 건축이다.

건축이 또 다른 의미의 표상이 되어 날라 다니길 원치 않기에 지어지지 않은 작품에 대한 소개는 도면과 설계개요로 족하다. 개요에 표현된 짧은 설계주제 역시 건물과 이반되어 있는 낭만적 표상이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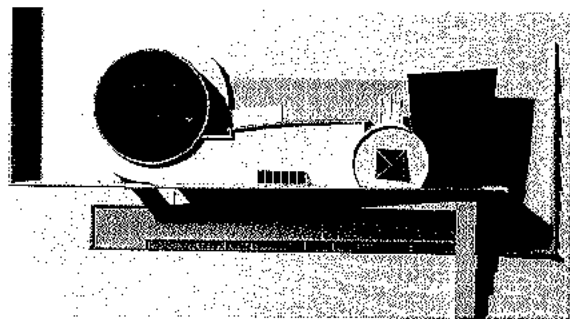
설계주제	침운(沈潤)
표현방법	1. 각 Mass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Inter-Locking" 되어 있음. 2. 이들을 지지하는 벽 또한 동선해결을 위한 기능으로 침윤되어 있음. 3. 건물외부 램프의 기능이 첨가됨으로써 원래 입면의 독립성 거부. 4. Mass마다 다른 재료의 사용에 의한, 전체적 통일성 포기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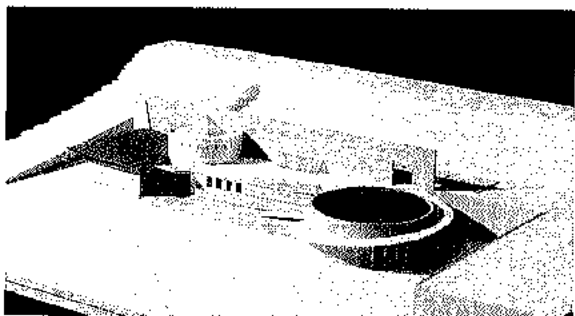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 268번지 일원
대지면적	189,710㎡(골프코스 : 70,719㎡)
코스규모	6홀, 22파(1,580m)
건축면적	769.85㎡
연 면 적	669.66㎡
외부 마감	노출 콘크리트, 외벽타일 마감, 목재패널 마감
규 모	지상 1층
설계담당	심재우, 박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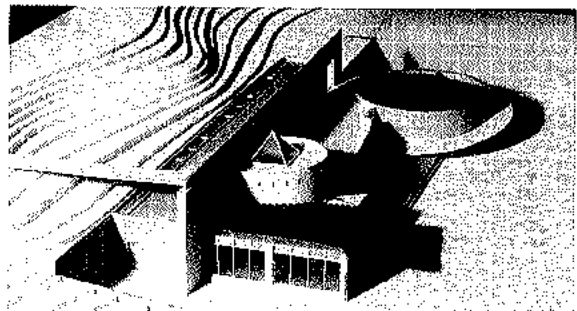
종단면도



모형2



모형1



모형3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2)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

장순용 / 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 연 재 순 서 ◇

<1회>

1. 출발집합!
2. 발리 이야기
3. 땀박씨링 사원
4.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
5. 발리의 전통가옥
6. 코끼리사원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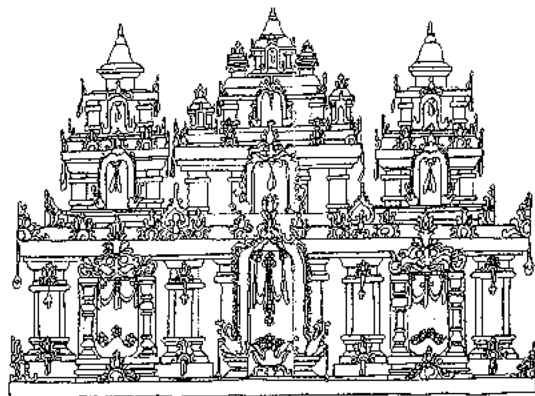
7. 족자카르타에서 학자 가이드를 만나다
8. 보로부두루
9. 빠원
10. 문두

<3회>

11. 프람바난
12. 세우
13. 풀라오산
14. 칼리산
15. 공항의 해프닝
16. 발리로 향하다
17. 따만아윌 힌두사원
18. 햇음말

7. 족자카르타에서 학자 가이드를 만나다

아침 일찍 기상하여 호텔내의 뷔페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공항으로 나가 비행기로 중부 자바섬의 족자카르타로 향한다. 발리 가이드인 권양은 공항에서 작별하고 저녁에 만날 것을 기약한다. 날씨가 흐려 비가 올 것이 염려되었지만 좋은 날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족자카르타의 공항에 내리니 벌써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면이 부족한 듯 약간 부시시한 얼굴표정에서 얼핏 그늘진 모습이 느껴진다. 권양의 주의사항도 있고 해서 선입관이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버스에 올라 답사지를 향하여 출발하는데 가이드가 자기 소개와 인사에 이어 일정계획을 알려주고 상세한 설명은 현



부조에 표현된 고대 자바의 건물모습

장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며 개별적인 질문에 응답한다.

좀 특별한 인물인 관계로 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리하여 보았다. 성명은 방지환, 45세, 고향은 부산,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고 열대식물을 연구하기 위하여 18년전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밀립과 오지 등을 탐사하며 독신으로 연구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고, 5년 전에 한국에 들렀다가 결혼하여 다섯살 박이 딸이 있다고 한다. 열대식물 분야에서는 한국내에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일 것으로 자신감을 피력하며 금년 4월경에는 귀국할 계획이라 한다. 벌써 몇 곳에서 대학교수 초청제안도 받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못하였고, 귀국후 실황을 파악하여 선택하겠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연구보조금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고 가이드 활동으로 번 돈은 전부 촬영과 연구비에 투자한다고 한다. 열대식물 도감을 귀국해서 발간할 계획이고 원고와 사진은 작성, 정리되었으므로 출판과정만 남아있다고 한다.

식물학자가 족자카르타의 유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의외라 안내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 보았다. 답변인즉 현지의 식물학 연구가 어느정도 정리된 후 고대의 열대식물과 현재의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던 중 유적지에 조각된 식물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조각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파악이 안되므로 관계되는 경전을 독학으로 공부하여 조각에서 표현하려고 한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일가견을 이루게 되었고, 현지의 여행사에서 자기를 알게 되어 가이드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 부전공으로 불교 경전에 대해서도 전문가 수준이 되었고, 한국에서 스님들이 성지 순례차 방문하여 불교역사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간 명성있는 제자들이 허다하다고 자랑한다.

기왕에 연구한 불교경전에 관해서도 별도의 출판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불교신도인 모친의 슬하를 떠

난 지 삼십여년이 되어 효도 한번 해 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으며 모친을 포함한 노인들이 불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한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큰 글씨의 책을 만들어 돌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약간 낯설이 시큰해지는 대목이다.

공항에서 받은 현지 신문인 자카르타 타임즈에 한국관련 기사가 사진과 함께 등장한 것을 보았다. 한보사건과 황장엽씨 망명사건 그리고 긴장된 남북한 관계가 한꺼번에 소개되고 있었는데, 어느 것도 자랑스럽지 못한 사건이라 해외에서 불유쾌한 한국관련 뉴스를 접하고 보니 언짢은 기분이었는데 방지환씨를 만나게 되어 반갑고 또 고마웠다. 동행자의 공통된 의견은 그래도 한국이 버텨 나가는 것은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일꾼들이 곳곳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다. 안내자 덕분에 국가와 자신을 돌아켜 보는 계기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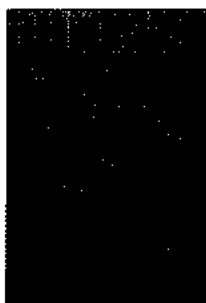
8. 보로부드루(Borobudur)

현장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휴대품에 주의하고 접근하는 상인에게 눈길을 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 눈길만 마주치면 곤질기게 달라 붙으므로 피곤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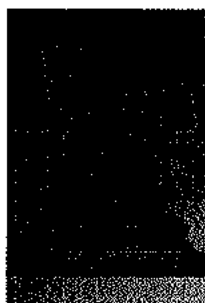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로부드루 유적에 당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고 중부 자바섬(현지에서는 주로 자와라고 하며, 현지어대로 표기하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면 자와섬이라고 하여야 하나 자바라고 익혀졌기에 예전대로 표기한다.)의 족자카르타라는 명칭의 관계성을 물어보니 자카르타는 위대한 승리의 도시라는 뜻이고 족은 옛날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구자카르타가 된다. 신라의 서라벌에서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발전된 것이 생각난다.



보로부드루 항공사진(관광업서에서 전제)



보로부드루 부분 평면도 : 전체의 1/4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조각이 가득한 회랑이 4층로 둘러지고 원편 상단부에 스투파가 배열되었다



보로부드루 상부 원편의 스투파 입면상세도 : 마름모형 장식창을 두고 그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었다



보로부드루 회랑의 홍예문 : 중앙에 귀면이 장식되고 지천에 건디도록 한 것인지 홍예석이 층단으로 내밀어 서로 물려 있도록 만들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영되는 시기가 8세기 중엽인데 보로부드루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8세기에는 동양권에 불교문화가 폭발적으로 융성하는 시기인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이곳은 사원이 아니고 거대한 탑을 이루어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123m 사방에 전체 높이는 42m에 달하는 것이었으나 복원과정에서 34.5m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석재는 화산암의 일종인 안산암으로 검붉은 색조이고 석질은 무른 편이지만 파편이 생기기 쉬워 조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사방 대칭형의 평면에 각 면의 중앙부로 계단을 두고 층단형의 각형 기단부가 6단이 있고 그 위로 둥근기단이 3단이 있고 정 중앙에 원형 평면의 스투파가 융립되었다. 각형 기단부에는 층을 달리하는 회랑이 층층이 둘러지고 회랑의 좌우에는 축단하여 불경에 관한 조각이 가득히 부조되어 있고 곳곳에 작은 감실을 두어 작은 불상을 안치하고 있어, 회랑에서는 외부로 볼 수 없고 불경에 관한 조각속에 파묻히는 꼴이 되고 만다.

상단의 둥근 기단위에는 종모양으로 감실을 만들고 마름모형과 방형의 구멍을 장식으로 내고 그 안에 불상을 안치한 것이 특이하다. 감실내 불상은 첫단에 32구, 둘째단에 24구, 삼단에 16구가 배열되었고, 최 상단의 원형 기단위에는 종모양을 더욱 크게 확대한 형태의 스투파가 개구부 없이 불쑥 솟아 있다. 그 속에는 불상이 들어 있었는데 현재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정상부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중앙에 배치된 형상이고, 전체적인 조형의 모습은 불국의 이상향을 만다라형으로 구성한 것이고, 마치 연꽃이 만개한 듯한 모습이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欲界), 색계(色

界), 무색계(無色界)가 하부에서부터 차례로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 중형의 불감이 배치되는 기단이 완전한 원이 아닌 둥그스름한 기단으로 만든 것은 완전한 무색계로 향하는 변화 과정의 모습이고 그 불감의 장식창이 하단과 중단에서는 마름모꼴로 나타나다가 상단에서는 방형으로 표현된 것도 같은 의미이고, 최정상부의 불감에 창문이 없는 것은 무색계에 도달하면 색계의 형태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교리적인 설명을 들는다.

부조가 조각된 회랑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조각의 내용을 안내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설명하다가 주요장면에서는 기념촬영도 하는 등 전문가다운 열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줄거리 전체를 듣다 보니 정신이 몽롱해진다.

기저부에는 숨겨진 기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욕계의 추악한 모습이 새겨져있다고 하며 전체가 다 조각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미완성된 곳이 많다고 한다. 그 숨겨진 기단부의 한 귀퉁이를 노출시켜 공개하고 있다. 감춰진 기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근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한 바로는 몇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로 건립초기에는 이 부분이 노출되도록 계획 되었고 각각의 조각 형태에 대한 지시문이 고대 인도어로 각자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째로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던 중에 지진 등의 변이 일어나 붕괴되는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지층의 발굴결과 사용하다가 폐기된 석재가 성토층에 뒤섞여 있고 성토층에 교란된 모습이 있다는 것에서 추리한 것이다.

셋째로 붕괴가 일어난 후 구조적인 보강대책으로 기단부를 확대하여 덮어 씌우는 것으로 추가된 테라스가 만들어졌고 욕계의 추악한 모습은 감춰두는 것이 신앙을 위한



보로부드루 제1회랑의 조각상



보로부드루 전경 : 지내력이 약한 화산암 지반에 많은 석재를 쌓아 올린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놀랍다



보로부드루 회랑 벽체 부조상

상징적인 의도와도 합치되기에 설계변경된 것으로 해석한다.

네째로 최초에는 단순히 석재로 벽돌 쌓듯이 축조하였으나 사고후 보강 방법으로 석재끼리 서로 물리도록 함으로써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유기적인 연결체재로 저항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유적은 1814년에 외국인에 의해 발견된 이후 세계에 보고 되었으며 발견당시에는 용암과 화산재로 뒤 엉키고 정상부에는 수목이 자라 숲을 이루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1955년부터 유네스코 등의 협력으로 조사가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본격적인 복원 작업은 1975년에 시작되어 10여년을 계속하여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복원후 문제가 되는 것은 연판으로 방수층을 추가하여 각 층별로 배수관을 통하여 우수를 배출시키도록 했으나 석재의 무스러기들이 관로로 유입되어 폭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지하의 습기가 방출되지 못하여 석재에 백화현상 등의 풍화현상이 곳곳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석재 사이로 자연 배수가 되었던 것을 인공적으로 배수처리 함으로 발생한 문제점으로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현대적인 공법의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셈이다. 이 유적 전체를 해체한 결과로는 석재가 백만개 정도이고 부피로는 29,000m³에 달하였고, 세척과 보존 처리를 한 석재는 17만개로 6,000m³이었고, 기초와 석축 보강과 배수로 구성 등에 투입된 콘크리트는 4,000m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지역이 11세기까지 존속하다가 화산폭발의 재난으로 왕조가 동부지역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 일개의 왕조가 이와 같이 엄청난 공사를 벌일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와같은 구조물을 만들려면 불교의 교리와 경전에 대하여

해박하고 조각의 형태에 대한 예술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고,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에 축조하는 구조법에도 능통한 전문가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석재의 성질에 기인한 때문인지 부조들은 원석을 축조한 후 조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1,300여의 장면이 부조되고 432개의 불감과 500여구의 불상이 체계적으로 조합된 예술품이라는 점에서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조각의 장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동안에 일행과 같이 따라 다니며 유심히 듣는 사람이 있었다. 설명과 기념촬영이 끝난후 서로 인사하면서 알고 보니 경주시에 근무하는 학예사로 혼자서 불적 촬영을 위해 유적을 찾아다니는 중에 만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성명이 기억나지 않지만 수년전에 문화재 설계관계로 낮이 익은 사람한테 외로운 고생길에 과감히 나선 순례자를 이곳에서 만나니 반갑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느낌이 든다. 여정이 서로 다르므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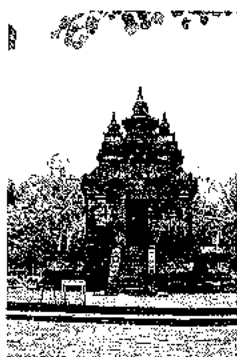
9. 빠원(Chandi Pawon)

보로부드루 동쪽으로 1km 되는 평지에 위치한 빠원사는 사원으로 호칭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감실을 둔 소규모의 탑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유적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 '마음을 정화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우리 식으로 명칭하자면 세심동(洗心洞)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탑이 보로부드루를 향한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독립된 사원이라기보다는 보로부드루를 참배하기 전에 통과의식을 행하는 장소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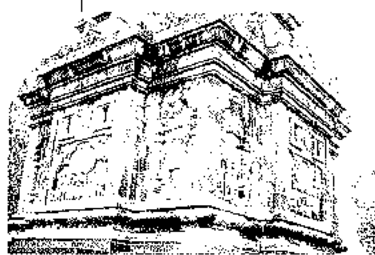
감실내의 불상은 잃어 버린 지 오래된 것 같고 유적의 성격상 보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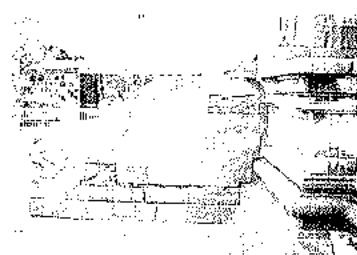
보로부드루 중앙 정상의 스투파 : 왼편에 마름모 형의 스투파가 보이고 한단 위편으로는 직사각형 창이 스투파 뒤로 창이 없는 대형 스투파가 정상부에 있다.



빠원 사원의 전면



빠원의 탑신 측면부



빠원의 계단 소매들 : 총직하여 소매들을 만들고 약어릴 조각이 장식되고 기단부에 돌덩이 다양하게 구사되었다.

1904년에 복원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며, 평면 형태는 아자형(亞字形)으로 서측면에만 계단과 감실 입구를 두고 지붕의 모서리와 중앙부에는 소탑형의 장식을 배치하고 정상부에는 한 단을 높여 절병통 형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 유적의 평면을 정방형으로 만들고 지붕의 장식을 생략하면 한국의 석탑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 흥미롭다. 계단의 양측 소맷돌은 통재가 아니고 적층하여 만들었으며, 상단부에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귀면이 조각되고 하단부에는 정면을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 형상이 장식되어 있다. 보도부르두에서도 보았던 것이지만 그곳은 복잡하고 험란한 규모와 치장 때문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이었으나 이곳에서는 새삼스레 유의하여 보게 된다.

기단부의 상하부에는 각형과 원호형이 혼합된 물당이 구사되었고 탑신 기저부에도 반복되고 있다. 발리의 초가집에서 기단이 정교하게 꾸며진 것을 생각하면 문화적 전통의 흐름이 끈질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탑신의 발침형태에서는 고려초기의 석탑에서 보이는 탑신발침이 발생하는 것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궁리하게 된다.

감실 입구는 평판석으로 인방재를 건너대고, 그 위로 전체 윤곽은 지붕처럼 만들어진 귀면상이 조각되고 있다. 이마 부분을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만든 것이 한국의 귀면과는 대조적이다. 기단의 면석과 탑신부에도 보살상과 기타의 문양이 조각되었는데 사원의 문장처럼 사용되는 문양이 주목된다. 화면의 중앙부에 보리수가 있고 가지 위에는 연꽃을 추가하여 치장하고 정상부에는 일산을 펼쳐 세우고, 그 좌우로는 구름위에 비천상이 호위하며, 하부의 좌우로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의 모습인 음악신(音樂神, Kinarra-Kiknarris)이 웅위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처의 열반과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 문양은 다음에 답사하게 되는 한두교 사원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불교의 경전이 힌

두교와 근원이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슬람교가 기독교에서 파생한 종파라는 것과 유사성이 있는 모양이다. 귀국해서 힌두교와 불교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는 숙제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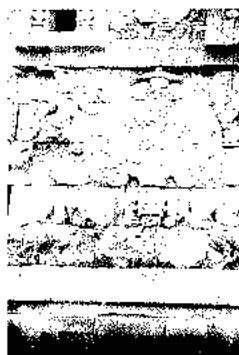
10. 문두(Chandi Mendut)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영향인지 영문 표기와 실제 발음과의 차이점이 느껴진다. 오우오 발음이 분간키 어려워 문도, 문두, 멘두, 문도, 문두 중에 어느 것인지 압축에서 중얼거리려 본다. 빠원 동쪽으로 2km이고, 보로부르두에서는 동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동향으로 배치한 점에서 빠원과 같이 보로부르두와 관련된 유적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도 하고 보로부르두보다 먼저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역사 기록이 없고 유적지에서 발굴된 바문에 의해 역사가 단편적으로 조립되고 있어 역사의 증명이 소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삼국사기가 남겨져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기본적인 모습은 빠원의 모습을 크게 확대한 듯한 인상이다. 1834년에 알려지고 1897년부터 10년간의 복원작업으로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8, 9세기 건립으로 추정하며 인도 굽타 시대의 사르나트 양식과 닮은 점이 있다고 한다. 탑의 상륜부는 복원되지 못하였고 감실 입구 상부는 층단으로 내밀어 쌓기한 개구부를 만들고 입구 전면에 좌우로 벽체가 구성되어 조각이 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미완성된 형상이다. 감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왼쪽벽에는 동자들 틈에 행운을 관장하는 하리티(Hariti)보살이 묘사되고 맞은편 벽에도 잠발라(Jambala) 또는 쿠웨라(Kuwera)보살이 동자들 속에서 재물을 담은 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묘사되어 부와 번영을 관장하는 신으로 상징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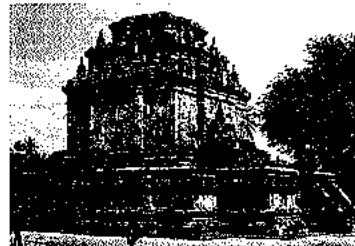
빠원의 계단에 배치된 하늘을 향한 귀면상



빠원의 탑신에 조각된 부조 : 보리수와 음악신이 묘사되었다



빠원의 감실 입구 : 귀면상이 장식화 되었다



문두사원 전경 : 정상부분은 복원되지 못하였다.

감실내에는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고 중앙에는 의자에 앉아 양다리를 늘어뜨린 모습으로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상으로 보여진다. 좌우의 협시불은 한쪽 다리를 접은 모습의 반가상인데 국내재에서 유명한 반가사유상이 다리를 무릎위에 올려 놓은 것에 비하여 이곳에서는 무릎 옆에 발바닥을 대고 있는 모습이다. 열대 지역이어서 포개 놓으면 땀이 날까 염려되어 저런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보로부드루를 위시하여 지금까지 보아 온 사원들은 공통적으로 대승불교적인 마하야나 스토리(Mahayana Story)가 조각으로 묘사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 신도에게 교육용으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느껴지고, 중세 유럽의 성당에서 신도들을 위해 성경의 내용을 조각으로 치장해 놓은 것과 동일한 발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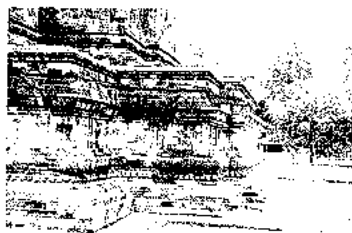
이 지역에서 보이는 유적의 평면이 한결같이 정방형에 중앙부가 다시 돌출되어 나오는 아자형 평면이 적용되는 까닭이 궁금해지는데 혼자서 궁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본적으로 사방 대칭형의 만다라적인 평면인 것으로 생각되고 지붕에 장식한 소탑이 위에서 보면 만다라화에서 보이는 형태와 닮은 것으로 생각되고, 구조적으로는 돌출된 부분이 부속벽의 역할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만다라는 소승불교에 속하는 밀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어렵잖이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초기에는 소승불교로 시작되어 대승불교로 바뀌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됨직도 하다.

오전에 세곳을 답사하고 나니 점심 때가 되어 허기가 느껴진다. 날씨가 흐린 탓인지 생각보다 덥지는 않으나 습도 때문에 후덥지근하여 땀이 나면서 끈끈해진다. 식당에 가는 길에 은세공점에 들러 무료로 제공하는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둘러 보았다. 이 지역이 원래 조각과 세공기술로 정평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발리에서 보던 것보다는 세련된 듯 싶다.

휴대한 자동카메라가 고장이 났는지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플래시가 터져 촬영상태가 미덥지 못하여 속으로 고심한다. 차라리 수동식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속수무책이고 촬영 때마다 플래시를 중지시키는 모드로 전환시키자니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아 짜증이 난다. 자동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 초점이나 제대로 맞았는지 걱정이고, 아무튼 찍어보는 수밖에 없다. 귀국해서 현상해 본 결과는 역시 불량사진 투성이 되고 말았다.

은세공품을 보고 있는 동안에 밖으로 나와 주변의 건물을 둘러 보던 중 세공점의 현관이 목조로 만들어 졌는데 이 지역 고유의 양식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하며 사모지붕의 상부는 급한 물매로 가다가 중단에서 꺾이어 경사가 완만해 지는 꺾인 지붕 형태이다. 각서까래를 사용하고 처마에는 곡이 없이 직선적이다. 비가 많이 올 때에 낙수물이 기단밖으로 멀찍이 떨어지도록 배려한 것인지, 원시적인 초가집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인지 궁금하다.

예약된 중국식당에 가서 뷔페식 점심을 드는데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었다. 그런데 보로부드루에서부터 우리를 따라 다니는 비디오 촬영기사가 먼저 도착해서 상영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가이드를 통해 식당도 알아 둔 모양이다. 가이드인 방선생에게 물어보니 보로부드루가 유네스코의 기금으로 복원하면서 경내에서는 촬영과 관련해 일체의 상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보여주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비용을 받고 녹화 테이프를 주는데 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은세공점에서도 일행이 들어가 한두 분이 기념품을 사서 체면 유지는 했다고 안도하는 고참 회원들이 이번에도 역시 청하지는 않았지만 수고한 품을 보아서 하나 정도는 사주는 것이 좋겠다는 양반 체면론에 따라 결국은 하나를 사게 되었다.



문두사원 기단부



문두사원 계단부



죽자카르타 은세공점 현관 : 지붕의 구성이 인도네시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한다



문두사원 감실내 좌협시상 : 외상이 얇게 표현되고 다리의 구도가 한국의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의 건축가 4 - 딜러와 스코피디오

Diller & Scofidio

퍼포먼스를 통한 사색적 건축 : 페미니즘의 공간

성인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eong In-Soo

〈사진 1〉 엘리자베스
딜러의 모습.
출처 : <http://www.princeton.edu/~soa/faculty/diller.html>



◇ 연 재 목 차 ◇

(격월 게재)

1. 렘 쿨하스 Rem Koolhaas
2. 다니엘 리베스킨트 Daniel Libeskind
3. 파올로 솔레리 Paolo Soleri
4. 딜러+스코피디오 Diller+Scofidio
5. 니콜라스 그림쇼 Nicholas Grimshaw
6. 에릭 오웬 모스 Eric Owen Moss
7. 라파엘 모네오 Rafael Moneo
8. 베르나르 쭈미 Bernard Tschumi
9. 아키텍토니카 Architectonica
10. 건축 스튜디오 Architecture Studio

1. 홍콩, 한 시대의 종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업체에도 일부 업무설계를 허용한다”는 규제완화 방침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벌이 경제적 힘을 지니고, 공무원이 또 다른 힘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힘없는(?) 단체중의 하나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의 이름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파도를 보게 된다. 아니 계속될 것으로 짐작된다.

1997년 7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벌어진 세계적인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앞으로 인터넷의 영향력과 그리고 화성에서의 미 우주선 “패스파인더”의 활동과 홍콩의 중국회귀와 1국 2체제를 지닌 중국의 시작일 것이다. 거대한 중국의 출발이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우울한 홍콩반환의식”은 156년간의 영국의 홍콩 통치를 보는 CNN의 시각이고 “모국으로의 회귀”는 중국인들의 시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역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13년전 마가레트 대처 수상과 덩샤오핑과의 ‘슬기로운’ 조약인 ‘1국 2체제’에 대한 조인 이후, 진행된 그 동안의 일이 지금에 다다르고 있다. CNN에서 버나드 쇼²⁾가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 전 수상과 인터뷰를 했다.³⁾

1. One country two systems, One party two systems

2. CNN의 Bernard Shaw

3. <http://cnn.com/WORLD/9706/30/thatcher.transcript/index.html>

“소: 대저 여사, 미국에서부터 인도나 자마йка, 그 사이에 여러 곳에 이르기까지 많았던 식민지 중에서 지금 또 하나의 식민지 홍콩을 잃는 느낌은 어떤가?”

대처: 특별히 슬프다. 상황은 독특한데, 당신이 말한 다른 모든 내용은 영국이 그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기간 홍콩을 다스렸다는 것이며, 홍콩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말한 홍콩 문제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가? 홍콩은 오래 전에 이루어진 세 가지 조약에 영향을 받았다. 처음 1842년에, 현재의 홍콩의 약 4~5% 크기인 작은 섬-자유 보유권-을 얻었을 때 후에 다른 조약으로, 바다 건너 반대편 약간의 땅, 구룡반도의 좁고 긴 땅이 뒤따랐다. 합하여 그 크기는 현재의 홍콩의 8%에 이르는 크기였다. 그리고 다시(홍콩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무역 목적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는 대규모 무역기지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중국은 더 이상 무상으로 땅을 주려 들지 않았고 상당히 큰 대지를 빌려주었는데, 99년간의 임대료, 그 임대계약이 1997년 6월 30일에 종료한다. 그래서 그곳에 영국이 머물렀다. 우리는 그 계약이 있음을 항상 알고 있었고, 지금은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 소유권을 교섭했어야 했다고 자연스럽게 희망하게 된다. 그리고 국제법에 의해서, 홍콩은 6월 30일에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모든 세계적인 변화는 어떤 면으로 우리의 건축에 영향을 줄 요소들이다. 조약을 맺으며 도장찍는 조그만 소리 하나가 몇 년 아니 몇 십년 뒤에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잘못 이해했다. 중동지역을 근거로 그들이 연구한 ‘오리엔탈리즘’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서양이나 영국이 중국이나 동양을 잘 이해하고 조약을 맺었다면 그들은 홍콩을 영구히 소유할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른다. 99년이란 기간을 영원하게 여긴 사람들과, 달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고 여긴, 천천히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차이를 생각해 한다. 150여년을 천천히 기다려온 중국과 지금부터 50년 정도는 그대로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시간에 대한 감각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우리 나라의 ‘빨리 빨리’라는 태도, 즉 ‘시간에 대한 태도’는 중국의 태도와 비교된다.

“지난 25년간의 성장과 변화는 한국의 특징이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3세계국가에서 세계시장의 주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2세대도 안되는 짧은 기간의 성장과 번영은 확고하고 권위적인 계획안을 발

표했다. 이 계획안은 제철소와 조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설계책상에서도 양적 생산성을 요구했다. 확장하는 경제는 건설하는 경제이며 이것은 모든 건축가들의 꿈이다.”⁴⁾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엄청나게 많은 건설회사들은 그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대학의 그 엄청나게 많은 건축학과 출신들은 어디다 쓰고 또는 쓰지 않고, 자봉모양 하나 고쳐보지 않으면서 30년을 하루같이 똑같은 꼬락서니의 보기 흉한 아파트만을 판에 박은 듯이 짓고, 짓고, 또 짓고 있는 것인지는... 이게 도대체 어떤 민족이요, 어떤 민족의 후예란 말인지...”⁵⁾

일반인의 시각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책임이 건축사들에게만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대형 주택건설 회사나 이익만 추구하는 건설업자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건축사들이 무죄증명이나 알라바이를 댈 수 있을까?

“전자 미디어와 오늘날 아시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세계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과연 어떤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통적 언어와 삶의 방식을 이 조건에 알맞게 할 수 있을 것인가?”⁶⁾

대한건축사협회가 설계업무권에 목을 메고 있는 동안에도 세계는 변하고 있고 건축을 바라보는 방법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2. 인터넷의 세계로, 그리고 우주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거래를 면세화하고, 인터넷을 자유교역지대로 선언할 것을 제안했고(7월 1일), 이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한 법안제출계획을 발표(7월 3일)했다. 살펴보면 미국은 인터넷 거래로 큰 돈을 벌고 있다.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작년에 1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0년까지 50~1백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⁷⁾

4) 신시아 C. 데이빗슨, 『Anywise 건축의 도전』, (서울: 건축도서출판공사, 1995), 서문중에서

5) 최정호, 1997년 3월 10일자 조선일보(우리문화유산 기행-10) ‘와상대사의 부석사: 신령한 땅에 일군 화엄 제1도장 - 아귀 신라의 숨결 생생’ 중에서 인용

6) 건축적 사고에 있어서의 지식과 지혜, 서울, 『Anywise 건축의 도전』, (서울: 건축도서출판공사, 1995), 23쪽

7) 조선일보 1997년 7월 2일자, 디지털 조선일보 기사검색에서, [http://www.chosun.com/8080/cbot/cgi/wcho.cgi?FID=332329&key=클린턴 인터넷](http://www.chosun.com/8080/cbot/cgi/wcho.cgi?FID=332329&key=클린턴%20인터넷)



〈사진2〉 패스파인더에서 본 화성의 경치
출처: <http://www.jpl.nasa.gov/marsnews/img/81732b.gif>



〈사진3〉 우주탐사선 소저너의 착륙
출처: <http://mpfwww.jpl.nasa.gov/ops/sol2.html>



〈사진4〉 낡은 집의 모습
출처: AA Files 17, (위차: 16쪽, 왼쪽 사진)

유럽 29개국은 8일 인터넷을 정부의 간섭없이 민간 자율운영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회원국들과 동유럽 국가의 관련부처 각료들은 본에서 이틀간 열린 '유럽 인터넷 회의'를 폐막하면서 정보 고속도로인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고 인터넷 사용과 운영을 민간기업과 소비자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선언'을 채택했다.⁸⁾

이들은 독일, 본 선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또는 정보교환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유럽의 경쟁력은 인터넷 활용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본 선언은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민간투자자와 업계의 자율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포르노와 폭력 테러 등에 대한 규제조치 민간에 위임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EU와 미국은 7월 9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의한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한다.⁹⁾

우리는 인터넷에서 외국의 여러 설계사무소의 작품을 볼 수 있고, 우리들도 그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설계사무소 참가할 것이다. 이제 설계비도 세금 없이 인터넷으로 지불이 가능하다는 말은 아닐까?

인터넷 외에, 화성에서 우주선 "길 더듬이(패스파인더)"의 활동이 중요해질 것이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 할 화성탐사가 성공했고, 화성에 생물이 존재하는지 판가름나게 해 줄 직접적 자료를 인류가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2, 3> 그들은 이 탐사성공을 칼 세이건에게 바쳤다. 책 "코스모스"의 저자이며, 과학대중화를 목표로 삼은 세이건의 주장은 하나같다.

"지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 눈을 광활한 우주로 돌리자. 지구는 외롭지가 아니다. 인간은 지구 위의 여러 생명체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구의 친구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이건은 우주인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였다. 그러나 황당무계한 공상과학 차원이 아니라 단단한 학문적 기반을 통해 동료 과학자들과 대중들을 설득해 나갔다.¹⁰⁾ 칼 세이건(카알 사강) 교수는 대 폭발이후의 약 150억년이 지난 우주의 긴

시간을 1년으로 축소하여 지구의 역사를 쉽게 도표를 그려 설명했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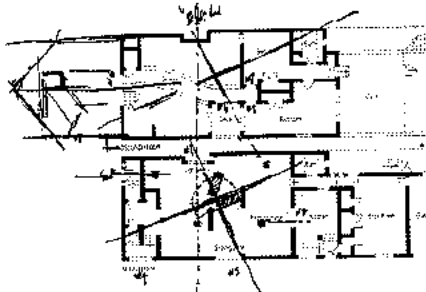
빅뱅(우주대폭발)이 있던 날을 1월 1일로 하면 2월초에 최초의 항성과 성운(운하)이 형성되었다. 3월에 들어 더 많은 은하가 형성되고, 4월에 은하계가 만들어졌다. 5월초에 최초의 항성이 탄생했다. 이 거대한 별은 짧은 시간에 밝게 타올라 초신성으로 폭발했는데, 그 조각에서 또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 이와같이 우수한 별이 탄생하는 가운데 9월 9일 태양계가 출현했다. 우리들의 지구는 그로부터 5월 14일 태어났고, 25일 경에 바다 속에 생명의 씨앗이 생겼고, 10월 2일에는 암석이 생겼다. 그로부터 1주일 후에는 세균과 균열 식물인 남조류가 태어났고, 11월 12일에 광합성 식물이 생겼다. 11월 15일이 되자 해를 가진 최초의 생물이 출현했다. 12월에는 대기 중에 산소량이 늘었고, 16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생물들이 잇달아 지구상에 태어났다. 19일에 최초의 어류가, 23일에 최초의 종류(笠鰐)가, 26일에 최초의 포유류가 나타났다.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에 최초의 인간이 드디어 등장했다.¹¹⁾ 150억년을 1년으로 환산한 기간에 대한 대비표다. 그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기간은 약 250만년이다. 그 중 대부분이 역사를 글로 기록하지 못한 선사시대이며, 인류가 역사를 글로 기록한 역사시대는 대략 1만년 정도의 기간이다. 그 기간 중에 기계를 이용하여 인간 스스로 자연을 다스려온 역사는 길어야 300년 정도일 것이다. 참으로 짧은 기간이었다.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외계에 가서 살아야 할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른다. 외계 식민지도 우리 스스로의 논리가 아니라 개발되어 지구인을 기다리는 무공해의 식민지와 황폐화되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구의 상황, 즉 우주개발과 무기판매라는 상업적 논리에 휩쓸리다 보면, 개발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여 다음 공간, 우주 식민지로 인간들이 빨려가게 될지 모른다.

8) 1997년 7월 9일자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기사검색에서 <http://www.chosun.com:8080/cbot/cgi/wcho.cgi?FID=335719&key=클린턴%20인터넷>
9) 1997/07/09 20:07 동아일보 인터넷 전자신문 <http://www.dongailbo.com/기사검색에서>
10)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707/199707090178.html>
11) 카알 사강 조화래 옮김, "코스모스 Cosmos: 미지의 세계, 우주의 신비", (서울: 알침사각, 1981년), 4쪽,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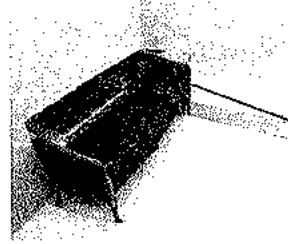
<사진5> 고친 후의 주택의 모습
출처: AA Files 17



<사진6> 1층과 2층 도면, 출처: AA Files 17



<사진7> 4개의 벽면으로 된 새로운 주택 내부
출처: AA Files 17



<사진8> 붙어있는 침대
출처: AA Files 17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가 잃은 것은 시간의 의미이다. 그 전에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았으나 산업혁명 이후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었다. 인터넷도 개발하는 사람 때문에 필요할 수 있다. 필자는 지구가 멈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발전하는 속도가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시간감각을 이미 상회했다는 말이다. 고객이나 국민들이 원해서 세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대부분 기업체가 자체의 상업적 논리에 의하여 발전한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3. 딜러+스코피다오의 대표적 퍼포먼스: '멀어지는(침대가 있는) 방'¹²⁾ 1986년

샌 프랜시스코, 카프 스트리트 65번지에 위치한, 100년쯤 된 낡은 집(사진 4)을 데이비드 아일랜드가 개조한 것(사진 5)에 포함된 설치계획이었고, 지금은 다매체 설치작업을 위한 장소, 스튜디오와 동시에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예술가-거주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주택에 생활하면서 2개월마다 주택은 일반에 공개된다. 전시가 끝나면 주택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주물의 흠을 페인트로 덮은 내부는 겹겹이 두껍게 한 흔적을 지니며, 15개 정도의 설치작품을 감추고 있으며, 그 만큼 이상적인 건축의 상태로 환생하고 있다. 주택 자체는 주택의 역사와 주택의 사적/공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주택 자체는 그들의 계획 속에서 핑계거리인데, 건축적 관습을 유지하며 건축에 공모하고 집착하는 것에 강한 의견을 제기하는 파내기, 삭제하기, 이식, 비문 등이 그 퍼포먼스 안에 담겨 있다.

'멀어지는 방'은 두 종류의, 하나는 가공의 다른 하나는 실제의 가정 영역을 지닌다. 두 영역은 주택의 외피와, 원하는 형태로 되돌릴 수 없는 가정적 단위-거주자 사이의 간격 속에서 존재한다. 공적 영역에서 사적 행동을 표현하는 것과 사적 영역에서 공적 행동으로 침입함으로써 두 영역의 경계는 흐려진다. 오브제들이 지닌 비문의 또는 서술적 잠재력을 통하여 인간 존재가 암시된다.¹³⁾ (사진 6)

예술과 건축세계의 결합이 '멀어지는 방' 전 사회에서 딜러와 스코피다오가 사용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게 건축과 관습을 교차시키는지 탐색하면서, 설치 미술은 우리들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경험들을 만드는데 건물설계가 어떻게 공헌했는지 강조해 줄 주택 내에서 네 벽면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7)

'멀어지는 방'을 지나며, 관객들은 건축적 힘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들에 지워진 특별한 질서인 불균형 감각을 동굴이 오싹하도록 경험할 것이다. 바닥을 갈라 2인치 정도의 틈을 내고 주택의 고고학적, 그리고 법적 역사를 노출함으로써 딜러와 스코피다오는 관람자에게 "개인재산"의 의미와 거대한 외부 세계와의 주택과의 관계를 심사숙고하게 한다. 관람자는 사회적 집단의 장소인 식탁으로 옮겨가는데, 천장에 가구를 매달아 늘어뜨려 예술가는 예절에 대한 생각을 뒤바꾼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은 의자에 고정시킨 금속 봉에 화장용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자화상을 보여주려는 천밀한 장소를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이 무대에서 거울의 기능성은 의자에 앉으려는 사람을 대신하여 불편과 비틀림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관람자가 '멀어지는 방'을 일단 벗어나면, 그(녀)는 어떻게, 그리고 아마도 왜 건축이 건축처럼 보이지 않는지 두어번 고개를 저을 것이다.¹⁴⁾

프로그램

— 대지경계선: 법적인 원칙과 도덕적 제한선; 거주자는 문화와 관련된다. 주택건물은 물리적, 시각적인 폭력성이 가득했고 그리고 화해하는 구조물들을 지닌 취약점이 있는 구멍이 많은 채 대지에 가득 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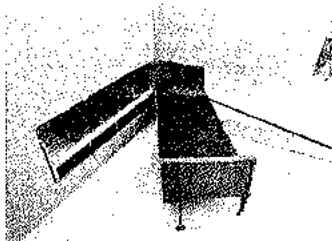
— 예절: 사회적 질서, 정확한 질서; 의파를 관통하게 해주는 부문화에 관계된 거주자. 방안에는 사회구조로 묘사된 방과 가구가 놓여 있다. 식탁이 퍼포먼스의 근본적인 장소다.

— 친교: 사적인 질서; 다른 신체에 대한 거주자의 신체. 이것은 생물학적 성, 욕망, 그리고 거부의 주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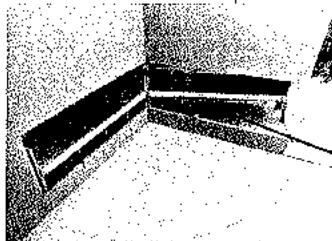
12) The With Drawing Room

13) Elizabeth Diller & Ricardo Scofidio, 'the with drawing room: a probe into the conventions of private life', AA Files 17, 1989년 봄호,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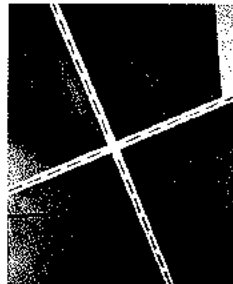
14) <http://iesla.csu Hayward.edu/cappstreet/installation/dillerscofidio.html> DILLER + SCOFIDIO THE WITH DRAWING ROOM, August 12 - September 12,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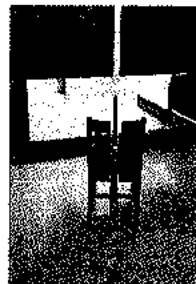
〈사진9〉 멀어지는 침대, 출처: AA Files 17



〈사진10〉 멀어진 침대, 출처: AA Files 17



〈사진11〉 위에서 본 침대, 고정된 침대는 여성용임용 신발이 보여준다. 출처: AA Files 17



〈사진12〉 틈이 난 바닥 출처: AA Files 17

포함한다. 침대는 퍼포먼스의 근본적 장소다.

— 자기도취자(나르시스트)의 총동: 내부의 질서: 자신에 대한 거주자. 거주자가 자신과의 일치, 건강에 사로잡힘, 편집적 식사법, 그리고 오래 살려는 것 뿐만 아니라 독 특함을 위한 일용품에 이끌리는 생활이 포함된다. 거울이 근본적인 퍼포먼스의 대상 장소다.¹⁵⁾

새로운 벽들의 교차점-상대를 존경하는 중심에 조각난 침대 두개를 연결하는 기계적 경험에 있다. 침대가 가까워지면, 하나의 침대로 연결된다.〈사진 8〉 각 침대에 머무는 사람들은 한 침대로 모이지만, 벽에 의해 떨어진 채 있다. 침대 반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자유로워 옆에 직각을 이룬 벽을 관통하여 180도 각도로 회전하여 침대 머리 판이 맞닿을 수 있다. 천고는 일 순간의 상황이며 침대는 일주하는 동안 기계 중심적이며 원심력의 작용을 받는다.¹⁶⁾ 〈사진 9〉 고정된 침대는 여성용인가 남성용인가? 경우에 따라 다가오는 침대는 남성용인가? 여성용인가? 여기에 엘리자베스 딜러의 당당한 페미니즘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9, 10, 11〉

카프 스트리트 65와 67번지 사이에 위치한 3인치의 폭을 따라 광경 안에 위치한 거울은 그 틈으로부터 반대편 구획 벽의 걸려진 틈으로 반사한다. 대지경계선, 아니 그보다 대지 경계면의 이런 물질화는 이후 같은 차원의 파내기로 내부를 굴절시킨다. 이 틈내기는 단면도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인정이 된 구조적 정보를 밝혀내기 위하여 바닥이나 그 길 위의 모든 것을 찢아낸다. 원래 주택의 고고학적 지층, 그 바닥 공간, 그리고 그 아래 지층은 또한 외피의 취약점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노출되었다.¹⁷⁾ 〈사진 12, 13〉

1층 바닥에 놓인 구성 요소들은 기존 2층 브리지에서 내려보도록 의도된 것이다. 부수적으로 매달려 있는 요소들은, 가상의 2층 높이에 놓인 브리지가 있는 층의 자료들은 아래에서 올려다 보인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조감도적 시각은 기억에 의하여 종합되는데 아무데나 있는 대상들로 시도되었다. 프로그램상 구성요소 주위의 유리한 위치의 회전은 경험적 정보와 분석적 정보 사이에 진폭을 만든다. '주택'의 문화적 주제로서의 물질과 공간 속에서 움직임의 자유로 주어진 관람자의 역할은 항상 여행자의 역할과 분리된 관찰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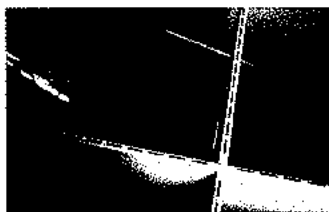
사이에 파동이 일어난다.¹⁸⁾ 〈사진 14, 15〉

식탁은 확장된다. 각 의자들은 식사용 접시 주위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장치에 의하여 식탁과 연결되어 있다. 식탁은 주인과 손님 사이의 관계, 남녀 성의 관계, 식사와 식사하는 사람과의 행동관계, 식탁 표면 아래나 위에 있는 오브제의 형태들의 관계-부호들을 끝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미세조직체로서의 대지이다. 〈사진 16〉

여기에 속한 가구들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낮추고, 관계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철저히 사용되었다. 대신에 모든 구성요소들은 탈-부호화 된, 즉 문화적으로 고정된 요소들을 벗어난 것들이다. 일부 요소들은 물리적으로 변화하여 기능적인 것을 벗어났고, 그리고 보철 도구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구르는 철제 다리는 회전하는 침대의 지지 받지 못한 모서리를 안정시키고, 철제원호는 침대가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벌어진 틈을 건너준다. 의자 다리는 앉은 사람의 머리가 브라운관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높였다. 틈이 나 잘려진 의자의 구조는 대신 복원되었다. 뒷다리가 없는 의자는 두 다리 중간에 보철 지지대로 보강되어 앉은 사람의 가랑이를 지나는데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이 거울을 마주 보게 만들었다: 이러한 독신자용 기계를 위하여, 거울은 분리를 극복한다. 공간은 압박 당한다.¹⁹⁾ 〈사진 17, 18, 19, 20〉

이렇게 새로 벽을 바꾸어 조정된 주택의 모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주택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다만 이곳에서 머무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은 관람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 동거인 또는 두 사람의 독신자들을 위한 침대는 항상 2인용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두 동거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침대를 벌려 놓는다면 그 침대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진다. 또한 침대가 붙어 있다고 해도 건축가의 의도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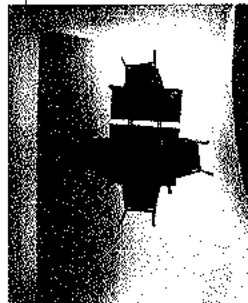
15) Elizabeth Diller & Ricardo Scofidio, "Ina with drawing room: a probe into the conventions of private life", AA Files 17, 1980년 봄호, 16쪽.
16) Elizabeth Diller & Ricardo Scofidio, AA Files 17, 앞책, 18쪽.
17) Elizabeth Diller & Ricardo Scofidio, AA Files 17, 앞책, 19쪽.
18) Elizabeth Diller & Ricardo Scofidio, AA Files 17, 앞책, 21쪽.
19) Elizabeth Diller & Ricardo Scofidio, AA Files 17, 앞책, 23쪽.



〈사진13〉 광경과 바닥, 출처: AA Files 17.



〈사진14〉 올려 설치한 식탁, 출처: AA Files 17



〈사진15〉 아래에서 올려다 본 식탁, 출처: AA Files 17



〈사진16〉 내려다 본 식탁, 출처: AA Files 17

단면으로 알 수 있듯이 침대를 가로지른 벽은 두 사람이 붙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허상의 높이에 있는 식탁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식탁의 위치는 식탁 위에서 벌어졌던 예절로 가득했던 수 없는 대화 내용에 대한 진실성에 대하여 질문을 보낸다. 그 수없는 공허한 말들과 의미들이 오고 간 식탁이라는 자리를, 위치를 바꾸어 위층에서 내려다보고 아래층에서 올려다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공간적 의미에서부터 인간적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사진 21>

다양한 위치에 앉아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업은 자신 뿐만 아니라 독신자 자신의 존재를 담고 있는 주택의 모습까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인간이라는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극도로 반어적이고 제어된 그러나 자신을 돌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기존 거실을 변조시켰다. 참여자가 참여함으로써 달성되는 정말로 섬뜩한 건축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이 달성되는 방법이 퍼포먼스이다(그러나 그 섬뜩한 것은 서양인에게 더 절실할 것이다. 감정을 예절로 잘 감추고 있는 그들에게 말이다).

4. 개념적 예술 : 퍼포먼스

건축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 그 중에서도 새로운 예술과 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건축가 딜러와 스코피디오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개념미술과 퍼포먼스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 볼 수 없는지?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개념적 예술은 미니멀 아트 이후의 현대미술의 한 경향으로서 완성된 작품 그 자체보다는 제작의 아이디어나 그 과정이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반-미술적 제작태도를 말한다. 개념 미술의 선구자는 마르셀 뒤샹이다. 여기서 '개념적'이란 '지각적(Perceptual)' 예술이 지닌 재현미술에서의 묘사방식과 대립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개념미술에서의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미술작품이며 그것의 물질화는 의미가 없다 - 미술이란 미술의 본질에 관하여 정의하는 것이며 미술작품은 분석적 명

제이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⁰⁾ 60년대 화가들은 새로운 형태와 표현수단을 찾기 위하여 많은 실험을 했다. 60년대 회화와 조각의 상당부분을 특징지우는 미술의 종합화를 들 수 있다. 조셉 코수트²¹⁾는 "모든 미술은 - 본질적으로 개념적이다. 왜냐하면 미술은 오직 개념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각가 솔 르윗은 「개념미술에 대하여」에서 "개념미술에 있어서 관념과 개념은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 모든 계획과 결정이 먼저 내려지며 제작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일이다. 관념은 미술을 만들어내는 기계이다"²²⁾ 라 했다.

퍼포먼스(Performance)는 실행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개념예술상의 용어이다. 관념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육체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즉 작가가 자신, 또는 관객의 육체적 행동, 행위로 조형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육체의 일부 또는 그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의 연장인 영화로서의 비디오 아트나 또는 비디오란 매체를 쓰지 않고 육체의 행위 그 자체에 의한 보디아르도 퍼포먼스이다.²³⁾ 퍼포먼스가 자주 전위예술의 최전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 존 케이지를 음악감독으로 하여 머스 커닝햄 무용단의 영향과 액션 페인팅 이래 미술에서 공연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음악, 문학, 조형예술, 연극 등 여러 장르를 포함하는 일종의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표현수단으로서 가장 넓게 사용된다.²⁴⁾

설치 '인스탈레이션'²⁵⁾은 주로 미국의 미술잡지들이 전시된 작품의 구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설명하는 글에서 흔히 쓰던 말이다. 최근의 예술이 화랑의 특정한 공간이나 배치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스탈레이션 전시는 본래 일회적인 사건일 뿐이므로 작품 하나를 사진으로 보여

20) 마순자, 「개념미술에서의 'idea'에 의미, 296-297쪽, 정병관 외 지음, 「현대미술의 동향, (서울:미진사, 1989), 296-315쪽.

21) Joseph Kosuth, 1945년생

22) H.H.매너슨 공, 이영철외 공, 「현대미술의 역사 1, 2, (서울: 인태네셔널 아트 디자인, 1991), 615쪽.

23) 퍼포먼스는 실제로 한중 앞에서 예정된 코스를 '실행' 하는 다양한 행위양식을 포괄한다. 퍼포먼스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화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면과 양상이 있다. 액션페인팅, 신체미술, 공동체미술, 해프닝, 과정미술, 거리미술과도 교류될 수 있는 미술형태이다. 민족미술이나 사대니즘, 어원어들의 놀이, 종족 관습과도 유사성이 있다. 미술에서 회화, 조각 등의 작품에 의하지 않고 미술가의 육체적 행동, 행위에 의해서 조형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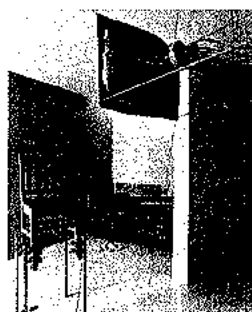
계간 미술 편,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중앙일보사, 1981), 194쪽.

24) 월간 미술 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중앙일보사, 1989), 4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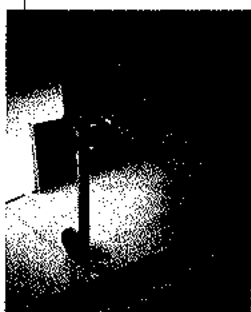
25) Installation.



<사진17> 의자와 거울, 출처: AA Files 17



<사진18> 모니터와 의자, 출처: AA Files 17



<사진19> 갈라진 틈을 건너가는 침대, 출처: AA Files 17



<사진20> 갈라진 틈과 갈라진 의자, 출처: AA Files 17



<사진21> 2층 바닥면이 있는 것처럼 놓여 있는 식탁, 출처: AA Files 17

준다고 해서 작품과 주위 공간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인스톨레이션이란 말은 또한 작가가 주문하는 설계도에 따라 공장에서 제조되는 미니멀 조각과 연관되는 산업적, 기계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²⁶⁾

1970년대에 많은 화가들이 퍼포먼스 미술을 택하고 있었다. 그 어떤 때보다 열렬하게 과거를 부정했던 세대에 있어서 퍼포먼스는 미술가들이 규칙이나 전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거나 한 것처럼 느껴졌다. 퍼포먼스를 보고 나면 설치작품이 이해되는 것처럼 퍼포먼스와 설치의 제 각각 하면서 서로 총체적인 깊은 관련을 지니기도 한다.

왜 퍼포먼스인가? 우리는 건축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퍼포먼스로 건축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5. 딜러+스코피디오

"딜러+스코피디오"는 학제적 협동집단으로 엘리자베스 딜러와 리카르도 스코피디오가 1979년 결성한 팀으로 건축, 공연, 그리고 시각예술 작업을 했으며 최근에는 무용과도 협연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딜러는 1954년 폴란드, 로즈 태생이며 1979년 뉴욕, 쿠퍼 유니온 예술대학 및 건축대학을 졸업하였고, 1990년 프린스턴 대학, 조교수로서 건축설계를 가르치며, 쿠퍼 유니온과 하버드, 칼럼비아 대학 대학원, (피터 아이젠만의) I.A.U.S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다. 엘리자베스 딜러는 1990년 이래 프린스턴 대학에 직을 두고, 그녀의 파트너 리카르도 스코피디오와 함께 설치 미술, 퍼포먼스 건축, 그리고 글쓰기 등으로 건축의 접촉성을 모색하고 있다.²⁷⁾ 이 팀의 전시는 뉴욕 현대미술관, 워커예술센터, 그리고 웨스턴 센터에서 전시되었다. 최근의 계획안 중에는 현대의 여행을 탐험한 "관광: 여행가방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또한 문화적 중재의 상호간의 형태로서 전쟁과 여행간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며, 공격개시일(다데이)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책 "뒤에서 앞으로: 전쟁의 여행들"²⁸⁾ 과 "육체, 반-연구 논문"²⁹⁾을 리카르도 스코피디오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건축책으로 출간했다.

리카르도 스코피디오는 1935년 뉴욕 태생이며 1960년 콜롬비아 대학과 쿠퍼 유니온 건축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1967년부터 쿠퍼 유니온 교수로 있으며, 하버드와 일리노이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이 팀의 수상경력은 설계경기³⁰⁾ 1등상(1988년), 티파니재단상 수상(1990년), PA 상 수상(1991년) 등이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와 전시로는 17회 밀라노 트리엔날레에 지역적인 프로젝트로, "도시의, 교외의, 시골의 창들" 설치미술로 건축을 표현하였다(1986년).

샌 프란시스코, 카프 스트리트 계획안에 추가하는 설치미술, "후퇴하는 방", 무대세트와 의상 담당, "표류하는 공증인과 그의 뜨거운 접시" (1987년), "소화불량" 필라델피아 ICA 설치(1988년), "기생-생물", MOMA 설치미술(1989년), "관광: 여행가방 연구", 미네아폴리스, 워커 예술 센터 전시, 매세추세츠, 캄브릿지, 리스트 시각예술 센터 전시, 오히이오, 칼럼버스, 웨스턴 예술센터 전시(1991년) 등이 있다.

• 작품1: "잘못 다린 옷(Bad Press)" (사진 22)

뉴욕, 캐스트로 앤 리처드 앤더슨 갤러리 (1993년) 현대예술센터에 설치한 작품이다. 딜러와 스코피디오는 후기 산업사회의 불일치를 상징하는 사례로서 아이들 사이즈 2-4, 6-8과 어른 사이즈 L, XL의 하얀 와이셔츠를 이용하여, 직사각형 종이박스 안에 갇힌 와이셔츠의 습관성 제약을 고발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남녀의 경향과 장벽을 훈련시키고 형성하는데 건축이 규정하는 역할을 해온 점"³¹⁾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다려진 와이셔츠와 이와 다르게 접혀진 옷들을 전시한 것이다. 여성에게 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채용된 다리가 더욱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결국 여자들에게 일이 늘었다는 점 때문이다. "효용성을 좇다보면 그 부산물이 효용성의 욕망으로서 새로운 목표를 만든다"는 점을 건축에 적용시켜 보는 것은 참여자나 관람자가 할 일이다.

26) 원간 미술 권,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중앙일보사, 1989), 219쪽.

27) <http://www.princeton.edu/~soa/faculty/diller.html>

28) Back to the Front: Tourisms of War.

29) Flesh, An anti-monograph.

30) Nature Morte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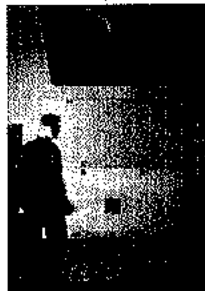
31) 공철, "관찰자의 관찰: 딜러+스코피디오", (by Michael Speaks), 『공간』, 1996년 9월호 50-59쪽, 50쪽을 참조할 것.



〈사진22〉 다려진 옷과 접혀진 주름
출처: 공간 1995년 9월호



〈사진23〉 천지가 달린 무대의 모형, 출처: AA Files 14



〈사진24〉 거울에 비친 신부와 무대 앞부분의 독신자
출처: AA Files 14



〈사진25〉 목격자의 모습, 출처: AA Files 14



〈사진26〉 신부의 측면 모습
출처: AA Files 14

• 작품2: 표류하는 공중인, 그리고 그의 뜨거운 점사³²⁾ (사진 23)

무대장치와 인체 모형은 딜러와 스코피디오, 극본과 연출은 수잔 모자코프스키, 음악은 비토 리치가 담당했다. 이 무대작업은 마르셀 뒤샹의 작품 "대형 유리" 또는 일명 "심지어, 그녀의 독신자들이 발가벗긴 신부"로부터 촉발되었다. 이 작품은 1987년 겨울 뒤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지원으로 영구 소장작품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앞서 뉴욕 라마마 실험극장에서 진행중인 작품으로 공연되었다. (사진 24) "표류하는 공중인"은 비극적 희극이다. 이 연극에는 7종류의 움직임의 구성요소가 있다. 이중의 네 요소는 인간이다: 장(場), 장치, 기계적 침대, 신부, 독신자, 목격자, 사기꾼. 설비로는 물, 가스와 전기가 사용되었다. 연극의 목표는 글과 이미지가 서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적이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장(場): 퍼포먼스의 장은 관람객의 위치와 관련하여 앞과 뒤로 나누는, 선형 통로를 따르는 반 정도의 장과, '0'과 연관된 장으로 이루어졌다. 무대의 반은 신부의 영역이며 나머지 반은 독신자에게 속한다(수직으로 세워진 신부의 영역과 90도가 꺾여 '큰 유리' 속의 독신자의 영역). 장치: 장치는 분명하지 않은 무대와 폭로하는 무대 등, 두 기본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의 영역의 분리는 분명하지 않은 무대에 의하여 '0'에 의하여 강화되었다(지금은 평면이 된 수평선은 잘게 나뉘어진 허부 무대³³⁾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무대의 나머지 부분을 물리적으로 나누고 있는 수평면에 투사되고 있다). 무대는 외과적 탄성 고무, 피부, 병을 예방하는 팽팽한 면이다. 평면은 피보트 힌지에 의하여 꺾인다. 독신자와 신부의 영역은 180도로 꺾여 서로 바뀐다.

출연자를 희극 내용의 발체를 통해 보면, 목격자: 다양한 시각적 도구가 있으며 섹스에 관하여 엿보는 사람으로 기도서를 읊조리는 사람. (사진 25) 신부: 정숙함, 정조대 장치와 처녀/과부의 신비함을 보이는 기계적 장치를 외부의 공격으로 지니고 있다. (사진 26, 27) 사기꾼: 삼각대로 지지되거나 항상 균형을 잃고 있다. 경솔한 경향이 있다. (사진 28) 총각: 근육질의 유령 또는 동시에 그 분신이기도 한, 피부에 파란

빛을 옷감을 박은 듯이 보여주는 육체의 소유자. (사진 29)

• 작품 3: 미국의 미스터리³⁴⁾ (사진 30)

뉴욕, 남부극장에서 라마마 실험극단이 공연한 연극에서의 엘리자베스 딜러와 리카르도 스코피디오의 무대 세트 디자인. 고대 그리스의 추리극과 미국 탐정추리극의 형식주의적 합성극이다. 작가의 방, 탐정의 사무실, 시장실, 발전소, 지하세계 악당의 회합실, 법정, 술집, 권투 시험장, 미스터리의 전당 등 3부3막, 9막의 연극무대로서 막을 사용하지 않고 5개의 면과 의자 9개로 4벽과 바닥으로 빨리 장면전환을 하여 다양하게 구성한 작품이다.

• 작품4: 교량³⁵⁾ (사진 31)

16세기 건축가며 철학자인 쥐리오 까밀로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연극무대를 설계하였다. 부르클린 교량 하부의 배럴 볼트 구조물 아래 설치하였다. 케이블로 버티며 두 개의 브리지가 맞닿아 있다. 각 브리지와 반대편에 세워진 회전 의자가 설치물의 전부이다. (사진 32)

• 작품5: 조각난 영상³⁶⁾ (사진 33)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영화사 영화관을 위한 현관에 영구 설치한 비디오 영상장치이다. 영화예고편과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을 교대로 비쳐준다.

• 작품6: 시간이 지체하는 별장(Slow House) (사진 34, 35, 36)

이 계획안은 바다를 향한 절벽 위에 세워진 휴가용 별장이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바다의 풍경과 동시에 바다 풍경 가운데 보이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바다. 그 모니터에는 천천히 진행되거나 늦게 나타나는 바다가 보인다. 도시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절대로 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도시로 되돌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탈출구가 있는 별장과 도시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자동차와 상대해 서 있는 나란히 바다를 향하고 있는 휘어진 콘크리트 벽면 두 개와 큰 창.

32) The Rotary Notary and His Plate, AA Files 14, 1987년 봄호, 54-57쪽
33) Inframince
34) The American Mysteries, AA Files 14, 1987년 봄호, 58-59쪽.
35) Bridge, AA Files 14, 1987년 봄호, 60-61쪽.
36) Jump Cuts 1996년.



(사진27) 신부의 정면 모습
출처: AA Files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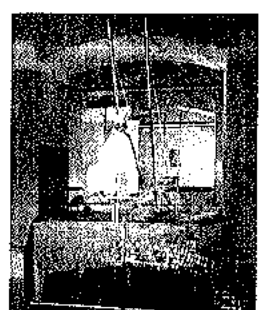
(사진28) 사기꾼의 모습
출처: AA Files 14



(사진29) 독신자(총각)의 모습, 출처: AA Files 14



(사진30) 변화하는 무대
출처: AA Files 14



(사진31) '교량'의 무대장면
출처: AA Files 14

퍼포먼스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그들의 퍼포먼스라는 의식은 오늘날 생존경쟁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요소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일상 세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물리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 건축에서도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퍼포먼스에 담긴 메시지에 담긴 비결정성과 불안정성의 초점은 건축의 물리적 붕괴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설치했던 '떨어지는 방'과 같은 계획에서 딜러와 스코피디오는 관람자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시켜 환기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행동과 가정의 의식들에 대하여 탐색한다. 딜러와 스코피디오는 그들이 건축적 '힌지(hinge)'라고 부르는 것을 위주로 그들의 계획을 만든다: 많은 계획안에서 힌지는 참여자나 관찰자들이 정의하는 대로 나타나는 비어있는 개념이다. 이것들은 건축을 확보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초대된 것이다.³⁷⁾ 그들의 아름다운 기계들은 추상으로서가 아니라 상황으로 나타난다. 마이클 소로킨은 딜러와 스코피디오를 쿠퍼학교의 대표적인 존재로, 쿠퍼 유니온을 빛내 온, 철저히 기계적으로 탐구하는 부류로 평가했다. 이것은 그들이 관찰한 근대주의자의 교의이며 최초의 기계를 받아들인(보철술의) 위대한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근본적 혈통을 따르는 실험을 한 기계에 의한 건축의 거부할 수 없는 변형이다.³⁸⁾

쿠퍼 유니온은 1859년 피터 쿠퍼가 만든 뉴욕에 있는 사립학교로서 정식명칭은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위한 쿠퍼 유니온"³⁹⁾이다. 입학허가를 받으면 전액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대학이다. 예술대학과 앨버트 넬킨 공과대학 및 인문 사회과학부가 있고 어윈 S. 체닌 건축대학이 있다.⁴⁰⁾ 뉴욕, 맨해튼에서 오래된 건물의 하나이며, 1975년 존 헤이콧이 내부실내를 개조하였다. 4개의 갤러리에서 진보적인 건축과 순수예술, 그래픽 디자인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뉴욕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70년대의 쿠퍼 유니온은 2세대를 통하여 현대건축의 대가들을 만날 수 있던 시기였고 60년 후반의 미국 뉴욕에서 추상화가들은 구상화가들과 전혀 다른 그룹의 건축가들과 어울렸다. 이 지역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토론했던 20세기의 추상과 초현실주의의 영향은, 즉 기초 강의를 통

하여 몬드리안, 클레, 말레비치, 뒤상, 그리고 순수주의자의 존재가 당시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⁴¹⁾ 기타 작품으로 미국 50여개 주의 역사적 과거로의 여행을 다루면서 국가의 성립에 얽힌 전쟁의 의미와 피나는 살육 위의 평온을 상징하는 유명한 상표의 침대를 50여개의 가방에 담은 "관광: 여행용 가방 연구(1991년)"⁴²⁾ <사진 37>, 일본, "100호 공용주거 계획안(1996~7년)"과 "기생생물", 뉴욕 현대미술관 설치 작품(1989년) 등을 들 수 있다.⁴³⁾

• 작품7: 움직이는 목표(사진 38)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무용가 프레드릭 플라망⁴⁴⁾은, 이탈리아 예술가 파브리찌오 플레씨⁴⁵⁾와 같이 역사상 각기 다른 세종류 시기에서의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아래의 3부작을 만들었다.

- 르네상스: 이카르스⁴⁶⁾의 추락,
- 산업혁명: 타이타닉호의 침몰,
- 새로운 기술의 현대적 발전: 기술로부터⁴⁸⁾

이러한 삼부작에서 플라망과 플레씨는 - 통신 시스템에 노예가 된 신체와 정신 양자의: 상상력에 지배된 인간정신에 의한 생각에 따른 작업에 기초하였다. '움직이는 목표'⁴⁹⁾는 프레드릭 플라망에 의해 제3회 샤를로이 무용 비엔나레⁵⁰⁾에 선보인 새로운 결과이다. 뉴욕 건축가인 엘리자베스 딜러와 리카르도 스코피디오의 도움을 받아 서로 다른 예술의 훈련간의 분리를 깨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¹⁾

37) Gavin Hogben, Andreas Papadakis, "Theory+Experimentation: An Intellectual Extravaganza", Academy Editions, "Diller+Scofidio: Slow House", 167쪽.

38) Andreas Papadakis, "Theory+Experimentation: An Intellectual Extravaganza", Academy Editions, "Diller+Scofidio: Slow House", 166-171쪽. 토트 갤러리 마 전시회, 1992년 Diller+Scofidio, The Desiring Eye: Reviewing the Slow House, May 20-Jun 17.

39) The Cooper Un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Art.

40) <http://www.cooper.edu/>, Irwin S. Chanin School of Architecture.

41) Diane Lewis, "생각의 장기", "Young American Educators in Architecture", 특집, "공간" 1994년 11월호, 특집 8-15쪽.

42) Tourismis: Suitcase Studies.

43) 100Units Social Housing.

44) 공현, "관광지의 관장: 딜러+스코피디오", (by Michael Speaks), "공간", 1995년 9월호, 50-59쪽을 참조할 것.

45) Frederic Flamand

46) Italian Artist, Fabrizio Plessi

47) 그라스 신화, 초로 물인 날개로 날았으나 너무 태양에 접근했으므로 초가 녹아 바다에 떨어졌다는 전설의 인물.

48) Ex Machine.

49) MOVING TARGET.

50) the 3rd Charleroi/Dances Biennial (Speed and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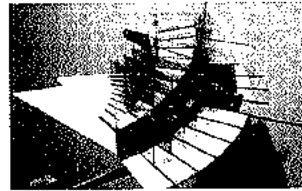
51) http://www.arkham.be/Charleroi_Dances/moving_target.htm.



<사진32> '교광'의 측면 사진과 도해, 출처: AA Files 14



<사진33> 조각난 영상, 출처: 공간 1995년 9월호



<사진34> 별장의 모형, 유리는 단면을 보여주는 도구임, 출처: 공간 1995년 9월호



<사진35> 공사중인 모습, 출처: 공간 1995년 9월호

질문: 당신은 어떻게 사물로써 무용단체와 접촉했
느냐?

딜러와 스코피디오: 프레드릭 플레망은 우리가 상
상했으나, 실현하지 않은 의상 "오토마리온네트"⁵²⁾의 이미지를 사랑하
게 되었다. 그가 우리를 바르셀로나로 초청하여 "기술로부터"를 보게
해주었는데, 그의 작품에 흥미를 느꼈다.

질문: 왜 당신은 당신의 현재 작품의 발전을 위하여
발레 안무가와 작업을 할 필요를 느꼈느냐?

딜러와 스코피디오: 우리는 항상 건축보다는 다른
논쟁에 관련한 공간적 이슈를 흥미있게 바라본다. 우리의 건축이 건축
에 대한 비평이고, 프레드릭 플레망의 무용안무는 무용에 대한 비평이
기 때문이며 이 협동은 그 토대가 좋기도 했고 중요하기도 했다.

질문: 어떻게 당신이 한 설치미술의 돌연변이 물체
(+보철술)가 무용가의 "자연적인" 신체와 혼합되느냐?

딜러와 스코피디오: 무용가의 신체는 자연스러운
것 뿐이다. 그 신체는 어려서부터 훈련에 의한 것이다. 심지어 "자연스
럽게" 보이도록 훈련하기도 한다. 푸코에 따르면 부호화된 신체(물체)
는 일반적으로 "훈련과정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신체(물
체)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의식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인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투자하고, 특징을 나타내고, 훈련하고, 억지로 만들
고, 강제로 그것이 되도록 한다. 조절하는 도구는 필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용 훈련은 "문화의 훈련된 외형"의 부분으로서 신
체가 유지되도록 요구하는 선, 위계, 그리고 특별한 구성 등을 보증한
다. 정신분열증의 신체는 기술적으로 단련된 신체를 거부하는 모든 것
이라고, 즉 부호화 되지 않은 것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그녀)는 아마도 성욕의 불합리성에 따르는 충족될 수 없는 욕구로
이루어진 화신의 범주에 가까이 갈 것이다.

6. 건축에서의 퍼포먼스

딜러와 스코피디오는 "소화불량(Indi-
gestion)"이라는 이름의 설치미술 전시를 1997년 6월 19일
부터 8월 17일까지 영국 바비칸 예술관에서 다른 예술가들과
"심각한 게임"이라는 제목 하에 전시중에 있다. 옛 장르와 새
로운 장르(필름, 노래, 비디오 게임, 비디오 설치미술, 모조

시체의 섬세한 구조)를 아이러니한 결합으로 만든 양방향 비
디오 설치작업이다. 두 작가는 식탁에서 만나고 단지 스크린에
는 영상으로 나타난 손이 등장하여 음식에 뺨고, 찌르고, 움직
이며- 의문의 이야기를 밝혀내며 재치있는 이야기를 한다. 관
람자/손님은 '계급'과 '성별' '메뉴'에서 출연자를 선택한다.
'소화불량'에서는 선택을 둘러싼 양방향의 기술, 정치, 그리고
계급의 운명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기 위하여 "선택"의 기술을
사용한다.⁵³⁾ (사진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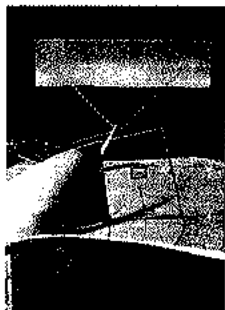
"아이디어로서의 미술을 추구하는 위상은 손
으로 제작된 대상으로서의 작품이나 미적 가치를 부정한다. 또
한 그의 선택이 심리적 미적 충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위상은 또한 그의 작업이 논리적 사고에 의해 전개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술작품은 개인적 체험이나 기호에 관
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속에 존재하는 약속으로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미술의 기능은 바로 이 경직된 사고체계를 개
선하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⁵⁴⁾

건축에서의 퍼포먼스는 누가 무엇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인가? 퍼포먼스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다면 대
표적 사례 '벌어지는 방'은 이에 어긋난다. 주거기능이므로 퍼
포먼스도 주택안에서 벌어지고 가끔씩 전시를 해야 한다. 공개
된 장소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만드는 건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는 문화지체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남녀동등의 문제, 여권확장
주의 등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이고 건축에서는
얼마큼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딜러와 스코피디오가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기도 하다. 건축의 퍼포먼스 기능
은 바로 현실로서의 건축에서 경직된 사고체계를 개선하고 새
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딜러와 스코피
디오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며 그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들어맞
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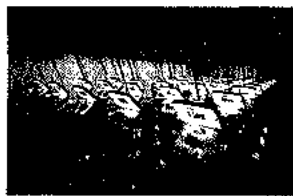
52) The Automarionette.

53) Diller+Scofidio, "Indigestion(소화불량)" <http://www.ace.co.uk/seriousgames/>
<http://www.ace.co.uk/seriousgames/diller.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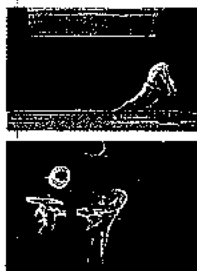
54) 마순자, 『개념미술에서의 'idea'에 의의』, 308쪽, 정변환 외 지음, 『현대미술의 통행』,
(서울:미진사, 1989), 295-3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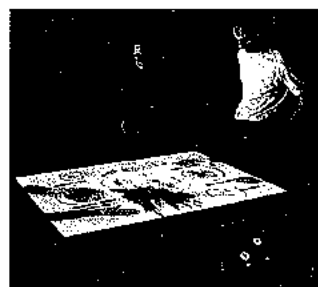
〈사진36〉 딜러 보이는 바다와
모니터가 있는 모형 사진
출처: 공간 1995년 9월호



〈사진37〉 관광: 여행 기법의 연구
출처: 공간 1995년 9월호



〈사진38〉 무용: 움직이는
목표와 의상. 출처: http://www.arkham.be/Charleroi_Dances/moving_f.html



〈사진39〉 '소화불량' 설치 작품과 딜러와
스코피디오. 출처: <http://www.ace.co.uk/seriousgames/diller2.htm>

협회소식 / 103

건축계소식 / 106

현상설계경기 / 110

계획작품 / 117

해외잡지동향 / 120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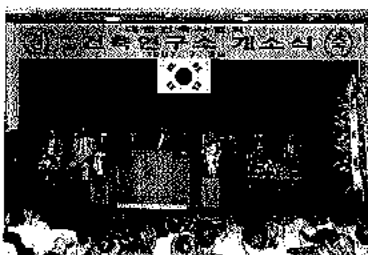
신입회원 / 128

게시판 /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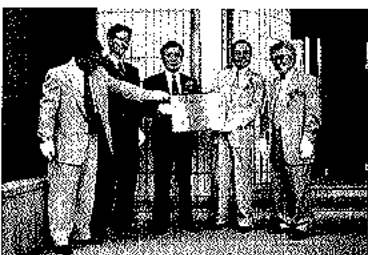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연구소」 개소

국내 최초로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연구활동 벌여



개소식 광경



현판식 광경

우리협회 부설 건축연구소가 마침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협회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김영수 회장과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 황용주 한국도시문화연구원장 등 건축계인사와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연구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공식 출범된 건축연구소는 초대 연구소장에 김우성(아키텐폴랜드종합건축 대표)회원을 선임하고 공학석·박사 출신의 5명의 연구원과 법제연구실·건축연구실·정보자료실 등 분야별 연구조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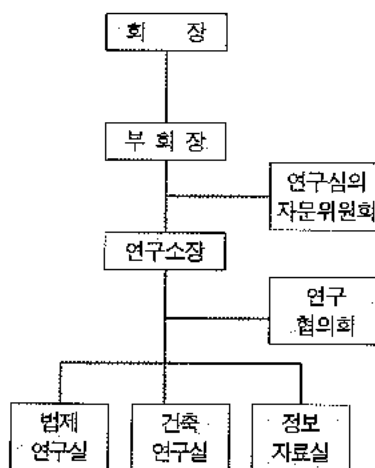
갖추고 있다.

시장개방 등 건축계 주변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됨에따라 건축설계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를 보다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할 전문건축연구기관의 출현을 기대해 왔던 건축계와 협회로서는 이번 건축연구소의 탄생으로 21세기 한국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연구활동의 새로운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

많은 건축인들의 기대와 열망속에 첫발을 내딛은 건축연구소는 앞으로 설계·감리, 건축사업부,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활용할 각종 건축정책과 건축시장 개방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와 건축정보의 체계화 및 종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회는 이번 건축연구소 개소를 출발점으로 해 오는 2000년 초반까지 「건축정보센터」구축과 「연수 및 교육기관」설립 등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모든 건축인들과 국민을 위한 「종합건축서비스」시스템을 갖춘 대형 연구원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연구소 조직



이사회 개최

98년도 예산편성위원회 임원 선임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7월 29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1회

〈부의사항〉

- 제1회의안 : 98년도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선임 승인의 건
- 98년도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장에 김무연 부회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1인)과 선임직 위원 (2인)은 위원장에게 선임을 위임
- 제2회의안 : 97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용 컴퓨터 등 기기구입 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항목금액 조정 : 96,695,000원)
- 제3회의안 : 입회비관리회계 임의적립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차입금액 : 378,400,000원)
- 제4회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협회회관 1층 세미나실 임대사용료 정산환불금 : 11,088,000원)

- 제5회의안 : 건축연구소 연구원 임용 승인의 건
- 건축연구소장 임용 건도 포함하여 상정키로 하되, 초대건축연구소장에는 김우성 건축위원장을 추대키로 하며 연구원 임용은 원안대로(연구원 1인 : 신재훈) 승인함. 단, 향후 연구원 채용시 임원면접 등의 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키로 함)
- 제6회의안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직원 정원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총 6명 : 1급을 1명, 3~6급 각 1명, 6급갑 2명)
- 제7회의안 : 사회사업비 지원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금남성신부전증으로 입원중인 본협회 채영학기사 수술지원금 10,000,000원 지원)

제9회 아카시아토론회

참관단 모집

아카시아 행사참가 및 일본내 주요도시 건축시찰

우리 협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 EAST21호텔에서 열리는 제9회 아카시아 토론회의 참관단을 모집 중에 있다.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는 격년마다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국 간 건축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기여해 왔는데 특히 '아시아건축의 미래'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창립10주년을 맞는 JIA(신일본건축가협회) 창립기념 행사와 맞물려 건축기행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들이 함께 열려 국내 참관단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15개 회원국과 세계 각국의 유명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참관기행에는 아카시아 본행사외에도 교토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도시의 유명건축물 견학 프

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신청기간은 8월 14일 까지로 참가비는 건축사 회원일 경우 1백3십6만4천원이며 배우자 동반시 1백2십5만1천5백원을 추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협회 기획실에서 배부하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시밀리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 (전화 : 581-5711~4)

부산건축사회,

97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선거직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임시총회 광경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충명)는 지난 7월 4일 12시 30분부터 롯데호텔 3층 회의실에서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제적회원 634명중 397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1회의안인 선거직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데 이어 제2회의안으로 간사1인에 대한 사퇴서를 수리하였다. 한편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회원들은 건설업체의 설계검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의 각 의안별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회의안 : 선거직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회의안 : 간사 사퇴 수리의 건
- 사퇴서를 수리키로 결의
- 제3회의안 : 임원보선의 건

- 간사 1인에 대한 보선을 회장에게 위임
키로 결의
(처리결과 : 강신철 회원을 간사로 선임)

부산 시민건축대학 수료식

제3기 수강생 103명에 수료증 수여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충명)는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부산건축사회관 12층 대강에서 제3기 시민건축대학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3기 수강생을 비롯해 내빈과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강생증 개근자 37명에게 상장이 수여됐으며 강좌를 이수한 전체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이 주어졌다.

경남건축사회, 97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울산광역시건축사회 분리,
추경예산 승인



임시총회장경

경남건축사회(회장 허필도)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창원시 인터네셔널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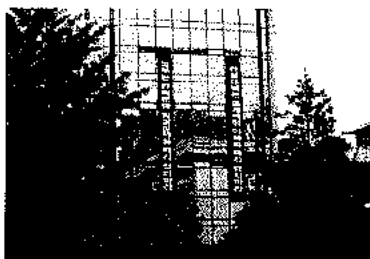
재적회원 419명중 201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광역시 승격에 따라

울산광역시건축사회를 8월 1일자로 분리시키기로 결의하는 등 상정 의안 모두를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된 각 호의안별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분리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 경남건축사회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 임원개선의 건
- 감사 1인 : 윤승록 감사의 후임으로 백웅길 회원 선출

충북건축사회, 현 '새한빌딩' 협회회관으로 활용

경매처분된 새한건설빌딩 경락받아
새회관으로 활용



현재 충북건축사회가 입주해 있는 새한빌딩 전경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가 부도로 경매처분됐던 청주시 상당구 새한건설빌딩을 11억여원에 경락받아 앞으로 협회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북건축사신용협동조합과 함께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던 충북건축사회는 지난 1일에 열린 1차경매에 단독 응찰해 감가가 11억7천4백10만원보다 1만원을 더 써내 최종 낙찰받았다. 이에따라 충북건축사회협회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천4백23평 규모의 새한빌딩에 청주감리건축사사무소까지 입주시켜 자체 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총 4,597명 응시원서 접수

작년보다 1천2백여명 늘어

지난 7월 12일 마감한 97년도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4,597명(특별전형 8명 포함)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6년도 응시원서 접수인원 3,344명보다 1천2백여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올해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7일 치뤄지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8월 28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해외통신원제 운영

해외 건축정보 수집 및 교류확대
기반 구축 위해

협회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건축시장개방에 적극 대비, 신속한 해외건축관련 정보의 수집과 해외교류 확대기반 구축을 위해 미국 등 해외 각국에 해외통신원제도를 운용기로 했다. 협회는 이를위해 지난 6월 미주지역과 아시아,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 총17명의 응시자 가운데 우선 일본·미국·프랑스 등 3개국에 황한주(LA한미건축사회 부회장 / AIA회원 / 건축사)씨 등 3명의 해외통신원을 선발했다. 이들 해외통신원들은 앞으로 해외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를 비롯, 세미나 등 각종 행사정보와 기타 건축관련 자료 수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2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작품공모

도내 우수건축물 발굴 · 시상

경기도가 도내의 우수 건축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지역건축문화의 창달을 도모코자 제정한 「제2회 경기도 건축문화상」의 작품공모 요강이 발표되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가협회 경기지회가 공동주관하는 이 행사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사용승인된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한 사용승인건축물부문과 건축전공 학생 및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보 대상의 계획작품부문 등 두 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사용승인건축물부문(주거 및 비주거작품)의 응모자는 작품설명서와 기본도면, 간이소개서 등이 첨부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작품은 작품설명서와 함께 패널 및 모형 각 1점씩을 제출하면 된다. 사용승인건축물의 부문별(주거부문 및 비주거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와 상금(설계자), 기념품판(건축주)이 주어지며 계획작품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이 수여된다.

발표된 응모요강의 주요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응모방법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1차접수 : 작품설명서와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가 첨부된 B4규격의 사진첩(8"×10"사진 10매 이내와 기본도면 수록) 2부 제출

- 2차접수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패널 제출

• 계획작품부문

- 패널(가로60cm×세로90cm) 1매 및 모형(가로100cm×세로100cm) 1점 제출
- 작품설명서 1부 첨부

2. 작품접수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1차 사진첩 접수 : '97. 9. 1 ~ 9. 6
- 1차 사진첩 심사후 2차심사대상에 선정된 작품에 한해 차후 별도 패널제출 통보

- 접수처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6-01 / 대한건축가협회 경기도건축사회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접수일 : '97. 10. 1 ~ 10. 2(09:00 ~ 18:00)

-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3-12 /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3. 발표 및 시상

- 수상작발표 및 시상 : '97. 10. 20
- 수상작전시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등 5개지역 순회전시(예정)

- 4. 문의 : 경기도청 주택과 (0331-249-4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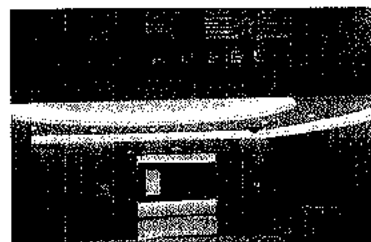
대한건축가협회 경기도건축사회(전화 0331-47-6129~31)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0331-32-363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개관

토지이용의 역사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한눈에

토지 관련자료를 모아 한곳에 전시한 「토지박물관」이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공사 1층에 문을 열었다. 토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토지의 역사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관한 이 박물관은 「토지의 역사」, 「토지의 개발」, 「미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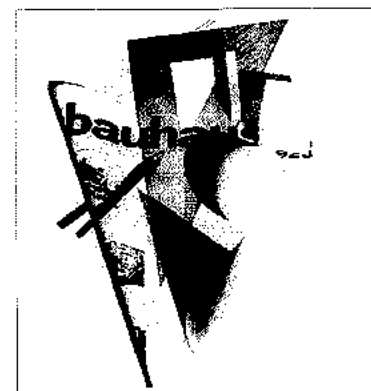
토지박물관

토지」 등 모두 3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특히 「토지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토지이용의 역사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물과 패널, 다오라마, 모형, 영상 등을 시대별로 구성하였으며, 「미래의 토지」 테마전시에서는 미래의 토지이용 모습을 자연친화적인 도시모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1월 ~2월까지의 오후 4시까지)로 무료관람할 수 있다.

문의 : 한국토지공사 학예원실 (전화 0342-738-8995, 7770~4)

바우하우스 사진전

바우하우스 예술가 41인의 오리지널
사진작품 전시



주한 독일문화원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워커힌 미술관에서 「바우하우스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요제프 알버스, 라즐로 모홀리-나기 등 바우하우스의 예술가

41명의 오리지널 사진작품 124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의 개막행사는 8월 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 주한독일문화원 (전화 02-754-9831, 9833)

안토니 가우디 건축·디자인 특별전

가우디 건축작품 150여점 전시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건축작품 특별 전시회가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상공회의소 2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스페인 정부와 주한 스페인대사관, 가우디 대학원의 협조를 받아 건축 및 조형예술 분야의 국민적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행사로 가우디의 설계도면과 모형, 구조물, 패널 등 총 150여점의 다양한 건축관련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전시기간중에는 비디오 상영과 특별강연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함께 펼쳐지는데 9월 20일에 있을 초청강연에는 가우디 대학원장이 '인간과 환경 그리고 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관심이 모아진다. 안토니 가우디 특별전은 지금까지 전세계 20개국 92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돼 왔다.



안토니 가우디작 구엘공원의 벤치

「'97 건축가 미술전」 10월에 열려

현재 작품 접수중, 전시작품 판매 수익금으로 「학생 작품전」 계획

건축가 미술 동우회(이하 '건미회' / 회장 한창진)가 여섯 번째 작품전을 갖는다. 오는 10월 10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서울 대치동 Plus갤러리에서 열리는 올해 전시회는 건미회 회원뿐만이 아닌 비회원 건축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건미회측은 금년부터 전시작품의 판매 수익금으로 「전국대학 건축과 학생 회화전(또는 드로잉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화를 비롯해 조각,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관련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출품희망자는 도록제작용 작품 슬라이드 사진 1매와 작가프로필 소개용 사진 및 약력 등을 오는 9월 10일까지 우선 제출해야 한다. 기타 주요 출품규정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시작품 : 회화(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판화, 사진
- 작품매수 : 1인 3점 이내 (규격은 자유)
- 자료제출(도록제작용) : 작품 슬라이드 1매, 작가의 약력 및 사진
- 자료제출시한 : '97. 9. 10
- 자료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7-38 (주)한라종합건축사무소 (전화 02-543-9708)
- 작품출품시한 : '97. 10. 10 점오
- 출품료 : 1인당 15만원
- 문의 : 건미회 회장 한창진 (한정건축 / 02-562-4414), 총무 강성익(한라종합건축 / 02-543-9708)

제5차 한옥특별강좌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와 해라시아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제5차 한옥특별강좌가 '한국의 궁실 건축'이라는 주제로 충북 진천군 보탑사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신영훈·조정현·김대벽씨와 해라시아연구소 연구원인 김영일·황의수씨 등이 강사로 참가한다.

이 강좌는 선착순 6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학생 10만원, 일반 12만원이다.

(문의 : 02-736-3814)

서울건축학교

97년도 1학기 학사일정 발표

오는 9월 12일 개교

SA(서울건축학교)의 97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과 행사일정이 발표되었다. 7~8월중 신입생을 모집해 오는 9월 12일에 개교하는 서울건축학교의 1학기 과정은 9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짜여져 있다.

서울건축학교는 또한 1학기과정동안 금요정기강좌를 비롯해 건축기행과 SA전시회 등 다양한 건축관련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된 주요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문의 : 02-529-3044)

■주요 학사일정

- 7월 7일~8월 30일 : 원서교부/교부장소 - 원서동 공간사
- 8월 28일(목)~30(토) : 원서점수
- 9월 2일(화) :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개별통지

- 9월 3일(수)~5일(금) : 연접
- 9월 8일(월) : 최종 합격자 발표/서울 건축학교에 게시
- 9월 9일(화)~10(수) : 등록
- 9월 11일(목)~12(금)
: 입학 오리엔테이션, 설계스튜디오 설립
- 9월 12일(금) : 개교 행사
- 9월 18일(목)~11월 22일(토)
: 1학기 과정
- 11월 17일(월)~11월 22일(토)
: 학기말 전시회

■ 설계스튜디오별 주제

- 스튜디오 1 - Writing in Architecture/Architecture in Writing
- 스튜디오 2 - Numathics in Single-Surface
- 스튜디오 3 - 동굴과 Villa Hadrianus

건축신간 안내

건축가 원대연의 여행 넘어서기/
건축되는 도시, 도시같은 건축/
더글라스 전나무 자료집

◇ 찾아보며 생각하며 「건축가 원대연의 여행 넘어서기」 시리즈

건축가로 또 <월간 플러스>의 발행인으로 활동해온 원대연씨가 그동안 플러스誌를 통해 발표해온 자신의 글과 사진들을 새롭게 구성해 책으로 발간했다. 여행서 형식으로 발간된 이 책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여행서들이 글에만 치중해 시각적인 정보가 미흡했던데 비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내용의 사진들을 담고있던 목자로 하여금 현실감을 더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특히 1권에 소개된 강원도 현리 소나무에 대한 열려나, 2권에서의 이탈리아 남부 산동네에서 엿보이는 삶의 지혜, 그리고 3권에서 삶과 죽음을 건축물로 실현시킨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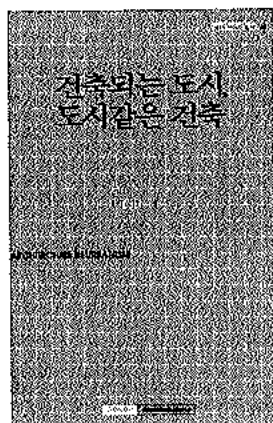
터에 대한 감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도 삶의 연륜과 주변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다가설 수 없는, 여행을 넘어선 기록들이 책장마다 스며있다. 또한 제목이 말하고 있듯,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찾아나선 삶의 이야기와 이러한 국내외의 명소에서 우리 것, 내 것 만들기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저자의 정서가 전면에 담겨있다.

원대연 / 풀러스문화사(02-563-4322) 펴냄 / 전면 올컬러 반양장판/ 1,2권-1만 8천원, 3권-2만4천원



◇ 건축되는 도시, 도시같은 건축

이 책은 과거 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한국현대건축의 중심부에서 한평생 건축가의 길을 걸어온 윤승중(원도시건축 대표)씨가 「건축인생 뽐뿌의 때」에 정리하는 건축산문집이다.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법원청사, 한일은행 본점, 조선일보 평촌사옥 등의 작품으로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해온 저자는 이책에서 건축가로서의 건축혜안과 통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깊은 사색의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이책의 한 절 한 절마다에는 우리 현대건축의 단면을 리뷰하는 시대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이 한 권의 에



세이집으로 이 땅의 현대건축사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해 주고 있다.

윤승중 / 간향미디어 펴냄(02-637-3890) / 신국판 / 365쪽 / 9천원

◇ 더글라스 전나무 자료집(Douglas-Fir Species Book)

미국 서부지역 목재협회(Western Wood Products Association)가 발간한 이 자료집은 수종에 따른 목재의 독특한 특성 이해와 이에따른 적절한 목재의 선택 및 폭넓은 이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외양상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도와 치수상의 안전 및 정확성,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더글라스 전나무는 미국 서부지역 침엽수 중 최대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다. 이 자료집은 서부산 목재 생산지의 풍토적 특색, 수종 그룹에 대한 상세한 설명, 더글라스 전나무의 분포지역, 성장 특성 및 생산현황, 특성 및 적합한 용도, 등급결정과 용도별 다양한 응용 가능성 및 그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더글라스 전나무 수종으로 만들어진 최신 미국 목조주택의 사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목구조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책은 한국내 WWPA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02-722-3685)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설계·시공분야의 세계적 소프트웨어展 - A/E/C System '97 성료

건축자재 및 A/E/C 분야 각종 소프트웨어 전시·시연

지난 6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는 CAD/CAM/CAE분야의 세계적인 전시행사인 A/E/C System '97이 개최되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세계각국의 CAD관련업체가 참가, 건축자재를 비롯해 A/E/C(Architecture/Engineering/Construction)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와 신기술들을 선보여 전시장을 찾은 각국의 건축·건설관계자와 일반참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인터넷 Web과 연계해 각종 설계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한 여러 CAD제품군들이 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들 CAD제품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도면을 그리던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는 관련분야인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시설물관리(FM), 기술관련문서관리(TDM)기능 등을 종합한 통합문서관리시스템화 단계에까지 이르러 세계각국의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들은 앞다투어 세계 공통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번 전시회를 참관하고 돌아온 서울대 건축공학과 고일두 교수가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이번 행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EC Systems '97의 주요 내용)

● Web을 중심으로 한 설계정보 교환

- Internet을 통하여 설계·시공 과정의 정보를 교환한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현장에서 웹을 통해 본사의 홈페이지에 연결한 후 본사 서버상의 도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설계도면을 찾고 그 설계도면에 수정할 사항을 표시하면 그 정보가 본사의 설계담당자에게 전달되고 담당자는 즉시 그 정보를 메일형태로 전달받게 된다. 담당자가 설계내용을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 또한 현장의 관련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제품 예 : Bentley사의 Model Sever Publisher)

-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관련 정보를 Web상의 정보에 연계시킨다. 예를 들면 설계도면 속의 외벽마감재를 표시할 때 설

계자가 알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요소만을 문자형태로 기입하던 방법을 바꾸어서, 마감재의 그래픽 요소에 그 마감재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Web Site(예 : 제조자나 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연결해 두면, 설계도면을 읽는 사람이 그 자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그 자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그 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Web Site에 연결되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이전에는 관련 정보를 문자로만 기입해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부정확해지고 기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Web과 연계된 자료 표시방법은 가격과 같이 항상 변하는 자료를 가장 최신의 것으로 제공해주며,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의 자세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제품 예 : Autodesk사의 AutoCAD R14)

- 웹을 통한 정보 서비스

1. Master Systems : Master Format에 의한 자재 분류 자료 서비스
2. AIA Onlin : AIA member에 대한 정보 서비스
3. PMI 회원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정보 서비스

● 선택 폭이 넓어진 CAD 엔진

국내의 경우 AutoCAD를 중심으로 AEC 분야 CAD제품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예: Intergraph 제품군, Microstation, ArchiCAD) 것부터 최근에 개발 공급되기 시작한 (예: FelixCAD, ALLPLAN-FT, Corel-CAD, MicroGDS, 등) 다양한 CAD가 공급되고 있다.

- FelixCAD는 AutoCAD와 가장 닮은 CAD 엔진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보급 확대가 예상된다.

- CorelCAD는 기능이 기존 제품의 80~90%에 달하면서도 가격이 300\$ 이내인 저가의 보급형 CAD이다. 벌써 AEC 분야의 3rd Party 응용이 나와 있다. 뛰어난 가격대 성능비로 앞으로 국내에 보급확대가 예상된다.

- MicroGDS는 영국에서 개발된 건축 분야의 오래된 응용으로 최근 개발권이 일본

(NextWave Technologies)으로 넘어 갔으나 WinNT판으로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

- Reflex는 이전의 Sonata를 최근 발전시킨 것으로 진취적인 개발 방향을 갖고 있으나 고급의 Platform을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다.

- ALLPLAN은 독일 Nemet-scheck사의 제품으로 Unix에서 사용하던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는 건축전용 제품이다. 최근에 WinNT/95판 ALLPLAN-FT로 영어권에 진출했다. 이것은 Object개념을 도입한 건축분야의 첨단 제품이다.

- ARCH14는 ALLPLAN의 기능을 AutoCAD R14에 탑재한 것으로 ALLPLAN의 고급 기능과 AutoCAD의 범용성이 결합된 제품이다.

- ArcCAD/ARCINFO는 ESRI사 제품으로 GIS/FM 분야의 뛰어난 제품이다.

- ARCHIBUS/FM도 FM분야의 뛰어난 성능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 IFC(Industry Foundation Class)

- AEC분야의 새로운 응용을 위한 Object Class로서 각 프로세스간(예 : 설계/시공/관리)이나 동일 시점에 동시 작업 중인 협업 분야 간의 정보교환을 그래픽 자료 뿐만 아니라 속성등 관련자료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모순이 없도록 유지/교환하기 위한 기술이다.

- IAI(Industry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단체에서 최근에 IFC 관련 기술을 실용단계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시제품을 내어 회원사에 보급 중이다.

- AutoDESK, Bentley, Nemet-schek사는 각자의 제품인 AutoCAD, Microstation, ALLPLAN에 IFC시제품을 실어서 제품간의 자료 교환을 시범해 보였다.

- AEC 전시회에서 방문한 주요 CAD사와의 IFC에 관한 대화에서도 다음 2가지 경우의 답이 있다.

1. 지금 IAI에 적극 참여 중이며 곧 제품이 나온다.

2. 만들어진 IFC 표준이 발표되는 대로 수용할 자제가 준비되어 있다.

- 최근 한국에서도 IAI Korean Chapter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원주시청사

대구동구체육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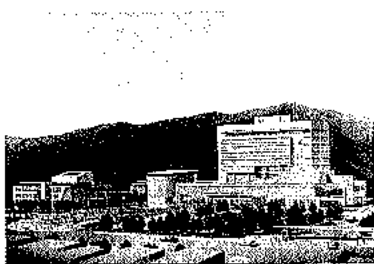
화성군청사 및 의회동

원주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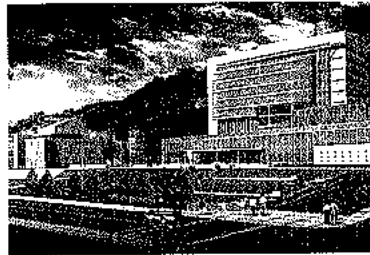
Wonju City Hall

원주시는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원주시민의 높은 기상과 기재를 펼 수 있는 시청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경기를 실시했다. 총 16개 작품이 제출된 가운데 박항섭+(주)한터·인(유철정)안을 당선작으로, POS-A.C(심인보)안을 우수작으로, 담건축(맹준호)+아성건축(이재춘)안과 진양건축(양해준)안을 가작으로 선정, 지난 7월 4일 발표했다. 심사에는 교수 7명, 연구원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이 참여했다.

▶ 당선작 / 박항섭+(주)한터·인(유철정)



조감도



투시도1



투시도2

대지위치	원주시 단계동 산36-3, 무실동 산39, 산50번지 일원
대지면적	60,000㎡(18,150평)
건축면적	7,843.37㎡(2,372.62평)
연면적	31,427.03㎡(9,506.68평)
건폐율	13.07%
용적률	41.35%
규모	본관동 : 지하1층, 지상10층, 의회동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 마감	외장석붙임, 24mm 컬러복층유리
주차시설	지상-511대, 지하-90대 (계 601대)

비록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할지라도 이것은 예술의 규율을 거역해서 형성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성에 거역해서도 아니된다. 과거의 선조들이 여러 다양한 것들을 산출했지만 그들은 예술이 가진 보편적이며 필요한 규율을 어긴 적은 결코 없었다.

- Palladio

주변도시와 자연 환경과 서로 조화되면서 건축의 상징성을 나타냈다. 즉 주변과의 조화, 자연 속의 대비와 조화를 건축적 테마로 삼았으며 자연 속에 빛나는 수정체로의 역할을 생각하였다.

또한 공공시설이 갖기 쉬운 경직성 및 위압적 성향의 탈피와 공공시설로서 온유하며 현대적 세련미를 향상화시켰다.

이 대지는 봉화산을 배경으로 멀리서 치

악산과 원주시의 전경이 조망되는 대지이다. 대지의 전면 부분은 도시민에게 제공되는 옥외문화공간이며 도시의 물리적 상황을 완충시켜 주는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투명한 유리벽은 개방된 시민홀과 다양한 민의의 반영, 투명한 시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내부와 외부의 유기적 흐름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면의 시민 문화 공간과 투명한 유리벽의 시민홀 후면의 봉화산의 자연은 일체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지를 가르는 대각선의 유리벽은 대지안의 어느 곳에 있든지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여 주며,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제공하여 주기도 한다.

의회동은 도시의 상황에 순응하여 종국에 가서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여 새로운 민의를 나타내는 것을 건축적으로 표현하였고 이것은 의회동 저층부의 다양한 창의 형상과 로비 공간의 다양함, 그리고 대회의실의 새로운 형태의 축에서 나타난다.

시청사는 대각선의 유리벽을 지나 시민홀과 민원동, 회의동, 사무동으로 크게 대별되며 도시의 미래축을 예지하는 시청사의 주축은 도시 및 지역축과 일치시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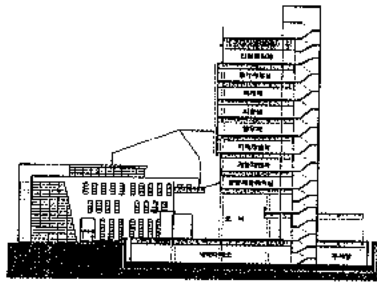
그리고 대지에서 북동측에 위치한 치악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시청사의 주된 메스에 새로운 축을 형성하여 건축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시청사의 3층부분은 옥상정원과 휴게공간 및 식당공간으로 쾌적하고 조망 좋은 공간을 부여하는 직원의 창조적 사고와 휴게를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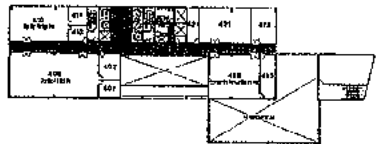
원주의 역사성과 흔적을 건축물 부분 부분에 접목시키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형태를 나타내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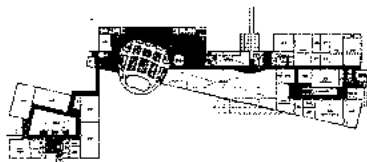
배치도



중단면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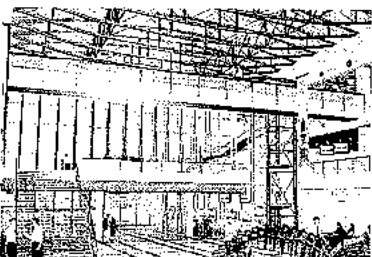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POS-A.C(심인보)



조감도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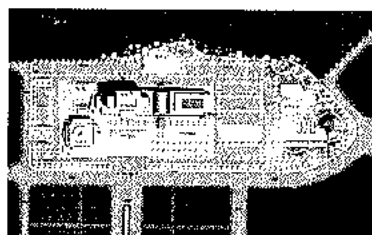
대지면적 60,000㎡
 건축면적 5,937㎡
 연 면 적 31,356㎡
 건 폐 율 9.98%(법정 60%)
 용 적 륜 38.43%(법정 40%)
 건축구조 지상 :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
 조(Core)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9층+기계층
 외장재료 저층부 THK24 화강석 패널
 THK24 투명복층유리
 THK24 반시복층유리
 (일부)
 고층부 THK24 투명복층유리
 THK50 알미늄복합패널(일부)
 주차대수 615대/자주식
 지상516대, 지하99대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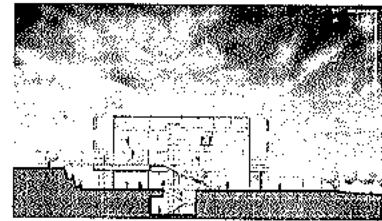
- 대지 및 주변가로 형상의 특성에 따라 주요배치는 횡적축성을 가지며, 청사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상호관통하며 증축으로 연계한다.
- 조건에서 주어진 대지의 종적구배(±10m, 7%)를 최대한 적응계획하여 원주시의 점진적 발전을 의미하는 축으로 개념접근한다.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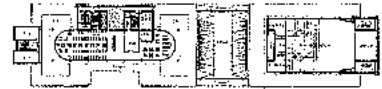
- 저층부(B1-3F)
행정부분과 민원부분을 담당하는 2개의 큰 진입홀은 각각의 Dual Access를 매개하며, 특히 민원부분홀의 아트 리움기능은 커뮤니티시설로서 원주시청의 표상이 되도록 한다.
- 고층부(4F-9F)
행정업무의 수행공간으로 쾌적환경을 우선하며, 전면으로의 시가지조망, 후면으로 봉래산조망이 되도록 Core계획을 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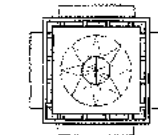
단면도



시청사 4층 평면도



시청사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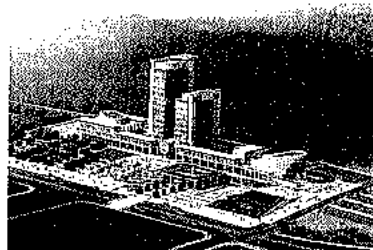


의회동 4층 평면도



의회동 1층 평면도

▶ 가작 / 담건축(맹준호)+아성건축(이재춘)



조감도1



조감도2

대지면적	60,000㎡
건축면적	8,083.52㎡
연 면 적	31,491.29㎡
건 폐 율	13.47%
용 적 륜	40.00%
조경면적	1,003,800㎡ 이상(법정 15%)
건축구조	라멘조+철골조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15층
외장재료	화강석+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지상530대, 지하74대

배치계획

- 건물배치

- 축의 설정에 의한 배치 : 대지축, 방위축, 도시의 맥락축에 의한 건물 배치, 진입축에 의한 Open Space 배치 → 적극적, 개방적 민원실
- 기능별 배치 : 민원동 : 전면도로에 근접 배치 → 적극적, 개방적 민원실, 행정동 : 후면 배치 → 안정적 효율적 업무 환경, 의회, 부속동 : 독립적이며 균형적인 배치 → 정적, 동적인 공간 분할 배치

- 광장

- 전면 광장 : 외전행사 및 대규모 집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주입축 선상에 배치
- 시민의 숲 : 의회부분의 정적인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조성
- 야외공연장 : 대회의실(부속동)과 연계되어 시민의 이용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문화 생활의 장을 제공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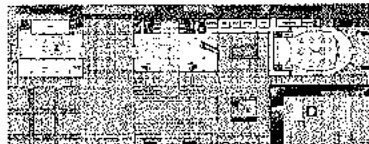
- 1층 의회장을 통한 공간의 유기적 연결
- 저층부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모듈 채택 (8m×8m)
- 고층부의 우주공간 확보를 위한 평면계획, 모듈 조정 (8m×15.4m)
- 중점 및 선권을 통한 지하층의 자연채광 및 자연 환기로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업무 공간 조성
- 유관부서의 인접 배치 및 층별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편심 코아계획으로 공동면적을 최소화하고 업무공간을 남,동쪽으로 계획
- 코아 위치를 서북쪽에 설치하여 남동쪽의 업무시설에 채광이 유리하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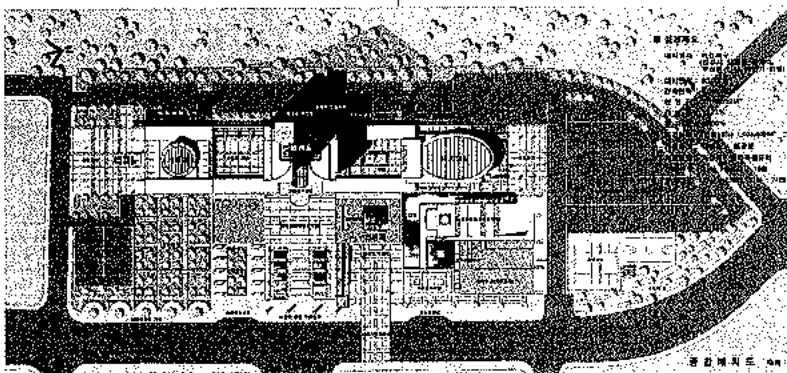
6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대구동구체육문화회관

Dong-gu Sports Center,
Taegu-s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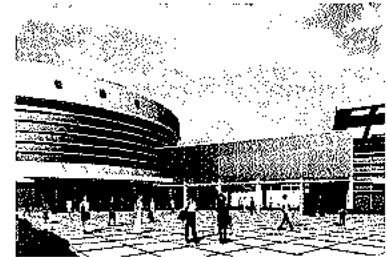
대구 동구청은 체육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해 지난 7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에는 총 14개 작품이 참여 당선작에 SAS(심우근)+우신건축(정연주)안, 우수작에 보정건축(남효황)안, 가작에 그룹원(김홍근)안과 토담건축(이창환)안 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정덕(고려대), 김광현(서울대), 이원호(광운대), 최무혁(경북대), 장석하(경일대), 최영화(대구대), 구의원, 공무원.

▶ 당선작 / SAS(심우근)+우신건축 (정연주)



조감도



부분 투시도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1084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5,458㎡(7,701평)
연 면 적	10,410.79㎡(3,149.25)
건축면적	3,948.25㎡(1,194.34)
건 폐 율	15.51%
용 적 륜	21.62%

건축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최고높이 24m
 외장재료 외벽 THK3 알루미늄 패널, 사
 압, 화강석
 창호 THK24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상우, 복상우, 이원준, 강상
 룡, 임재천, 현상운, 김명현,
 조영신, 김태산

계획의 배경

- 지자체 실시 후 날로 발전하는 경제적 성장에 비해 떨어지는 문화 및 체육활동의 질적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청에서 금호강에 인접한 동촌유원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및 체육·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로서 구성적 역할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대지가 동촌 유원지내에 북·서측에 12m도로를 접하며 남측으로 최대 18m의 고저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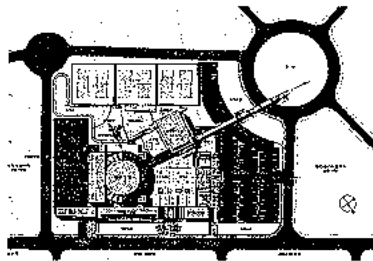
기본배치

- 문화 체육시설의 복합적인 수용을 위해 합리적인 Zoning을 통한 기능 수용
- 남북방향의 대지의 고저차에 의한 배치 및 지형 훼손의 최소화로 경제적 시공성
- 기능별 시설의 분리배치로 위계적인 공간 구성
- 시설이용의 시간대별, 기능별 이용에 따른 동선분리 및 차량동선의 분리배치
- 다양한 Open Space의 배치로 개방감 확보 및 여러 형태의 공간체형
- 주변 환경에 의한 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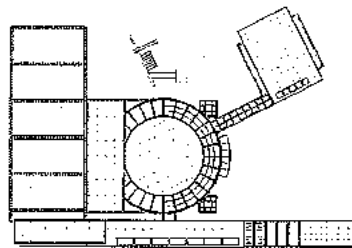
평면계획

- Mass의 기능별 분리배치로 원활한 동선처리
- 내부기능에 부합되는 외부공간배치로 인한 연계성 확보
- 동선의 단순화와 체계화로 관리의 편리성 도모
- 서로 관련된 시설의 수평적·수직적인 동선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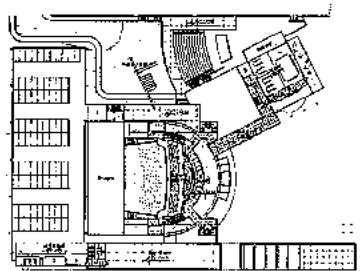
- 실의 용도변경에 따른 가변성 확보
- 적극적인 자연채광 확보를 위한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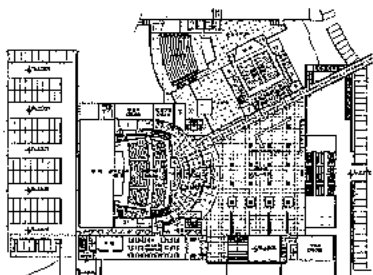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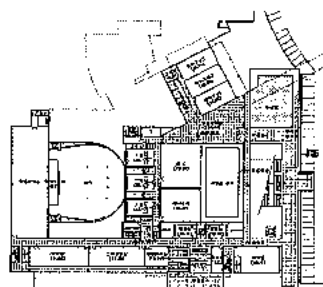
지상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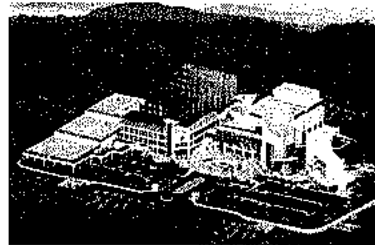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우수작 / 보정건축(남효황)



조감도

대지면적 25,458㎡(7,701평)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유원지 지역)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도면표기상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4,106.26㎡(1,242.26평)
 연 면 적 10,343.81㎡(3,129평)
 건 폐 율 16.13%
 용 적 륜 29.60%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리멘구조 및 일부 철골조
 외장 마감 외벽-화강석 버너구이 창-18mm 파스텔 복층유리

배치계획

- 수공간으로부터의 개방성에 의한 진입부의 형성으로 건물축을 형성
- 경사지대지의 자연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에 부응하는 배치(각층의 1층 개념 도입)
- 외부공간의 상승감과 지형을 이용한 저층부의 자연적 조화
-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완전분리
- 옥외휴게공간, 후정을 이용한 사용자의 친목을 적극적 수용
- 경제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의 데크화 시도
- 자연스러운 보행공간의 연결로 인한 이용자의 원활한 보행 및 산책로 설정
- 부출입구는 필로티를 이용, 주 진입개념의 도입으로 전면광장으로의 자연스러운 동선유도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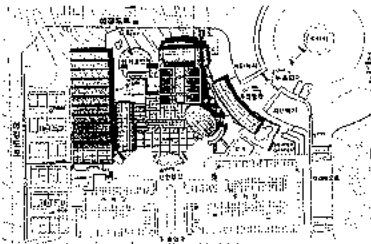
- 기본계획
 - 기능별 공간 분리와 연계
 - 중점부분의 도입에 의한 극적공간 연출(자연채광도입)
 - 지형을 이용한 경제적인 층별 구획(동

적, 정적 공간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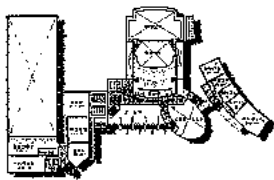
- 옥상공간의 적극적 활용
- 자연 자세와 조화되는 평면의 형태추구(안정감, 친근감 강조)

- 모듈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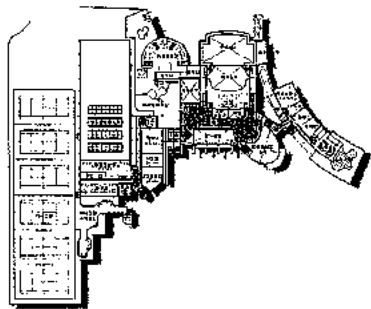
- 전체 모듈(1.5m×1.5m)을 기준으로 각 기능별 적용
- 경제성과 에너지 절약효과 유도(자연채광)
- 안정적인 구조와 기능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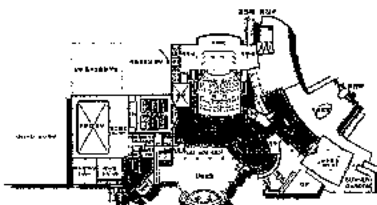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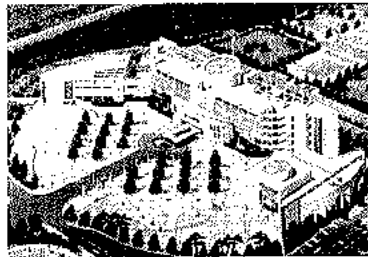
화성군청사 및 의회동

Hwasung Count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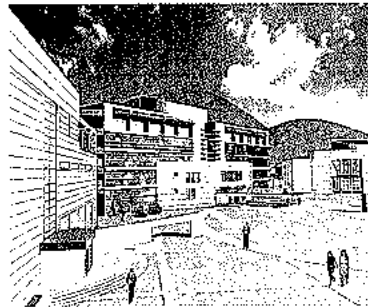
화성군은 청사를 이전 신축할에 따라 현대 감각의 미래 지향적인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설계경기를 해 총 11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진우건축(김동훈, 임채돈)안, 우수작에 홍익건축(권인호)안, 입선작에 기와건축(최상영)안과 동남아태건축(전재우)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박제승(한양대), 안경환(수원대), 이상우(경기대), 이희학(서원전문대), 제해성(아주대), 군의원, 공무원

▶ 당선작 / (주)진우건축(김동훈, 임채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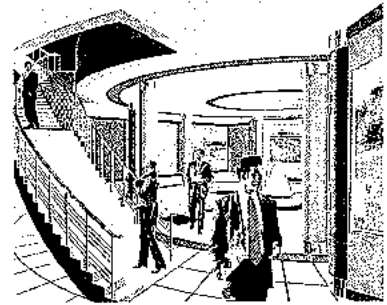


조감도



부분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산131-18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9,852㎡(27,180.23평)
건축면적	6,010.30㎡(1,181.1평)
연면적	20,817.30㎡(6,297.2평)
건폐율	6.70%



의회동중앙홀

용 적 륜	21%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 고	4.2m
주요설비	FCU+AHU
외부마감	벽-화강석버너마감, 컬러록층유리
내부마감	바닥-화강석물갈기, 무석연비닐계타일, 카페트타일
	벽-본타일, 화강석물갈기
	천장-양면흡음텍스
주차대수	576대
조경면적	49,418.60㎡
설계담당	신성철, 김홍안, 민영란, 이태현, 전종성, 김성중, CG : 김정미, 김수연, 정광민, 황일석

배치계획

- 도시축에 의한 배치

- 의회의 독립적 이미지 확보와 민원과 의회의 분리배치
- 효율적인 기능배치로 각 시설별 유기적 연계와 독립성 확보

- 시설별에 의한 배치

- 행정-전면광장을 확보하고 개방감을 살리면서 측면도로에도 접근의 편리성을 도모
- 민원-민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도로(주도로)를 기준으로 한 정면성 강조
- 의회-독립성을 강조
- 중앙광장(진입광장) : 강한 정면성과 시각적인 구성을 필요로 하는 부지내에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중앙광장을 형성하여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다목적 광장과 녹지를 제공하

여 쾌적성을 증대, 민원인의 접근을 유도하며 대규모 집회 기능과 군청의 상징성을 내포한 군민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야외 공연장, 옥외 체육시설 : 각종 야외 문화행사 기능, 인접 풍물광장과 연계로 다양한 행사 가능, 향후, 수평 증축시 주차 및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 가능
- 주차장-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여 전면에 귀빈용 차량진입과 주차장 배치
- 장래 증축을 고려한 배치교육
- 배면부분의 주차시설 및 체육공원시설 부분

평면계획

- 공간별 계획

- 동선흐름을 유도하고 공간의 기능적 분리와 개별성을 부여
- 내부공간 구성 개념
중앙광장 대민홀 행정동 의회동 서비스공간으로 연결되는 연속성(Sequence)
- 지하층-선근가든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
저층부-건물기단부로 접근이 용이한 민원관계시설, 대규모 집회시설, 기능별 홀 및 전시시설 등 지원설치 배치
상당부-민원과 관련이 적은 업무시설을 배치하여 업무의 분리와 효율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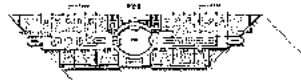
- 기능별 계획

- 선근가든, 내부 Open공간은 지상·지하의 자연채광 및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여 내부공간의 개방성 확보와 다양한 공간연출
- 행정시설-개별의 영역과 상호간에 원활한 업무동선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의회동-본 건물과 분리시켜 고유영역을 확보
- 대회의실-일시에 많은 동선이 집합되는 수평·수직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배치하여 접근의 편리성 추구하고 공간구성의 독립성 확보
- 중앙홀(아트리움)-군청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주민의 수용 및 민원을 포함하는 상징을 의미하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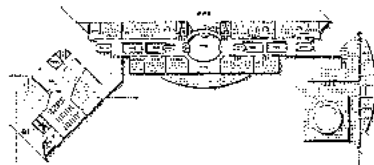
붕의 자연광의 유도는 내부공간의 무한한 깊이 부여

- 코아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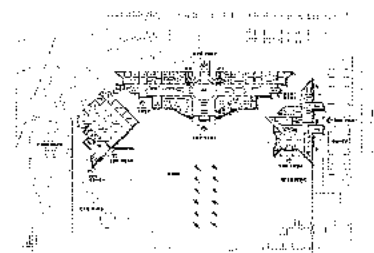
- 코아의 기본형태는 구조나 설비계획상 안정된 효율을 높이는 중심코아와 건물의 가변성을 높이는 분산코아의 복합된 형태
- 집중업무 환경의 효율성을 위해 편의 공간들을 코아와 연계하여 차별화한 편복도와 중복도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적용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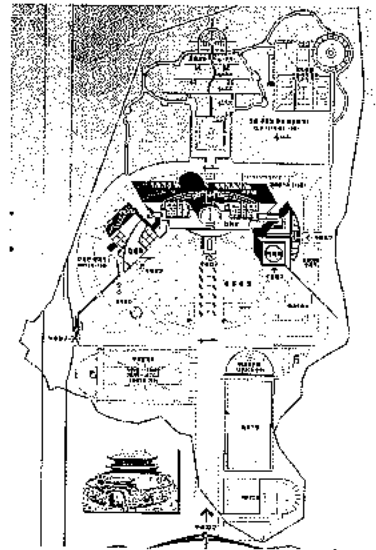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배치도

▶ 우수작 / 홍익건축(권인호)



조감도

대지면적	89,852㎡
건축규모	군청사 18,040.45㎡(강당등 포함) 의회 2,684.89㎡ 합계 20,725.34㎡
층 수	군청사 : 지하1층, 지상5층 의회 : 지하1층, 지상3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건축면적	5,938.89㎡
연 면 적	20,725.35㎡
건 폐 율	6.61%
용 적 륜	19.65%
운동시설	축구장1개, 테니스장2개, 실내 체력단련장1개
편의시설	주차장4개소(관용차-대형 2대, 중형 20대, 소형 850대<지하증축시 950대>, 장애인용-7대)
관리시설	안내소 2개
조경시설 및 녹지	자연녹지 및 인공조경
단지내 도로	주진입도로 30m, 부진입도로

20m, 기타도로 10m

기본방향

- 사무공간으로서의 기능 전환이 가능한 6.0m 모듈에 의한 가변성효율 증대
- 합리적인 모듈을 선택하여 현대식 사무실에서 요구되는 실내 배치계획의 신축성을 원활히 함
- 사무자동화 및 정보통신화에 대비하여 별도의 통신실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전기·통신·사무자동화용 전선을 가구배치 계획에 맞게 바닥에 배선
- 업무 기능에 따라 행정·민원·강당·의회 Zone으로 분리하여 기능 차단 및 연계성 확보

평면계획

- 주민들이 직접참여하여 각종 집회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옥내·외 공간을 화합 강장을 중심으로 군의회, 대집회실, 민원실을 근접배치
- 군의회 독자성과 원활한 의회활동 할 수 있는 성격 부여
- 행정 효율화를 위한 사무공간의 합리적 배치 및 미래지향적 시설설비 기능의 부여
- 사무공간
 - 적절단위 공간 산출에 따른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
 - 기능적이고 쾌적한 공간계획(천정고, 복도폭, 실유효폭)
 - 공간변화에 따른 융통성 부여(파티션)
- 각 사무실을 각각의 고유업무와 연관 업무를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 계획
- 주민들에 개방된 전시홀을 통한 행정동 1층의 개발된 홀로의 연결로 폭 넓은 주민의 참여와 편리한 접근기회 부여
- 기능의 성격에 따른 동별, 층별 분리계획
 - 시민봉사기능 : 민원실, 홍보전시실
 - 행정업무기능 : 일반사무실, 행정자료실, 전산실
 - 집회기능 : 대·중·소 회의실
 - 후생기능 : 식당, 체력단련실, 매점, 휴게소
 - 주차 및 설비기능 : 기계, 전기, 주차
 - 의회기능 : 대회의실, 의원사무실, 의원행정사무실

입면계획

- 군청사동
 - 35m 주진입도로에서의 도로측에 맞추어 정면성을 갖도록 하여 현대적 감각이 화성의 상징적 특성이 조화된 형태 구성
 - 좌우대칭으로 수직과 수평선이 조화된 의장계획으로 시각적 안정감 부여
 - 군을 대표하는 건물로서 군을 상징하는 이미지의 구현으로 친군민적 건물 이미지의 연출
- 의회청사동
 - 주진입 공간으로 연결된 시민광장에 의회동 축을 둘러 군청사와 연계를 지움으로서 군청사와 조화된 의회의 상징적 특성을 갖게 한 형태 구성
 - 수직과 수평선이 강조된 의장계획으로 신뢰감과 상징성 부각
- 민원실부분
 - 청사의 1층 중앙에 설치하으로서 전체 업무의 연계성 고려
 - 민원휴게실의 상부에 천장을 둔 형태를 취함으로 민원실의 상징성 제고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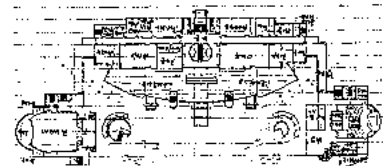
- 민원실 및 대회의실은 이용빈도가 많은 장소로서 충고를 높게 하여 공공적인 성격을 강조
- 피로티의 적극적 이용 : 공간, 시각, 행위의 연속성 부여 자연채광을 적극적 이용한 단면계획
- 층별기능에 따른 연계성을 고려한 Open Space의 확보
- 토지굴착의 최소화로 경제성을 고려한 단면계획
- 경사지를 이용한 시설을 배치로 시각적인 개방감, 상승감 부여
- 사무자동화(O·A) 및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충고계획(4.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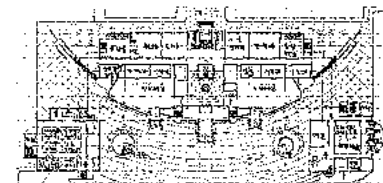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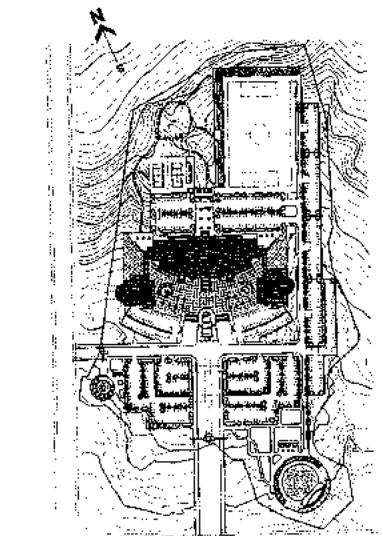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계획작품 blueprint

송파동 D빌딩

진양호동대

서해수산업연구소

송파동 D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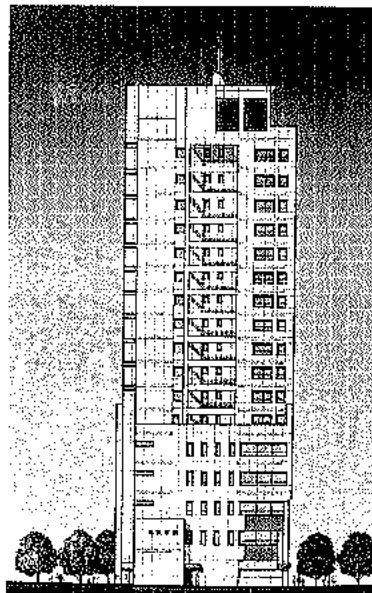
D Tower Bldg, Songpa-dong, Seoul

이병윤 / (주)도기종합건축사사무소



투시도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7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도 시설계지구
대지면적	886.30㎡(268.1평)
건축면적	457.94㎡(138.53평)
연면적	9,127.29㎡(2,760.99평)



동측입면도

건폐율	51.67%
용적률	639.76%
조경면적	212.01㎡
공개공지	50.87㎡
용도	주거겸용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7층, 지상17층, 옥탑2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24 컬러복층유리+30 화강석 +3 알미늄 쉬트
주차대수	60대(장애인주차2대)
오피스텔	19평형~43평형, 49실

호수와 건축

호수는 조용하고, 넓찍하며 편안하다. 더구나 도심의 호수는 주변 건물의 굴곡에 비추어 안락감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 계획부지는 석촌호수를 마주하고 송파대로(50m도로)와 석촌호수길(25m도로)이 교차되는 모서리로서, 호수 주변의 배타적 건축물과 달리 그 내·외부공간이 어떻게 호수와 교감을 갖을 수 있는가에 프로그램을 맞추었다.

주요도인 오피스텔 부분은 6층 이상 중·고층부에 배치하여 호수 경관을 끌어들이고, 저층부는 호수를 대면할 수 있도록 플랫톱 스타일의 매스를 계획, 기반부를 형성하는 기둥을 디자인 하였다. 수평띠의 외관계획에 비례적 안정감을 주는 수직 기둥의 요소는 디자인

인 모티브의 상층이라는 면도 없지 않으나, 상반된 요소를 비례적 조화로 유도하였다.

건축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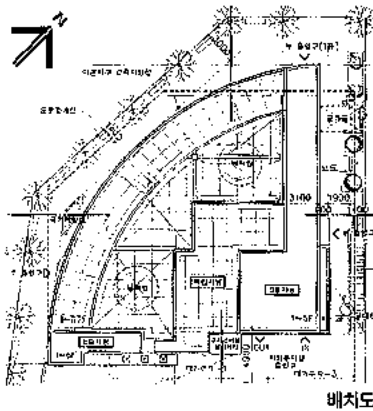
건축은 행위나 활동을 제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유도할 수도 있다. 건축공간이 혼돈이 아닌 질서로 정립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완벽한 짜맞춤 공간에서 오는 질서정연함은 현실적인 건축법규의 테두리로 또 한번 아찔함을 엿볼 수 있다. 도시설계지구에 적용되는 몇가지 제한요소들은 아무개 건축가의 창의적인 틀을 벌써부터 짜놓고, 거기에 고개만 내밀어 넣으라는 식이다. 계획부지에 법규와 지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배치계획이 끝나버리는, 어쩌보면 참으로 싱거운 대안에 매달려 황당한 꿈을 접근시키곤 하지만 그래도 건축의 Context에 따른 질서를 유도하고 나면 기쁨은 나름대로 있는 것 아닌가.

4분원형 평면을 어찌어찌하여 완성하고 보니 이제 이 단순한 매스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건축가로 하여금 이제는 조각가로의 변신을 유도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건축은 기쁨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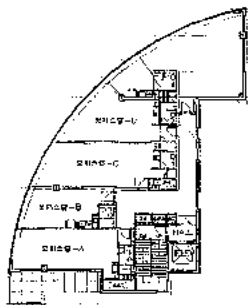
낮의 건축 밤의 건축

도로에서 보는 건축은 어떨까. 키 높은 건물은 주변환경을 닫고 일어서 멀리서도 인식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면이 파사드 효과를 갖기 쉽다. 교차로 모서리에 위치한 잇점을 살려 조금은 다른 형태의 파사드를 연출해 보았다. 호수를 대면하는 교차로쪽에 곡면의 가냘픈 부드러움에 비추어, 남·동측 입면은 고층 건물이 갖는 세장효과를 완충시켜주는 장방형 사각 모듈을 반복시킴으로써 묵직한 안정감을 주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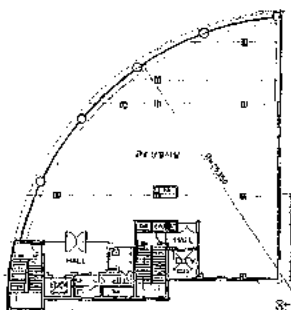
호수의 낮과 밤은 어떨까. 청색 칼라 유리는 호수를 더욱 맑게 반사시킬 것이고, 호수는 밝은 화강석 틀에 갇힌 건물을 거울처럼 안아줄 것이다. 밤이 되면 오피스텔의 야경은 수평띠의 빛으로 호수를 출렁이게 할 것이며, 밤의 건축은 빛으로 그 애깃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밤이 다 지새우도록... (글/이병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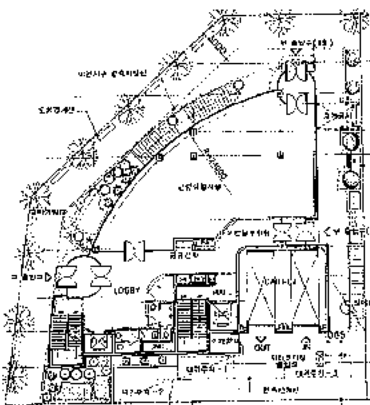
배치도



7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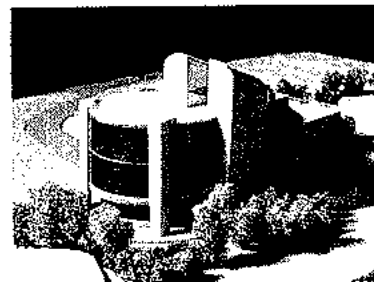
진양호 등대

Jinyangho

김근성 / 토담건축



모형1



모형2



모형3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판문동 산21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523.0㎡
건축면적	415.57㎡
연면적	1,130.42㎡(지상층연면적 : 1,058.42㎡)
건폐율	16.47%
용적률	41.9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3.05m
조경면적	법정(1,009.2㎡, 40%), 설계(1,200.36㎡, 47.58%)
주차대수	법정7대, 설계7대

설계참여 김춘구, 강태호

모형제작 이종록, 전봉수

진주의 명소 진양호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허전함이 있다. 천혜의 자연은 만날 수 있으나, 조화된 건축물을 찾기는 쉽지 않아 건축인으로 항상 아쉬움을 담고 있었다.

인연이 있었다! 박사장과와의 만남.

진양호 입구에 방문객과 전원의 향취를 원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건축물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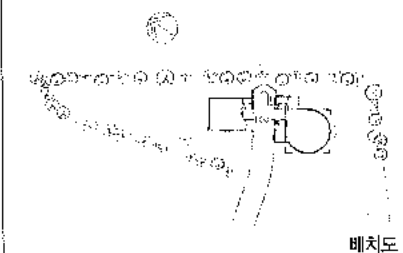
건축주의 요구는 '좋은 건축물'로 설계자를 많은 고민 속으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입지적으로는 Landmark 기능을 수행하고, 건축적으로는 모임의 장을 제공하는 건물로 서쪽으로 12m 도로에서 6m 접근로를 통해 공원지역을 통과하면서 얻은 야외의 경쾌함은 1층 전시실로 관입되고, 전시실은 외부경관을 차경(借景) 삼아 자신의 모습을 살며시 보여주고 있다. 개방된 계단은 여인의 어깨를 맞대고 주변을 관람하여 목적지까지 무리없이 도착하기에 충분하다. 2, 3층의 원형부분을 시각적 경관 확보와 공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12m Span과 ㄱ형기둥을 사용하여 해결했으며, 외형을 기둥으로 수직선을 강조하고, 창호로 수평의 감을 주어 안정감을 부여했다.

요즈음 박사장은 "좋은 건축물"을 요구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설계자를 믿어주는 모습에...

올 가을에는 진양호를 나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 한 잔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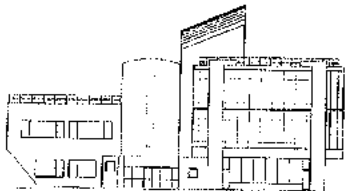
(글 / 김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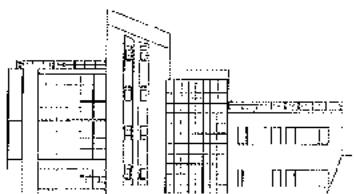
배치도



우측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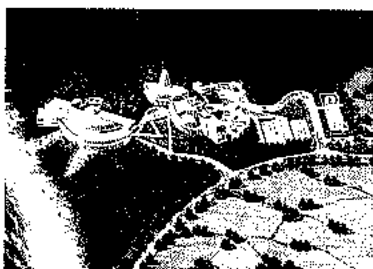


배면도

서해수산연구소

The We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김경택 / 다인건축



조감도

대지면적	38,330㎡
건축면적	2,832.9㎡
연면적	5,166.7㎡
건폐율	7.39%
용적률	13.6%
규모	본관 및 어업자원동, 증식동/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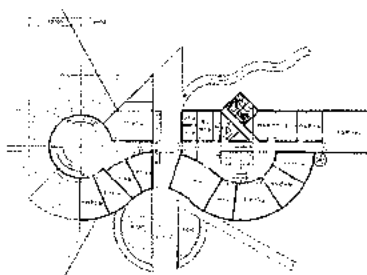
설계소모

대지는 섬이다. 섬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골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를 연구하는 곳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리해야 할까. 녹지는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 경관은 더할나위 없이 좋다. 두 건물은 쌍을 이루고 있다. 입방체와 곡면체가 부딪히면서 매스가 생성되지만, 동일한 원리로 다른 형태의 두 건물이 빚어지고 있다. 한 동은 대지의 경사가 직각으로 놓이며 축을 만들고 또다른 하나는 대지와 평행하게 놓이며 축을 형성한다. 그러나 두 건물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대지의 경사를 따라 휘어진 진입로를 따라 본관 필로티에 서면 서해바다가 펼쳐지며 연못 위에 놓여진 다리를 지나 엇비슷하게 자리한 증식동이 눈에 들어온다. 각 건물들은 지붕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을 머금고 있다. 연구원들은 계단으로 또는 경사로로 움직이며 다양한 공간 체험을 할 수 있다. (글/김경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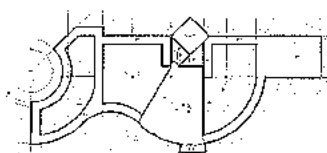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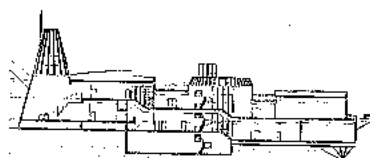
본관 및 어업자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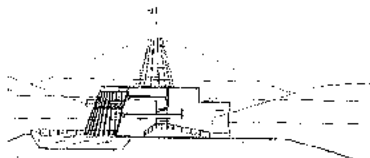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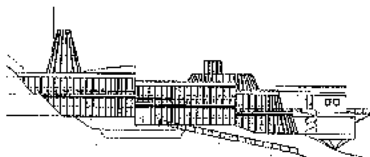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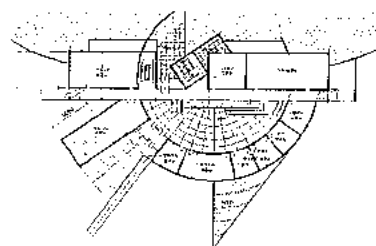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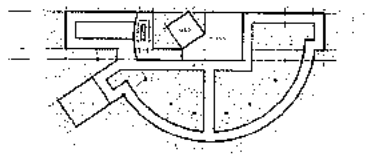


A입면도

증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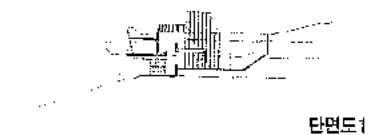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입면도



단면도1



단면도2

건축문화

a+u

신건축

Domus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97년 7월호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건축가 키시와로(岸和郎)의 건축이 주제로 소개되었다. 프로젝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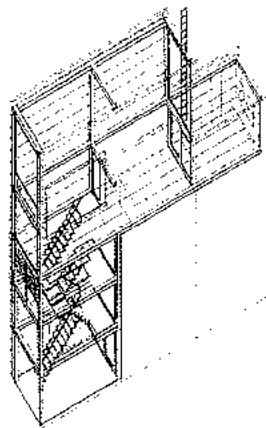
최근작, 과거의 작품으로 나뉘어 소개된 그의 작품은 각각 미래, 현재, 과거를 의미하며 이는 또다시 구상과 실현이라는 그가 생각하는 건축의 두가지 모순된 측면의 표현이기도 하다.

■키시와로의 건축세계

▶키시와로

교토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키시와로가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혼바시의 주택(日本橋の家)이 일본건축가협회로부터 1996년에 상을 받았을 때이다. 그의 절제되고 원칙에

입각한듯한 건물의 분위기는 미니멀리즘과 초기 모더니스트의 건축, 그중에서도 미스 반 데로에의 건축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는 모더니스트 전통의 무비판적 수용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소화함으로써 모더니즘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나혼바시의 주택(키시와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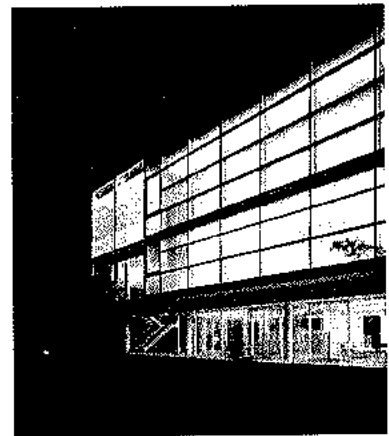
▶構想/實踐 - 키시와로

키시와로는 건축의 계획안과 실현된 안들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은다. 계획안은 꿈과 같은 것으로 이는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혹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완성된 안이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계획안이 갖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실현된 안은 과잉의 상태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빌라 사보아의 초기의 계획안들은 교외의 빌라의 프로토 타입의 제시에 창조적 거의 모든 힘이 집중된 반면 완성된 작품에서는 흰 벽면의 의미라든가, 슬로프와 계단이 만들어내게된 공간의 중심성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공간과 재료에 관한 이슈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건축은 이 '결핍'과 '과잉'의 두 모순된 상태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계획안과 최근작, 과거의 작품의 세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진 그의 작품소개를 통해 그의 conception/ praxis 개념이 표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작 - 야마구찌대학 의학부 창립50주년 기념관

20년전 동창회의 후원으로 조성된 일본

식 정원의 오른쪽에 이 기념관이 마련되었다. 전통 일본식 정원과 키시와로의 순수한 기하학적 건물은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절제되고 다듬어진 일본 정원의 미감과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야마구찌대학 의학부 창립50주년 기념관

▶과거의 작품 - 나혼바시의 주택

이것은 극소의 부지에 만들어진 주택이다. 폭 2.5m, 길이 13m의 건물로 1층에서 3층까지의 층고는 가능한 낮았으며, 대신 4층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식당의 층고를 6m로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테라스, 즉 옥외공간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이 건물은 부지의 길이방향뿐 아니라 수직방향으로도 확장하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식당과 테라스를 합하여 30제곱미터밖에 안되는 공간이지만 도시의 번잡함에서 격리된 부유하는 생활 공간을 가지며 이것이 또한 자연과 닿아 있다는 것이 이 주택의 장점인 것이다. 이는 근대건축들이 발명해낸 옥상정원이라는 유산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의 모습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 하겠다.

a+u

97년 7월호

이번호에서
는 특집으로
인도의 건축
가 Balkris-
hna Doshi
가 소개되었
다. 그는 르
코르뷔제와



칸의 인도 프로젝트에서 협력건축가로
활동하면서 인도의 대표적 건축가로 자
라잡았다. 그의 대표작들과 그와 나눈 르
코르뷔제와 칸에 관한 인터뷰가 실렸다.
그외에 '빅토리아城신화 - 홍콩중경의
기원과 변천'과 연재기사 30년대의 영국
근대 주택 제1편이 게재되었다.

■특집 - Balkrishna Doshi



Balkrishna Doshi

1927년 인
도 푸네생.
1951년에
서 57년까
지 르 코르
뷔제의 상디
같이 아메
다바드의 프
로젝트에 종

사하며, 시니어 디자이너로서 파리나 아
메다바드의 아틀리에에서 르 코르뷔제와
함께 일함. 그 후 그는 아메다바드에서
그의 자음 뱅켈저택을 실현시킨 이후 주
택, 오피스, 교육시설 등 다양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Doshi는 건축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 설립자로서 인도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최근 1995년에는 아가
칸(Aga Kahn)상을 수상했다.

그는 르 코르뷔제와 루이스 칸의 협동
작업에서 느낀 두 거장에 대한 그의 생각
을 묻는 각각의 인터뷰에서 르 코르뷔제
를 'The Acrobat of Architecture'로
루이스 칸을 'The Yogi of Archite-
cture'로 표현하였다.

▶후미히코 마키에 의한 Introduction

Doshi는 르 코르뷔제와 함께 일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을 항상 표해왔다. 그러나
코르뷔제로부터 배우려한 것은 그의 건
축의 형태가 아닌 그가 지닌 정신이었다.
초기에는 Doshi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코르뷔제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고 있다. 도시는 인간이 무한히 우주로
의 확장을 할 수 있게됨으로써 기존에 갖
고 있던 또하나의 정신적 우주-마이크로
코스모스-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물질 내면에 있는
존재적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Doshi의 최근 10년간의 작품에는 조용
하면서도 엄숙하게 인도라는 지역과 공
간문화에 걸친 근원적인 문제들을 제기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아시아
의 정신이 스며있는 것이다.

▶작품

L.D. Institute of Indology(1957-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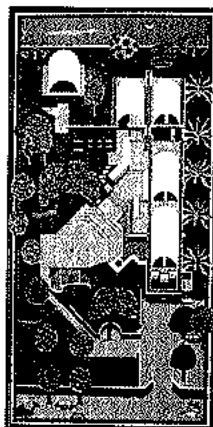


1950년대 중반 자이나교의 수도승으로
부터 고대사본등의 컬렉션을 기증받음으
로 인해 시작된 미술관의 계획은 교육·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결국 인도학 연구
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인도에서 전통
적으로 고문서는 사원의 지하에 보관되
어졌다. Doshi는 새로운 건물에서 고문
서를 반지하층에 보관하기로 하고 주위
에 연못을 만들어 이에 반사하는 빛을 이
용하는 간접채광의 방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공조설비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물은 지상에서
반 층 높이로 솟아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도시는 아메다바드의 오래된 자이나교의
사원 아파슈라야를 염두해 두었고 여기

에 코르뷔제의 아메다바드에서의 프로젝
트인 빌라 쇼단에서 쓰인 콘크리트의 파
라솔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밖에 구지라트 전통건축의 요소
인 깊은 차양, 테라스, 열주와 같은 요소
를 도입하여 인도의 기후에 적합한 형태
를 만들어 내었다.

▶Sangath, Architect's Studio (1979-1981)



스케치

상가스(인도
어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나아가
다는 뜻)는 건
축 혹은 계획
에 관련된 미
술, 기술예술
분야의 활동
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따라서 건축설계사무소외에 각종 강
좌나 세미나의 공간이 불가결하였다. 작
가는 상가스의 다이내믹한 취지에 맞는
다이내믹한 건물구조를 이룩하며 전통적
공간에 새로운 차원을 부가하여 그 대조
에 의해 야기되는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
는 장소로 의도하였다.

신건축

97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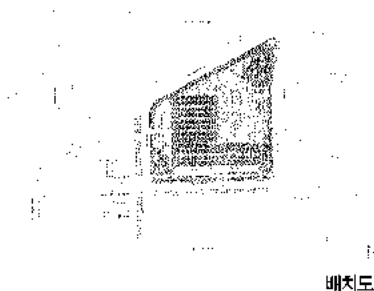
이번호에서
는 계획안으
로 안도 타
다오의 '포
트위스 현대
미술관'이
소개되었으
며 작품으로



는 후마히코 마키의 '바람언덕의 화장장'과 세지마 카즈요의 '쿠마노고도(熊野古道) 나카헤찌 미술관'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 계획안

▶ Morden Art Museum of Fort Worth(안도 타다오 설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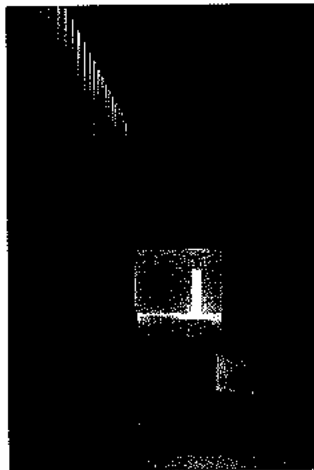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워스시에 이전·신축하는 현대미술관에 안도 타다오의 안이 최우수안으로 선정되었다. 사이트는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위치이며 킴벨미술관의 질서를 기조로 하는 건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대한 사이트 전체를 미술관으로 생각하여 미술을 침착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 '예술의 숲'이라고 이름지었다. 콘크리트를 유리로 감싼 이중구조의 직방체 6열이 평행으로 배치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교차점쪽으로 숲을 조성하며 그 사이에 못을 두어 물과 녹지로 둘러싸여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옆 킴벨 미술관의 구성을 충분히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6열의 직방체는 긴 2열의 공동공간과 짧은 4열의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진다.

■ 작품

▶ 바람언덕의 화장장(후마히코 마키 설계)

동물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본능적 특성이 있듯이 사람들도 태고의 시대, 같은 공간감을 당연 공유하였다. '죽음'에 대한 의식도 역사속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공간화되어 동시에 그것은 종교관과 깊은 관계를 맺고있었다.

현대의 도시화된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 인간의 죽음은 화장장이라는 '시설'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병원, 커뮤니티센터



告别室 내부

등에서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화장장의 프로그램이상의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그램에 대응한 제공간의 구분론으로서 그들을 초월하는 화장장에 맞는 공간원리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가는 '엄숙성'과 '정숙함'의 감정을 포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떠나는자와 남는자와의 이별의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로서의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 화장장에서 공간의 흐름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내부는 조잡한 장식을 제거하고 자연광과 벽의 텍스처를 통해 앞서 작가가 의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연재

▶ TOKIO 계획 1997 - project-07

知的 산업특구(Info - Industrial City): 창조를 위한 혼돈과 생산을 위한 합리가 병치된 산업특구구상이다. 20세기의 산업은 더욱 창조적으로 변질하여 21세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지적 산업도시의 풍경이 동경에 출현한다.

Domus

97년 4월호

4월호는 시대와 분야를 초월하여 존재해온 역사성과 근대성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창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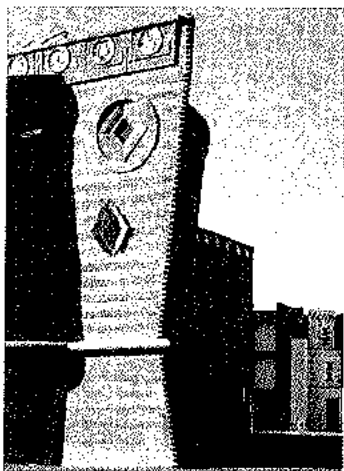
감상 행위에 있어서 역사와 기억의 의미를 탐구해보고 그것이 건축의 요소로 구체화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 근대성과 역사성

17세기의 신구논쟁에서부터 역사성과 근대성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근대운동, 특히 미술과 건축계의 근대운동들은 과거 역사로부터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단절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과학분야에서 아인슈타인에 의해 단선적인 시간 개념이 파괴되면서, 과거에 대한 현재의 우월성이라는 근대운동의 지지 기반은 흔들리게 되었다. 과거는 현재의 뒤편만 아니라 앞에 존재함으로써,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모던은 Boullée와 Ledoux의 신고전주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30년대 이탈리아 건축의 신고전주의,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성향의 반복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공식적인 명칭과 평가를 받지는 했으나, 고정된 개념 내에 갇히게 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대립 또는 역사주의와 같은 단정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치 아르누보 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술과 그 발전 과정의 자기현시에 집중함으로써 대립된 개념 사이의 종합을 추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Deleuze와 Guattari가 말한 'plateau', 즉 과거나 미래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작품

건축과 이상을 관계맺고 판단하는 문화적 전통에는 언제나 기억, 역사의 문제가 개입한다. 모든 건축행위는 환경과 함께 역사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거주'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명확한 기억 단편들의 습득을 필요로 한다. ▶티치노 지방 마을의 지역적 전통을 살린 재료를 사용한 Raffaele Cavadini의 이라나 행정본부, ▶독일 함부르크 상업지역의 개발 초기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건축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자 한 Carsten Roth의 공장계획, ▶로렐로 지방의 엄격한 디자인 모티프 제한에 새로운 개구부 계획을 적용시킨 Jos Luis Mateo의 공동주거, ▶고전 미술관에 근대적인 형태의 확장부를 조화시킨 Henning Larsen의 덴마크 코펜하겐 칼스버그 글립토크 증축안, ▶건축에 대한 장인의 응용미술적 접근이 아직도 느껴지는 Marco Dezzi Barde-schi의 몬테루포 헬스센터 및 노인주거 등은, 과거의 다양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그것을 현대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예들이다.



몬테루포 헬스센터 및 노인주거(Marco Dezzi Barde-schi)

■ 디자인의 전시에 대하여

디자인 제품 자체의 평가를 떠나 그것이 미술관 등에 전시되는 방법은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런던, 파리, 밀라노의 세 전문가가 디자인의 전시 체계와 방법에 대한 의견과, 전세계의 디자인 미술관에 대한 목록이 게재되어 있다.

■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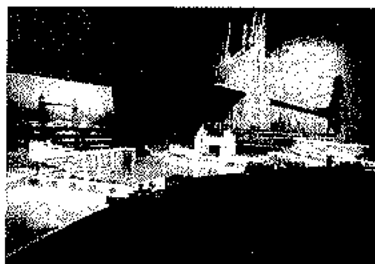
▶1937년 국제예술·기술박람회의 60주년을 맞아 30년대 유럽의 건축을 재고해본 파리 '30년대-건축 및 공간예술: 산업과 항수 사이에서' 전시회, ▶이탈리아 근대건축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Luigi Figini, Gino Pollini(1927-1991) 건축전을 평가하였다.

■ 신예 예술가

▶카드보드를 접착제 없이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 접어 가구를 만든 일라노 디자이너 Marco Giunta,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인간애를 탐구하는 불가리아 예술가 Kalin Serapionov, ▶건축,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예술, 테크놀로지의 영역을 규합하여 역사의 의미를 복원하는 동시에 그것의 기술적, 문화적 영향을 모색하는 F.A.B.R.I. CATORS group의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대중문화와 미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건축, 가구, 인테리어, 일용품 등 다양한 영역의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Nigel Coates의 작품세계 ▶Norman Foster의 '건축적'인 의자 디자인, ▶이탈리아 포르토 지방의 근대건축 소개와 위치도, ▶새로운 가구제품들에 대한 소개, ▶신간소개, ▶가상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Nigel Coates의 'Mostra Living Bridges'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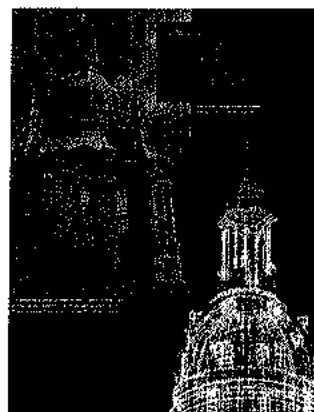
Architecture

97년 5월호

5월호는 컴퓨터 기술이 건축계에 미친 영향과 의미, 그리고 그 사용의 각종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디지털 세계



CATIA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복원한 18세기 바로크 교회

컴퓨터 기술은 이제 건축가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설계절차, 나아가 설계에 대한 접근과 건축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중재하는 건축의 물질보다는 인간의 신경조직과 연결되는 전기기구의 비중이 커져가는 것은 건축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제시하는 무한한 가능성은 염세주의 속에서 건축이 이상과 꿈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것의 현실화 또한 촉진시켜 주고 있다. 건축계의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컴퓨터 연구실과 사이버 카페 설계의 모범적인 사례, ▶Meyer Scherer & Rockcastle의 독창적인 '정보 목장' 설계, ▶각종 디지털 미술관, 시뮬레이션, 연극 세트에 적용된 건축가의 가상공간

설계, ▶건축가들이 추천하는 각종 디지털 제품들, ▶Autodesk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과 최고 경영책임자 Carol Bartz와의 인터뷰, ▶CAD 사용과 생산성 향상 여부에 대한 분석, ▶CATIA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18세기 바로크 교회의 복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관련 제품 등이 소개되어 있다.

■ 포트 워스 현대미술관 설계경기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안도타다오家

스위스의 Herzog & de Meuron, 일본의 Yoshio Taniguchi, 스위스 태생의 Bernard Tschumi가 최종 경쟁안으로 선정되었던 뉴욕 MoMA 증축계획 이후, Louis Kahn의 킬벌 미술관 건너편에 건설될 포트 워스 현대미술관의 설계경기에서는 일본의 Tadao Ando가 제시한 계획안이 당선되었다. 연못을 도입하여 하늘과 조화시킨 가운데 투명한 벽면을 따라 진행되는 동선을 가진 2층의 L자형 평면을 지닌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들은 미국 현지와 우수한 건축가들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근대 스타일의 건축가들을 택함으로써 근래 미국 건축이 보여준 개성적인 형태 실험 역시 폐기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는 미국의 문화적 열등감이 낳은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미국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많은 미술관 계획을 수행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더 이상 건축이 문화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며, 외부인에 의해 맥락, 역사, 정체성이 새로이 해석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 기타

▶Frank O. Gehry & Associates가 새로이 인테리어를 계획한 캐나다 몬트리올 장식예술 미술관, ▶Zaha M. Hadid의 오스트리아 빈 육교 건물계획, ▶알루미늄 쉬트 단열 패널의 특성, ▶미국의 건축관련 전시회, 세미나, 설계경기 스케줄 등을 다루고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97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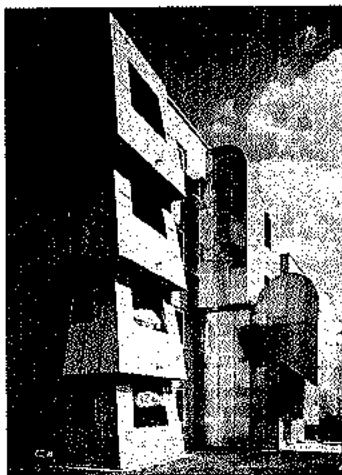
6월호는 규모나 특성 등에서 개인적인 분야로 다소 간과되어 온 주택 문제를 재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험되어온 공업화 주택 및 공동



주거 계획안들을 살펴보았다.

■ 주택

50, 60년대의 공업화 공동주택은 대부분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지난 20년간 전통적인 단독주택의 형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동주택 (Frank O. Gehry & Associates 作)

태로 복귀한 주택들이 건설되어 왔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구밀집, 선진국의 핵가족화에 따른 양적인 부족현상은 주택정책에 있어 공업화된 대량 생산의 필요성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공업화 주택들의 가능성이 꾸준히 탐구되어 왔으며, 밀집성, 시공비 절감, 공기단축, 유동성 등 새로운 기준이 부여된 공동주택 계획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밀집성은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지양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공비 절감은 제작업체보다는 건축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기단축 역시 정부의 장기계획 투자가 수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0, 60년대와 오늘날의 공동주거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차이인 유동성은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생활패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환경의 대지에 적응하는 동시에 여러 스케일의 세대로 구성된 공업화 공동주택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과거의 계획들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모범적인 공업화 공동주거의 예들로 ▶건축의 생성 과정을 재고하게 하는 Schaudt Architekten의 독일 콘스탄츠 옹거할데 집합주거 ▶목재를 과감하게 사용한 Mahler Gunster Fuchs의 독일 노이엔뷔르크 주거, ▶Klaus Kada의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라이프니츠 노인주거, ▶프리패브 콘크리트를 새롭게 사용한 Helin & Siitonen의 핀란드 헬싱키 루오홀라티 주거, ▶Avanti Architects의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주거 ▶Edward Cullinan Architects의 영국 첼렌햄 학생주거, ▶RAJ Rewal Associates의 인도 뉴델리 영국대사관 주거 ▶Frank O. Gehry & Associates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동주거 ▶MacCormac Jamieson Prichard의 미국 캠브리지 트리니티대학 학생기숙사, ▶Masaharu Takasaki Architects의 일본 동경 주거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Le Corbusier의 유니페 다비다시옹 방문기, ▶런던 RIBA의 '모빌 건축전' 소

식, ▶런던 디자인 미술관의 '에로틱 디자인의 힘' 전시회 소식, ▶사이버 카페 인테리어, ▶정치적 우유부단과 분쟁으로 인해 런던 중심가에 생성된 공업지역에 대한 비판, ▶이탈리아 가구 전시회 Milan 97에 등장한 새로운 가구 제품들, ▶인도건축가 작품집(Charles Correa), <건축과 페미니즘>, <도심 재활성화> 등의 신간서적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6월호

6월호는 근래에 재활성화된 사무소 건축의 건설 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나아갈 방향과 모범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 사무소 건축계의 변화를 위하여
근래 미국 대도시에는 사무소 건설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대부분 특징 없는 단순한 박스형의 건물들이 주종을



독일 에센의 RWE AG 빌딩

이루고 있다. 제한된 자원을 갖고 개발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투자되는 비용도 적으며, 환경·에너지 등 많은 부분을 거주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재생성과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 연속기획 - 사무소 건축편

개발업자들에 의한, 경제성만이 강조된 사무소 건축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건축주와 사용자들은 보다 쾌적하고 특색 있는 사무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내 공간에 대한 지나친 위계를 파괴하면서 직원들간의 원만한 대화를 촉진시키는 오픈플랜은 생산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다양한 팀작업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적 유연성을 갖는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인 건축비의 한도를 크게 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모범적으로 충족시켜주는 ▶Miller/Hull Partnership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NW 페드럴 크레딧 유니언 건물, ▶Ingenhoven, Overdiek, Kahlen & Partner의 독일 에센 RWE AG 빌딩 ▶Cesar Pelli & Associates의 미국 오하이오주 콜레도 오웬스 코닝 본사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근작소개

▶뉴욕시 뉴암스테르담 극장

옛 사진들을 바탕으로 Hardy Holzman Pfeiffer에 의해 충실히 복원된 브로드웨이의 뉴암스테르담 극장은 아르데코 풍의 장식한 장식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예전의 예술적 경험을 다시 향유하게 해주고 있다. 이는 미국 각 지역에서 도심의 옛 명소를 재건함으로써 도시생활을 재활성화시키고 있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술관 원형극장 및 옥외 영화관

미국의 첫 주립 미술관인 노스캐롤라이나 미술관이 개최한 새 마스터플랜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건축 사무소 Smith-Miller and Hawkinson, 예술가 Barbara Kruger, 조경건축가 Nicholas Quennell의 공동계획안은,

회화나 조각 등을 전시한 요새 형태의 기존 미술관에서 벗어나 개방되고 비조각적이며 자생적인 미술관을 제시하였다. 그 첫단계로 건축된 원형극장 및 옥외 영화관은 넓은 대지위에 새겨진 알파벳 글자들과 간단한 철재 구조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과 건축의 새로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 제4회 컴퓨터 설계상

컴퓨터 기술이 건축가의 설계방향을 어떻게 변모시킬지를 예측하기 위해 4년전 시작된 ARCHITECTURAL RECORD의 컴퓨터 설계상에 대한 작년 수상작들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정지 영상 부문으로 나누어져 시상된 이 작품들에는 컴퓨터를 기술적인 차원 이상으로 승격시켜 새로운 설계방식을 제시했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건축의 상업적 판매 효과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기타

▶30대 건축가 두 명이 이끌고있는 Thompson and Rose Architects에 의해 수행된 미국 플로리다 주 아틀랜틱 미술회관 설계일지, ▶Tadao Ando가 당선된 포트 워스 현대미술관 증축안 설계경기 소식, ▶미국 오클라호마 참사 추모비 설계경기 소식, ▶미국 뉴욕에 개관된 마천루건축 박물관, ▶뉴욕 타임스퀘어 광경의 주인공인 광고 표지판들에 대한 에세이, ▶색이 첨가된 다양한 콘크리트 재료들,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문제, ▶사무소 시스템 관련 신제품 소개, ▶올 여름 미국의 건축관련 세미나 및 행사 스케줄 등이 다루어졌다.

<번역: 최원준, 강상훈>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6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 9백8십1만1천9백75㎡ 보다 4.9%(4십7만9천93㎡) 증가한 1천2십9만1천68㎡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6월 누계 5천7백4십6만7천3백63㎡ 보다 10.8%(6백2십2만3천26㎡) 증가한 6천3백6십9만3백89㎡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5월분 1천4백1십5만7천7백92㎡보다 27.3%(3백8십6만6천7백24㎡) 감소한 1천2십9만1천68㎡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4,345,825	4,509,292	163,467	3.8
부산	570,273	615,872	45,599	8.0
인천	277,001	432,851	155,850	56.3
광주	278,921	635,052	356,131	127.7
경기	1,233,492	1,516,564	283,072	22.9
강원	204,770	235,204	30,434	14.9
충북	257,138	314,848	57,710	22.4
전북	152,031	174,748	22,717	14.9
전남	192,551	214,901	22,350	11.6
감소지역				
대구	453,658	382,270	(71,388)	-15.7
대전	456,912	330,947	(125,965)	-27.6
충남	298,035	165,277	(132,758)	-44.5
경북	293,555	246,433	(47,122)	-16.1
경남	706,391	429,377	(277,014)	-39.2
제주	91,422	87,432	(3,990)	-4.4
합 계	9,811,975	10,291,068	479,093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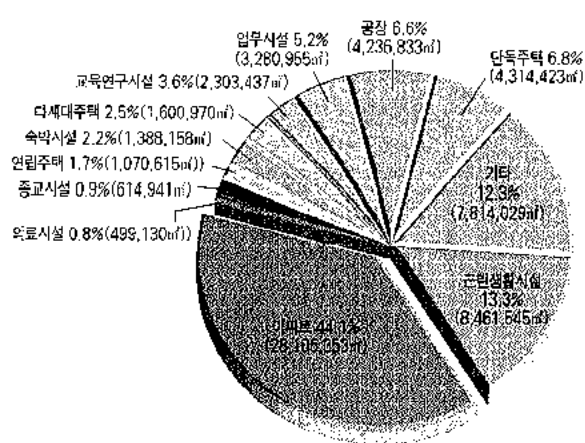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단독주택	671,188 (12.4%)	754,403	
다세대주택	329,474 (-9.7%)	297,550	
연립주택	305,638 (-30.9%)	211,164	
아파트			8,009,598 (-47.8%)
근린생활시설	1,402,143 (4.9%)	1,471,304	
종교시설	98,247 (-12.4%)	86,101	5월
의료시설	166,357 (-68.9%)	51,808	6월
교육연구시설	653,168 (35.8%)	419,961	연면적 합계 / 5월 : 14,157,792㎡
업무시설	545,009 (11.2%)	605,791	6월 : 10,291,068㎡
숙박시설	133,816 (99.9%)	267,519	
공장	696,503 (0.0%)	696,531	
기타	1,146,681 (8.7%)	1,246,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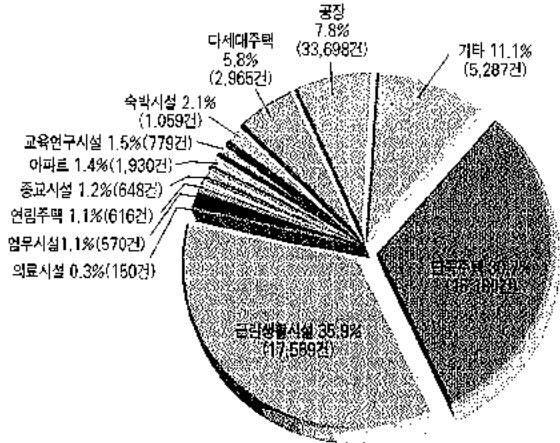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4,823	4,922	1,605,861	2,524	2,631	754,403	(2,299)	(2,291)	(851,458)	-53.0	
다세대주택	1,050	1,123	613,698	501	537	297,550	(549)	(586)	(316,148)	-51.5	
연립주택	133	136	180,814	111	122	211,164	(22)	(14)	30,350	16.8	
아파트	95	162	2,560,853	118	324	4,183,825	23	162	1,622,972	63.4	
근린생활시설	4,158	4,323	1,982,546	3,169	3,246	1,471,304	(989)	(1,077)	(511,242)	-25.8	
종교시설	116	139	81,160	110	114	86,101	(6)	(25)	4,941	6.1	
의료시설	32	46	233,502	28	30	51,808	(4)	(16)	(181,694)	-77.8	
교육연구시설	92	98	221,701	155	166	419,961	63	68	197,360	89.0	
업무시설	98	102	254,835	98	103	605,791	0	1	350,956	137.7	
숙박시설	138	147	220,151	223	237	267,519	85	90	47,368	21.5	
공장	706	902	806,832	768	1,011	696,531	62	109	(110,301)	-13.7	
기타	985	1,140	1,050,022	1,164	1,303	1,246,011	179	163	195,989	18.7	
합 계	12,426	13,240	9,811,975	8,969	9,824	10,291,068	(3,457)	(3,416)	479,093	4.9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6월 누계)



연면적 (총 63,690,389㎡)



건수 (총 47,680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177	3,180	4,345,825	1,258	1,259	4,509,292	(1,919)	(1,921)	163,467	3.8	
부산	838	1,065	570,273	276	474	615,872	(562)	(591)	45,599	8.0	
대구	904	905	453,658	463	463	382,270	(441)	(442)	(71,388)	-15.7	
인천	428	434	277,001	229	230	432,851	(199)	(204)	155,850	56.3	
광주	308	369	278,921	951	1,062	635,052	643	693	356,131	127.7	
대전	910	935	456,912	593	602	330,947	(317)	(333)	(125,965)	-27.6	
경기	2,199	2,384	1,233,492	1,775	2,005	1,516,564	(424)	(379)	283,072	22.9	
강원	507	549	204,770	513	586	235,204	6	37	30,434	14.9	
충북	432	479	257,138	455	516	314,848	23	37	57,710	22.4	
충남	321	285	298,035	304	250	165,277	(17)	(35)	(132,758)	-44.5	
전북	248	248	152,031	308	308	174,748	60	60	22,717	14.9	
전남	410	455	192,551	508	533	214,901	98	78	22,350	11.6	
경북	478	548	293,555	389	409	246,433	(89)	(139)	(47,122)	-16.1	
경남	1,062	1,195	706,391	755	889	429,377	(307)	(306)	(277,014)	-39.2	
제주	204	209	91,422	192	238	87,432	(12)	29	(3,990)	-4.4	
합계	12,426	13,240	9,811,975	8,969	9,824	10,291,068	(3,457)	(3,416)	479,093	4.9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6월 누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3,308	13,336	26,632,121	8,320	8,366	27,122,370	(4,988)	(4,970)	490,249	1.8	
부산	4,324	5,704	5,362,734	2,939	4,577	8,342,362	(1,385)	(1,127)	2,979,628	55.6	
대구	5,322	5,366	3,507,801	2,828	2,831	3,807,341	(2,494)	(2,535)	299,540	8.5	
인천	2,092	2,114	2,253,040	1,735	1,771	3,380,223	(357)	(343)	1,127,183	50.0	
광주	1,811	2,155	1,328,122	2,417	2,752	1,588,464	606	597	260,342	19.6	
대전	2,003	2,038	1,151,635	1,796	1,822	998,746	(207)	(216)	(152,889)	-13.3	
경기	10,166	11,170	6,306,311	9,079	10,194	6,142,521	(1,087)	(976)	(163,790)	-2.6	
강원	2,564	2,786	1,052,593	2,599	2,833	1,095,920	35	47	43,327	4.1	
충북	2,288	2,549	1,227,123	2,552	3,060	1,930,522	264	511	703,399	57.3	
충남	1,761	1,594	1,143,686	1,990	1,562	1,243,574	229	(32)	99,888	8.7	
전북	1,347	1,349	1,024,639	1,209	1,209	987,241	(138)	(140)	(37,398)	-3.6	
전남	1,923	2,125	953,234	2,056	2,219	1,153,825	133	94	200,591	21.0	
경북	2,652	3,251	1,456,266	2,443	2,697	1,201,281	(209)	(554)	(254,985)	-17.5	
경남	5,810	6,654	3,603,367	4,829	5,548	4,310,184	(981)	(1,106)	706,817	19.6	
제주	953	1,032	464,691	888	1,001	385,815	(65)	(31)	(78,876)	-17.0	
합계	58,324	63,223	57,467,363	47,680	52,442	63,690,389	(10,644)	(10,781)	6,223,026	10.8	()=마이너스